언론사: 세계일보-2-200.txt

제목: 전북대병원 ‘암환자에게 새 희망을’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개소  
날짜: 20170828  
기자: 김동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28031034001  
ID: 01100701.2017082803103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전북대병원이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구축하고 암 생존자와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에 돌입했다. <br/> <br/>27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암 생존작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본관 3층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개소했다. <br/> <br/>암 생존자는 암 진단 후 완치하기 위해 수술이나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 적극적 치료를 마친 사람을 의미한다. <br/> <br/>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정부가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전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 전주기에 걸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대병원 내 전북지역암센터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br/> <br/>센터는 이에 따라 암 예방사업과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호스피스사업 등 지역사회 암 관리 체계를 통합 구축하고 지역 암 생존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관리한다. 사업에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외에도 영양, 심리, 재활 등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다학제적 팀을 구성해 참여했다. <br/> <br/>우리나라 전 국민의 2.8%인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에 달하고 인구의 고령화와 의료 기술 발전으로 암생존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암 생존자는 일반인과 비교해 치료 후에도 재발하거나 후유증, 합병증, 직업상실, 불안, 우울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권영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장(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그동안 암 관리 서비스는 진단과 치료 위주로 이뤄다 보니 합병증과 관련한 증상관리와 정신적 문제,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에 한계를 노출해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생존자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span>”라고 말했다. <br/> <br/>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01.txt

제목: 여성암 사망률 1위 난소암, 2030도 17%… 방심은 금물  
날짜: 20170827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27204923001  
ID: 01100701.20170827204923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초기 증상이 없는 난소암은 사망률 47% 이상으로 여성암 중 사망률이 가장 높다. 그래서 치명적인 암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12년에 비해 2016년 발병률이 40% 증가해 환자 수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또 난소암으로 진료받은 20~30대 환자는 2012년 2388명에서 2016년 3145명으로 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난소암은 50~60대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 49%로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20~30대 젊은 여성이 17%를 차지해 모든 연령층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r/> <br/>난소암은 난소에서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 암이다. 난소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의 유형에 따라 상피성 난소암과 비상피성 난소암으로 분류되며, 다른 장기의 암이 난소로 전이된 전이성 난소암도 있을 수 있다. <br/> <br/>난소암의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확실한 위험 인자로 알려진 것은 저출산과 불임이다. 연구에 따르면 출산력이 없는 경우 4명 이상을 출산한 경우보다 난소암 가능성이 2.4배, 불임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불임 기간이 1년 이내였던 경우보다 난소암 가능성이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언급되는 난소암의 위험인자로는 가족력, 소아 청소년기에 과체중이었던 경우, 골반염과 자궁내막증의 병력 등이 있다. <br/> <br/>탤크(활석)가 전반적으로 난소암 발생 위험을 약 30%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최근 미국 법원은 존슨앤드존슨에 탤크가 포함된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다가 난소암에 걸린 여성에게 4억1700만달러(약 4745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br/> <br/>난소는 복강 내에 있는 장기로 자궁과는 달리 외부에서 직접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따라서 난소암의 최종 진단은 수술을 통해 이뤄진다. 다만 난소암이 의심될 때 수술 전 초음파검사, 내시경검사,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 및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받아볼 수 있다. <br/> <br/>김용욱(사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폐경 후 발견되는 난소종양은 약 30%가 악성종양(난소암)이나 폐경 전에는 약 7%에서만 악성 소견을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난소에는 일시적으로 생겼다 없어지는 종류의 낭종(물혹)이 많이 있지만 종양 내에 고형 성분이 보이거나 모양이 복잡한 경우 난소암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희원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2-202.txt

제목: ‘文케어’ 도입에 생활비 보장보험 관심 커져  
날짜: 20170827  
기자: 백소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27203447001  
ID: 01100701.2017082720344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인 ‘문재인 케어’ 도입에도 질병에 따른 ‘수입 공백’은 온전히 환자의 부담으로 남는다. <br/> <br/>이달 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향후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보장률은 63%에서 70%로 확대된다. <br/> <br/>이에 따라 직접적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점차 줄어들지만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생활비가 부족해질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br/> <br/>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암, 중대한 질병(CI), 장기간병(LTC) 보험 등의 정액 건강보험(질병보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들 보험은 병에 걸렸을 때 생활비, 간병비 등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이다. <br/> <br/>정액 건강보험은 발병 시 정해놓은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되더라도 보장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br/> <br/>예를 들어 치매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되면 환자는 병원에서 이뤄지는 치료비를 덜 내게 되고, LTC보험에 가입돼있을 경우 정해진 생활비나 간병비까지 받을 수 있다. <br/> <br/>일반적으로 LTC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일상생활장해상 1∼5급 가운데 중증인 1∼2급은 생활비와 간병비를, 경증인 3∼4급은 치료비와 휠체어 장비 구입비를 정액으로 보장한다. <br/> <br/>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돼도 의료비의 30%는 여전히 환자 본인과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의료기술의 발달로 중병에 걸려도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치료비뿐 아니라 큰 비용이 소요되는 간병에 대비할 보험을 미리 준비해놓는 게 좋다</span>”고 말했다. <br/> <br/>백소용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2-203.txt

제목: 젊은 여성 난소암 증가…"복통이 잦다면 진료받아야"  
날짜: 20170826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26102457001  
ID: 01100701.20170826102457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초기 증상이 없는 난소암은 사망률이 47%가 넘는 치명적인 여성 암이다. <br/>이에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난소암은 주로 50~60대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20~30대 젊은 여성에게도 급증하는 추세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난소암으로 진료 받은 국내 20~30대 여성 환자는 2012년 2388명에서 2016년 3145명으로 4년간 32% 증가했다. <br/> <br/>난소암은 여성의 난소에서 발생하는데 난소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의 유형에 따라 '상피성 난소암'과 '비상피성 난소암'으로 분류된다. <br/> <br/>이런 난소암은 아직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배란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난소 부위에 문제가 생겨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br/> <br/>저출산 현상도 젊은 층의 난소암 발병 증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출산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이 4명 이상 출산한 여성보다 난소암 발병 위험성이 2.4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외 난소암 위험인자로 가족력·과체중·골반염·자궁내막증의 병력 등이 꼽힌다. <br/> <br/>난소암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복부 팽만, 복통, 소화불량, 빈뇨, 체중 변화 등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증상들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br/> <br/>김용욱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난소는 자궁과는 달리 외부에서 직접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따라서 복통이 잦다면 산부인과 진찰을 기본으로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검사(CT)·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바람직하다</span>"고 조언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04.txt

제목: '미소천사' 이보미, 홀인원 행운에 하이원오픈 1R 공동선두  
날짜: 20170825  
기자: 안병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25142249001  
ID: 01100701.20170825142249001  
카테고리: 스포츠>골프  
본문: ‘미소천사’ 이보미(29)는 일본 여자프로골프(JLPGA)투어에서 2015년과 2016년 상금왕을 차지했다. 2015년에는 무려 7승, 지난해에는 5승을 거뒀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며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보미는 사연이 짠한 선수다. 본격적으로 활약하기 전인 2014년 10월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하면서 자신이 훌쩍 성장한 모습을 생전에 못 보여드렸기 때문. 이보미는 뒷바라지를 해준 아버지라는 말만 나오면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br/> <br/>하지만 이보미는 ‘스마일 캔디’라는 별명으로 더욱 유명하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입가의 미소를 잃지 않은 덕분이다. 빼어난 매너와 실력으로 정평이 난 이보미의 원동력은 다름아닌 ‘긍정의 힘’이었던 셈이다. <br/> <br/>이보미가 13개월 만에 출전한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향한 첫 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이보미는 25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CC(파72·6천516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1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를 잡고 보기는 1개로 막아 5언더파 67타를 쳤다. 이로써 이보미는 최유림(27)과 함께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리며 오랜만에 국내 대회 우승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br/> <br/>행운의 ‘홀인원’도 따랐다. 이번 대회는 첫날인 지난 24일 기상 악화로 경기가 중단되면서 1라운드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이보미는 전날 1번 홀(파4) 버디를 시작으로 9번 홀까지 1언더파를 친 뒤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1라운드 남은 경기를 재개했다. <br/> <br/>10번 홀(파4) 두 번째 샷부터 시작한 이보미는 12번(파4)과 13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각각 홀 2m 가까이에 붙여 버디를 잡으며 1타씩을 줄였다. 그리고 150야드(137m) 파3 14번 홀에서 티샷을 그대로 홀 속에 집어넣었다. 8번 아이언을 잡고 친 공은 홀 2m 앞에 떨어진 뒤 홀로 빨려들어갔다. 홀인원 부상으로 3천500만원 상당의 고급 침대세트가 주어진다. 단숨에 2타를 줄인 이보미는 17번 홀(파4)에서는 7m짜리 긴 거리 버디 퍼팅을 성공시키며 6언더파까지 치고 올라갔다. <br/> <br/>한편 공동선두 최유림도 버디 6개,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쳐내며 2013년 11월 ADT캡스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이후 4년 만에 두 번째 우승 사냥에 나섰다. <br/> <br/>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05.txt

제목: “진짜 삶이란 감추고픈 시간의 조각들 아닐까”  
날짜: 20170824  
기자: 조용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24202355002  
ID: 01100701.20170824202355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꺼진 지 오래된 모닥불에 불씨가 남아 있는 걸 보았다면, 아직은 불이 타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이후로는 절대 타오르지 못할 불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불이 나를 태우도록 두어야 할까, 아니면 물을 끼얹어야 하는 걸까?” <br/> 올 1월 갑작스럽게 타계한 소설가 정미경. 그네는 계간지에 마지막으로 연재한 장편에서 “<span class='quot0'>아름다움과 완벽함과 음악이라는 추상만으로 도달한 도저한 슬픔의 수위</span>”를 지닌 예술가를 그려냈다. <br/>민음사 제공 <br/>소설가 정미경(1960~2017)이 마지막으로 쓰고 간 장편 ‘가수는 입을 다무네’(민음사)에서 던진 질문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까. 마지막으로 타오를 불꽃에 몸을 맡길 텐가, 뒤로 물러나 속절없이 유혹하는 저 불꽃에 물을 끼얹을 건가. 어떤 예술가들에게는 죽음과도 맞바꿀 집념이 있다. 뮤즈만 찾아와준다면 죽음마저 얼마든지 헌납할 수 있는 이들. 보기에 따라서 그들은 불나방 같은 불행한 존재이지만 범속한 잣대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불이 꺼진 생은 지옥일 뿐이니까. 정미경도 그 마지막 불꽃에 자신을 태우고 떠났다. <br/> <br/>2014년 ‘세계의문학’에 연재한 뒤 흔히들 그러하듯 다시 매만져서 단행본으로 출간할 계획이었지만, 그것까진 수행하지 못한 채 올 1월 암을 발견한 지 한 달 만에 서둘러 떠났다. 그네와 같은 해에 태어나 먼저 요절한 기형도(1960~1989)의 동명 시를 제목으로 삼은 이 장편은 왕년에 사랑받는 가수였지만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칩거하다 마지막 노래를 부른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를 주인공으로 삼았다. 그의 이름은 ‘율’. 카페 아르바이트와 과외에다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갔던 엄마까지 챙겨야 하는 대학생 ‘이경’이 수업 과제로 다큐를 찍기 위해 ‘율’을 만난다. 이경이 마음으로 찍은 율에 관한 다큐가 이 소설의 뼈대다. <br/> <br/>얼터너티브록으로 시작해 블루스와 포크, 팝의 영역까지 아우르며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이루었던 ‘율’의 노래는 인디 후배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무무’라는 이름의 그룹으로 활동했지만, 그 외의 멤버들은 아무 존재감이 없었다. 격렬한 사랑을 받았던 그는 무대에서 멀어진 뒤 한낮에도 커튼을 쳐놓고 쉰밥처럼 삭아간다. 씻지도 않고 갈아입지도 않아 나는 퀴퀴한 냄새보다 성대를 다친 짐승의 신음처럼 잠결에 내는 울음소리가 더 처연하다. 그는 다시 노래를 쓰기 위해 꿈을 꾼다. <br/> <br/>“다른 꿈을 꾸고 있어, 요즘은. …시간을 짐작할 수 없는데 붉은 하늘에서 음표들이 쏟아져 내려와. 눈송이처럼 많은 음표들이. 처음엔 먹새의 군무처럼 보이는데 지표 가까이 내려오면 그것들은 사슴으로 변해. 온통 초록의 사슴 수천수만 마리가 바로 내 가슴을 스칠 듯 달려가는 것을 황홀하게 바라보았어. 뿔만이 불꽃처럼 붉게 타오르는 초록 사슴들을.” <br/> <br/>아내 ‘여혜’는 “노래를 만드는 일은, 잠에서 깨어난 샤먼이 막 꾸었던 꿈을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과 비슷”하고, “꿈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꿈을 꾸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잠들어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며 “눈을 뜨고 잠이 든다는 건, 사람들한테 꿈을 들려주어야 하는 자들에게 신이 허락한 고통스러운 특권 같은 거”라고 율을 보듬는다. 다큐를 찍는 이경에게 율은 조금씩 마음을 열지만 그네가 촬영한 것들은 수시로 “이건 내가 아니다”는 호통과 함께 지울 것을 강요받는다. 10년째 칩거한 그를 부추겨 록페스티벌 무대로 끌어내는 젊은 호영. 율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그와 함께 무대에 섰다가 스러진다. <br/> <br/>이경에게 다큐 촬영 과제를 준 ‘쌔까맣고 삐적 마른’ 선생 ‘쌔삐’는 “삶에는 점프 컷이 없다”고 말했다. “‘인간극장’이 누군가의 삶의 한 토막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고. 시퀀스와 시퀀스 사이엔 사정없이 잘려 나간 삶의 조각들이 쌓여 있다고.” 그러므로 “진짜 삶이란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시간의 조각들, 잘려나간 그 아웃테이크에 있을지 모른다고.” ‘율’의 진짜 삶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가 무대 아래서 고민하고 누린 사소한 편린들이야말로 과연 생의 다른 음을 연주하는 또 다른 노래였을까. 그는 말했다. “좋은 생은 나쁜 노래를 만들어. 나쁜 생은 좋은 노래를 만들고. 그 둘을 다 겪은 사람만이 위대한 노래를 만들 수 있지.” <br/> <br/>정미경은 록페스티벌에 모여 펄펄 뛰는 이들을 보면서 소설 속에서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이것들이 미쳤구나. 아름답게 미쳤구나.” 소설을 채굴하기 위해 날마다 반지하 작업실로 광부처럼 향하던 정미경. 그네가 부르고 떠난 마지막 노래는 좋은 생도 나쁜 생도 아닌, 찬란한 삶을 기리는 송가였다. <br/> <br/>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06.txt

제목: '천사에서 악마로~DDT의 추억'…이, 뇌염 퇴치 1등공신서 판매금지· 살충제 달걀 왜?  
날짜: 2017082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24081043001  
ID: 01100701.20170824081043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위생상태가 불량하던 1950년대 초반, 발진티푸스를 옮기는 이를 죽이기 위해 DDT를 직접 몸에 뿌리는 모습.  피프로닐, 베펜트린 등 살충제 성분이 든 달걀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젊은 세대에겐 생소한 DDT까지 등장했다. <br/> <br/>경북의 일부 닭농장 달걀과 닭에서 절대 나와선 안될 DDT성분이 검출됐다.  <br/> <br/>농장주는 "DDT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며 억울함과 분통에 주저 앉았다. 전문가들은 40여년전 과수원 해충박멸용으로 사용한 DDT가 땅에 스며들어 지금까지 잔류성분이 남은 결과(땅이 흙, 모래를 먹고 달걀로 연결)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br/> <br/>사실 DDT는 1960년대까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익숙한 고마운(?) 존재로까지 여겨 졌다. <br/> <br/>▲ 이, 모기 잡는 특효약에서 38년전인 1979년 판매금지 돼  <br/> <br/>위생상태가 불량하던 시절 이는 큰 골치거리였다.  이는 사람 피를 빨아 먹고 티푸스를 옮긴다.  가렵고 습진이 생기게 만들지만 워낙 작아 잡기가 까다로웠다. <br/> <br/>오죽 잡기가 힘들면 '이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까지 나왔을 까.  <br/> <br/>이러한 이도 DDT(디클로로 디페닐 트라클로로에탄)앞엔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br/> <br/>DDT는 유기염소계열의 살충제로 이가 옮기는 티푸스나 모기에 의한 말라리아 퇴치 특효약으로 한 때 전세계적을 각광을 받았으나 치명적 부작용이 밝혀짐에 따라 퇴출당했다. <br/> <br/>우리나라에서도 1979년 판매금지된 이후 일부 화학실험실에서나 희미하게 존재를 찾을 수 있다. <br/> <br/>▲ DDT 사용법으로 노벨 생리학상까지 <br/> <br/>DDT는 1874년 자이들러(O.Zeidler)가 처음 합성됐지만 자세한 효능은 알지 못했다. <br/> <br/>1939년 스위스 과학자 뮐러(P. H. Muller)가 강력한 해충 박멸효과가 있음을 밝혀냈으며 이 공으로 뮐러는 194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br/> <br/> 2차대전 당시 미군 훈련프로그램 중에는 DDT 사용법도 있었다.  ▲ 2차 대전때 미군, DDT 사용 홍보까지 <br/> <br/>이가 옮기는 발진티푸스는 사망률이 20% 정도에 이르는 치명적 질병이었다. <br/> <br/>1915~1922년 사이 러시아 지배아래 있었던 동폴란드에서 3000만명이 발진티푸스에 걸려 300만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였다. <br/> <br/>2차 세계대전 때 난민수용소, 포로수용소, 감옥 등 사람들이 밀집되고 위생상태가 나빴던 곳에 발진티푸스가 유행했다. <br/> <br/>DDT가 이(爾)를 죽여 티푸스를 예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미군은 포로수용소 등지에 백색가루인 DDT를 분말, 액상  형태로 뿌려댔다. 또 DDT를 몸에 뿌리는 방법까지 교육했다.  <br/> <br/> 항공방제 장면. 말리리아를 옮기는 모기 박멸에 DDT이상가는 약이 없기에 DDT 제한 사용이 일부 연구되기도 했다. ▲ 뇌염 나돌자 정부가 나서 미군에 'DDT 항공살포' 호소 <br/> <br/>1949년 여름 유행성 뇌염이 전국을 휩쓸자 보건부는 'DDT를 뿌려 달라'며 주한미군에 요청했다. <br/> <br/>1949년 9월 10일자 동아일보는 "<span class='quot0'>유행성 뇌염환자가 1400명, 사망자가 273명에 달하고 있다</span>"고 심각한 실상을 알렸다. 그러면서 "보건부가 '주한미군이 비행기로 DDT 공중살포한다'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희소식을 전했다. <br/> <br/>▲ 고작 장독 덮어라는 주의  <br/> <br/>194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엔 DDT살포가 잦았다. 모기, 이를 몰아내는데 DDT만큼 좋은 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br/> <br/>1959년 5월 7일 동아일보엔 "<span class='quot1'>10일부터 서울시 일원에 공군과 육군 화학부대 협조 얻어 DDT 공중살포를 하니 '장독'과 '양봉'피해 없도록 주의해 달라</span>"는 기사가 실려 있다. 지금의 황사주의보 정도에 그쳤다 . <br/> <br/>▲ 미군이 뿌린 DDT값을 동사무소가 주민에게 받아내 딴 주머니 차기도 <br/> <br/>1955년 2월 15일 동아일보는 "<span class='quot1'>대구 북내동서 미군 DDT 살포 요금을 징수했다</span>"라는 사실을 전했다. <br/> <br/>그러면서 "DDT를 뿌린 미군도 아닌 동에서 왜 돈을 받았는지, .대동강물 팔아 먹은 봉이 김선달이다"고 어이없어 했다. <br/> <br/> 1945년 모기퇴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보건당국이 해변에서 DDT를 뿌리고 있다. 아이들은 위해성도 모른체 이를 따라 가는 것이 마치 모기약차를 따라 가던 1950~170년대 우리들 모습과 닮았다.  ▲ 1955년 WHO가 말라리아 퇴치위해 DDT 적극권유 <br/> <br/>말라리아로 골치를 앓던 국제건강기구(WHO)는 1955년 전 세계적인 말라리아 추방계획을 세워 DDT를 적극 권장했다. <br/> <br/>이후 말라리아 사망률이 크게 낮아졌다. <br/> <br/>▲ 1962년 침묵의 봄 출판이후 1970년대 DDT 추방 <br/> <br/>DDT독성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1957년부터 일기 시작했으며 1962년 생태학자 레이첼 카슨(1907~1964)이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라는 책을 통해 'DDT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생태계가 파괴돼 봄이 와도 새가 울지 않는다'라며 위해성을 알렸다. <br/> <br/>이를 계기로 연구가 급속도로 이뤄져 인체에 흡수될 경우 쉽게 배출되지 않고 남아(반감기 50년 이상) 암을 유발하거나 간이나 신장에 해를 끼치고 감각이상·마비·경련 등을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임이 널리 알려졌다. <br/> <br/>1970년대 들어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DDT를 추방했고 우리나라도 1979년 시장에서 몰아냈다. <br/> <br/>DDT는 '오렌지색 비'로 알려진 고엽제(DCB)등과 함께 환경과 인간 모두를 말라 죽이는 악마가 됐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07.txt

제목: 여성 64% 자궁경부암 고위험군 위험성 몰라  
날짜: 20170823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23102955001  
ID: 01100701.201708231029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자궁경부암은 여성 암 발생 순위 중 7위, 사망률은 9위다. 매년 약 4000명의 새로운 자궁경부암 환자가 발생하고 약 900여명이 사망 할 정도로 여성 건강에 위협적이다. 다른 암들과 달리, 발병 원인이 명확해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을 통한 예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검진법도 다양하다. <br/> <br/>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 여성의 자궁경부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br/> <br/>한국로슈진단은 자궁경부암 예방과 조기 진단을 위한 HPV DNA 검사의 필요성을 알리는 ‘베러투게더(Better 2gether)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내 20~40대 여성 500명 대상 자궁경부암 검사 관련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고위험군 HPV 바이러스의 위험성은 물론이고, 자궁경부암 검진 방법에 대한 이해 수준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br/> <br/>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64.4%)이 ‘고위험군 HPV 바이러스 16·18형을 보유할 경우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성 접촉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virus) 감염은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으로, 그 중에서도 고위험 HPV 바이러스 16·18형은 자궁경부암 발병 원인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자궁경부암 검사에 대해서도 여성 3명 중 2명(62.2%)은 국가암검진으로 제공되는 자궁경부암 1차 검사가 ‘자궁경부 세포검사’(이하 세포진 검사)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자궁경부암 검사 방법으로 세포진 검사 외에 HPV 검사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응답자는 75.8%로 나타났다. <br/> <br/>로슈진단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세포검진은 자궁경부암 선별 1차 검사로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확률이 30~45%에 달하는 한계가 있다. 연구에 의하면 자궁경부암 환자 3명 중 1명은 세포진 검사 결과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미국 여성 4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도 16형 혹은 18형 바이러스를 보유한 여성 중 정상 판명을 받고도 자궁경부암 전암 단계로 암이 진행되었던 여성이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는 학계를 중심으로 30에 이상 여성의 경우 세포진 검사와 HVP검사를 동시에 받을 것을 권고하는 추세다. <br/> <br/>한국로슈진단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에 대한 여성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궁경부암의 예방과 조기 진단을 장려하고자 지난 5월부터 ‘베러 투게더(Better 2gether), 부제 - 자궁경부 세포검사와 HPV검사를 동시에 받으면 더 정확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08.txt

제목: 충남 이주여성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뛴다  
날짜: 20170822  
기자: 김정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22230021001  
ID: 01100701.2017082223002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충남도가 이주여성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양성하고 본격적인 해외환자 유치 사업에 나섰다. <br/> <br/>충남도는 최근 단국대병원과 함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료식을 갖고 소정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이주여성 67명에게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을 부여했다고 22일 밝혔다. <br/> <br/>수료생들은 충남도내에 거주하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베트남, 몽골 출신의 이주여성 가운데 한국어가 능통한 사람들이다. <br/> <br/>이들은 지난달 1일부터 8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단국대학교 I-다산LINC+사업단이 개설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에 참여해 암 질환 치료·관리, 건강검진, 치과진료 교육 등을 받았다. <br/> <br/>이들은 충남의 특성화 자원인 온천과 연계된 수중재활체조 교육은 물론 마케팅, 고객 응대 매너 및 스타일링 등의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겸비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거듭났다. <br/> <br/>이들은 앞으로 모국에서 건너온 환자와 가족에 대한 통역과 의료상담, 진료지원, 원무, 관광안내는 물론 의료관광 전반에 대한 계획 설계 및 시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해외환자 의료관광 사업의 첨병으로 활동하게 된다. <br/> <br/>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09.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3D 프린팅 이용한 턱뼈 재건 수술 모델 개발”  
날짜: 20170822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22103251001  
ID: 01100701.2017082210325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삼성서울병원은 이비인후과 백정환 교수팀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구강암 환자의 턱뼈(하악) 재건 수술 모델 및 골절제 가이던스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br/> <br/>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하악이 암으로 침윤된 경우 종양과 함께 턱뼈를 제거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다리뼈(비골)을 이용해 환자의 턱을 재건하는 수술이 병행된다. <br/> <br/>기존에는 CT 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만을 활용해 수술이 이뤄졌지만 3D 프린팅모델 및 골절제 가이던스는 수술 시 절제해야 하는 하악과 이어 붙일 비골을 미리 만들어 골절제와 재건을 동시에 미리 시행하여 확인할 수 있다. <br/> <br/>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도록 돕고, 수술 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재건 시에도 환자의 얼굴 윤곽을 가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임상 확대 적용을 앞당기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br/> <br/>백정환 교수는 “<span class='quot0'>해당 모델을 이용하면 의사들이 이론으로만 배우던 수술법을 손으로 실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 결국 환자들에게 이득</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3D 프린팅 수술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span>”이라고 전했다. <br/> <br/>이번 턱뼈 재건 수술 모델 개발은 지난 2013년 개발한 부비동암 수술 모델과 지난해 중이염 치료시 필요한 측두골 수술 모델을 개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의 ‘ICT 기반의 의료용 3D 프린팅 응용SW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개발’ 과제(경북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의료영상처리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터가 이용됐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10.txt

제목: '살충제 달걀 하루 126개 OK'에 보건학회 "만성독성이 문제"라며 반박  
날짜: 20170822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22094716001  
ID: 01100701.2017082209471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평생 동안 하루 2.6개의 '살충제 달걀'을 먹어도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한 데 대해 보건학회는 '만성독성' 영향을 간과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KBS TV 캡처 정부가 '살충제 달걀'과 관련해 성인은 하루 126개, 1~2세는 24개, 3~6세는 37개를 먹어도 위험하지 않다고 발표하자 (사)한국환경보건학회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br/> <br/>22일 보건학회는 '계란 살충제 오염 파동에 대한 학회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일상적 수준으로 계란을 섭취하면 '급성 독성'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것은 중요한 사실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br/> <br/>그러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계란은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1회 섭취나 급성 노출에 의한 독성이 문제가 아니라 만성독성 영향"이라고 했다. <br/> <br/>학회는 "신경독성에 근거한 피프로닐의 급성독성참고치는 0.003mg/kg이지만, 암원성(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에 근거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량기구(FAO)에서 정한 만성 허용섭취량은 급성독성참고치보다 15배 낮은 0.0002 mg/kg에 불과하다"라며 근거를 들었다. <br/> <br/>학회는 "피프로닐의 분해 산물은 독성도 더 큰 만큼 급성독성이 미미함만을 강조하지 말고 만성독성 영향 가능성을 고려해 노출 관리와 건강영향 조사 등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r/> <br/>학회는 "현재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살충제에 대해서만 계란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어떤 살충제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알 도리가 없다"며 "살충제 방제 작업 직후 계란에 훨씬 높은 농도로 오염됐을 개연성이 있어 개인의 노출량은 더 클 수도 있다"고 했다. <br/> <br/>학회는 "실제 생산현장에서 사용된 살충제를 모두 추적하고 농장에서 실제 사용했던 방제용 약제 제품을 전수 회수해 유해 살충제 성분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한 계란 모니터링이 추가돼야 한다"며 "오염된 계란의 유통망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소비자의 노출과 위해성 평가를 통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br/> <br/>정부는 평생동안 살충제 성분 5종(피프로닐·비펜트린·플루페녹수론·에톡사졸·피리다벤)이 최대로 검출된 계란을 매일 먹었다해도 건강상 위해하지 않으며,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11.txt

제목: "난치성 유방암에 새 표적치료제 효과 확인"  
날짜: 20170822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22031125001  
ID: 01100701.2017082203112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유방암 중에서도 난치성으로 꼽히는 ‘삼중음성유방암’에 새로 개발된 표적치료제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삼중음성유방암은 호르몬이나 유전자(HER2)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방암의 한 종류로, 항암제에 일부 반응하더라도 재발이 많고 암의 진행이 빨라 치료가 어렵다. <br/> <br/>특히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의 경우 ‘무진행 생존기간’(암 치료 후 암이 새롭게 진행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평균 6개월 미만으로 매우 짧다. <br/> <br/>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김성배 교수(사진)는 한국, 미국, 프랑스 등 8개국 44개 병원에서 124명의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의 생명공학기업 제넨텍이 개발한 ‘AKT 표적치료제’를 투여하는 임상 2상 시험을 한 결과, 기존 항암제로만 치료한환자보다 ‘무진행 생존기간’이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br/> <br/>이번 연구결과는 저명 의학저널인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 최신호에 편집자 논평과 함께 발표됐다. <br/> <br/>AKT 표적치료제는 암세포가 발생하는 과정에 필요한 신호경로 중 하나인 AKT를 억제하는 방식의 약물이다. 연구팀은 임상시험 참여 환자 중 62명에게는 AKT 표적치료제와 기존 항암제 파클리탁셀(paclitaxel)을 함께 처방했으며, 대조군(62명)은 기존처럼 파클리탁셀로만치료했다. <br/> <br/>이 결과 평균 무진행 생존기간이 병합치료를 시행한 그룹에서는 6.2개월이었지만, 항암제 단독 치료그룹은 4.9개월에 그쳤다. <br/> <br/>이런 치료 효과는 AKT 표적치료제에잘 반응하는 특정 유전자 변이(PI3K-AKT-mTOR 신호경로 이상)를 가진 경우에 무진행생존기간이 평균 9개월로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br/> <br/>표적치료제를 투여한 환자들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설사였으며, 사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br/> <br/>연구팀은 유방암 환자의 60∼70%를 차지하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 대해서도 AKT 억제제의 효과를 보기 위한 추가 임상 3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br/> <br/>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김성배 교수는 “<span class='quot0'>우수한 치료약제가 부족한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에서 AKT 표적치료제의 효용성을 세계 처음으로 입증한 데 의미가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치료 전에 차세대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약에 좀 더 잘 듣는 유방암 환자를 선별하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12.txt

제목: 두산연강재단, 서울대병원에 암 연구 활성화 1억원 지원  
날짜: 20170820  
기자: 나기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20212218001  
ID: 01100701.2017082021221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두산연강재단(이사장 박용현·사진)은 암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1억원을 서울대학교병원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br/> <br/>이 연구비는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윤형진 교수의 ‘암 환자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급성신손상 조기발견 (Acute Kidney Injury Predictive e-Alert) 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영상의학과 김현진 교수, 간담췌외과 장진영 교수 등의 연구에 지원된다. 두산연강재단은 지난 2006년 서울대학교병원과 암 연구비 지원 관련 협약을 맺고 매년 1억원씩 지금까지 총 12억원을 지원해 왔다. <br/> <br/>나기천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2-213.txt

제목: 노인은 암 세포 늦게 자란다? 근거없는 속설… 초기치료 중요  
날짜: 20170820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20210942001  
ID: 01100701.2017082021094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근 갑상선암을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자는 주장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다른 암도 수술 없이 정상생활이 가능할지 관심이 일고 있다. <br/> <br/>특히 이런 의문은 75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 초기 위암이 발견될 경우 더욱 커진다. ‘노인의 경우 암세포가 늦게 자란다’는 속설과 함께 치료를 시작할지 고민하는 환자들이 있다. <br/> <br/>이에 대한 답은 ‘NO’(아니요)라고 이혁준 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말한다. 이 교수팀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세계 최초로 밝힌 위암 진행속도와 사망에 걸리는 기간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내렸다. <br/> <br/>이 교수팀은 1988년부터 2015년까지 위암으로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10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5개월 이상 수술과 같은 적극적 암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였다. 치료거부 이유는 합병증, 치료걱정, 대체요법, 경제적 문제 등이었다. <br/> <br/>연구 결과 조기위암 환자가 전이가 시작되는 진행위암으로 악화되는 데 34개월이 걸렸다. 세부 병기별로는 △1기→2 기: 34개월 △2기→3기: 19개월 △3기→4기: 2개월이 소요됐다. 초기 위암의 크기가 두 배로 커지는 데는 1년이 걸렸다. <br/> <br/>사망 시까지 암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72명은 평균적으로 △1기: 63개월 △2기: 25개월 △3기: 13개월 △4기: 10개월 후에 사망했다. 일반적 위암 완치율이 1기에서 90%(2기: 75%, 3기: 45%)에 달하고, 4기에서도 치료 시 평균 생존기간이 1년6개월이 넘는다는 점을 살펴볼 때 초기 위암에서 적극적 치료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br/> <br/>특히 암 진행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이는 암 진행속도와 관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평균 나이는 67세였고, 이 중 75세 이상 고령환자와 74세 이하 환자를 비교한 결과 위암 진행속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흔히 말하는 ‘노인은 암이 느리게 자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 밖에 성별, 암의 분화도 또한 큰 관련성이 없었다. <br/> <br/>연구를 주도한 이혁준 교수는 “<span class='quot0'>위암은 갑상선암과는 다르게 아무리 초기라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5년 내외로 사망한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span>”라며 “<span class='quot0'>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만이 위암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span>”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올해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위암학회에서 우수 연제로 선정됐다. <br/> <br/>김희원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2-214.txt

제목: ['살충제 달걀' 쇼크] 1인당 年 12.5개…나도 모르는 새 살충제 달걀 '꿀꺽'  
날짜: 20170820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20191654001  
ID: 01100701.2017082019165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민 1인당 연간 12.5개의 ‘살충제 달걀’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다고 하지만 오래 섭취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이다. <br/> <br/>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8일까지 마무리된 정부의 전국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49곳으로 이들 농장에서 생산·유통한 달걀은 연간 6억2451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달걀 생산·유통물량 135억5600만개의 4.6%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 인구 5000만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연평균 12.5개의 살충제 달걀을 먹은 셈이다. <br/> <br/>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span class='quot0'>몸무게 10㎏ 미만인 영·유아가 살충제 독성 기준치를 넘은 달걀을 하루에 2개를 먹더라도 급성 독성 피해를 입을 위험도가 20% 수준에 불과하다</span>”며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br/> <br/>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암을 일으켰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대부분의 살충제 성분은 보통 약 1개월이 지나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다. 다만 쥐나 일부 동물에게는 암을 일으켰다는 실험 결과가 보고됐다. <br/> <br/>하지만 살충제 달걀에서 나온 ‘피프로닐’ 성분이 인체 내로 침투하면 한국인 등에게 더 해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br/> 17일 서울의 한 기업체 구내식당에 `우리 식당이 공급받는 계란은 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농장과 관련이 없으나, 적합성 확인시점까지 계란류 및 관련메뉴 제공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걸려있다. <br/>서울대 의대 정보의학교실 김주한 교수는 피프로닐 성분이 다른 인종에 비해 한국인 등의 동아시아인에게 훨씬 더 해롭다고 밝혔다. <br/> <br/>김 교수는 같은 양의 피프로닐이 인체에 침투했을 때 한국인이 다른 인종보다 평균치에서 벗어나는 ‘취약 유전자 변이’를 가진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피프로닐에 대한 한국인의 취약 위험도는 북미인의 약 1.3배, 아프리카인의 약 2.5배, 서남아시아인의 약 10배였다. <br/> <br/>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15.txt

제목: '대충대충' '제각각'…엉터리 전수조사에 살충제 성분 누락  
날짜: 20170820  
기자: 이정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20181300001  
ID: 01100701.2017082018130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 15∼17일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살충제 달걀’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살충제 성분 검사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또 한 번 보완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 번째 추가 조사다. <br/> <br/>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농장 420곳을 대상으로 달걀의 살충제 포함 여부를 재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처 농약잔류성분 기준에 따라 총 27종를 검사하도록 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최대 8종의 성분을 빼는 등 검사 성분 수가 제각각이었다. <br/> <br/>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원들이 계란 살충제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이낙연 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br/>농식품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주요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성분은 검사했으나 에톡사졸 등 일부 성분이 빠졌다</span>”며 “<span class='quot0'>올해 4월부터 농약 잔류허용기준 성분 수가 19종에서 27종으로 늘면서 일부 지자체가 신규 성분의 표준시약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원인</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이번 전수조사에선 경북 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달걀에서는 197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농약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DDT는 인체에 흡수될 경우 암은 물론 여러 이상 증세를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이다. <br/> <br/>49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의 유통경로를 추적조사 중인 당국은 20일 현재 부산과 충북 지역 식품제조업체 2곳이 유통에 부적합한 계란을 납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br/> <br/>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span class='quot1'>소극 행정이나 유착 등 비리는 농정의 적폐이며, 이번 기회에 꼭 청산해야 한다</span>”고 지시했다. <br/> <br/>이정우·박성준 기자 woole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16.txt

제목: 김태형 두산 감독 입원…그가 앓고 있다는 게실염은 무엇?  
날짜: 20170820  
기자: 이세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20164120001  
ID: 01100701.20170820164120001  
카테고리: 스포츠>야구>한국프로야구  
본문:   <br/> <br/> 김태형(50) 두산 감독이 게실염을 진단 받아 당분간 경기 출장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가 앓고 있다는 게실염이 무엇인지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br/> <br/>‘게실’은 대장 안쪽 벽이 주머니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한다. <br/> <br/>이 주머니 안으로 변과 같은 오염물질이 들어가 염증이나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를 게실염이라고 한다. <br/> <br/>이 질환은 전염성이 없고 암으로 발전하지도 않는다. <br/> <br/>50세 이상의 연령층 중 30~40%가 게실증을 가지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br/> <br/>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br/> <br/>원인은 선천적으로 게실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후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 <br/> <br/>섬유질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상습적인 변비가 대장의 압력을 높이고 이것이 게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주요 증세는 통증·오한·발열·배변습관의 변화 등이 나타난다. 심한 복통과 설사,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악화되면 고름집이 생기거나 고름집이 터져 복막염이 될 수도 있다. <br/> <br/>치료법은 증세가 경미한 경우에는 입원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으며, 식이요법과 항생제, 대변 연화제 등을 사용한다. <br/> <br/>식이요법으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위주로 섭취하게 하며, 대변 연화제의 사용으로 변비를 개선하여 대장 내 압력을 낮춤으로써 합병증의 진행 및 발생을 최소화한다. <br/> <br/>한편, 두산 구단 측은 20일 "김태형 감독이 게실염으로 흑석동 중앙대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br/> <br/>두산에 따르면, 김 감독은 19일 경기 후 복통을 호소해 동수원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CT 촬영으로 검진을 거쳤고, 게실염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br/> <br/>이후 동수원 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진행했고, 20일 오전 중앙대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추가 검사와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br/> <br/>두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주말이라 전문의가 부재한 상황이라 병실에 입원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퇴원 일자는 21일 전문의 검진 후 결정될 예정</span>"이라고 덧붙였다. <br/> <br/>뉴스팀 bigego49@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17.txt

제목: 베이징에서는 웬만하면 지하철 타지마세요  
날짜: 20170818  
기자: 이상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18215437001  
ID: 01100701.20170818215437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중국 베이징에 가거든 웬만하면 지하철 타지 마세요.’ <br/> <br/>중국 베이징 지하철의 공기 오염이 심각해 장기 통근자들에게 심장병과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민간 연구소인 록(Rock) 환경·에너지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span class='quot0'>베이징 지하철 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영 지하철 회사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환기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span>”고 지적했다. 베이징 지하철은 약 20개 지하철 노선과 300개가 넘는 지하철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900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한다. <br/> <br/>연구소가 퇴근 시간 베이징 지하철의 오염 실태를 20주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따뜻한 계절에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1㎥당 평균 127㎍(마이크로그램)이었다. 이는 실외 미세먼지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겨울철에는 1㎥당 154㎍까지 높아져, 실외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50% 이상 높았다. <br/> <br/>매일 하루 2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낼 경우 16년 후에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83%, 폐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42% 각각 증가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br/> <br/>이상혁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2-218.txt

제목: 인체 유해성 파악도 못하고… 독성정보도 '두루뭉술'  
날짜: 20170818  
기자: 이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18182111001  
ID: 01100701.20170818182111001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이번에 걸린 데는 운이 없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농가가 예전부터 독한 살충제를 양계장에 뿌려왔으니까요.” <br/> <br/>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등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지난해 여름이었다. 이후 농장주들의 양심고백이 이어지자 올해 4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자체 조사를 했고, 그 결과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검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4개월 전부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pan class='quot0'>지난 3년간 달걀의 잔류물질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span>”고 비판한 것을 고려하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소비자들이 살충제 달걀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br/> <br/> 17일 오후 울주군청 공무원들이 살충제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된 울산시 울주군 산란계 농가의 계란을 폐기하고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함유된 살충제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증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br/> <br/>18일 식약처는 살충제 달걀 파문이 일어난 지 4일 만에 지금까지 검출된 살충제의 독성 정보를 공개했다. 피프로닐의 경우 급성 위험은 중간이고 만성 독성 때는 간장·갑상선·생식·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다. 1일 섭취 허용량은 0.0002㎎/㎏, 암 유발 가능성은 동물실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전부다. <br/> <br/>이것만 봐서는 살충제를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어린이·노인·태아·임신부 등 취약계층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이에 반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산하 국립살충제정보센터(NPIC)는 피프로닐의 연원과 효과, 인체 섭취 시 증상,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br/> <br/>구토, 두통, 위경련, 다량 섭취 시 장기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 생식 기능 저하로 불임이 유발됐다며 주의를 당부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일반인보다 큰 영향을 받을 개연성은 있지만 이를 입증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당국 대신 의사단체가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span class='quot1'>현재 검출된 5개 살충제 중 4개는 반감기가 7일 이내라 최대 한 달이면 대부분의 성분이 빠져나간다</span>”며 “<span class='quot1'>가장 민감한 영유아도 하루 2개의 달걀을 섭취하는 정도로는 급성독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span>”고 주장했다. <br/> <br/>식약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수거검사 대상에서 살충제를 빼놓는 등 살충제와 먹거리의 관계도 간과했다. 그해 여름, 달걀 농가에서 살충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60건의 검사를 했지만 표본 수가 적어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10월 국정감사에서 살충제 달걀 문제가 불거지고 당시 손문기 식약처장이 대책 마련을 약속했음에도 관련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19.txt

제목: 기장군 국책사업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정상화 촉구  
날짜: 20170818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18031145002  
ID: 01100701.20170818031145002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br/> <br/>오 군수는 "<span class='quot0'>서울대병원이 중입자가속기 사업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span>"며 "<span class='quot0'>'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 주민의 불만도 커지는 상황이어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동북아 의료관광 허브를 꿈꾸는 기장군이 타격을 입게 된다</span>"고 말했다. <br/> <br/>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은 1950억원(국비 700억원, 지방비 500억원, 원자력의학원 75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치료센터에서 상용화 치료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원자력의학원에서 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해 텅 빈 치료센터만 있을 뿐 장기 표류 중이다. <br/> <br/>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에 인접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운영권을 최소 10년 보장하고 매년 운영비 일부를 별도 지원하는 조건으로 서울대병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정부와 세부조건을 두고 조율하고 있다. <br/> <br/>중입자가속기가 들어서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는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시설, 파워 반도체 산업클러스터 등이 조성되거나 진행된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20.txt

제목: 영남대 학문간 융합연구로 약물제조 성공  
날짜: 20170818  
기자: 전주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18030834003  
ID: 01100701.20170818030834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영남대가 학문간(기계공학-약학) 융합 연구를 통해 약물 제조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br/> <br/>대학은 기계공학부 변정훈(38) 교수와 약학부 김종오(42), 용철순(61) 교수가 공동 연구를 진행,나노약물을 온디맨드 방식(On-Demand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물질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제조하기 위한 에어로졸(Aerosol 대기 중에 부유하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작은 입자) 연속공정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br/> <br/>영남대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에어로졸 연속공정을 효과적인 암 치료를 위한 근적외선 유도 온열화학요법에 필요한 나노약물(하이브리드 나노 산화그래핀) 제조에 활용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br/> <br/>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다양한 다기능성 나노약물 제조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새로운 플랫폼 기술”이라며 “복잡한 기존 액상화학공정의 대안으로 활용 가능해 제약 산업계에서 새로운 공정기술, 더 나아가 온디맨드 방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안동=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21.txt

제목: ‘제2의 심장’ 발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  
날짜: 20170817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17210735001  
ID: 01100701.2017081721073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18일 오후 9시50분 EBS1 ‘명의’(사진)에서는 발 질환의 종류와 원인, 치료법에 대해 살펴본다. <br/> <br/>발은 신체 부위 중 가장 아래에 있으며,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 몸의 98%의 건강을 책임지며 체중의 120%에 가까운 하중을 견디고 있다. <br/> <br/>그래서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발에 대해 무관심하다. 암이나 심장병과 같은 중증 질환들은 생명과 연관돼 있지만 발 질환은 삶의 질과 연관돼 있다. <br/> <br/>하지만 발 질환도 여러 가지이며 이에 대한 치료법도 환자마다 다르다. 똑같은 발목 불안정성인 환자라도 어떤 환자는 집에서 근육강화 운동만 꾸준히 잘하면 나을 수 있고, 어떤 환자는 인대를 강화하는 수술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발 질환이 같을지라도 환자의 증상과 상태마다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다. <br/> <br/>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22.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병원치료=생활고…'문재인 케어' 가뭄에 단비?  
날짜: 20170816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16050207001  
ID: 01100701.2017081605020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새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 요인은 재원 조달입니다. 피부, 미용 등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가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서,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br/>역대 정부도 비급여를 표준화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비급여 의료비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진료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를 뜻합니다. 민영 의료보험인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데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진료라도 병원별로 최고 70배의 진료비 차이가 발생합니다. <br/>이번 대책에는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의 의료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비용 효율성이 저조한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예비급여로 적용할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약제분야에 선별급여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선별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br/>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오는 2022년까지 필요한 총 30조6000억원의 재원을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완만하게 올려 부족분을 채울 계획입니다. <br/>문제는 2022년 이후입니다. 적립금, 국고 보전 확대, 건강보험료 완만한 인상 등으로 2022년까지는 대체로 충당할 수 있으나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수요는 높아지는데 보장성을 대폭 넓혀 재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br/> <br/>특히 5년간 31조원으로 가능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br/> <br/>정부는 21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 재정의 절반 수준인 11조원을 투입하고, 그간 부족하게 이루어지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3.2%) 정도로 인상하면 30조6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 비용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br/> <br/>◆'문재인 케어' 5년간 31조원으로 가능할까? <br/> <br/>하지만 야당 등에서는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5년 뒤 '건강보험료 폭탄'이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br/> <br/>한 전문가는 "<span class='quot0'>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5년간 30조원 투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span>"고 전망했다. 초음파, MRI, 항암제의 이용량을 감독하면서 총량 관리, 처방 기관을 제한하면 의료 이용이 급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br/> <br/>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제도 운용 결과를 살펴보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항목은 의료 수가가 낮아질 때 이용이 늘어났지만, 병원에서 수익 보전용으로 권유하던 의료 항목은 급여화 후 이용이 줄어드는 양상을 띠고 있다. <br/> <br/> 이에 반해 이번 대책은 보장성 강화로 일어날 의료수요 급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br/> <br/>△6%대인 보험료율 10%로 인상 △일용소득·양도소득에도 보험료 부과 △포괄수가제 확대 △수가 대폭 인상 억제 등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이번 대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br/> <br/>◆낙관론 vs 비관론…재정 지출 관리가 핵심 <br/> <br/>'문재인 케어'를 놓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30조6000억원은 의료이용 증가율 등을 충분히 고려해 산출한 예산으로,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은 3.2% 이하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br/> <br/>정부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해 2022년 말에는 건강보험이 10조원 가량의 적립금은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부서간 협의를 마쳤다</span>"고 밝혔다. <br/> <br/> 보장성 강화, 고령화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인상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 관리가 핵심이며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노인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과도한 외래진료 △건강보험 수가 허위 청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방안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23.txt

제목: [마이머니 단신] 동양생명 ‘엔젤생활비 주는 암 보험’ 외  
날짜: 20170814  
기자: 백소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14030739001  
ID: 01100701.20170814030739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동양생명 ‘엔젤생활비 주는 암 보험’ <br/> <br/>동양생명은 암 진단 시 진단비와 함께 5년 동안 매달 생활비 100만원을 확정 지급하는 ‘(무)엔젤생활비주는암보험’을 출시했다. 유방암·전립선암을 제외한 암 진단 시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고, 생활비는 매달 1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급한다. 만기보험금 지급금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50%를 지급하는 1형(50% 환급형)과 100%를 지급하는 2형(100% 환급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만 15세부터 최대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질병 및 재해로 50% 이상 장해를 입거나 암(대장점막내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제외) 진단 확정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br/> <br/> <br/>교보생명 ‘GI변액종신보험’ 출시 <br/> <br/>교보생명은 사망 보장부터 질병 보장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종신보험 ‘교보GI변액종신보험’을 출시했다.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나 적립금이 변하는 변액종신보험으로, 사망보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과 수술, 장기간병상태(LTC) 발생 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다. 암·급성심근경색증·뇌출혈 등 3대 질병은 정도와 관계없이 진단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재진단암 특약에 가입하면 직전 암 진단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새로운 암이 발병해도 반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br/> <br/> <br/>현대해상 ‘기세당당건강보험’ 판매 <br/> <br/>현대해상은 각종 성인질환을 집중 보장하고, 중증질병 진단 시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 기간을 늘려주는 ‘기세당당건강보험’을 판매한다. 각종 성인질환 발병 초기에는 입원·수술 담보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고, 증상이 악화돼 암 등 6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 시 진단금을 제공하고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br/> <br/>백소용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2-224.txt

제목: [권 대리가 들려주는 서민금융] <25> 생활고에 대장암까지…혈혈단신 60대 여성의 사연  
날짜: 20170811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11142133001  
ID: 01100701.20170811142133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지난달 60대 여성이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허리가 불편한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몸으로 다리를 절룩거리며 상담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른 뒤 병원비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읍소했습니다. 그는 3년 전 대장암이 발병해 오랜 시간 항암치료를 받아 건강이 무척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혼인 데다 연락이 닿는 형제도 없는 혈혈단신의 몸이었죠. <br/> <br/>이 여성은 건강하던 시절에는 구청의 공공근로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100만원 남짓 월급을 받으면 50만원 정도 저축을 꾸준히 할 정도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암에 걸린 뒤로 수술비와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술 후 항암치료로 그동안 통장에 모아놓은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수익이 없다 보니 전세자금과 생계자금 마련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마저 차츰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br/> <br/>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였던 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자율을 절반 정도로 감면받고, 상환기간을 늘려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었죠. <br/> <br/>이후 그는 지인의 가게에서 파트타이머로 주방 일을 도왔습니다. 항암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했고, 허리도 좋지 않아 오랜 시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다 보니 소득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br/>  <br/>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그는 센터를 찾은 것이었죠. 상담사는 건강이 좋지 않고 일자리가 불안정한 이 여성이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율이 아무리 낮아도 또다시 상환부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그가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br/>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br/>◆처방부터 맞춤형 진단까지…서민금융 주치의 ‘종합상담 서비스’ <br/> <br/>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부터 서민들이 한 자리에서 자금지원부터 복지, 재무진단, 취업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은 여러 분야의 정부 지원제도 중 본인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것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상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처방까지 내놓는 ‘금융 주치의’인 셈이죠. <br/> <br/>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제대로 진단이나  처방을 해주지 않는다면 병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상담 주치의를 통해 서민경제가 건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br/> <br/>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종합기획부 홍보팀 대리

언론사: 세계일보-2-225.txt

제목: [권오길의생물의신비] 수박의 추억  
날짜: 20170810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10212454002  
ID: 01100701.20170810212454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수박 철이다. 세상 나고 처음으로 수박과 참외 모종을 시험 삼아 세 포기씩 사 비탈밭에 심어봤다. 순치기를 해야 한다는 것에 엄두가 안 나 ‘네가 알아서 하라’ 하고 처박아 두었더니 어린아이 머리만 한 수박이 하나씩 열렸다. 수박은 오므린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 보아 땅땅하고 경쾌한 소리가 나면 제대로 익은 것이고 둔탁하면 설익은 것이다. 수박은 속살이 더 달다. 그래서인지 ‘수박 겉핥기’란 말이 사물의 속 내용은 모르고 겉만 건드리는 일을 빗대기도 하고, ‘수박은 속을 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라고도 했다. <br/> <br/>수박은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식물로 아프리카가 원산지이고, 암수한그루(자웅동주)이면서 암·수꽃이 따로 피는 단성화(자웅이화)이다. 넝쿨은 길게(7m) 땅바닥을 기며 가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 잎은 심장 꼴이고 꽃은 연노란색이다. 수박엔 농익은 토마토나 감과 마찬가지로 라이코펜(lycopene)이 듬뿍 들어 있다. 라이코펜은 불그스레한 색소를 이르는 것으로, 일종의 카로티노이드(carotenoid) 색소이다. 수박은 이뇨를 촉진하므로 부기를 가시게 하고, 씨도 같은 효험이 있어 씻은 듯, 부신 듯 낫게 한다. 원래 수박은 씨를 먹기 위해 심었다는데, 한 통에 많게는 500개 남짓의 종자가 들어 있다. 그리하여 필자도 수박 씨앗을 하나하나 골라내 꼭꼭 씹어 먹는다. <br/> <br/>‘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랴’는 아무리 위장하고 치장해도 타고난 근본(본성)은 변치 않는 법이기에 본바탕이 못생긴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겉치레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을 비꼰 말이렷다. 그리고 덕은 외롭지 않아 ‘되는 집에는 가지나무에 수박이 열린다’고도 했다. <br/> <br/>수박서리는 빼놓을 수 없는 어릴 적 이야깃거리다. 오후 내내 원두막의 동정을 보고 있다가 그림자가 길어지는 해거름 녘이면 벌거숭이 맨몸을 웅숭그리며 레이저 눈빛을 하고는 살금살금 밭으로 기어든다. 그맘때면 사람 살색이 눈에 잘 띄지 않기에 감시의 눈을 깜빡 속일 수 있다. 그때 그 벗들이 저승으로 다 떠났으니 이래저래 옛 생각에 젖게 된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데….  <br/> <br/>권오길 강원대 명예교수·생물학

언론사: 세계일보-2-226.txt

제목: "한국타이어, 유해 물질 중독돼 숨진 직원 유족에 배상해야"  
날짜: 20170810  
기자: 박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10195534001  
ID: 01100701.2017081019553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한국타이어가 유해 물질에 중독돼 암에 걸려 숨진 직원 유족에게 1억287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br/> <br/>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10일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무하다 폐암이 발병해 목숨을 잃은 안모씨의 유족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안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고 판단해 한국타이어가 안씨 아내에게 1466만여원을, 자녀 3명에게는 각각 2940만여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br/> <br/>정 판사는 “<span class='quot0'>배기·냉각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을 독려하고 감독한 것만으로는 안전 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안씨는 비흡연자이고 병력이나 가족력 등 이 사건 질병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span>”고 밝혔다. 다만 “안씨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암하면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br/> <br/>1993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한 안씨는 1996년부터 2009년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국내 한 공장에서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타이어 제조 과정에서 고무가 뜨거워지면 수증기인 흄 등이 발생하는데, 타이어 제조업과 발암 사이 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씨는 2015년 1월 결국 숨졌다. <br/> <br/>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27.txt

제목: 서울대병원 "국내 기술로 최첨단 방사선치료기 치료성적 크게 높여"  
날짜: 20170810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10030600001  
ID: 01100701.2017081003060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대병원이 최첨단 방사선치료기 ‘뷰레이’의 치료성적을 크게 높이는 영상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br/> <br/>‘뷰레이’(ViewRay)는 자기공명영상(MRI)과 방사선치료 시스템이 결합된 방사선치료기다. MRI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종양 및 정상 장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치료부위에만 정확하게 방사선을 조사하는 유일의 장비로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5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뷰레이를 도입했다. <br/> <br/>뷰레이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환자의 해부학적 영상을 확보해, 환자의 호흡 패턴을 반영한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환자의 경우 치료 중 호흡 패턴의 변화로 인해 계획된 치료가 어렵거나, 치료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방사선치료는 숨을 쉬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 호흡에 따른 인체 내부의 종양 및 장기의 움직임은 방사선치료의 정확도를 저하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br/> <br/>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치료관 내부에 실시간 MRI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빔 프로젝트를 설치했다. <br/> <br/>환자는 투사된 영상과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호흡을 조절해, 종양이 치료빔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했다. <br/> <br/>그 결과, 영상 시스템 도입 후 방사선치료의 총 시간은 30% 이상, 치료빔을 종양에 전달하기 위해 종양이 특정 지점에 위치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50% 이상 줄었다. <br/> <br/>방사선종양학과 우홍균 교수는 “<span class='quot0'>암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방사선치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가 능동적으로 치료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span>”고 말했다. <br/> <br/>이 시스템은 SCI급 국제 학술지인 ‘의학물리학’(Medical Physics) 최근호에 소개됐으며, 국제특허로도 출원됐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28.txt

제목: 초음파·MRI 촬영 급여화… 시민단체 “국민 기대 한참 못미쳐”  
날짜: 20170809  
기자: 이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09214624001  
ID: 01100701.2017080921462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올해 초 ‘다빈치 로봇’을 이용해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A씨는 모두 1202만원의 진료비를 병원에 냈다. 전체 비용(1612만원)의 약 75%였다. <br/> <br/>다빈치 로봇수술에는 현재 건보가 적용되지 않아 A씨는 1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고스란히 내야 했는 데다 각종 비급여 검사와 비급여 보조치료재 비용이 더해지며 부담이 커졌다. <br/>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병원 내 어린이학교에서 그림그리기를 하고 있는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 <br/>청와대사진기자단 <br/>9일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A씨와 똑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의 부담 비용은 내년에 소폭, 2019년에는 절반 수준(628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br/> <br/>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장치 등 그동안 건보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순차적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br/> <br/>다빈치 로봇수술은 2019년부터 예비적으로 건보 적용된다. 이처럼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뀌거나 본인 부담을 차등화한 예비급여가 적용돼 모든 비급여가 건보에 편입될 예정이다.  <br/> <br/>가장 먼저 건보가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은 이미 건보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재정상 문제로 횟수가 제한된 ‘기준비급여’다. 현재 암,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을 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건보가 적용되지만 이후 촬영은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br/> <br/>정부는 올해 말까지 인지장애,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등 MRI 촬영을 급여화하고 2019년 혈관성 질환, 2020년 근육·연부조직 질환 등으로 항목을 넓히기로 했다. 급여 항목에 대한 횟수 제한은 폐지된다. <br/> <br/>지금까지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았던 등재비급여에 대해서는 예비급여로 건보에서 10∼70%가량 지원하고 3∼5년 뒤 이를 평가해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br/> <br/>비급여는 2015년 기준 전체 의료비(69조4000억원)의 16.5%(11조5000억원)에 달했다. 건보 적용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13조9000억원)과 복지부가 추산한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간병비(2조원)를 합하면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2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3대 비급여’ 규모가 5조8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기준비급여(3조8000억원), 등재비급여(2조5000억원), 미용·성형 등 선택비급여(1조4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비급여 지출이 4조8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별로는 노인 치매 검사를 급여화하고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5%로 인하하기로 했다. <br/> <br/>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과거 정권보다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나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예비급여를 도입해 모든 비급여를 건보에 편입시키기로 했으나 본인 부담률이 최대 90%에 달하는 데다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r/>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한 뒤 나가며 울먹이는 한 어린 환자를 따뜻하게 포옹하고 있다. <br/>‘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 70%는 너무 미흡하고 의료비 상한제에 비급여, 선별급여 등 모든 비용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br/> <br/>대한의사협회는 “<span class='quot0'>비급여 항목이 보험급여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장가격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비용이 정해지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항목의 시술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span>”고 주장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29.txt

제목: [뉴스분석] 비급여 3800개 건보 적용… 관건은 재정누수 차단  
날짜: 20170809  
기자: 이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09190210002  
ID: 01100701.20170809190210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올해 초 ‘다빈치 로봇’을 이용해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A씨는 모두 1202만원의 진료비를 병원에 냈다. 전체 비용(1612만원)의 약 75%였다. <br/> <br/>다빈치 로봇수술에는 현재 건보가 적용되지 않아 A씨는 1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고스란히 내야 했는 데다 각종 비급여 검사와 비급여 보조치료재 비용이 더해지며 부담이 커졌다. <br/> <br/>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A씨와 똑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의 부담 비용은 내년에 소폭, 2019년에는 절반 수준(628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br/> <br/>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장치 등 그동안 건보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br/> <br/>다빈치 로봇수술은 2019년부터 예비적으로 건보 적용된다. 이처럼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뀌거나 본인 부담을 차등화한 예비급여가 적용돼 모든 비급여가 건보에 편입될 예정이다.  <br/> <br/>가장 먼저 건보가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은 이미 건보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재정상 문제로 횟수가 제한된 ‘기준비급여’다. 현재 암,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을 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건보가 적용되지만 이후 촬영은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인지장애,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등 MRI 촬영을 급여화하고 2019년 혈관성 질환, 2020년 근육·연부조직 질환 등으로 항목을 넓히기로 했다. 급여 항목에 대한 횟수 제한은 폐지된다. <br/> <br/>지금까지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았던 등재비급여에 대해서는 예비급여로 건보에서 10∼70%가량 지원하고 3∼5년 뒤 이를 평가해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3800여개의 항목에 대한 급여 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br/>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한 뒤 나가며 울먹이는 한 어린 환자를 따뜻하게 포옹하고 있다. <br/>국민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호·간병)도 대폭 개선된다. <br/> <br/>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제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현재 4인실까지만 건보가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2019년부터는 1인실(특실 등은 제외)도 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에 한해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족의 간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현재 2만여개에서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br/> <br/>정부는 이를 통해 2015년 기준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지출이 2022년까지 4조8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도 2015년 1인당 50만4000원에서 2022년 41만6000억원으로 18%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연조직육종을 앓고 있는 청소년 환자 배권환 군(오른쪽)과 급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이경엽 군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br/>청와대사진기자단 <br/>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건보체계 개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다 인구고령화로 장기적으로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 재원 방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건보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다. 실제 정부는 2025년 건보 재정이 20조원 적자를 볼 것으로 추계했지만 보건사회연구원 분석으로는 5년 빠른 2020년 19조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br/> <br/>복지부는 “<span class='quot0'>현재 20조원가량 쌓여 있는 건보 누적적립금과 올해 6조9000억원이 투입된 국고 지원분을 늘려가겠다</span>”며 “<span class='quot0'>2022년까지 통상적인 건보료 인상을 넘어선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5년 이후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 방안과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하는 일은 과제로 남아 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30.txt

제목: 文 대통령 "미용·성형빼고 모두 건보혜택, 초음파·MRI· 2인실 등 3800항목 급여화"  
날짜: 20170809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09154423001  
ID: 01100701.2017080915442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span class='quot0'>돈이 없어 치료 못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span>"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사실상 전 의료부문에 건강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의 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문재인 대통령은 9일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획기적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br/> <br/>문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span class='quot1'>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span>"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br/> <br/>문 대통령은 "<span class='quot1'>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그러면서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br/> <br/>문 대통령은 "<span class='quot1'>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간병이 환자 가족의 생계와 삶까지 파탄내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 <br/>고액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의료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한다"며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고 했다. <br/> <br/>또 "의료비 중 건보가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치고,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라고 문제점을 밝혔다. <br/> <br/>문 대통령은 "<span class='quot1'>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1'>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이 되도록 하겠다</span>"고 했다. <br/> <br/>문 대통령은 "<span class='quot1'>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span>"고 약속했다. <br/> <br/>문 대통령은 "<span class='quot1'>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span>"며 "<span class='quot1'>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span>"고 했다. <br/> <br/>문 대통령은 "<span class='quot1'>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 했던 중증 치매 환자는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되고,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들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br/> <br/>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될 것"이라고 했다. <br/> <br/>막대한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span class='quot1'>5년간 3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span>"고 했다. <br/> <br/>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선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br/> <br/>▲ 초음파, MRI, 로봇수술, 2인실 등 3800여 항목 건보혜택 <br/> <br/>건강보험 보장 강화책에 따라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br/> <br/>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br/> <br/>이런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은 약 3800여개로, 구체적으로 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br/> <br/>다만 고가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골라서 급여화할 계획이다. <br/> <br/>▲ 특진 등 선택진료제 폐지, 2018년 하반기부터 2인실도 급여 <br/> <br/>정부는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도 더 개선하기로 했다. <br/> <br/>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제를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br/> <br/>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한다. <br/> <br/>2019년부터는 1인실(특실 등은 제외)도 필요하면(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br/> <br/>▲ 노인치매검사 급여화,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 상시 지원 <br/> <br/>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병) 등에 한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하려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br/> <br/>취약계층별로는 노인 치매 검사를 급여화하고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5%로 인하하기로 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31.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주사보다 아픈 '낙인과 편견'…홀로 암과 싸운 여성들  
날짜: 20170809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09130243001  
ID: 01100701.20170809130243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암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홀로 고통과 싸운 남아시아계 영국인 여성들 사연이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BBC에서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은 ‘암은 불순한 이에게 내리는 신의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가족들 때문에 치료 사실을 숨기거나 병원 근처에 가지도 못한 채 어두운 날들을 지내왔다. <br/> <br/>유방암을 이겨낸 프라비나 파텔은 처음 가슴 속 종양이 손으로 만져졌을 때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남아시아 소수 부족 혈통인 그는 유방암 치료 사실을 밝히는 게 무척 부끄럽고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했다. 암 진단을 사망선고처럼 받아들이는 가족들과 소위 ‘막 나가는 삶’을 살아 벌 받은 거라는 시선이 두려웠다. 항암치료 고통을 홀로 감당했던 시간은 파텔에게 걷히지 않는 어둠으로 남아있다. <br/> <br/>  암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홀로 고통과 싸운 남아시아계 영국인 여성들 사연이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BBC에서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문화적 배경에 따른 편견과 낙인이 이유로 지목된다. 영국 BBC 영상 캡처. <br/> <br/>영국 국민건강보험(NHS)에서 사회건강을 연구하는 푸자 사이니는 이 같은 여성들의 사연을 연이어 접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머리카락이 빠져 항암치료 사실을 들킬까 두려운 탓에 병원에도 가지 않고, 자녀 혼인에 영향을 줄까 봐 입을 다물었다는 이야기는 큰 충격이었다. <br/> <br/>2014년 NHS는 영국 내 남아시아계 15세~64세 여성들을 3년간 지켜본 결과 암환자 사망비율이 같은 연령의 유럽 여성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보고서를 냈다. 사이니는 보수 연령층에 뿌리 깊이 박힌 ‘암 환자에 대한 편견’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병원에 가지 말라고 어른들이 말한다면 여성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br/> <br/>낙인이 두려운 여성들은 자궁경부암 검사도 받지 않았다. 누군가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span class='quot0'>그 사람은 몸을 함부로 굴렸다</span>” “불순한 사람인 게 분명하다” 등의 말이 나올 게 불 보듯 뻔해서다. <br/> <br/>항암치료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파텔은 건강을 찾는 대신 남편과 이혼했다. 파텔의 남편은 그가 ‘아내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않아 문화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유방암을 이겨낸 프라비나 파텔(사진)은 처음 가슴 속 종양이 손으로 만져졌을 때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남아시아 소수 부족 혈통인 그는 유방암 환자라는 게 무척 부끄럽고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했다. 나중에 치료 사실을 가족에게 밝힌 파텔은 건강을 되찾는 대신 남편과 이혼했다. 영국 BBC 영상 캡처. <br/> <br/>전문가들은 남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적 배경이 여성들을 불필요한 고통으로 몰아넣는다고 지적했다. 정기검진과 이른 치료로 암을 이겨낼 수 있는데, 주변 시선이 무서워 병원에 가지 않은 탓에 희생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다고 입을 모았다. <br/> <br/>30년 이상 암센터에서 일했다는 마두 아가르왈은 “고통을 견디지 못한 어느 여성이 유방암 치료를 받으러 왔지만 너무 때가 늦었다”며 “온몸에 암세포가 퍼진 탓에 근처에만 가도 악취가 났다”고 말했다. 결국 여성은 숨졌다. <br/> <br/>사이니는 홀로 고통을 감당하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데이터를 모으지만, 저마다 치료 사실을 숨기기 급급한 탓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도 진행 중인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공중보건 당국이 사이니의 통계를 토대로 남아시아계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지만, 아직 이들에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br/> <br/>  30년 이상 암센터에서 일했다는 마두 아가르왈(위)과 영국 국민건강보험(NHS)에서 사회건강을 연구하는 푸자 사이니(아래). 뒤늦게 유방암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에게서는 온몸으로 암세포가 퍼진 탓에 악취가 났다고 아가르왈은 밝혔다. 사이니는 홀로 고통을 감당하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데이터를 모으지만, 저마다 치료 사실을 숨기기 급급한 탓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도 진행 중인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영국 BBC 영상 캡처.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32.txt

제목: [배연국의 행복한 세상]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날짜: 20170809  
기자: 배연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09090952001  
ID: 01100701.20170809090952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구글 검색란에 ‘love’라는 단어를 치면 80억 개의 글이 나온다. 그 글을 모두 독파할지라도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사랑은 수천억 개의 단어로도 풀어놓을 수 없는 오묘한 감정이니까. 사랑은 오로지 사랑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을 뿐이다. <br/> <br/>사랑은 따스함으로 다가온다. 사랑에서 꼭 필요한 것이 섭씨 36.5도의 체온이다. 사랑은 나의 36.5도와 상대의 36.5도가 만나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영적인 활동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따스한 손길과 눈길을 전해야 한다. 그 온기가 상대의 마음을 녹이고 사랑의 훈풍을 만들 것이다. <br/> <br/>책 《사랑의 온도》에는 지구촌의 감동적인 사랑이 담겨 있다. 아프리카 밀림의 슈바이처 박사에게 아스피린 한 병을 보내달라는 소년의 호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의약품을 모았다. 프랑스에선 암 투병하는 동료의 아들을 돕기 위해 직장인들이 자신의 휴가를 쾌척했고, 영국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면서 두 자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책에는 새끼를 지키려고 힘센 사냥개에 맞서 싸운 용감한 어미 참새도 등장한다. <br/> <br/>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들은 그냥 방치하면 망각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오늘날 옛날 유적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만 인류가 지켜야 하는 고귀한 유산은 우람한 건축물만이 아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인 사랑이야말로 후세에 길이 전수할 최고의 영적 자산이다. 이런 정신적 보물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일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무가 아닐까. <br/> <br/>배연국 논설실장

언론사: 세계일보-2-233.txt

제목: 치약·샴푸 장기간 잘못 쓰면 암 걸릴 수도  
날짜: 20170808  
기자: 정은나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08161006001  
ID: 01100701.20170808161006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치약과 샴푸의 불편한 진실이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8일 밤 9시30분 방영하는 채널A '나는 몸신이다'에서는 치약과 샴푸에 함유된 화학성분의 유해성을 경고한다.  <br/> <br/>일부 치약과 샴푸의 화학성분에는 벌레를 죽일 만큼 강력한 살충제 성분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들어가 있다. 소듐라우릴설페이트는 탈모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얼굴 노화를 앞당길 수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 성분이다.  <br/> <br/>전문가들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함유된 세정 제품에 대해 "<span class='quot0'>장기간 사용시 인체 면역체계를 파괴해 아토피, 백내장뿐만 아니라 유방암, 간암 등 각종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span>"고 말한다.  <br/> <br/>녹화 중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살아 있는 바퀴벌레에 분사하는 실험을 지켜본 출연진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br/> <br/>실제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유해성 논란은 그간 적지 않게 제기돼 왔다. 치약뿐 아니라 샴푸, 화장품 등 폭넓게 쓰이고 있지만,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br/> <br/>실제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함유된 화장품 가운데 틴트 제품이 입술이 부르트고 심한 각질이 일어나는 부작용 사례가 발견돼 회수 처리된 바 있다.      <br/> <br/>연구에 따르면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피부를 통해 침투될 경우 심장, 간, 폐, 뇌에 머무르면서 발암물질을 보낸다. 이 성분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약간 엇갈리지만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br/> <br/>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34.txt

제목: 시한부 1년… 암과 싸우는 초보 아빠  
날짜: 20170808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08030947003  
ID: 01100701.20170808030947003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8일 오후 11시35분 EBS1 ‘메디컬 다큐-7요일’(사진)에서는 시한부 1년을 선고받은 대장암 말기 초보 아빠의 투병 이야기와 시각장애인 아내를 위해 후두암과 싸우는 남편의 가슴 아픈 사연이 소개된다. <br/> <br/>올해 초 결혼해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내던 천형섭씨는 결혼 6개월 만에 대장암 4기 선고를 받았다. 아내도 아내지만 곧 태어날 아기 걱정에 눈앞이 깜깜해진다. 그러던 그에게 ‘하이팩 치료법’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다. <br/> <br/>조춘구씨의 목소리는 아내의 눈과 같다. 아내는 22살 때 영양실조로 시력을 잃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조씨에게 후두암이라는 병이 찾아왔다. 수술을 하면 목소리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 수술을 포기하고 목소리를 살릴 것인가, 수술을 하고 아내와 더 오래 살 것인가. 조씨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br/> <br/>이복진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2-235.txt

제목: ‘소록도 할매 천사’ 노벨상 후보 추천 속도낸다  
날짜: 20170807  
기자: 한현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07211035002  
ID: 01100701.20170807211035002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소록도 할매’ 천사들의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에 조만간 나설 것으로 보인다. <br/> <br/>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리안느(83)와 마가렛(82) 간호사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62년과 1966년 각각 한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한국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인 소록도에서 평생 봉사활동을 했다. <br/> <br/> 지난해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마리안느와 마가렛’ 다큐 제작팀과 만난 마리안느(왼쪽)와 마가렛. <br/>사단법인 마리안마가렛 제공두 간호사는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일이 없다고 판단해 2005년 11월21일 편지 한 장만을 달랑 남긴 채 소록도를 떠났다. 40년간 봉사하고 이들이 챙긴 것은 여행 가방뿐이었다. 소록도에서 빈손으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 섬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봐 홀연히 떠난 것이다. <br/> <br/>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한센인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소록도 할매’를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에 나섰다. 오는 9월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br/> <br/>전남도는 추진위원장에 김황식 전 총리를, 명예위원장에 김정숙 여사를 각각 내정했다. 추진위 출범 전에 김 전 총리와 김 여사에게 공식적인 제의를 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추진위는 분야별 참여자와 조직 구성 등을 확정해 출범하는 대로 두 간호사의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에 본격 나선다</span>”며 “<span class='quot0'>김 전 총리와 김 여사는 두 간호사에게 관심이 많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위원장과 명예위원장직을 수락할 것으로 안다</span>”고 말했다. <br/> <br/>전남도는 지난 6월 이들 간호사가 머무는 오스트리아 현지를 방문해 헤르비히 반슈타 티롤주의회 의장을 만나 수녀들의 선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되도록 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당시 전남도는 마리안느 간호사는 몇년 전 암에 걸렸으며, 마가렛 간호사는 가벼운 치매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br/> <br/>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들 간호사의 노벨평화상 추천에 적극적이다. 전남지사 재임 시절부터 두 간호사에게 깊은 관심을 보인 이 총리는 김연준 소록도 성당 신부를 통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상영하고 배경을 설명하도록 요청했다. <br/> <br/>이들 간호사의 삶을 조명한 영화는 오는 17일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br/> <br/>무안=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36.txt

제목: 김정숙 여사, 김황식 전 총리와 손 맞잡고 '소록도 할매 천사'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에 앞장  
날짜: 20170807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07103918001  
ID: 01100701.20170807103918001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문재인 대통령(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지난해 5월 16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열린 마리안느(앞줄 가운데) 간호사 명예군민증 수여식에 참석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소록도 한센인을 위해 평생을 바친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전하는 일에 동참키로 했다. 사진=전남 고흥군 제공 소록도 한센인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할매 천사'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손을 맞 잡았다. <br/> <br/>7일 전남도에 따르면 복지, 인권, 의료, 행정 등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칭 마리안느·마가렛 노벨 평화상 추천 추진위원회에 김황식 전 총리가 추진위원장을, 김정숙 여사는 명예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인 지난해 5월 16일 고흥 문화회관에서 열린 마리안느 수녀 명예 군민증 수여식에 참석하고 소록도를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br/> <br/>김 여사가 추진위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은 당시 받았던 깊은 인상 때문으로 보인다. <br/> <br/>추진위는 분야별 참여자와 조직 구성 등을 확정해 출범하는 대로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에 나설 방침이다. <br/> <br/>전남지사 재임 시절부터 두 간호사에게 깊은 관심을 보인 이낙연 국무총리도 김연준 소록도 성당 신부를 통해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상영하고 배경을 설명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두 간호사의 삶을 조명한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오는 17일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br/> <br/>본명이 마리안느 스퇴거(Marianne Stoeger·83)와 마가렛 피사렉(Margareth Pissarek·82)인 두 간호사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62년과 1966년 한국 땅을 밟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했다. <br/> <br/>단 한 푼의 보상도 없이 빈손으로 살다가 2005년 11월 21일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소록도를 떠났다. <br/> <br/>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수녀로 알려졌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수녀가 아닌 평신도 재속회원이다. <br/> <br/>전남도는 지난 6월 오스트리아 티롤 주에서 두 간호사를 만나 근황을 살폈다. <br/> <br/>그 결과 마리안느 간호사는 몇 년 전 암에 걸렸으며 마가렛 간호사는 가벼운 치매 증상을 보였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건강한 모습이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37.txt

제목: [건보상식 Q&A] Q: 호스피스 서비스 건보 적용은?  
날짜: 20170806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06193929001  
ID: 01100701.20170806193929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Q. 호스피스 서비스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br/> <br/>A.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통증 및 증상 완화, 심리·사회·영적 상담, 음악·미술요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말기환자 진단을 위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임상적 증상, 종전 진료 경과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호스피스 서비스도 건보 적용을 받지만 그 대상이 정해져 있다. 기존에는 말기 암환자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4일부터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과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질환까지 확대됐다.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암의 경우 진료비의 5%, 후천성면역결핍증은 10%,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과 만성간경화질환은 20%다. <br/> <br/>김준영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2-238.txt

제목: 자유한국당 “‘알쓸신잡’ 원전 내용 사실과 달라”…방심위에 심의 신청  
날짜: 20170806  
기자: 이우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06163347001  
ID: 01100701.20170806163347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자유한국당이 tvN 예능프로그램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 방송한 원자력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 신청을 했다. <br/> <br/>한국당은 알쓸신잡의 6월 30일 방송분에서 “<span class='quot0'>유시민 작가 등 출연진이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논란이 있는 내용을 100% 확정된 사실로 느낄 만한 발언을 했다</span>”며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당은 해당 방송분에서 유 작가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span class='quot1'>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수천명이며 피해자는 수십만 명이 넘는다</span>”고 발언했다고 전한 뒤 이를 반박했다. 한국당은 “<span class='quot0'>체르노빌포럼의 2005년 보고서는 체르노빌 원전 폭발로 인한 직접적 사망자 수는 50여명이며, 4000명이 피폭에 따른 암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해당 사고와 암 발병이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span>”고 반박했다. 체르노빌포럼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유엔 기구와 주요 3개 피해국(우크라이나·벨라루스·러시아) 정부가 주도해 설립한 단체다. <br/> <br/>한국당은 또 유 작가가 “<span class='quot2'>원자력발전 단가가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경제적이지 않다</span>”고 주장했다며 이도 옳지 않다고 재차 반박했다. 한국당은 “<span class='quot0'>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원전 발전단가에는 원전해체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및 중·저준위폐기물 관리비용 등 사후처리비용까지 반영돼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오히려 석탄·LNG·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에는 외부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span>”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발전원 별 구입단가는 kWh당 원자력 68원, 석탄 74원, LNG 121원”이라고 덧붙였다. <br/> <br/>한국당은 “<span class='quot0'>탈원전 논란이 불거지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런 시점에 부정확한 내용의 방송은 국민 여론 형성과 국가의 정책 방향 설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span>”고 비판했다. <br/> <br/>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39.txt

제목: 생활고로 김밥 한줄 훔친 40대 암투병 환자에 도움의 손길 '속속'  
날짜: 2017080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04162315001  
ID: 01100701.20170804162315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40대 암환자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김밥 한줄을 훔쳤지만 편의점 주인과 경찰의 선처로 훈방됐다.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지역사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우리 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다.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의 암 투병환자가 배고픔에 편의점에서 김밥 한줄을 훔쳤다가 붙잡혔다. <br/> <br/>사정을 딱하게 여긴 편의점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탄원했고, 그 피해도 미미해 경찰은 훈방 조치했다. 이 사실을 접한 지역사회가 온정의 손길을 내민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br/> <br/>4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후 4시11분쯤 파주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A(44·여)씨가 2000원짜리 김밥 한줄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됐다. <br/> <br/>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눈에도 앙상한 몸의 A씨로부터 혈액암과 골수암 등으로 7년 전부터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br/> <br/>남편은 택배 회사에서 물건을 분류하는 일을 하고 있으나 A씨 병원비를 감당하기에 벅찼다. <br/> <br/>팍팍한 살림살이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배가 고팠던 A씨는 김밥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br/> <br/>경찰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편의점 주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A씨를 훈방 조치하고, A씨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체인 '피해자멘토위원회'에 사정을 알렸다. <br/> <br/>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파주지역 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피해자멘토위는 A씨가 당장 쓸 수 있도록 그간 모금한 현금 50만원을 전달하고, 향후 A씨가 식료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기로 했다. <br/> <br/>경찰은 동주민센터에서 A씨가 간병 도우미 서비스 등을 지원받도록 조치했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40.txt

제목: 에이즈 환자도 호스피스 받는다  
날짜: 20170803  
기자: 이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03195619001  
ID: 01100701.2017080319561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알츠하이머치매, 간경화증 등 13개 질환자들의 호스피스 이용률이 미국은 52%, 영국은 46.6%에 달하지만 한국은 5.6%에 불과하다.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규정해 다른 질환의 말기 환자들은 제도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br/> <br/>하지만 4일부터 호스피스 확대를 위한 관련법이 시행돼 말기 암 환자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br/> <br/>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 등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 중에서 호스피스 분야만 시행되는 것으로,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등을 규정한 연명의료 분야는 내년 2월에 적용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임종까지 신체적·사회적·영적 서비스를 제공해 남은 생의 질을 높여주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br/> <br/>이번에 에이즈,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내년 2월부터는 질환 유형과 관계 없이 임종과정에 있는 모든 환자가 대상이 된다. 이때부터는 현재의 병·의원, 한방병·의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br/> <br/>서비스 유형도 늘어났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소하는 기존의 입원형 외에도 생존 기간이 길고 질환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비암질환이 포함됨에 따라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가정형, 자문형 등으로 유형이 확대됐다. <br/> <br/>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이나 질환 존재 여부, 약물 투여나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중앙호스피스센터에는 국립암센터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선정됐다. <br/> <br/>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세계보건기구(WHO)는 말기질환뿐만 아니라 당뇨 등 만성질환까지도 호스피스 대상으로 삼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제도 도입이 늦어 이용률이 낮은 편이나 향후 대상질환과 서비스를 넓혀가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41.txt

제목: “유방암 재발 방지 호르몬 억제제 ‘지방간’ 가능성 높인다”  
날짜: 20170803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03110754001  
ID: 01100701.2017080311075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유방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호르몬 억제제를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 지방간 증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br/> <br/>3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내분비내과 이유미 교수팀(내분비내과 홍남기 강사·유방외과 박세호 교수·종양내과 손주혁 교수)은 2006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병원을 찾아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호르몬 억제제 복용을 시작한 52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했다. 폐경 후 조기유방암 환자로, 간질환의 과거력이 없고, 호르몬억제제를 교차투약하지 않고 하나의 호르몬억제제 만을 지속해서 투약한 군은 이중 1203 명 이었다. <br/> <br/>연구팀은 연구대상자들이 호르몬 억제제 복용을 처음 시작한 날을 기준점으로 삼아 정기적 검사를 통해 획득한 종양관련 정보, 약제정보,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했다. <br/> <br/>연구대상자들의 관찰기간을 총합한 987.4인년(person-years)동안 모두 103건의 새로운 지방간 발생건수가 보고됐다. 대표적 호르몬 억제제인 타목시펜과 아로마테이즈 억제제 투약 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에서 지방간이 발생하나, 타목시펜 사용군에서 발생률과 중증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br/> <br/>연구팀은 호르몬 억제제 복용이 여성호르몬 기능을 억제하거나 농도를 낮춰 건강한 대사활동에 필요한 호르몬들의 불균형을 가져왔기에 지방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경로를 추측했다. <br/> <br/>연구를 주도한 이유미 교수는“<span class='quot0'>폐경 이후 유방암을 겪게 된 환자들에게 타목시펜을 사용함이 아로마테이즈 억제제 사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간효소 수치 상승을 동반한 지방간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독립인자라는 것과 대부분 약제 사용 2년 이내에 지방간이 발생하다는 점을 밝힌 것에 의미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번 연구논문은 ‘유럽 암 저널’(European Journal of Cancer, IF=6.128)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42.txt

제목: [세계는 지금] 개인 자유 침해·정부 반감에…커지는 백신 부작용 '맹신'  
날짜: 20170731  
기자: 이희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31193928001  
ID: 01100701.20170731193928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지난해 유럽 전역에서 홍역으로 숨진 아이가 모두 35명에 이른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망자는 모두 홍역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31명이 루마니아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홍역 백신 접종을 꺼리는 원인으로 ‘백신 반대 운동’을 지목했다. 경제적 이유 등이 아니라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심리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 루마니아에서는 TV진행자 출신의 올리비아 스티어 등 유명 인사들이 “<span class='quot0'>백신에는 수은과 알루미늄이 들어있고, 이는 자폐증을 유발한다</span>”고 주장하고, 루마니아 정교회 역시 부모가 백신을 거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WHO 유럽 담당관 주자나 자카브 박사는 “<span class='quot1'>백신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으로 생긴 이런 비극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다</span>”고 말했다. <br/> <br/> <br/>유럽을 중심으로 백신 반대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 부모에게 어느 정도 백신 접종에 관해 선택권을 부여했던 국가들이 최근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백신에 반대하는 이들은 자폐증 등 부작용이 없다는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며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 전문가들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자기 아이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면역력이 약한 다른 아이에게 질병을 옮기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백신을 꼭 맞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br/> <br/> <br/> 이탈리아 한 시민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로마 시내에서 백신의무접종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br/>로마=AP연합뉴스◆‘백신 반대 운동’ 확산 속 홍역 등 발병↑ <br/> <br/>영국 인디펜던트, NPR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달 모든 아동에게 11개 종류의 백신을 접종하는 법안을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4000여명의 아동이 홍역에 감염된 상황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그간 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마비 등 3개 질병에 대해서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에두아르드 필리페 프랑스 총리는 “<span class='quot2'>백신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에서 홍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span>”고 말했다. <br/> <br/>이탈리아 하원 역시 지난달 28일 6세 이하 아동에게 백신 10종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홍역, 풍진, 파상풍 등이 포함됐으며 백신을 맞지 않는 아동은 유치원 등교가 금지되며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등교시킨 부모에게는 500유로(약 6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모가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양육권을 박탈하는 등의 강경한 방침도 담겼다. 이탈리아 역시 2세 이하 아동의 홍역 백신 접종률이 2013년 88%, 2014년 86%, 2015년 85.3%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하락, 2년 전 대비 홍역 발병 건수가 10배 이상(2500여건) 증가하는 등 보건위기를 겪고 있다. <br/> <br/>올해 7월 기준 홍역 접종률이 80%를 밑돌고 있는 루마니아는 백신 반대운동은 물론 부정부패와 경기 침체로 백신 재고율마저 하락하면서 신생아 1000명 중 11명이 사망하는 등 유럽 내 가장 높은 유아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br/> <br/>미국에서도 지난 5월 미네소타주 헤네핀 등에서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를 중심으로 48명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보건 당국을 긴장시켰다. 2015년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에서 집단 홍역이 발병한 이후 2년여 만에 홍역사태가 발생한 것이었다. 주정부 측은 백신 접종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소문이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 사이에서 퍼진 점이 집단 홍역 발병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br/> <br/> <br/>◆백신 반대 운동 현황과 이유는 <br/> <br/>백신 반대 운동은 1998년 영국 의사 앤드루 웨이크필드가 의학전문지 ‘랜싯’에 홍역·볼거리·풍진을 예방하는 MMR 백신이 자폐증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이후 그의 연구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웨이크필드는 2008년 면허가 박탈돼 의료계에서 퇴출됐다. 하지만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그의 주장은 모델 제니 맥카시, 백신반대 단체 ‘자폐증의 시대’ 등을 통해 퍼지면서 확대재생산됐다. 웨이크필드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백신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개최해 지난 5월 미네소타 홍역 발병 사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폐증에 걸린 아이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고 밝혀 미국 내 백신에 대한 공포를 부추겼다. <br/> <br/>이탈리아에서는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의 설립자 베페 그릴로가 1998년부터 “<span class='quot3'>백신이 아이들의 면역 시스템을 약화하고 있다</span>”고 주장했고, 최근에는 자폐증 원인 중 하나가 백신 접종이라며 백신 거부 운동을 자극했다. 오성운동은 백신 접종 거부를 주장하진 않지만 백신 반대 운동도 시민들의 목소리 중 중요한 부분이라며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br/> <br/>백신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대중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프랑스 국민 6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가 ‘백신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영국에서는 지난 4월 백신 의무 접종을 강요하는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에 4만여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br/> <br/>백신을 거부하는 입장에는 단순히 자폐증 및 수은 중독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반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이디 라르손 워싱턴대 교수는 설명한다. 여기에 대형 제약업체가 백신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자연스럽게 면역을 키우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자연주의’ 역시 백신 반대 운동의 한 요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br/> <br/> <br/>◆“백신 접종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일” <br/> <br/>WHO와 보건 전문가의 말을 종합하면 백신 접종을 피하는 것은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에 아이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2014년 120만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MMR백신과 자폐증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여러 백신에 수은을 함유한 방부제 티메로살이 섞여 있어 아이들 뇌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역시 티메로살이 현재 백신 성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근거가 없다. 오히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6세 이하 아동이 MMR백신, 백일해 백신 등을 의무적으로 접종한 결과 1994~2013년 73만여명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3억220만건의 발병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백신은 매년 200만~300만명의 아이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다”고 설명했다. <br/> <br/>무엇보다 백신 거부는 공동체 보건 안전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뉴욕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는 의사 다이언 헤스는 필수 백신을 맞지 않은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나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늘 약속한다. 그런데 암, 백혈병이 발병해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데 백신 접종을 맞지 않아 홍역 바이러스를 가진 아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 CDC의 앤 슈체트 연구원은 “홍역은 보균자가 앉아 있는 자리에만 있어도 걸리기 쉽다. 환자의 25%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심각하게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r/> <br/>아울러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도 감염 위험이 낮아지는 ‘집단면역’(herd immunity)을 구축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백신 거부는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BBC방송은 전했다. 영국 가디언은 ‘자마 피디아트릭스’를 인용, 미국의 2~11세 아동의 MMR백신 접종률이 5% 낮아질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발병건수는 3배 증가하고, 최소 21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br/> <br/>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이들을 무조건 비난하기보다 소통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게리 피네건 백신 투데이 편집장은 “<span class='quot4'>호주에서는 ‘나 면역력을 갖다’(I immunise)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백신의 중요성을 서로 얘기해주고 지식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해 백신 접종률 제고에 나서고 있다</span>”고 말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br/> <br/>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43.txt

제목: 英 새끼 셰퍼드 50% 안락사…"사람 욕심이 만든 비극"  
날짜: 20170731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31145532001  
ID: 01100701.20170731145532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사람들 취향에 맞춰 교배되는 셰퍼드를 둘러싼 동물 권익 문제가 거론돼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br/>30일(현지시간) 뉴스위크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 왕립수의대는 새끼 셰퍼드 2마리 중 1마리는 비정상적인 교배로 눈을 뜨기도 전에 안락사를 당하며, 질병에 걸릴 확률이 다른 견종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동물 유전학·역학'(Canine Genetics and Epidemiology)지에 발표했다. <br/> <br/>이 잡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댄 오닐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영국 전역의 동물병원 430곳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모아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새끼 셰퍼드에게서 비정상적인 다리 길이와 공격성, 관절염 및 암 등의 질병 발병률이 다른 견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또 전체의 약 20%는 근골격계 질환 또는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7%는 공격성이 매우커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면 모두 안락사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이러한 문제는 ‘도그쇼‘에서 높이 평가하는 '셰퍼드의 기준' 때문으로, 평가에서는 뒷다리가 짧고 어깨에서 꼬리까지 경사를 보이는 종을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이에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을 지닌 셰퍼드를 인위적으로 교배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셰퍼드는 뒷다리가 짧고 어깨에서 꼬리까지 경사를 보이는 종을 우수하다고 평가한다.오닐 박사는 “<span class='quot0'>‘완벽한 독일 셰퍼드‘라는 잘못된 인식과 기준이 셰퍼드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span>”며 “도그쇼는 사람들이 돈과 우월함을 자랑하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뉴스위크 캡처

언론사: 세계일보-2-244.txt

제목: [재테크 단신] 무배당 신한인터넷 생활비 주는 암보험 외  
날짜: 20170731  
기자: 백소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31030533001  
ID: 01100701.20170731030533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무배당 신한인터넷 생활비 주는 암보험 <br/> <br/>신한생명은 모바일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암 진단 시 생활비가 지급되는 ‘무배당 신한인터넷생활비주는암보험’(사진)을 출시했다. 실속형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암보장 개시일 이후 특정암 진단을 받으면 매월 100만원씩 5년간 총 6000만원의 생활비를 준다. 특정암은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을 제외한 암이다. 특정암 진단 확정일에서 5년이 지나면 3개월마다 30만원씩 20회 동안 검사비를 지급한다. <br/> <br/>레저용품 손해담보 보장내용 확대 <br/> <br/>동부화재는 캠핑 등 레저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 추세를 반영해 자동차보험(사진) 레저용품 손해담보 특별약관 보장내용을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로는 골프용품, 캠핑용품 손해를 보장받을 수 없지만, 승용차 기준 3000원 수준의 ‘레저용품 손해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골프용품, 캠핑용품 등의 손해를 최대한 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br/> <br/>다이렉트 해외여행자보험 100만건 돌파 <br/> <br/>삼성화재의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사진)이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누적 판매 100만건을 돌파했다. 이 상품은 해외에서 의료비, 휴대품 도난·파손,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발생한 비용 등을 보장한다. 삼성화재는 상품을 알아보려고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해도 가입권유 전화를 하지 않는 ‘콜 프리’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가족 여행객이 한 번에 보험가입을 하면 추가 할인혜택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휴대전화 인증만으로도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br/> <br/>백소용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2-245.txt

제목: [재테크 레슨] 보험의 효용성 미리 살펴 가입하자  
날짜: 20170731  
기자: 백소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31030533002  
ID: 01100701.20170731030533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올해 45세인 김모씨.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노후준비 전략을 짜보기로 했다. 마침 대학 시절 경영학 수업에서 배운 SWOT 분석이 떠올랐다. 노후준비에서 자신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는 자신의 강점으로 부채가 없다는 것, 약점으로는 과도한 자녀교육비 지출을 들었다. 외부환경적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으로는 각각 정년연장 도입, 저금리를 꼽았다. <br/> <br/>노후준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과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혹시 모를 질병이나 상해의 위험을 생각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 이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준비하는 행위다. 그래서 동기 부여가 잘 안 된다. <br/> <br/> 최은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그런데 평소엔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순간이 있다.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다. 50대 이상 고객들을 인터뷰해보니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같이 보험 보장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 여기에 보험금을 받아 진단비 혹은 치료비로 쓰거나, 보험료 납입 중지 등의 기능을 활용해 소득이 줄어든 기간에도 보험을 유지하는 사례를 목격하면 그 효용성을 더 크게 느낀다. <br/> <br/>보험이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금전적 충격을 완화하는 수단이다. 갑자기 암에 걸려도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했다면 막대한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장이 아파 가계의 소득이 줄어도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으면 메디컬푸어(medical poor)로 전락할 위험이 줄어든다. 위험이 더 큰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셈이다. <br/> <br/>일단 병이 발병하고 나면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질병이나 상해의 종류, 연령에 따라 가입조건이 다르니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직 젊고 건강할 때 서둘러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안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br/> <br/>이제 막 소득활동을 시작한 20대라면 실손보험과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부터 먼저 마련하자. 기혼자들은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한 종신보험, 각종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탄탄히 준비해둬야 한다. 독일의 행동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퍼의 말처럼 실천은 ‘생각’이 아닌,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 100세 시대에 나의 건강과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br/> <br/>최은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

언론사: 세계일보-2-246.txt

제목: 김우빈이 투병 중인 비인두암…조기 발견 시 생존율 70~90%  
날짜: 20170728  
기자: 이세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28164514001  
ID: 01100701.20170728164514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br/> <br/> 비인두암으로 투병 중인 배우 김우빈이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높은 검색 순위를 보인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선 그가 걸린 비인두암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br/> <br/>비인두암은 코와 목, 편도선에 생기는 암으로 두경부암의 한 종류이다. 비인두란 뇌 바로 아래의 위치한 코와 귀, 입천장 부위를 지칭한다. 비인두는 인두편도의 가장 윗부분이며 인두를 비롯한 편도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추정되어, 비강과 구강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비인두암의 증상으로는 한쪽 귀만 먹먹하거나 한쪽 코만 막히는 현상이 있으며 피가 섞인 콧물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그 밖으로는 목에 혹이 만져지기도 하고 목소리가 변하기도 한다. <br/> <br/>그렇다면 비인두암에 걸렸을 때 생존율은 얼마나 될까?  <br/> <br/>대다수의 의사들은 비인두암의 치료 후 5년 생존율은 50%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비인두암의 완치율이나 생존율 그 자체는 초기암과 진행암을 모두 포함한 평균적인 통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없으며, 특히 발병 초기에 발견 후 치료를 시작했다면 완치율은 70~90%까지 올라간다고 전했다. <br/> <br/>뉴스팀 bigego49@segye.com <br/>사진=유튜브 채널 '더스타'

언론사: 세계일보-2-247.txt

제목: 日 후쿠시마원전 인근 해수욕장 개장  
날짜: 20170724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24111413001  
ID: 01100701.20170724111413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후쿠시마 제1 원전 인근에 있는 해수욕장이 최근 수리를 마치고 개장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br/> <br/>23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 있는 해수욕장이 7년간의 보수공사를 끝내고 지난 15일 개장했다. <br/> <br/>이와키시는 대지진 당시 주민 115명이 사망하고 민가 90%가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원전사고 전 지역을 찾은 여행객은 26만명 이였지만 사고 후 후쿠시마 일대 모든 해수욕장이 폐쇄돼 7년간 사람 발길이 닿지 않았다. <br/> <br/>해수욕장을 운영·관리하는 상인회는 개장을 축하하기 위해 훌라춤 공연 등을 선보였으며, 이날 개장식에 주민과 학생 등 수백여 명이 찾아 물놀이를 즐겼다. <br/> <br/>해수욕장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주민은 “<span class='quot0'>바다와 함께 살아온 지난날을 등지고 싶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재건 중인 마을을 방문해 달라</span>”고 말했다. <br/> 물놀이를 즐기는 지역 주민. 이날 수백여 명이 몰렸다.이번에 개장한 해수욕장은 후쿠시마 제1 원전과 약 59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도쿄전력은 지난 2015년 9월 4차례에 걸쳐 원자로 건물과 터빈 건물에 쌓인 오염수 약 3400톤을 후쿠시마 앞바다에 흘려보냈다. <br/> <br/>도쿄전력 자체 검사 결과 삼중수소는 1ℓ당 460㏃(베크렐)이 검출됐다. 정화 처리를 거쳐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췄다고 하지만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출된 것이다. <br/> <br/>이에 시민들은 방사선에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출해 놓고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br/> <br/>한편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는 지하수가 원자로 건물과 터빈 건물에 흘러들어 방사성 물질과 뒤섞이면서 매일 약 300t의 고농도 오염수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 오염수는 후쿠시마 제1 원전부지 내 580여 개 탱크에 분산 저장돼 있다. <br/> <br/>일본 정부는 방사선 피해를 우려해 원전 반경 20km를 출입통제하고 있다. <br/> 개장한 해수욕장은 후쿠시마 제1 원전과 약 59km 떨어진 곳에 있다.\* 방사성물질 삼중수소는 물과 분리하기 어려워 제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br/>다른 방사성 물질과 달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기간 노출시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br/>삼중수소는 인체 내에서 오랫동안 체류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비율은 낮으나 방사선 피폭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마이니치신문 캡처

언론사: 세계일보-2-248.txt

제목: 커피 마시는 사람이 건강하다 …암·염증 수치도 떨어뜨려  
날짜: 20170723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23174436001  
ID: 01100701.20170723174436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카페인 덩어리' 커피를 마시는 이가 진짜 건강할까.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br/> <br/>지금까지는 대체로 연구 대상을 백인으로 한정했으나 아프리카인과 미국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br/> <br/>코메디닷컴은 최근 어떤 인종이든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수명이 보다 길어진다는 상관성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br/> <br/>그러면서 국제학술지 내과학회보에 실린 새로운 2편의 논문을 소개했다. 이들 논문은 미국과 유럽 10개국에 거주하는 70만명의 커피 마시는 습관을 조사해 자주 마시는 이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사망 위험률이 낮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r/> <br/>아프리카계와 일본계 미국인, 라틴계, 백인 등의 실험 대상자들 중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는 이들은 커피를 아예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연구 기간인 16년 동안 조기 사망 위험률이 18% 낮았다. 심지어 매일 한잔씩만 마셔도 전혀 마시지 않는 이보다 12% 낮은 조기 사망률을 보였다.  <br/> <br/>유럽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편이 전혀 마시지 않는 축보다 조기 사망 위험률이 7~12% 낮았다. 소화기관과 심장 관련 질병이 생길 확률 역시 낮았다.  <br/> <br/>카페인이 든 커피를 마시든 디카페인을 마시든 효과는 비슷했다. 카페인 때문에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간접 확인한 셈이다.  <br/> <br/>커피에 든 특정한 항산화 성분이 심장질환과 암의 발병 위험률을 떨어뜨리고,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또 다른 성분은 나이와 연관된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br/> <br/>커피가 잘 받지 않은 이는 마시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은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235㎖ 정도인 4잔까지는 안전한 범주에 속한다. <br/> <br/>그동안 연과 결과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는 이는 당뇨병과 뇌졸중, 심장질환, 일부 암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왔다. <br/> <br/>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49.txt

제목: 급격한 다이어트 후 귀가 먹먹하다면 이관개방증 가능성  
날짜: 20170722  
기자: 정진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22130232001  
ID: 01100701.2017072213023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다이어트 후유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휴가철을 앞두고 단기간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다가, 목표 체중까지 감량은 성공했지만 갑자기 귀가 막힌 것처럼 먹먹하고 목소리가 크게 들린 것이다. A씨의 병명은 이관개방증. <br/> <br/>이관은 귀의 고막 뒤 중이라는 공간과 코를 이어주는 관으로, 귀 속 압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평소에 닫혀있는 이관은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면 열리게 되며 공기가 순환돼 압력을 조절한다. 그런데 이관이 계속 열려있게 되면 자신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심지어 숨소리까지 들려 대화가 힘들고 평소생활에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br/> <br/>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관개방증은 보통 암 등의 질병, 출산이나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해 체중이 심하게 줄었거나 극도의 스트레스, 심한 운동 등에 의해 발생된다. 이관개방증 해결을 위해서는 본인의 체중을 찾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또 고막에 튜브를 삽입하여 귀 안팎의 압력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장기간 이관개방증을 앓거나 아주 심한 경우 고막안쪽에 긴 관을 삽입해 개방된 부분을 막는 외과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br/> <br/>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는 “<span class='quot0'>급격한 체중감소로 인해 발생된 이관개방증은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본인의 정상체중을 찾는 것이 가장 좋고 간편한 치료방법</span>”이라고 조언하며 “<span class='quot0'>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하에 고막 환기관 튜브 삽입 또는 외과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갑작스럽게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 때문에 돌발성 난청이나 급성저음역난청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돌발성 난청은 발병 후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청력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br/> <br/>임기정 교수는 “<span class='quot0'>평소와 소리가 다르게 들리거나 이명이 생기는 등 청각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다른 질병의 증상이거나 청력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의 발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고 조언했다. <br/> <br/>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50.txt

제목: 아내 살해 뒤 차량 불태워 교통사고 위장한 남편에 징역 30년형  
날짜: 20170720  
기자: 김동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20221906001  
ID: 01100701.20170720221906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한 5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br/> <br/>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기선)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br/> <br/>재판부는 “17년 간 고락을 같이 한 아내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려 한 범행은 도덕적·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더구나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자녀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데다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r/> <br/>이어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현재 암 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br/> <br/>최씨는 지난 1월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모(53)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승용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어넣어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br/> <br/>사건 당시 그는 “새벽에 교회를 다녀온 후 집으로 귀가했으나 아내는 냉이를 캐기 위해 시댁으로 갔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했다. <br/> <br/>하지만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건 전 현장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을 포착하고 동선을 추적해 남양주시에 있던 최씨를 검거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br/> <br/>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51.txt

제목: [양향자의 더 건강한 음식] 복분자 부실한 氣 살리는 여름보약, 꽃과 잎은 천연 염증치료제  
날짜: 20170719  
기자: 송은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19211442001  
ID: 01100701.20170719211442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복분자는 산딸기의 일종인 고무딸기를 말한다. 복분자술을 담가 마시면 주체하기 힘들 만큼 오줌발이 강해 요강이 뒤집힌다는 데서 복분(넘칠 복(覆), 요강 분(盆))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 복분자술에 스태미나의 대표격인 장어를 곁들이면 좋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복분자는 정력을 증강시키고, 양기가 부족하여 소변을 자주 보거나 정액을 흘리는 증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br/> ▲복분자 구절판 <br/> <br/><재료> 복분자 가루 1작은술, 밀가루 1/2컵, 소금, 겨자, 당근, 황백지단, 오이, 햄 50g, 표고버섯 50g, 석이버섯 20g, 쇠고기 100g, 식용유 <br/> <br/><만드는 법>①밀가루에 복분자 가루를 넣어서 물을 넣고 걸쭉하게 반죽해 체에 내린다. <br/> <br/>②①을 팬에 기름 두르고 6㎝ 길이로 전병을 부친다. <br/> <br/>③당근은 5㎝ 길이로 채 썰고 오이도 돌려깎기 한 다음 채썬다. <br/> <br/>④햄과 표고, 고기는 5㎝ 길이로 채썬다. <br/> <br/>⑤석이버섯을 곱게 채썬다. <br/> <br/>⑥팬에 기름을 두르고 오이 당근 석이 햄 표고 고기 순으로 익힌다. <br/> <br/>⑦겨자를 따뜻한 물에 개어 끓는 솥뚜껑 위에 발효시켜서 식초, 설탕, 간장으로 양념한다. <br/> <br/>⑧그릇에 모든 재료를 돌려 담고 가운데 밀가루 전병을 담고 겨자장을 곁들인다. ▲복분자 오이냉국 <br/> <br/><재료> 복분자 가루 1작은술, 오이 1개, 미역 50g, 식초, 설탕, 마늘, 소금 <br/> <br/><만드는 법>①물을 끓여서 복분자 가루를 넣고 젓는다. <br/> <br/>②오이는 채를 썬다. <br/> <br/>③미역은 끓는 물에 데쳐서 3㎝ 길이로 썬다. <br/> <br/>④①에 식초 설탕 소금을 넣고 간을 한 다음 오이와 미역을 넣는다. <br/>동의보감에 따르면 산딸기는 약 기운을 돕고 몸을 가볍게 하며 머리털이 희어지지 않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또 남성의 신기(腎氣) 부족, 정액 고갈, 음위증, 여성의 불임에 효과가 있다. 오줌을 자주 누거나 간과 신장이 허해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하루에 복분자 6∼12g을 달이거나 알약, 약엿 형태로 먹으면 좋다. 불임증에는 복분자, 차전자, 오미자, 토사자, 백질려를 같은 양으로 섞어 꿀알약을 만들어 한 번에 6∼8g씩 하루 세 번 먹으면 효험이 있다. 그리고 음위증에는 복분자를 술에 담갔다가 약한 불에 말려 가루낸 것을 매일 아침 8∼12g씩 먹으면 좋다. <br/> ▲복분자 칼국수 <br/> <br/><재료> 복분자 가루 1작은술, 밀가루 1컵, 계란 1개, 모시조개 100g, 다시마 1쪽, 멸치 5개, 마늘, 호박 50g, 소금 <br/> <br/><만드는 법> ①밀가루를 체에 내린 다음 복분자 가루와 계란을 넣고 물을 넣어서 반죽한다. <br/> <br/>②모시조개는 깨끗이 씻어서 소금물에 담갔다가 해감한다. <br/> <br/>③마늘은 다지고 호박은 채를 썬다. <br/> <br/>④냄비에 다시마와 멸치를 넣어서 육수를 끓인 다음 모시조개를 넣고 끓인다. <br/> <br/>⑤반죽을 밀대로 밀어서 채를 썰어 국수를 준비한다. <br/> <br/>⑥④에 ⑤를 넣어서 끓이다가 호박과 마늘을 넣고 소금으로 간한 다음 끓인다. <br/>복분자는 이밖에도 해열에 도움을 줘 감기, 열성질병, 폐렴, 기침에 쓰인다. 탄닌 성분은 항암효과가 있어 암을 예방한다. 항산화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돼 노화를 방지한다. <br/> <br/>(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언론사: 세계일보-2-252.txt

제목: [이동준의 일본은 지금] 암과 싸워온 여성, 그가 사회에 남긴 교훈  
날짜: 20170719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19093320001  
ID: 01100701.20170719093320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암 투병 중에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희망을 사회에 전한 고인에게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br/> <br/>34살 젊은 나이 두 명의 자녀와 남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일본 아나운서 고바야시 마오.  <br/>그녀는 지난해 9월 블로그를 개설하며 총 352건의 글을 남겼다. <br/> <br/>그녀 죽음이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건 아픔과 싸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그 누구보다 반짝이는 눈동자로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미소를 전했기 때문이다. <br/> <br/>일본여자대 가토바야시 미치코 강사는 “<span class='quot0'>죽음을 앞두고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렇게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인 건 매우 놀라운 일</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영국 BBC도 그녀의 모습이 세계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줬다고 평가하며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했다. <br/> <br/>그녀의 글을 보면 처음 암 투병 사실이 알려지자 망설임이 묻어 나온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하루를 반성하고, 그 속에서 긍정을 이끌 내는 게 보인다. <br/> <br/>특히 속마음을 모두에게 공개한 그녀에게서 사람들은 ‘삶에 대한 의미와 용기를 되찾았다’고 고마워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3주가 지난 지금도 2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희망과 용기를 얻고 있다. <br/> <br/>정신과 의사 가야마 리카는 그녀의 긍정에 감탄했다고 말한다. <br/>그는 “<span class='quot0'>사람은 병에 걸리면 자신을 비하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작은 것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모두에게 전한 것은 대단한 일</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이어 사람들의 공감대가 확산한 이유로 앞서 희망을 잃지 않은 모습과 “투병 중에도 누군가를 깊이 배려하며 성숙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은 아닐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br/> <br/>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다이와여자대 반도 마리코 교수는 “그녀를 통해 많은 사람 포기하지 않고 소중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법을 배웠다”며 “이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br/> <br/>그러면서 “정치인들은 그녀가 일으킨 '기적'을 보며 왜 많은 사람이 그러한 기적을 원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r/> <br/>그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그녀의 모습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 <br/>故고바야시 마오가 6월 20일 마지막으로 남긴 글. <br/> <br/>‘오렌지 주스’ <br/>안녕하세요. <br/>지난 며칠 오렌지 주스를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br/>사실 직접 짜낼 힘이 없어서 어머니가 일어나 주스 만들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br/>지금은 구내염의 통증 대신 오렌지의 새콤달콤함을 느끼고 있어요. <br/>아침부터 웃을 수 있었습니다. <br/>여러분도 오늘 웃는 얼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53.txt

제목: 아내의 암투병 간호로 주목받은 성진우, 신곡 '하얀 미소'로 컴백  
날짜: 20170718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18154122001  
ID: 01100701.20170718154122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아내의 유산과 암투병까지 겹쳐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는 애틋한 사연의 주인공인 90년대 스타가수 성진우(47·사진)가 오는 27일 신곡 ‘하얀미소’로 컴백한다. <br/> <br/>성진우는 1994년 ‘포기하지마’로 데뷔해 가요계에 돌풍을 일으키며 승승장구하다 2009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면서 점점 팬들의 기억에 잊혀졌다. <br/> <br/>특히 지난달 11일 MBC ‘사람이 좋다’에 성진우는 아내가 함게 출연해 그간 힘들게 살아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br/> <br/>그는 “4년전 결혼식을 준비하다 아내가 유산하고 암수술까지 받았다. 당시 아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게 됐다”며 “식도 올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미안하고 너무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심경을 털어놔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br/> <br/>성진우는 그러던 중 ‘안동역에서’를 작곡한 최강산과 작사가 김병걸이 완성한 곡‘하얀미소’를 선물받아 다시 가요계 복귀에 용기를 냈다.  <br/> <br/>이 곡은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성진우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뤄 누구나 한번은 겪어봤을 만한 이별의 아픔을 더 애련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br/> <br/>성진우의 신곡 ‘하얀미소’는 오는 27일 낮 12시 디지털 싱글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br/> <br/>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54.txt

제목: [차 한잔 나누며] “중증질환 치료, 가족 곁에서 받을 수 있어야”  
날짜: 20170717  
기자: 송동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17211829001  
ID: 01100701.2017071721182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무슨 일이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겉보다는 내면이 우선돼야 길을 올바로 갈 수 있고, 도모하는 일도 잘 될 수 있는 거죠.” <br/> <br/>홍성희 학교법인 을지학원(을지대학교·을지대병원) 이사장은 집무실이 작아 불편하지 않으냐는 물음에 “이보다 더 클 필요 있나요. 의사 진료실보다는 작지만 불편을 못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br/> <br/>내실보다는 외적인 성장과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요즘, 그의 일성은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br/> <br/> 홍성희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이 14일 서울 노원구 을지병원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의정부 캠퍼스와 병원 건립은 지역 의료는 물론 교육분야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span>”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br/>이제원 기자지난 14일 서울 노원구 을지병원 모자보건센터에서 홍 이사장을 만났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흰 가운을 입은 그가 기자를 반갑게 맞아줬다. <br/> <br/>제주 출신의 홍 이사장은 1990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성형외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을지병원에서 전공의를 마친 뒤 성형외과 과장과 재무이사, 병원장을 지냈다. 이어 지난 2월까지 을지병원 이사장을 지냈다. 을지학원 이사장(6대)은 2016년 8월에 취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br/> <br/>홍 이사장은 의료와 교육의 외길 27년을 오로지 환자와 학생만을 위해 걸어왔다. 그는 몸이 편하고 스트레스도 적은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의사의 길로 들어섰다. <br/> <br/>그는 “누군가 꼭 해야 한다면 그것을 내가 하면 어떨까. 어릴 적 언젠가 의사가 돼 병원이 없는 시골을 찾아다니며 무료 진료를 펼치면 참으로 멋지고 보람 있겠다고 꿈꿨죠”라며 의사가 된 이유를 설명했다. <br/> <br/>‘인간사랑 생명존중’ 이념으로 지난 60년을 의료와 교육에 매진한 을지재단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 금오동 반환 미군 캠프 에세이욘 터에 6000여억원을 투입, 4년제 대학인 을지대 의정부 캠퍼스와 부속병원 등이 합쳐진 국내 최대 규모의 융복합의료시설을 착공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는 미군공여지 개발에 2000억원 이상의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국내 첫 사례로 꼽힌다. <br/> <br/>홍 이사장은 “<span class='quot1'>경기북부지역은 어느 곳보다 의료와 교육의 기회 확대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많아 병원과 학교를 세우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1'>을지는 이를 통해 지역 의료·교육분야의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span>”고 말했다. <br/> <br/>오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문을 여는 대학과 부속병원은 소비자 수요창출 특성화 기반하에 보건의료 집중화와 바이오 융합화로 차별화된 양질의 의료·교육 서비스에 역점을 둬 기대가 크다. <br/> <br/>대학은 지역 인재양성은 물론 시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이 되고,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을지대병원은 대학 부속병원으로 중증질환 중심의 첨단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고령화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지역민의 의료욕구 충족을 위한 의료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여성센터와 뇌신경센터, 소화기센터, 내분비센터, 심혈관센터 등 각종센터와 진료과를 갖추게 된다. 아울러 병원 내 감염관리를 극대화하고자 국내 최초로 청결 지역에 수술실을 배치하는 ‘로젯 시스템’도 도입한다. <br/> <br/>홍 이사장은 지역 주민들이 암 같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 등 다른 곳으로 갈 필요 없이 가족들 곁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1'>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력 있는 의료진과 특화된 전문진료센터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민들로부터 항상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영상의학과 핵의학, 방사선종양학과 등에는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각종 첨단 의료장비도 대거 설치하겠다</span>”고 밝혔다. <br/> <br/>“<span class='quot2'>의료 외적으로는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2'>병원 앞 인접 공간에는 문화와 예술을 언제나 접할 수 있는 테마형 갤러리 정원도 꾸며 시민들이 힐링하는 장으로 만들겠다</span>”고 홍 이사장은 전했다. <br/> <br/>그는 최근 을지대 의정부 캠퍼스와 부속병원 건립에 재단 회장이자 부군인 박준영 회장과 함께 사재 1억원을 출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도 했다.  <br/> <br/>홍 이사장 부부의 기부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학교발전 기금으로 사재 10억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15일간 코호트 격리됐던 병원 직원들에게 1억원을 위로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br/> <br/>특히 2013년 타계한 재단 설립자 고 범석(凡石) 박영하 박사의 나눔 정신과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박준영 회장과 유가족은 고인의 주택을 포함한 전 재산 172억원을 을지학원과 병원에 통 크게 기부한 바 있다. <br/> <br/>홍 이사장은 “<span class='quot1'>의정부 캠퍼스와 대학병원 건립은 매우 뜻 깊고 중요한 사업</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사회공헌 역시 을지의 기본정신이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span>”라고 웃으며 말했다. <br/> <br/>송동근 기자 sd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55.txt

제목: [고인을 기리며] 여성 최초 ‘필즈상’ 수상… 이란 출신 수학 천재  
날짜: 20170716  
기자: 남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16211250001  
ID: 01100701.20170716211250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여성 최초로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한 이란 출신 수학자 마리암 미르자카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15일(현지시간) 유방암으로 숨졌다. 향년 40세. <br/> <br/>1977년 테헤란에서 태어난 미르자카니 교수는 고교 시절인 1994년과 1995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2년 연속 금메달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고인은 1999년 테헤란 샤리프기술대학에서 수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에 유학해 2004년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클레이수학연구소 연구원, 프린스턴대 교수를 거쳐 2008년부터 스탠퍼드대에서 교수로 활동해오다 4년 전 암이 발병해 투병해왔다. 전공 분야는 타이히 뮐러 이론, 쌍곡 기하학, 에르고드 이론, 위상수학 등이다. <br/> <br/>미르자카니 교수는 2014년 8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수학자대회(ICM)에서 기하학의 난제로 꼽히는 ‘모듈라이 공간’을 새롭게 해석한 논문으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필즈상을 받았다. 그의 연구는 우주의 정확한 모양과 부피를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수학계는 물론 물리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그는 필즈상을 수상하며 “상당수 청소년, 특히 여학생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데 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br/> <br/>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56.txt

제목: 주변 관심 덜 받는 癌환자 일반인보다 우울감 심해  
날짜: 20170716  
기자: 정진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16205159001  
ID: 01100701.2017071620515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환자는 ‘사회적 지지도’가 낮으면 일반인보다 더 우울해하고 삶의 질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 신동욱 교수와 충북대병원 충북지역암센터 박종혁 교수팀이 암환자 1818명과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사회적 지지도와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여기서 사회적 지지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관심과 도움의 수준을 뜻한다. <br/> <br/>암환자는 모든 항목에서 일반인보다 사회적 지지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다.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사회적 지지도가 낮다고 느낄 때 받는 충격은 암환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도와 우울감의 상관관계에서 암환자의 우울감이 훨씬 더 가파르게 나타난 것이다. 신 교수는 “<span class='quot0'>치료 과정에서 암 환자들은 불안, 우울, 재발에 대한 두려움 등을 겪는다</span>”며 “<span class='quot0'>가족과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으로 잘 돌봐주면 환자가 우울증을 겪지 않을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주변에 더 감사하게 된다</span>”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일본 임상암학회지’(Japanese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 <br/> <br/>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57.txt

제목: [포토] 토마토 '하루, 한 끼, 한 개'로 건강 챙기세요  
날짜: 20170715  
기자: 지차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15030211001  
ID: 01100701.20170715030211001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14일 오전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토마토 `1(하루), 1(한 끼), 1(한 개)`로 건강을 챙기세요</span></span></span></span>"라는 주제로 `2017 토마토 소비촉진 캠페인`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김원석 농업경제지주 대표이사(왼쪽 여섯번째), 최계조 한국토마토대표조직 회장(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소비촉진 활동을 하고 있다.농협(회장 김병원)과 (사)한국토마토대표조직은 14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맛있고 국산 토마토 홍보를 위한「2017년 토마토 소비촉진 캠페인」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br/> <br/> 14일 오전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토마토 `1(하루), 1(한 끼), 1(한 개)`로 건강을 챙기세요</span></span></span></span>"라는 주제로 `2017 토마토 소비촉진 캠페인`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최계조 (사)한국토마토대표조직 회장(가운데)이 서상목(사)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오른쪽)에게 전국푸드뱅크에 지원하는 토마토 13톤을 전달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올해 주제는“<span class='quot1'>토마토 1(하루), 1(한끼), 1(한개)로 건강을 챙기세요!</span>”이다.이날 행사에는 개막식 퍼포먼스, 토마토요리 전시 및 시식 등 다채로운 현장 이벤트로 진행되었으며, 소외이웃을 위한 사랑과 나눔 실천 차원에서 (사)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에 토마토 13톤을 전달했다.  <br/> <br/> 14일 오전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토마토 `1(하루), 1(한 끼), 1(한 개)`로 건강을 챙기세요</span></span></span></span>"라는 주제로 `2017 토마토 소비촉진 캠페인`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김원석 농업경제지주 대표이사(오른쪽에서 세번째), 최계조 한국토마토대표조직 회장(오른쪽에서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토마토 주스를 만들고 시음을 하고 있다.최계조 (사)한국토마토대표조직 회장은“<span class='quot2'>이번 행사는 토마토 성출하기를 맞아 소비 확대를 위해 준비했다</span>”며,“<span class='quot2'>우리나라 연간 1인당 토마토 소비량은 2007년 11kg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지난해에는 8.2kg에 그친 만큼, 이번행사를 계기로 맛있고 몸에 좋은 국산 토마토가 국민들께 다시 사랑받을 수 있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에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span class='quot3'>농협은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와 제철 농산물의 맛과 영양을 알리기 위해 주요 출하시기에 맞춰 다양한 품목별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span>”며,“<span class='quot3'>국민들께서는 우수한 우리 제철 농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span>”고 답했다. <br/> <br/> 14일 오전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토마토 `1(하루), 1(한 끼), 1(한 개)`로 건강을 챙기세요</span></span></span></span>"라는 주제로 `2017 토마토 소비촉진 캠페인`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최계조 한국토마토대표조직 회장(왼쪽에서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다양한 토마토 요리를 시식하고 있다토마토는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의 하나로,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은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풍부한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노화를 막아준다. 특히, 포만감은 높지만 칼로리가 낮아 제철 과일로 다이어트 식단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br/>  <br/>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58.txt

제목: 中 인권·반체제·민주개혁 운동 이끈 주역… ‘중국의 만델라’  
날짜: 20170714  
기자: 이우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14005746001  
ID: 01100701.20170714005746001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13일 별세한 작가이자 변호사, 학자인 류샤오보(劉曉波)는 중국 인권 및 반체제, 민주개혁 운동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는 ‘08 헌장’ 발표를 계기로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돼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201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중국 반체제 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서방언론은 류샤오보를 가리켜 ‘중국의 만델라’로 불렀다. 류샤오보의 죽음으로 그의 해외이송 치료를 끝까지 거부해 죽음을 재촉했던 중국 당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인권 문제가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br/> <br/>류샤오보는 1955년 12월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출생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지식청년이라는 비판을 받고 지방으로 쫓겨가 건축공사장의 근로자 등을 전전하기도 했다. 그는 1982년 지린대학 중문과를 졸업한 뒤 베이징사범대학에서 석·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노르웨이 오슬로, 미국 컬럼비아, 하와이 대학 등에서 방문학자로 지내면서 특강을 했다. <br/> <br/>류샤오보가 반체제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중국 사상계의 ‘덩샤오핑’으로 불리는 철학자 리저허우(李澤厚)를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부터다. 그의 책 ‘선택적 비판: 리저허우와의 대화’는 베스트셀러가 됐고 중국 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흑마(黑馬·다크호스)라는 필명도 얻었다. 그러던 중 1989년 6월 톈안먼(天安門) 사태가 발생하자 미국에 있던 류샤오보는 중국으로 돌아가 민주개혁 운동에 동참했다. 류샤오보는 당시 허우더젠(侯德建), 가오신(高新), 저우둬(周舵) 등과 함께 ‘톈안먼 4군자’로 불렸다. <br/> <br/> <br/>그해 6월 4일 무력진압으로 시위대가 해체된 뒤 류샤오보는 당국에 체포돼 ‘반혁명 선전선동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9개월 뒤 그는 형사처벌 면제 처분을 받고 석방돼 집필 활동을 재개하는 등 민주화 운동에 다시 가담했으며 1995년 5월 톈안먼 사태 재평가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펼치다 9개월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했다. 이어 1996년 9월 중국의 대만 정책을 비판하며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가 다시 체포돼 노동교화 3년형을 선고 받았다. <br/> <br/>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비평과 글을 계속 쏟아내 가택 연금과 구속, 석방을 되풀이하던 가운데 2008년 12월 중국의 반체제 인사 300여명과 함께 민주화를 요구하는 ‘08 헌장’발표를 준비하던 사실이 발각돼 ‘국가정권 전복선동’ 혐의로 가택연금당한 뒤 2009년 6월 11년형을 선고 받았다. <br/> <br/>류샤오보는 랴오닝성 진저우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1935년 독일의 카를 폰 오시에츠키와 1991년 버마의 아웅 산 수지에 이어, 구금 중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세 번째 인물이 됐다. <br/> <br/>중국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류샤오보의 시상식 참석은 물론 가족의 참석까지 막았다. 중국 내 반정부 시위는 철저하게 억압했고, 시상식에 초청받은 국가들을 상대로도 불참을 압박했다. <br/> <br/>노르웨이 대해서는 무역 보복을 강행했다. 시상식은 그가 앉았어야 했을 ‘빈 의자’와 함께 진행됐다. 이후 국제사회는 그의 석방을 요구해왔지만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그는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류샤오보와 그의 가족들은 해외 이송치료를 계속 요구했지만 중국 당국은 끝내 그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br/> <br/>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59.txt

제목: [사람들] 길 잃고 병든 개 70마리를 돌보는 사라 “신이 준 임무”  
날짜: 20170713  
기자: 허정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13213239001  
ID: 01100701.20170713213239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사라 모란이 강아지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페루 리마에 있는 그녀의 집이자 유기견들에겐 천국과도 같은 안락한 보호소입니다. 현재 그녀는 길 잃고 병든 개 70마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span class='quot0'>개들을 돌보는 일이 신이 저에게 준 임무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span>” 최근에 구조돼 특별히 고안된 견용 휠체어에 의지하여 이곳저곳을 활보하는 여덟 마리 가운데 하나인 ‘페카스’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48살 사라가 말합니다. 8년 전 유기견 한 마리를 구해 자신의 집에서 돌보다가 시작된 보호소는 ‘기적의 개들(Milagros Perrunos)’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암을 앓거나 하반신이 마비된 개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방에도, 마루에도, 계단에도, 이층에도, 집 안 구석구석 개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들 잘 지냅니다. 물론 모두 입양 준비 상태입니다. 동물애호가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개들에게 제2의 삶을 제공합니다. 기부금은 개들의 먹이와 장난감, 견용 휠체어를 사는 데 사용되는데 이것만 해도 항상 부족합니다. “난 매일 여기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새해에도 생일에도 난 항상 이곳에 있습니다. 병들고 버림받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그들이 나를 많이 가르칩니다.” 사라의 말입니다. <br/> <br/>허정호 기자, AP연합뉴스

언론사: 세계일보-2-260.txt

제목: [양향자의 The 건강한 음식] 와삭!! 여름을 베어 물다  
날짜: 201707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12195728001  
ID: 01100701.20170712195728001  
카테고리: 사회>날씨  
본문: 푹푹 찐다.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는 더 높다. 올해는 지구온난화 영향인지 더위가 더 빨리 다가온 느낌이다. 여름 제철 과일채소들도 일찌감치 모습을 드러냈다. <br/> <br/>여름 제철 과일채소 하면 제일 먼저 수박을 떠올리게 된다. 시원하고 달짝지근한 수박은 한여름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여겨진다. 수박은 수분을 많이 함유해 더위를 식힐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데도 좋은 식품이다. 동의보감에는 수박이 마른 갈증과 더위의 독기(서독)을 없애준다고 적혀 있다. ‘물’이 가지는 연약하고 무가치한 이미지 때문에 물만 잔뜩 든 수박이 무슨 좋은 음식이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 누가 권하지 않아도 저절로 수박에 손이 간다. <br/> <br/>한입 베어 먹으면 입 안 가득 차는 단물은 갈증을 해소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한여름에 햇빛을 쬐거나 한 공간에서 장시간 일하다 보면 체온 유지를 위해 몸이 무리하게 되고, 더위를 먹게 된다. 그래서 더위에 지쳐 건강을 상하기 전에 더위를 바로 해소해줘야 한다. 이럴 때 수박이 아주 좋은 음식이자 약이다. 수박의 약 90%는 수분이어서 무더운 여름에 수분 손실을 막아줄 뿐 아니라 더위를 식혀준다.  <br/> <br/>수박에 함유된 칼륨은 나트륨과 결합돼 함께 배설되기 때문에 체내 염분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는 약이 될 수도 있다. 수박 하면 빨간 속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수박의 붉은색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로 이것의 70% 이상이 리코펜(lycopene)이다. 리코펜은 최근에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br/> <br/>또 수박은 버릴 게 없는 식품이다. 수박의 흰살 부분은 따로 모아서 노각처럼 무쳐 먹어도 맛있고, 물과 함께 달여 보리차 대신 마시면 갈증을 타는 당뇨환자들에게 좋다. <br/> <br/>좋은 수박은 특유의 줄무늬가 뚜렷하고 색이 짙으며 껍질이 얇고 탄력이 있다. 또 두드렸을 때 탁음이 난다. 과실의 어깨가 벌어지고 꼭지 부위가 들어가 있으며 꽃자리 부위를 누르면 탄력이 있고 황백색이다. 이와 함께 싱싱하고 당도가 높으며 씨가 적다. <br/> <br/>(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br/> <br/> <br/> <br/>▲수박 스테이크 <br/> <br/>재료 수박 ¼개, 레드 와인 1/3컵, 파르메산 치즈 ¾컵, 버터 4큰술, 올리브 오일 4큰술, 소금 2작은술, 후춧가루 ½작은술, 발사믹 식초 3큰술 <br/> <br/>만드는 법 ①수박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 껍질을 벗긴다. ②①의 수박에 밥그릇 등 원형 틀로 모양을 낸다. ③②의 수박에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려둔다. ④달군 프라이팬에 버터를 두르고 수박을 앞뒤로 굽는다. ⑤수박이 노릇해지면 와인을 붓고 졸이다가 와인이 1큰술가량 팬에 남았을 때 꺼내 접시에 담고 발사믹 식초와 파르메산 치즈를 뿌려 완성한다. 수박은 수분이 많은 식품으로 오래 조리하면 수박 특유의 아삭함이 감소되므로 수박 가장자리가 노릇하게 익을 때까지만 끓인다. <br/> <br/> <br/>▲수박 화채 <br/> <br/>재료 수박 1/2통, 프루츠 칵테일 1캔, 냉동 블루베리 1/2컵, 우유 1/2컵, 꿀 약간, 사이다 1/4컵 <br/> <br/>만드는 법 ①수박은 껍질을 제거하고 과육만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②①에 프루츠 칵테일, 우유, 꿀, 사이다, 블루베리를 넣어 잘 섞어서 완성한다.

언론사: 세계일보-2-261.txt

제목: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판매허가  
날짜: 20170712  
기자: 이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12193230001  
ID: 01100701.2017071219323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가 당국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 신약은 9월 국내에 판매될 예정이다. <br/> <br/>지금까지 미국 등 제약 선진국에서 항암치료 등을 목적으로 허가한 유전자치료제는 있지만 퇴행성 질환인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는 인보사가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식품의악품안전처는 “<span class='quot0'>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를 국산 신약으로 허가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신약은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중등도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고 12일 밝혔다. 국내 개발 유전자치료제로는 처음이며 국산 신약으로는 29번째다. <br/> <br/>유전자치료제란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치료하기 위해 투여하는 유전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이 변형·도입된 세포를 함유한 의약품을 말한다. 인보사는 염증을 억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단백질의 일종인 ‘T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 연골 유래 연골세포를 주성분으로 한다. <br/> <br/>식약처는 인보사를 투여한 후 통증과 관절 기능 개선 정도, 연골구조 개선 효과, 제품 투여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등을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허가를 결정했다. 중등도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인보사를 1회 주사하고 1년 후 환자가 느끼는 통증과 기능 개선 정도를 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유효성이 나타났다. <br/> <br/>식약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계 보건당국이 허가한 유전자치료제는 4건뿐으로, 기존 제품들은 암이나 유전질환, 면역력결핍질환 치료를 위해 개발됐다. <br/> <br/>무릎 골관절염 치료 제품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가 처음이다. 이 회사가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난 19년간 쏟아부은 돈은 1100억원이다. 계단 오르기, 걷기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환자들의 생활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회 접종 가격이 400만∼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대중화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회사 측은 “<span class='quot1'>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62.txt

제목: 진화하는 유병자보험… 내게 맞는 상품 골라볼까  
날짜: 20170711  
기자: 김라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11210504001  
ID: 01100701.20170711210504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최근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간편심사를 통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은 물론 입원, 사망, 재활치료 등 다양한 보장혜택을 제공하는 ‘유병자 전용 상품’들을 강화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크고 작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고 40~70대 중반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며 5~20년 주기 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 추세다. 물론 병력이 없는 경우보다 보험료는 다소 비싼 편이지만 보험 가입 이후 건강을 회복하면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또한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면 보험 갱신 시 증가율을 낮춰주는 경우가 많아 가입 전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br/> <br/>◆보험료 저렴해도 묻지마 가입은 금물 <br/> <br/>대체로 각 사의 유병자 보험들은 간편 심사를 통해 5년 내 암 진단 또는 암 치료 기록, 2년 내 입원 또는 수술 경험, 3개월 내 의사의 입원·수술 등 검사소견을 받은 3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혜택과 타깃 고객이 조금씩 다르므로 자신의 과거병력을 고려해 미래에 발발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 보장혜택이 특별히 높은 상품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엔 보험금 대신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노년기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합의비용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손해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생활비를 제공하는 보험까지 다양하다. 무턱대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만 가입하면 그만큼 보장범위와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내게 필요한 보장혜택을 강화한 동시에 보험료가 갱신되더라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보험사별로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영역이 제각기 다르다. 발병확률이 높은 3대 질병을 중심으로 보장하는 보험이 있는가 하면 보험금 대신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보험, 치매보장,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손해 보장을 늘린 보험, 각종 당뇨 합병증 보장을 강화하고 뇌졸중·심혈관 질환 중점 보장의 보험 등 다양하다. 보험료를 단순 비교할 게 아니라 미래 위험을 고려해 자신이 받고 싶은 혜택을 따져봐야 한다.  <br/> <br/> <br/>◆취약질병 중점 보장하는 보험 상품 <br/> <br/>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뇌졸중을 보장하고 건강 회복 시 보험료를 낮춰 주는 간편심사 보험 ‘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을 판매 중이다. 보험금 대신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험금 지급방식이 특징이다.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의 방문 재활지원은 물론 재활 훈련용 헬스케어 기기도 대여해주고 이송차량도 제공한다. 후유증이 남고 재발률이 높은 뇌졸중의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평소 당뇨를 앓았다면 라이나생명의 당뇨고혈압집중케어보험(갱신형)이 맞춤 상품이다. 이 상품은 고혈압, 당뇨와 심·뇌혈관의 합병증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으로 특약 가입으로 말기신부전증, 질병실명, 족부절단 등 심각한 합병증에 대한 보장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 유병자 상품 최초로 백내장 수술 보장(50만원)도 추가했다. <br/> <br/>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만 한국인의 사망원인 1~3위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에 대해 미리 대비해 두고 싶은 고객들에게는 한화생명의 ‘간편가입 건강보험’ 등이 적합하다. 이 보험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일반암 진단 시 2000만원을 지급하며, 유방암, 직·결장암, 전립선암 진단 시에는 400만원을, 소액암(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및 경계성종양 진단 시에는 200만원을 보장한다. 특히 암 진단 시(유방암, 직·결장암, 전립선암 제외)에는 보험료가 납입면제되는 ‘특정암보험료 납입면제특약’으로, 해당 갱신기간까지 특약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이 지속된다. 40세 남성 기준 월 2만원대의 보험료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경제적이다. <br/> <br/>최근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MG손해보험은 간편심사를 통해 중증치매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출시해 타사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MG손해 보험의 ‘(무배당) 건강명의 간편 양한방보험’은 3대 질병 진단 후, 양방치료뿐 아니라 첩약, 약침, 특정 물리치료 등 한방치료를 보장하고, 중증 치매로 진단 시 가입금액을 보장한다. 또 보험 가입 시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른 자동차 사고 관련 비용, 의료사고 법률비용, 보이스피싱 손해 등 각종 비용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흥국화재의 ‘무배당 유병자를 위한 보장보험(1706)’ 역시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비용과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손해에 대해서 보장해 눈여겨볼 만하다. 대부분의 상품이 갱신형인 것과 다르게 이 상품은 ‘뇌졸중 진단비특약’에 가입하면 비갱신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와 함께 일반암(대장점막내암 포함), 뇌출혈 진단비 최대 3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최대 2000만원 등을 제공한다. <br/> <br/>김라윤 기자 ry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63.txt

제목: 제주개 분양가 5만원… 인기 폭발  
날짜: 20170711  
기자: 임성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11173320001  
ID: 01100701.20170711173320001  
카테고리: 경제>부동산  
본문: 제주개 분양 열기가 후끈거렸다. <br/> <br/>11일 제주도 축산진흥원의 2017년 제주개 분양 경쟁률이 치솟아, 제주 고유종으로서 위상이 한층 높아진 제주개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br/> <br/>이날 오전 제주시 노형동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열린 분양추첨 행사엔 수백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br/> <br/>올해 4월과 5월에 태어난 강아지 20마리(수 14·암6) 분양에 10일 오후까지 508명이 신청했다. 실제 우선 분양 추첨 참가 인원은 254명이다. <br/> <br/>도 축산진흥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종전에는 제주개가 잘 알려지지 않아 분양신청 순서대로 분양을 했으나 최근 제주개의 우수성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분양 문의가 이어져 공개추첨 방식으로 우선 분양 대상자를 선정했다</span>”고 밝혔다. <br/> <br/>축산진흥원은 분양 대상 강아지 20마리에 대한 세부 분양절차와 신상정보와 사진이 담긴 책자를 준비해 분양 신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br/> <br/>동물보호단체들의 거센 비판에 축산진흥원은 당초 예정됐던 노령견 4마리와 불량견 2마리의 매각을 전격 취소했다.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한 반려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br/> <br/>분양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제주개 보호 유의사항도 보완했다. <br/> <br/>축산진흥원은 추첨을 통해 선정된 우선 분양대상자 20명을 대상으로 추첨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실사를 통해 사육환경을 점검하고, 면담을 거쳐 최종 분양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r/> <br/>분양 이후엔 매월 정기점검도 할 계획이다. <br/> <br/>종축개량공급위원회의 분양·매각 심의를 거쳐 혈연관계·모색·체형 등을 고려해 선발·분양되는 제주개는 모두 축산진흥원 제주개 사육장에서 사육됐고, 마리당 가격은 5만원이다. <br/> <br/>도 축산진흥원은 분양받은 제주개가 유기견이 되지 않고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동물등록 의무화 및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분양 제주개에 대한 사후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블로그 개설, 부득이하게 양도·양수시는 사전신고 절차 이행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br/> <br/>축산진흥원은 1986년 6월 제주재래견 3마리(암 2·수 1)를 기본 축으로 제주개의 순수혈통 보존·증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r/> <br/>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125마리를 제주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양했다. <br/> <br/>현재 축산진흥원에는 총 65마리의 제주개(성견 38·육성견 4·자견 23)가 있다. <br/> <br/>중국에서 건너와 3000년 전부터 제주에 정착해 특유의 환경에 적응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개는 온순하면서도 행동이 민첩하고 청각, 후각, 시각이 뛰어나 오소리,꿩 등 야생동물 사냥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제주개는 진돗개와 모양이나 색깔은 비슷하지만 진돗개는 꼬리가 말려 올라간 반면 제주개는 꼬리를 거의 꼿꼿이 세우는 게 특징이다. <br/> <br/>다 자란 제주견의 몸길이는 49∼55㎝, 몸무게 12∼16㎏이고 수명은 15년 안팎이다. <br/> <br/>한편 제주도는 제주개를 진돗개와 삽살개처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br/> <br/>도는 제주개의 천연기념물 등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종을 보전함으로써 제주개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br/> <br/>도는 최근 10여년간 제주개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타 품종과의 유연관계 등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 <br/> <br/>최근 국립축산과학원의 제주개 유전자 분석 결과 국내의 다른 개와 혈통이 섞이지 않아 제주개의 순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64.txt

제목: 자연치유 빙자 말기 암 환자에 무면허 의료행위 60대 부부 징역형  
날짜: 20170711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11134650001  
ID: 01100701.2017071113465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 부부에게 징역 1년씩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br/> <br/>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현수막 광고를 보고 찾아온 말기 암 환자에게 45일이면 나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영리 목적 치료행위를 하는 등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명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로 1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블로그에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거나 전단, 현수막 등을 이용해 환자를 모았다. <br/> <br/>재판부는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고자 하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의 간절한 심리상태를 이용해 돈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다만 불법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시설을 폐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br/> <br/>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65.txt

제목: 메디키네틱스, ‘Micropig의 질환모델 생산 및 관리기술’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날짜: 20170711  
기자: 김정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11102259001  
ID: 01100701.2017071110225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메디키네틱스(대표 최선덕)가 지난 3일 ‘Micropig의 질환모델 생산 및 관리기술’로 농림식품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을 받았다. <br/> <br/>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NET)는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에서 시행하며,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농업과 축산, 식품, 농림식품 등 크게 6개의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br/> <br/>이번에 인증을 받은 메디키네틱스의 신기술은 유전자 편집기술을 이용하여 암과 당뇨, 알츠하이머 등 인간의 질병을 보유한 Micropig의 질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다. 지난 15년간 자체적으로 육종한 한국 토착형 실험용 미니돼지의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 <br/> <br/>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해당 기술이 인간 질환 연구와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비임상 시험용으로 적합하며, 향후 바이오 신약을 비롯해 바이오 장기와 의료기기의 연구를 위한 응용기술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농림식품신기술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br/> <br/> <br/>이에 허창기 Micropig 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0'>이번 기술은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단계에 필요한 비임상시험을 지원할 것이다</span>”라며 “<span class='quot0'>전 세계의 질환모델 실험동물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만큼 국내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span>”라고 전했다. <br/> <br/>한편 식약처로부터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인증을 받은 평택 Micropig 연구소를 보유한 메디키네틱스는 특정 병원균을 제거한 청정동물시설(SPF, Specific Pathogen Free)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br/> <br/>현재 신약 후보물질 시험과 이종 장기 이식, 바이오 프린팅 소재에 적합한 MG(Medical Grade) Micropig의 대량 생산에 몰두하고 있으며, 최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DGMIF) 실험동물센터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r/> <br/>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66.txt

제목: 담당의사 "류사오보 임종 준비해야"  
날짜: 20170707  
기자: 이우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07161814001  
ID: 01100701.20170707161814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간암말기 판정을 받은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사오보가 병원에서 가족의 도움으로 죽을 먹고 있다. 사진=SCMP 홈페이지 캡처“류샤오보(劉曉波·61)의 임종을 준비해야 한다”고 담당 병원이 그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말했다고 홍콩 영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사오보는 최근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가석방으로 풀려나 중국 선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br/> <br/>신문에 따르면 류샤오보의 가족은 의료진으로부터 병세가 악화해 더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듣고 밤을 새우며 병상을 지키고 있다. 류샤오보의 친구인 시인 예두는 “<span class='quot0'>우리는 곧 류샤오보를 잃을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0'>다가오는 24시간이 마지막 밤이나 아침이 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통지가 있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또다른 친구인 모지수도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건강상태의 악화를 통보받았다”며 “류샤오보가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한 채 진통제와 안정제만을 맞고 있다”고 토로했다. <br/> <br/>류사오보는 최근 간암판정을 받고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서방에서 마지막 삶을 보내겠다고 요구했으나 중국 당국의 거부로 랴오닝성 선양에 있는 중국의대 제1병원에 머물고 있다. 류사오보는 최근 건강이 악화하면서 중국 당국과 서방 측에 “죽어도 서방(유럽이나 미국)에서 죽겠다”며 강력한 출국 희망 의사를 밝혔고, 중국 정부는 독일과 류사오보의 출국을 위해 최근까지 협의를 계속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도 류사오보의 출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8년만에 류사오보와 처음 재회했고, 선양 법원은 미국과 독일로부터 최고의 암 전문의를 초청해 류사오보를 치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중국 당국이 이처럼 미국과 독일의 암 전문의를 불러와 류사오보를 치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원할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샤오보의 가족들은 “해외 전문가들의 도착날짜를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인권운동가 후지아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과 독일 전문가를 부른다고 했지만 적극적이지 않다”며 “그 나마 계획을 실현시킬 소통도 충분하게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독일 외교부는 “이 문제가 인도적으로 해결되길 지지한다. 류사오보가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를 받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의료팀도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승인이 있을 때까지 류사오보 치료를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한편 그의 건강상태를 놓고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는 "자료를 종합할 때 류샤오보는 간암말기 환자의 일반적 증상과 함께 간 쇠약현상을 보였다”며 “의사들은 그의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고 뇌수종, 뇌출혈 합병증을 일으키면 더욱 위험할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그러나 또다른 중화권 매체인 보쉰(博訊)은 “류샤오보의 병세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는 아니다”며 엇갈린 보도를 했다. 류샤오보 병세 위중 소식이 전해진 것은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서방 지도자들이 중국에 대해 류샤오보의 출국 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선수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br/> <br/>류샤오보는 2008년 공산당 일당체제 종식을 요구한 ‘08 헌장’ 서명 운동을 주도하다가 이듬해 ‘국가 전복’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받고 랴오닝(遼寧)성 진저우(錦州) 교도소에 수감돼 복역하다 최근 간암말기 판정을 받고 가석방됐다. 류사오보는 복역 중인 201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br/> <br/>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67.txt

제목: 생생한 그리스 풍광과 세태… 짧은 소설에도 묵직한 여운  
날짜: 20170706  
기자: 조용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06204407002  
ID: 01100701.20170706204407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걷고 느끼면서 체감한 여행지를 소개하는 형식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직설적으로 장소에 대해 설명하고 느낌을 적는 에세이 형식이 가장 보편적인데, 때로는 사실을 바탕으로 허구를 가미한 작은 픽션일 때 사람과 길과 풍광과 사회의 공기까지 더 실감나게 전달될 수 있다. 소설가 백가흠(43·사진)이 그리스에 3개월씩 두 번에 걸쳐 체류한 뒤 써낸 소설집 ‘그리스는 달랐다’(난다)가 전형적인 경우다. <br/> <br/>국내 여러 도시는 물론 세계 각지의 공간들까지 감성적으로 소개하는 ‘걸어본다’ 시리즈이다. 짧은 소설 21개가 3부에 걸쳐 묶였고 책 중간에는 백가흠이 직접 찍은 그리스 사진들이 많은 이야기를 머금고 포진해 있다. 짧은 소설들은 풍광과 사람과 세태를 효율적으로 응축해낸다. 첫머리에 배치한 ‘하늘에 매달린 도시’는 묵직한 여운이 웬만한 단편소설을 능가한다. J가 다시 찾아간 메테오라라는 도시는 거대한 바위기둥이 인상적인 곳인데 그가 보기에 바위들은 ‘신 앞에 고개 숙여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인간들은 무언의 메시지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도시 전체에 가득했다. 그 바위 도시에서 그는 신들이 부추긴 듯한 몽환적인 체험을 한다. <br/> <br/>‘그리스에서 가장 그리스적인’에서는 헤어진 여인 ‘안젤라’에 대한 그리움과 씁쓸한 재회가 펼쳐진다. ‘세상의 끝에 깊고 깊은 물빛’에서도 암이 재발한 사내가 모든 것을 접고 그리스로 떠나와 삶을 내려놓는 쓸쓸함이 깊다. ‘절벽 위에 선 포세이돈’은 그리스를 가보지 못한 이들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한다. 아테네 쪽으로 허물어지는 석양이 슬프도록 아름다운 수니온에서 포세이돈의 사랑을 얻지 못한 아테네를 떠올리고, 부모 형제 사촌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리스 지인 가족을 보면서 한국에 두고 온 ‘무심함’이 씁쓸하기만 하다. <br/> <br/>타관에서 외로워하다 친절하게 대하는 ‘블랙곰 식당’ 주인장에게 잠시 마음을 주었다가 냉정한 현실에 좌절하기도 하고, 한없이 선량한 마피아 출신 요로고스에게서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이웃의 전형을 발견하기도 한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7년에 걸쳐 험난한 여정을 거쳐 당도한 난민도 있다. 그는 신티그마 광장에서 야광 바람개비를 판다. <br/> <br/>백가흠은 “<span class='quot0'>소설은 진실의 풍경에 기반을 둔 상상력의 산물</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리스라는 공간과 시간을 빌려 짧은 형식으로 부려놓은 이 책이 작가로서 무지하기만 했던 생활의 저편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span>”고 썼다. <br/> <br/>조용호 문학전문기자

언론사: 세계일보-2-268.txt

제목: 오규석 기장군수, 신형연구로 건설허가 촉구 대전 원안위 방문  
날짜: 20170706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06181343001  
ID: 01100701.20170706181343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부산 기장군에 입지가 확정된 수출용 신형연구로의 건설허가가 지연되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허가를 촉구하기 위해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나섰다. <br/> <br/>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암 조기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대량 생산하고 중성자를 이용한 반도체 생산, 비파괴 검사 등에 활용되는 소형 연구 설비를 말한다.  <br/> <br/>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한 오규석(오른쪽에서 두 번째) 기장군수가 최종배(가운데) 사무처장을 면담, “<span class='quot0'>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다</span>”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br/>기장군 제공기장군은 2010년 7월 30일 사업자로 선정되자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사업비 3512억원)에 수출용 신형연구로를 건설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를 해왔다. <br/> <br/>그러나 아직 건설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br/> <br/>오 군수는 6일 대전시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사무처장을 면담한 데 이어 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성게용 원장을 만나 신속한 건설허가를 촉구하기로 했다. <br/> <br/>오 군수는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미래창조과학부, 이달 4일 한국전력기술을 각각 방문했다. <br/> <br/>그는 올해 2월에도 원안위와 KINS를 잇달아 찾았고 3월에는 원안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br/> <br/>오 군수는 “<span class='quot1'>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 지연으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의 기업 유치와 입주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연구로 개발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사진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69.txt

제목: 영화 원작 연극 '국화꽃향기' 거제에서 뮤지컬로 만난다  
날짜: 20170705  
기자: 안원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05030457002  
ID: 01100701.20170705030457002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영화와 연극으로 대중과 만나온 ‘국화꽃향기’ 경남 거제 지역에서 뮤지컬 공연으로 선뵈인다. <br/> <br/>거제시문화예술재단은 오는 7월 17~18일 양일간 뮤지컬 ‘국화꽃향기’를 소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br/> <br/>뮤지컬 국화꽃향기는 지난 2000년 출판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른 김하인 작가의 서정 소설이다. 암에 걸린 한 여자와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다. 사랑의 의미, 생명의 소중함이 퇴색되고 있는 이 시대에 두 주인공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생명의 의미를 일깨워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br/> <br/>특히 ‘국화꽃향기’는 동명 영화로 지난 2003년 개봉돼 故 장진영, 박해일 등 출연 배우들이 사랑을 받아왔다. 이후 장진영의 영화같은 삶, 안타까운 죽음으로 다시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이어 2011년 이건명과 배해선, 2012년 오승은과 김태훈 등이 주연을 맡아 연극 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뮤지컬 공연은 지난 2014년 초연 이후 무대에 오르고 있다. <br/> <br/>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70.txt

제목: 대장암 수술 후 항암 치료 받는 유상무, 팬들에게 '밝은 모습' 전해  
날짜: 20170704  
기자: 뉴스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04201240001  
ID: 01100701.2017070420124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 4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중인 개그맨 유상무가 팬들에게 근황을 전했다.  <br/> <br/>지난달 30일 유상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멀쩡한데, 웬 암이냐. 항암 세 번째! 꼭 이기자. 오예”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br/> <br/>사진 속 유상무는 한쪽 팔에 링거를 꽂은 채 병원 내 화장실 거울을 통해 셀카를 찍고 있다.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도 유상무는 밝은 모습으로 암을 이겨내고 돌아오겠다는 뜻을 팬들에게 전했다. <br/> <br/>글을 본 누리꾼들은 “<span class='quot0'>많이 힘들텐데 끝까지 밝은 모습을 보여줘 보기 좋다</span>” “<span class='quot0'>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니 분명 잘 이겨낼 것이다</span>”등의 댓글을 달았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br/>사진=유상무 페이스북

언론사: 세계일보-2-271.txt

제목: 초콜릿은 치아를 누렇게 만든다? 우리가 몰랐던 5가지 진실  
날짜: 20170704  
기자: 박윤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04173314001  
ID: 01100701.2017070417331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우울한 기분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단 음식을 먹는 것이다. 사무실 책상에 구비해두고 습관적으로 초콜릿을 먹는 직장인도 많은데, 초콜릿은 정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까? 초콜릿에 함유된 페닐 에틸라민이라는 성분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해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흔히 초콜릿은 다이어트와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이들의 미움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초콜릿을 제대로 먹으면 건강에 유익하다. 우리가 몰랐던 초콜릿에 대한 진실을 소개한다. <br/> <br/>1. 초콜릿은 건강에 백해무익하다? <br/>과거 초콜릿은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치아건강을 해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지금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초콜릿을 즐기는 연령층과 종류도 다양해졌다. 실제로 초콜릿을 제대로 먹으면 다이어트와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초콜릿의 주성분인 카카오에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당분, 탄수화물, 식이섬유,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 초콜릿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배변 기능을 강화해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 성분이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신진대사를 높여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 동맥경화와 암,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br/> <br/>2. 우리는 얼마나 초콜릿을 먹을까? <br/>우리나라 연간 1인당 초콜릿 소비량은 607g이다. 시중에 판매하는 초콜릿 8.7개 수준인 셈. 그렇다면 초콜릿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어디일까? 정답은 미국이 아닌 스위스다. 스위스 사람들의 1인당 연간 초콜릿 소비랑은 9kg으로 우리나라의 15배 수준이다.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초콜릿 품목 1위는 '초코바'였으며 다음으로 판 초콜릿, 박스형 순이다. <br/> <br/>3. 초콜릿은 치아를 누렇게 한다? <br/>초콜릿을 만들 때 첨가되는 당분과 각종 화학성분 때문이다. 달콤한 초콜릿은 치아 표면에 미세한 구멍으로 흡수되어 치아를 누렇게 변색시킨다. 단 카카오 함량이 55% 이상인 다크초콜릿은 카카와 씨에 테오브로민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치아 표면을 강화해 치아가 변색하거나 얼룩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초콜릿이 다른 과자에 비해 치아건강에 덜 해롭다는 연구결과도 많다. <br/> <br/>4. 초콜릿은 입 냄새를 유발한다? <br/>초콜릿은 입 냄새를 유발한다. 단맛을 내는 성분이 함유된 밀크초콜릿은 치아를 약하게 할 뿐 아니라 치아 표면에 달라붙어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입 냄새와 충치를 유발한다. 초콜릿을 먹은 후 30분 이내에 양치하는 것이 좋고, 매번 양치하기 어려울 땐 따뜻한 물로 입 안을 헹구는 것만으로 충치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다. <br/> <br/>5. 초콜릿은 다이어트 최대 적? <br/>다이어트를 하는 이에게 초콜릿은 '악마의 유혹'과도 같다. 실제로 초콜릿에는 카카오 버터와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 100g당 500kcal 이상의 높은 열량을 갖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은 밀크 초콜릿에 비해 열량이 낮아 살찔 확률이 낮다. 또 식사 전 초콜릿을 소량 먹으면 혈당치가 올라가 식욕이 감퇴하는 효과가 있다. 한때 여성들 사이에서 초콜릿 다이어트가 유행하기도 했을 정도. 다이어트 중이라면 달콤한 밀크초콜릿보다는 쌉싸름한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면 된다. <br/> <br/>박윤희 기자 pyh@segye.com <br/>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언론사: 세계일보-2-272.txt

제목: 137전138기… 대니얼 강, 마침내 ‘무관의 한’ 풀다  
날짜: 20170703  
기자: 최형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03211359001  
ID: 01100701.20170703211359001  
카테고리: 스포츠>골프  
본문: 재미동포 2세인 대니얼 강(25·강효림)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부터 아버지 강계성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한국이 익숙하다. 부산 출신 아버지의 말투를 닮아 사투리를 걸쭉하게 쓰는가 하면 K팝을 즐겨 듣는다. 특히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유치원 다닐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고 일곱살에 검정띠를 따낼 정도로 실력이 걸출했다. 그는 태권도로 단련한 단단한 몸을 토대로 12세에 골프를 시작했다. 장타를 앞세워 2010년과 2011년 US여자아마추어챔피언십을 제패한 그는 2012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입문했다. <br/> <br/>대니얼 강은 공격적인 스타일과 아마추어 시절 화려한 경력 덕분에 LPGA 투어에서 한껏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캐디백을 메고 다니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던 아버지가 2013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등 데뷔 초반부터 그에게 시련이 닥쳤다. 2014년에는 한 시즌 홀인원을 3번 기록해 이 부문 최다 기록을 세우는 등 장타력을 뽐냈지만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다. <br/> <br/> <br/> 대니얼 강이 3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올림피아필즈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메이저대회 KPMG 여자 PGA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 <br/>시카고=USA투데이 연합뉴스137전 138기. 대니얼 강이 마침내 무관의 한을 풀었다. 대니얼 강은 3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올림피아필즈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KPMG 여자 PGA챔피언십(총상금 350만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3개로 3언더파 68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71타를 적어낸 그는 지난해 우승자 브룩 헨더슨(캐나다)을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52만5000달러(약 6억원)다. 아마추어 시절부터 더하면 총 144번째 출전 만에 첫 프로무대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프로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장식한 사례는 모 마틴(미국·브리티시 여자오픈) 이후 3년 만이다. <br/> <br/>최운정(27)과 함께 공동 선두로 출발한 대니얼 강은 10번 홀(파4)에서 보기를 했지만 11번 홀(파4)부터 14번 홀(파4)까지 네 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승기를 잡았다. 특히 13번 홀(파4)에서는 7짜리 버디 퍼트까지 성공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17번 홀(파3)에서 짧은 티샷으로 1타를 잃은 사이 헨더슨이 18번 홀(파5)에서 이글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헨더슨의 공이 홀 들어가기 직전에 멈춰선 행운이 대니얼 강에게 찾아왔다. 대니얼 강은 18번 홀에서 나흘 연속 버디를 낚아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br/> <br/> <br/> 대니얼 강이 2013년 LPGA 하나은행챔피언십에서 경기장을 마지막으로 찾은 아버지 강계성씨에게 입맞춤하고 있다. <br/>대니얼 강 인스타그램대니얼 강이 선전하자 그의 사연도 주목받았다. 대니얼 강의 오른손 검지에는 ‘just be’라는 영어 문신, 오른 손등 우측면에는 한글로 ‘아빠’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대니얼 강은 “부모님이 항상 있는 그대로의 네가 돼라고 말씀해 주셔서 17살 때 ‘just be’라는 문신을 새겼다”면서 “손등에는 누군가와 악수를 하면 그 사람도 우리 아빠를 만날 수 있어서 ‘아빠’라고 남겼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 ‘아버지의 날’에는 SNS에 “지금은 아빠와 떨어져 있지만 아빠의 사랑을 매일 느낄 수 있어요. 항상 저와 함께 계시죠”라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대니얼 강은 이날 “골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신감을 주셨다. 아빠가 내가 우승하는 걸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br/> <br/>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73.txt

제목: '태권소녀' 대니얼 강의 사부곡  
날짜: 20170703  
기자: 최형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03150508001  
ID: 01100701.20170703150508001  
카테고리: 스포츠>골프  
본문: 재미동포 2세 골퍼인 대니얼 강(25·한국명 강효림)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지만 어릴적부터 아버지 강계성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한국이 익숙하다. 부산 출신 아버지의 말투를 닮아 사투리를 걸쭉하게 쓰는가하면 케이팝을 즐겨 듣는다. 특히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유치원 다닐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고 일곱살에 검정띠를 따낼 정도로 실력이 걸출했다. 그는 태권도로 단련한 단단한 몸을 토대로 12세에 골프를 시작했다. 장타를 앞세워 2010년과 2011년 US여자아마추어챔피언십을 제패한 그는 2012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 입문했다. <br/> <br/>대니얼 강은 공격적인 스타일과 아마추어 시절 화려한 경력 덕분에 LPGA 투어에서 한껏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아마추어 시절부터 캐디백을 메고 다니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던 아버지가 2013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등 데뷔 초반부터 그에게 시련이 닥쳤다. 2014년에는 한 시즌 홀인원을 3번 기록해 이 부문 최다 기록을 세우는 등 장타력을 뽐냈지만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다. <br/> <br/> 대니얼 강이 3일 미국 일리노이주 올림피아필즈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메이저대회 KPMG 여자 PGA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확정한 뒤 어머니와 포옹하고 있다. LPGA 제공137전 138기. 대니얼 강이 마침내 무관의 한을 풀었다. 대니얼 강은 3일 미국 일리노이주 올림피아필즈 컨트리클럽(파71·6588야드)에서 열린 시즌 두번째 메이저대회 KPMG 여자 PGA챔피언십(총상금 350만달러)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3개로 3언더파 68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71타를 기록한 그는 지난해 우승자 브룩 헨더슨(캐나다)을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52만 5000달러(약 6억원)다. 아마추어 시절부터 더하면 총 144번째 출전 만에 첫 프로무대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프로 첫 우승을 메이저 무대에서 장식한 사례는 모 마틴(미국·브리티시 여자오픈)이후 3년 만이다. <br/> <br/>최운정(27)과 함께 공동 선두로 출발한 대니얼 강은 10번 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냈지만 11번 홀(파4)부터 14번 홀(파4)까지 네 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이날 승기를 잡았다. 특히 13번 홀(파4)에서는 7ｍ 거리의 버디 퍼트까지 성공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대니얼 강은 17번 홀(파3)에서 짧은 티샷을 날려 1타 잃었다. 그 사이 헨더슨이 18번 홀(파5)에서 이글 기회를 잡았으나 공이 홀 들어가기 직전에 멈춰선 덕에 행운이 대니얼 강에게 쏠렸다. 대니얼 강은 18번 홀에서 나흘 연속 버디를 낚아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br/> <br/> 대니얼 강이 2013년 LPGA 하나은행챔피언십에서 경기장을 찾아 마지막으로 외출했던 아버지 강계성씨에게 입맞춤하고 있다. 대니얼 강 인스타그램대니얼 강이 선전하자 그의 사연이 해외 언론에 소개됐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대니얼 강 오른손 검지에는 ‘just be’라는 영어 문신, 오른 손등 우측면에는 한글로 ‘아빠’라고 새겨져 있다. 대니얼 강은 “부모님이 항상 있는 그대로의 네가 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17살 때 ‘just be’라는 문신을 새겼다”며 “누군가와 악수를 하면 그 사람도 우리 아빠를 만날 수 있어서 ‘아빠’라고 ”이라며 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 ‘아버지의 날’에는 SNS에 “지금은 아빠와 떨어져 있지만 아빠의 사랑을 매일 느낄 수 있어요. 항상 저와 함께 계시죠”라며 아버지를 그리워 하는 마음을 담기도 했다. 대니얼 강은 이날 “골프하는데 있어서 많은 자신감을 주셨다. 아빠가 내가 우승하는 걸 보셨으면 좋았을텐데”라고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다. <br/> <br/>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74.txt

제목: 소변 속 나트륨 많을수록 위축성위염 위험 3배 커져  
날짜: 20170702  
기자: 정진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02220202001  
ID: 01100701.2017070222020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소변에 나트륨 함량이 많을수록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축성 위염’ 가능성이 3배 가량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김영선·송지현 교수팀은 성인 662명을 대상으로 소변 나트륨 농도와 위축성 위염을 동반한 장상피화생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대상자의 소변을 24시간 동안 모아 소변 나트륨 함량에 따라 정상수치 그룹(140mmol/d 미만), 다소 높은 편인 그룹(140~195mmol/d), 매우 높은 그룹(195mmol/d 이상)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매우 높은 그룹의 위축성 위염을 동반한 장상피화생 위험도가 정상그룹에 비해 2.9배 높았다. <br/> <br/>위축성 위염은 위 점막층이 위축돼 혈관들이 비쳐보이는 상태이며, 장상피화생은 위 점막 세포가 손상 후 불완전하게 재생돼 점막에 작은 돌기가 생겨 울퉁불퉁하게 변하는 것을 말한다. 위염 환자는 우리 주변에 흔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만성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의 단계를 거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br/> <br/>나트륨은 혈액과 체액에 존재하면서 신체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기질이지만, 섭취량이 너무 많을 경우 물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된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나트륨량이 많을수록 소금으로 대표되는 나트륨 섭취량이 많다는 의미다. 2014년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염분 섭취량은 하루 3890m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인 ‘하루 2000mg 이하’보다 매우 높다. <br/> <br/>또 이번 연구에서 하루 한갑씩 20년간 흡연을 한 경우 장상피화생을 동반한 위축성 위염의 위험도는 2.8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감염이 있는 경우는 4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br/> <br/>김영선 교수는 “<span class='quot0'>나트륨 섭취가 많을수록 위암 전암 병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김치, 장류 및 젓갈류, 찌개, 가공식품 등의 섭취를 줄이고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정진수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2-275.txt

제목: 대입 시험 앞둔 아들이 상심할까 ‘암투병’ 사실 숨긴 엄마  
날짜: 20170702  
기자: 뉴스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02103650001  
ID: 01100701.20170702103650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아들 리 지 차오(왼쪽)와 투병 중인 엄마 장 홍 메이가 손을 잡고 있다. <br/>아들이 대입 시험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암투병 사실을 숨긴 엄마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br/> <br/>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중국 산둥성 더저우 시에 거주하는 한 가족의 사연을 보도했다. <br/> <br/>엄마 장 홍 메이는 지난 2016년 5월 집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br/> <br/>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급성 백혈병의 65%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형태로 골수성 백혈구의 줄기세포에서 악성 종양이 발생해 생기는 병이다. 호흡곤란, 관절 통증이 나타나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수개월 내로 사망할 수 있다.  <br/> <br/> 아들이 가오카오 시험을 준비하는 데 방해가 될까 투병 사실을 숨긴 장 홍 메이. <br/>메이는 방사선 및 약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체중 감소, 머리가 빠지는 등 힘든 과정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메이는 이 사실을 자신의 아들 리 지 차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는 차오가 한 달 뒤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인 ‘가오카오’를 한 달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 엄마는 행여나 아들이 자신의 암투병 소식을 듣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사실을 숨긴 것이다. <br/> <br/>엄마의 배려로 차오는 700점 만점 가오카오에서 692점을 받아 중국 명문대인 베이징대에도 입학이 가능하게 됐다.  <br/> <br/> <br/> 투병 중인 엄마를 보며 눈물을 삼키는 리 지 차오의 모습. <br/>시험이 끝난 뒤 차오는 엄마의 암 투병 사실을 알게 됐고 현재 매일같이 엄마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정성스레 간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메이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아들 차오의 점수를 보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프다</span>”고 전했다. 베이징대라는 명문대에 입학할만한 점수가 나온 것은 좋지만 치료비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 <br/> <br/>메이는 “<span class='quot0'>비싼 치료비를 감당하느라 아들의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치료를 멈추고 아들의 등록금에 사용해야 할 것 같다</span>”고 말했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br/>사진=데일리메일

언론사: 세계일보-2-276.txt

제목: 일흔에도 다시 도전… SBS 스페셜 ‘성신제의 달콤한 인생’  
날짜: 20170701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701103629001  
ID: 01100701.20170701103629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대한민국에 ‘피자’라는 음식의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던 1984년. 성신제는 한국에 외국 피자 브랜드를 처음 들여왔다. 1993년 그는 무려 5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외식업계 성공신화를 일궈냈다. <br/> <br/>같은 해, 그가 본사에 영업권을 양도한 후 납부한 개인소득세만 무려 110억원에 달한다. 당시 성신제는 국내 개인종합소득세 랭킹 1위였다. <br/> <br/>이후 성신제는 치킨으로 사업을 확장해 ‘케니 로저스 로스터스’로 승승장구했지만, 1997년 말 IMF 사태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도산했다. 그 후 성신제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토종 피자 브랜드 ‘성신제 피자’로 재기에 성공해 창업 신화를 다시 쓰는 듯했지만 2007년 위환위기 속에 최종 부도를 맞았다. 그리고 2015년, 그는 컵케이크 전문점으로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1년 반 만에 다시 문을 닫게 된다. 그렇게 그는 총 9번 회사를 ‘들어먹은’ 사나이가 됐다. <br/> <br/>계속된 성공과 실패를 겪은 그의 나이 올해 일흔이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도전한다.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그 나이에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성신제는 이렇게 답한다. “What else?”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br/> <br/>성신제는 “내 삶은 성공과 실패로 점철된 인생 그 자체”였다고 자신의 삶을 회고한다. 성공의 단맛은 단맛대로, 실패의 쓴맛은 쓴맛대로 지나온 모든 시간을 사랑한다는 그는, ‘훗날 실패마저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다면 희망을 가지라’고 말한다. <br/> <br/>수차례 사업 실패만큼이나 그의 몸도 자주 고장났다. 성신제는 대장암, 간암, 폐암, 위암에 이어 횡경막암까지 온몸에 손을 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암 환자다. 암이 재발에 재발을 거듭했던 때 그가 재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의 아내였다. 아내는 남편을 ‘평생 원수’라 칭하면서도 언제나 묵묵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br/> <br/>‘SBS스페셜’은 2일 오후 11시5분 ‘성신제의 달콤한 인생’에서 성신제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용기와 희망, 그리고 도전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연예계 ‘재기의 아이콘’ 이상민이 나레이션을 맡아 성신제의 오뚝이 같은 삶을 전한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77.txt

제목: [생활팁]매일 호두 한줌을 먹을 때 생기는 몸의 변화  
날짜: 20170630  
기자: 박윤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30144335001  
ID: 01100701.20170630144335001  
카테고리: 지역>부산  
본문:   <br/> <br/>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대표적인 ‘건뇌식품으로’ 꼽힌다. 동의보감은 '호두가 몸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만들고 머리털을 검게 하며 기혈을 보하고 하초 명문을 보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하초는 신장, 방광 등 하복부를, 명문은 인체에 필수적 열에너지를 간직한 생명의 문을 뜻한다. <br/> <br/>매일 호두를 한 줌 먹는 습관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호두에는 혈중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는 노화와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호두에 들은 리놀레산은 동맥경화나 심장병 같은 성인병을 예방해준다. 매일 호두를 한 줌씩 먹었을 때 몸에서 얻을 수 있는 효능을 알아봤다. <br/> <br/>1.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 <br/>호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년 이후에 노출되기 쉬운 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br/> <br/>2. 탈모 예방 <br/>두피와 모발의 건강은 신장의 기운에 의해 결정된다. 호두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1과 <br/>비타민E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탈모를 예방한다. 또 호두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 속 리놀산과 리놀레인산은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겨울철 동상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하루 3~7알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더 소량을 섭취해야 한다. <br/> <br/> 3. 치매 예방 <br/>호두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은 딱딱한 껍질 속 열매 모양이 인간의 뇌를 닮아서 <br/>생긴 말이기도 하다. 이유는 다르지만 호두가 두뇌 회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호두 속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은 뇌기능을 개선해 건망증을 억제하고 치매 등 지적 기능 저하를 방지한다. 또 뇌의 피로 물질을 배출시키는 토코페롤이 풍부해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불면증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br/> <br/>4. 여드름 치료 <br/>호두에는 콜레스테롤과 산화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는 레즈베라트롤(resveratrol)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다. 레즈베라트롤은 항산화와 항염, 항진, 항바이러스 등에 효과적인 물질로 몸의 피지 분비를 감소시키고 여드름 원인인 염증을 억제한다.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속 수분으로 오랫동안 잡아두는 역할을 해 피부 세모 막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피부 노화를 늦추고 매끈한 피부를 갖도록 도와준다. <br/> <br/>5. 다이어트 <br/>호두는 100g당 650㎉의 높은 열량을 갖고 있다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호두 섭취를 피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호두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다이어트 시 섭취하면 체중 증가와 비만이 될 확률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사 사이에 조금씩 섭취하면 간식을 끊을 수 있다. <br/> <br/>6. 활력, 생식기능 증가 <br/>호두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E를 의미하는 토코페롤(tocopherol)은 그리스어로 '잉태'를 뜻한다. 그만큼 비타민E는 정자 수와 활동성을 좋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 생식 능력 향상 효과가 뛰어나다.  <br/> <br/>박윤희 기자 pyh@segye.com <br/>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언론사: 세계일보-2-278.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제 사진을 찍어주세요"…父 품에서 세상 떠난 아들의 마지막 부탁  
날짜: 20170630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30130348001  
ID: 01100701.20170630130348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암으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영국의 한 부모가 아버지 품에서 잠든 아들의 사진을 뒤늦게 공개해 보는 이들의 코끝을 찡하게 하고 있다. <br/> <br/>특히 소년은 죽기 전 “지금 사진을 찍어주세요”라고 부모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죽음을 앞두고도 소년이 얼마나 차분했을까를 짐작하게 한다. <br/> <br/>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맨체스터에 사는 브레이든 프레스캇(7)은 작년 9월1일 아버지 웨인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다. <br/> <br/>2살이던 해에 신경아세포종(neuroblastoma·신경계에 발생하는 악성종양) 진단을 받은 브레이든은 10여 차례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병을 이기지 못했다. <br/> <br/>사진 속 브레이든은 웨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다. <br/> <br/>점점 호흡이 희미해지던 소년은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사진을 찍어주세요”라고 엄마 스텝프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슴이 무너지지만 아들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부모에게 사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됐다. <br/> <br/>  암으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영국의 한 부모가 아버지 품에서 잠든 7살 아들의 사진을 뒤늦게 공개해 보는 이들의 코끝을 찡하게 하고 있다. 특히 소년은 죽기 전 “지금 사진을 찍어주세요”라고 부모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죽음을 앞두고도 소년이 얼마나 차분했을까를 짐작하게 한다. 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br/> <br/>호스피스에 들어간 지 2일 만에 세상을 떠난 브레이든. 스텝프는 아들이 생후 6개월 때부터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오랜 고열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일들이 이어지자 아들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체중까지 줄기 시작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잘 걷지 못했다. <br/> <br/>스텝프는 이를 ‘엄마의 직감’이라고 말했다. <br/> <br/>부부는 희귀 암의 위험성을 알리고 환자를 둔 가족의 슬픈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br/> <br/>마음 약한 이라면 보기 힘들 수도 있으나, 아픈 아이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드러냄으로써 다시 한번 자녀들을 생각해달라는 부부의 당부로 보인다. 2년에 걸친 짧은 인생 여행이었지만, 브레이든의 마지막도 태어났을 때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스텝프는 말했다. <br/> <br/>스텝프는 현재 임신 18주를 맞이했다. 브레이든이 살아있을 때 원했던 여동생이다. 부부는 하늘로 떠난 아들이 선물을 줬다고 여긴다. <br/> <br/>“브레이든이 여동생을 하늘에서 엄마와 아빠에게 내려보냈어요. 그토록 갖고 싶었던 여동생을 말이죠.”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79.txt

제목: 日 아소 부총리 '여성비하' 구설…'폭행·막말·불륜' 고개 숙인 아베 총리  
날짜: 20170628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28112332001  
ID: 01100701.20170628112332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일본 자민당 소속 여성의원의 비서 폭행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후 아소 다로 부총리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br/> 비서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도요타 의원과 여성 비하로 도마 위에 오른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NHK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2선 중의원인 도요타 마유코 의원이 최근까지 정책 비서였던 55세 남성에서 폭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힌 것으로도 모자라 폭언을 일삼은 사실이 밝혀진 후 의원직에서 물러날 의사를 밝혔다. <br/> <br/>이를 두고 24일 니가타현에서 개최된 ‘아소파 의원 회의‘에서 아소 부총리는 “<span class='quot0'>학력만 보면 하자(문제)가 없을 정도로 훌륭했지만, (역시)여자다</span>”라는 발언을 수백 명이 모인 공개 석상에서 했다. <br/> <br/>도요타 의원은 도쿄법대와 하버드대학원을 거친 후생노동성 관료 출신으로, 문부과학성과 부흥청에서 정무관(차관급)을 역임했다. <br/> <br/>이날 아소 부총리의 발언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자 부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에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br/> <br/>아소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국제정치학자 미우라 루리 교수는 “<span class='quot1'>의원 자격이 없는 여성의원을 입당시켜 놓고 여성 전체의 문제로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span>”는 의견을 냈다. 또 민진당 렌호 대표는 “<span class='quot2'>국회를 닫아버리고 싶을 정도</span>”라며 여성비하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r/> <br/>한편 자민당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은 도요타 의원의 비서 폭행 문제를 거론하며 “<span class='quot3'>남성의원 사이에서는 저런 일(비서 폭행·폭언)이 비일비재하다</span>”라고 밝혀 논란을 가중했다. <br/> <br/>가와무라 전 관방장관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막말과 폭력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br/> 자민당 의원들의 폭력, 막말, 불륜 등의 악재가 이어지자 아베 정부를 향한 지지율 하락과 불신이 확산하는 모습이다.아베 아키에 여사의 사학 물의와 자민당 의원들의 폭력, 막말, 불륜 등의 악재가 이어지자 아베 정부를 향한 비아냥과 불신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br/> <br/>아베 정부는 지난 4월 나카가와 도시나오 경제산업성 정무관의 불륜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오니시 히데오 자민당 의원이 “<span class='quot4'>암 환자는 일을 안 해도 된다</span>”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또 3월에는 태풍 피해지역에서 ‘어부바 시찰’을 한 무타이 ?스케 정무관과 아내 임신을 핑계로 육아 휴직을 낸 미야자키 겐스케 의원의 불륜이 발각돼 의원직을 내놓는 등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교도통신 캡처

언론사: 세계일보-2-280.txt

제목: 배우 신성일, 폐암 3기 진단… "통원 치료중"  
날짜: 20170628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28102915001  
ID: 01100701.2017062810291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원로배우 신성일(80)씨가 폐암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br/> <br/>28일 한국영화배우협회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6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폐 조직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3기로 진단받고 통원 치료에 들어갔다. <br/> <br/>배우협회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0'>지난 23일 지방의 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고 서울에 올라와 대형 종합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셨다</span>”며 “<span class='quot0'>일단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로 종양의 크기를 줄인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span>”고 전했다. <br/> <br/>신 씨는 1982년 담배를 끊었으며 경북 영천 자연 속에서 건강관리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TV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 <br/> <br/>부인인 배우 엄앵란 씨가 2015년 12월 TV 건강프로그램 녹화 중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과정을 옆에서 내내 지킨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br/> <br/>엄 씨는 암 재발을 막는 호르몬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자택에서 요양하고 있다. <br/> <br/>신 씨는 1960년 영화 ‘로맨스 빠빠’로 데뷔해 ‘맨발의 청춘’, ‘초우’, ‘별들의 고향’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다. 최근까지도 각종 영화계 행사에 참석하고 TV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81.txt

제목: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은?  
날짜: 20170627  
기자: 김수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27132118001  
ID: 01100701.2017062713211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하고, 공기에서 물을 얻고…' <br/> <br/>세계경제포럼(WEF)과 미국 과학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을 선정해 공개했다. <br/> <br/>2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따르면 WEF과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이날부터 중국 다롄에서 열리는 하계 다보스 포럼을 앞두고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 10대 떠오르는 기술’(2017 Top 10 Emerging Technologies)을 선정했다. <br/> <br/>10대 기술에는 조직검사 없이도 간단한 채혈을 통해 피 속에 돌아다니는 DNA 조각을 분석,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암 진단을 위한 비침습 액체 생체 검사법’을 비롯해 공기 중에 존재하는 물을 필터를 이용해 획득할 수 있는 기술, 시각 작업을 위한 딥러닝 등이 포함됐다. <br/> <br/>태양광을 이용한 액체연료 제조 기술, 인간세포 도감, 정밀 농업, 환경친화 이동 수간을 위한 저렴한 촉매, 게놈 백신(단백질 백신이 아닌 DNA·RNA로 만들어진 백신), 공동생활권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양자컴퓨팅 등도 10대 기술로 선정됐다. <br/> <br/>세계경제포럼은 2012년부터 매년 1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서 가까운 미래에 세상을 변화시킬 10대 기술을 선정해 공개해 왔는데, 지난해부터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지와 공동으로 하계 다보스 포럼과 연계해 발표하고 있다. <br/> <br/>10대 기술 선정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상엽 KAIST 교수는 “<span class='quot0'>기술적인 면으로 보면 이번에 선정된 기술보다 더 급부상하고 있는 기술도 많았지만, 앞으로 수년 내에 획기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선정했다</span>”고 말했다. <br/> <br/>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br/> <br/> <br/> <br/><세계 10대 떠오르는 기술’(2017 Top 10 Emerging Technologies)> <br/> <br/>1. 암 진단을 위한 비침습 액체 생체 검사법(Noninvasive biopsies for identifying cancer) <br/> <br/>-암세포도 일반 세포와 마찬가지로 사멸하면서 DNA를 내놓을 수 있는데 피에 돌아다니는 DNA 조각들을 분석하여 암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br/> <br/>2. 공기로부터 깨끗한 물을 획득하는 기술 (Harvesting clean water from air) <br/> <br/>-공기 중 수분을 깨끗한 물로 전환하여 획득하는 기술. 공기 중에는 약 1000조 리터의 물이 존재하는데 최근 개발되고 있는 독특한 화학 및 구조적 특성의 기공을 가지는 물질로 만들어진 필터시스템을 사용하여 이 공기 중의 물을 획득하는 기술이다. <br/> <br/>3. 시각 작업을 위한 딥러닝 (Deep learning for visual tasks) <br/> <br/>-인공지능은 시각처리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으며, 의료분야에서 의료종사자들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능가하는 능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부암진단에서는 더 정확히 세부 암 종류까지 진단하는 능력을 보이고 있다. 방사선의료 진단 시도 엑스레이 결과의 판독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줌으로서 방사선 전문의 수가 적은 개도국 의료진단 시스템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4. 태양광 이용 액체연료 제조 기술 (Liquid fuels from sunshine) <br/> <br/>-이산화탄소를 직접 액체연료로 바꾸는 인공 잎 기술로, 토양에서 식물생장을 촉진하는 물질을 만드는데도 쓰인다. <br/> <br/>5. 인간 세포 도감 (The Human Cell Atlas) <br/> <br/>-인체 내 모든 세포들의 종류에 따른 기능과 생물분자들의 위치와 기능을 밝히고자 하는 기술. 인간 단백질도감이 가장 빠른 속도로 개발되어 이미 1000만장 이상의 세포이미지를 만들어 냈으며 생명공학과 의학 분야 연구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r/> <br/>6. 정밀농업 (Precision farming) <br/> <br/>-센서기술과 이미징기술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식물의 생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농산물의 재배에 적용함으로서 수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기술. 토양의 상태, 수분, 감염, 해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다.  <br/> <br/>7. 환경친화 이동수단을 위한 저렴한 촉매 (Affordable catalysts for green vehicles) <br/> <br/>-친환경 이동수단의 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연료전지에 사용되는 백금촉매의 양을 줄여서 범용으로 사용가능하게 하는 저렴한 촉매기술. 백금과 팔라듐을 섞어서 쓰거나 촉매개발 시 중심에는 다른 저가의 금속을 넣고 겉에만 백금을 가지게 하는 방법 등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br/> <br/>8. 게놈백신 (Genomic vaccines) <br/> <br/>-기존 단백질 중심의 백신 대신에 DNA나 RNA로 만들어진 백신. 즉, 인체 내에서 직접 항체제조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항체 제조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br/> <br/>9. 공동생활권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Sustainable design of communities) <br/> <br/>-개개 스마트 홈을 넘어서서 전체 이웃들을 포함하는 공동 생활권에서 에너지와 물 등을 절약하는 기술들이 연결된 시스템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한 집을 기준으로 에너지와 물 등의 사용을 최적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공동생활권의 다수의 집들에 대해 총체적인 최적화를 함으로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br/> <br/>10. 양자컴퓨팅 (Quantum computing) <br/> <br/>-양자컴퓨팅의 급속한 발전은 학문의 범위를 넘어서서 실질적 세계문제들을 푸는데 활용되기 시작했다.

언론사: 세계일보-2-282.txt

제목: “야간근무가 DNA 손상시켜 암 유발”  
날짜: 20170627  
기자: 백소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27112349001  
ID: 01100701.2017062711234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야간 근무 노동자는 인체가 DNA 손상을 복구하지 못해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26일(현지시간)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 센터 연구팀은 사람들이 밤에 일할 때 DNA 조직 복구의 부산물인 화학 물질을 80% 적게 생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br/> <br/>이는 몸이 밤 사이에 자연적으로 일어나야하는 중대한 세포 회복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br/> <br/>밤에 일하고 낮 시간에 잠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훨씬 부족해 이러한 현상이 유발된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br/> <br/>그동안 야간 근무시 당뇨병, 비만, 불임, 심장마비, 종양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신체 시계의 장애가 이러한 위험 증가를 가져온다고 알려졌을 뿐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설명되지는 않았다. <br/> <br/>파빈 바티 박사는 “<span class='quot0'>야간에 깨어있으면 신체가 산화 DNA 손상을 치료하고 제거하는 능력이 감소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축적은 야간 노동자들에게서 관찰되는 것처럼 여러 신체 부위에서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연구팀은 야간 노동자 50명을 대상으로 DNA가 복구될 때 생산되는 화학물질인 ‘8-OH-dG’ 수준을 테스트했다. 야간에 근무할 때에 비해 낮에 근무할 때는 이 화학물질이 최대 300%까지 올라간 것으로 측정됐다. <br/> <br/>연구팀은 야간 노동자가 수면 호르몬 보충제를 복용해야 DNA가 복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br/> <br/>이 연구는 직업환경의학회지에 게재됐다. <br/> <br/>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83.txt

제목: 게놈연구 세계적 선구자 유니스트 박종화 교수 “게놈강국 되는데 일조하고 싶다”  
날짜: 20170625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25155920001  
ID: 01100701.2017062515592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span class='quot0'>게놈 병인 암을 퇴치하고 한국이 게놈 강국이 뒤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span>” <br/> <br/>최근 문을 연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게놈산업기술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취임한 박종화(50·생명과학부·사진) 교수가 25일 야심찬 연구계획을 피력하며 이같이 밝혔다. <br/> <br/>게놈(유전자 지도) 분야의 세계적 선구자인 박 교수는 “<span class='quot1'>인간이나 생명체가 가진 모든 유전 정보의 총합을 말하는 게놈과 관련한 기술은 생로병사의 핵심 중 핵심이라서 관련 모든 기술은 인류의 미래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br/>박 교수는 이어 “<span class='quot1'>게놈연구센터는 앞으로 극 질병과 극 노화 관련 대형 게놈사업 관리, 다양한 진단·예측기기 개발, 시약 개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분석, 대량 게놈정보 분석, 맞춤의료사업화 인프라 제공, 기업 지원 등을 할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울산 1만명 게놈사업도 중요한 일반 시민의 유전정보를 해독, 분석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유니스트 제4공학관 3층에 개소한 게놈산업기술센터는 게놈분석실, 습식실험실, 샘플저장실, 세포 배양실 등을 갖추고 있다. <br/> <br/>이 센터는 2014년 7월 문을 연 게놈연구소 시절부터 한국인 41명의 게놈 서열을 통합해 한국 공통 게놈 서열을 포함한 한국인 참조표준 게놈지도(KOREF)를 공개하는 등 연구성과를 올렸다. <br/> <br/>유니스트와 울산시는 게놈 벤처기업인 제로믹스, 게놈 기반 진단 전문업체인 클리노믹스 등 6개 기업과 게놈프로젝트의 산업화를 위한 ‘게놈 코리아 울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게놈산업기술센터를 거점으로 게놈 산업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br/> <br/>울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84.txt

제목: [특파원+] 궁지 몰린 아베정권에 혹 하나 더 붙이는 ‘아베 키즈’들  
날짜: 20170624  
기자: 우상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24150352001  
ID: 01100701.20170624150352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처‘사학 스캔들’ 등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또 불거진 ‘마(魔)의 2회생’ 말썽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도쿄 도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br/> <br/>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도요타 마유코(豊田眞由子·43) 중의원은 전날 탈당계를 제출했다. 최근까지 자신의 정책 비서였던 55세 남성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일삼았다는 주간지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도쿄대 법대와 하버드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후생노동성 관료 출신으로 주목받는 젊은 여성 정치인이었다. 문부과학성과 부흥청에서 정무관(차관급)을 역임했다. 아베 총리와 같은 자민당 내 호소다파 소속이기도 하다. <br/> <br/>아베정권은 잇따른 사학 스캔들로 야당들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의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가케 학원’이 수의학부 신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다른 사학법인 ‘모리토모 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이는 과정에 아베 총리 부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두 의혹 모두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아베정권의 지지율도 최근 한 달 사이에 10%포인트 안팎 떨어졌다. 이에 대해 “일본 국민이 아베정권의 교만함에 실망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br/> <br/>이 같은 상황에서 도요타 의원의 말썽은 아베정권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음달 2일 도쿄 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뜩이나 아베정권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국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역풍이 폭풍우가 됐다”고 한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도쿄 도의원 선거는 지방선거지만 일본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자민당은 2009년 도쿄 도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뒤 바로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도 져 민주당(현 민진당)에 정권을 내준 바 있다. <br/> <br/>2차 아베정권이 출범한 이후 ‘마의 2회생’이 일으키는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2012년 중의원 선거 때 처음 당선돼 2차 아베정권 출범 때 국회에 발을 들인 뒤 2014년 중의원 해산·총선거 때 재선에 성공한 젊은 정치인들로 ‘아베 키즈’로도 불린다. 이들은 야당 시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며, ‘아베 1강’에 취해 긴장감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br/> <br/>지난달에는 오니시 히데오 의원이 “<span class='quot0'>암 환자는 일을 안 해도 된다</span>”고 말했다가 비난이 일자 자민당 도쿄도당 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4월에는 나카가와 도시나오(中川俊直) 경제산업 정무관이 불륜 스캔들로 정무관직을 사퇴하고 탈당했으며, 지난 3월에는 무타이 ?스케(務台俊介) 내각부 정무관이 실언으로 정무관직에서 물러났다. 또 지난해 2월 미야자키 켄스케 의원은 불륜 문제로 의원직을 내놓았고, 2015년 8월에는 무토 다카야 의원이 금전 문제로 탈당했다. <br/> <br/>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85.txt

제목: 화재현장 뛰어들어 이웃 구한 스리랑카인, 불법체류 벌금 면제· 치료비자  
날짜: 2017062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23171044001  
ID: 01100701.20170623171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화재현장에 뛰어들어가 이웃을 구한 스리랑카 출신 니말 시리 반다라(38·사진 가운데)씨가 불법체류 벌금을 면제받고 치료 비자도 받았다. <br/> <br/>더불어 외국인 등록증까지 받아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났다. <br/> <br/>23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니말 씨는 지난 22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 480만원을 전면 면제받았다. <br/> <br/>법무부는 니말 씨에게 6개월짜리 치료 비자를 내줬다. 만약 기간내 치료를 마치지 못할 경우 연장신청하는 길도 열어줬다. <br/> <br/>경북 군위군 고로면 한 과수원에서 일하는 니말 씨는 지난 2월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90)를 구했다. <br/> <br/>이 과정에서 얼굴과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br/> <br/>어머니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5년째 한국에서 불법체류자 일하던 니말씨는 지난 3월 외국인 최초로 LG 의인상<사진>을 받았다. <br/> <br/>이달 지난 12일엔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br/> <br/>하지만 이 과정서 니말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불법체류 벌금과 의료비 환수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br/> <br/>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를 돕겠다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고 법부무도 이례적으로 벌금면제, 비자발급라는 조치를 내려 니말씨의 의로운 행동에 보답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86.txt

제목: 암세포 에너지원 끊어 자살 유도 UNIST 유자형 교수팀 치료법 개발  
날짜: 20170622  
기자: 이보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22211348001  
ID: 01100701.20170622211348001  
카테고리: 지역>울산  
본문: 암세포의 에너지 공급원을 망가뜨려 스스로 암세포가 파괴되도록 하는 새로운 암치료법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는 자연과학부 화학과 유자형(39·사진) 교수 공동연구팀이 트리페닐포스포늄 펩타이드 합성나노구조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항암치료법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br/> <br/>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87.txt

제목: [양향자의 더 건강한 음식] 배곯던 서민들의 보릿고개 양식  
날짜: 20170621  
기자: 송은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21210250001  
ID: 01100701.20170621210250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장어는 동의보감에서 해만, 갯장어, 먹장어라고 불린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에서 보신 음식으로 장어를 즐겨 먹었다. 1200여년 전 일본 고전인 ‘만요슈’(萬葉集)’는 ‘여름 더위로 지친 몸에 장어가 좋다’고 적었다. 또 중국의 ‘계신록’(稽神錄)에는 신약(神藥)인 장어에 대한 일화가 나온다. 과촌(瓜村)이란 곳에서 한 어부의 아내가 돌림병에 걸렸다. 이 돌림병은 무섭게 번져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그래서 병자가 생기면 죽기 전에 관에 담아 강물에 떠내려 보냈다. 하류에 사는 어부들이 떠내려오다 그물에 걸린 병자들을 어막에 뉘고 장어 고기를 먹였더니 병이 나았다고 한다. <br/> <br/>장어는 서민의 애환이 담긴 고기이기도 하다. 곰장어는 고기 자체가 징그럽게 생겼다. 눈도 없고, 입은 있으나 씹지를 못하고, 모든 먹이를 흡입하여 뱃속에서 소화시키고 또한 더듬이로 먹이를 찾고, 몸의 양 옆에 있는 180개 정도 구멍에서 나오는 진(그물막)으로 자기 몸을 보호한다. 부자들이 곰장어를 손으로 잡으면 진이 많이 나와 흉측하다며 먹지 않아 서민들이 수월하게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농사짓는 서민들이 배가 고프면 아무 데서나 불을 피워 장어를 구워 먹었다. 보릿고개를 넘을 때는 곰장어 몇 마리만 먹으면 며칠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당시 서민들이 곰장어를 많이 먹은 이유는 아무리 먹어도 절대 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r/> <br/>장어는 스태미나 식품으로 특히 여름철 남성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 장어에는 뱀장어, 붕장어, 갯장어, 먹장어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사는 물이 민물이냐 바다냐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흔히 접하는 장어는 뱀장어뿐 아니라, 먹장어(곰장어), 붕장어(아나고), 갯장어 등이다. 이 중 붕장어는 바닷물고기다. 횟감으로 유명한 붕장어는 생김새가 뱀장어와 비슷하나 몸길이가 약 90㎝로 입이 크고 이가 날카로우며 옆줄의 작은 구멍이 흰 점 모양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분포하며 참바닷장어, 해장풍어(海長風魚)라고도 한다. <br/> 붕장어 강정 <br/>재료: 붕장어 150g, 청주 1큰술, 녹말가루 3큰술, 소금, 후춧가루, 식용유, 계란 흰자 <br/>양념장 고추장 1큰술, 케첩 3큰술, 설탕 1/2큰술, 간장, 올리고당 2큰술, 청주 1큰술, 마늘 5개, 생강 약간, 파1쪽, 후춧가루, 땅콩 1큰술 <br/>만드는 법 ①장 어는 한입 크기로 손질하여 키친타올로 물기를 빼낸 뒤 청주, 소금, 후춧가루로 밑간 한다 ② 마늘, 대파, 생강은 곱게 채썰어준다 ③ 장어는 녹말가루, 계란 흰자를 골고루 묻혀 170도 튀김유에 노릇노릇하게 튀겨내 기름을 빼낸다 ④ 팬에 기름을 소량 둘러 마늘, 대파, 생강을 볶아 향을 내다가 나머지 양념을 넣고 끓여 양념장을 만든다 ⑤ 만든 양념장에 튀긴 장어를 빠르게 볶아 양념을 입혀낸다 ⑥ 땅콩을 굵게 다져 고명한다 <br/>장어로 만든 음식은 자양강장에 좋은 스태미나식이다. 다이어트에도 최상이다. 장어에는 해독 작용과 세포 재생력이 좋은 점액성 단백질과 콜라겐이 풍부하고 고혈압, 당뇨, 간염 등 성인병에 특히 좋은 불포화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또 항병력 강화, 발육 증진, 시력 회복, 항암 효과를 가진 비타민 A가 쇠고기의 300~1300 배나 들어 있다. <br/> 장어 잡채 <br/>재료: 장어 150g, 양파 1/2개, 홍피망1/2개, 청피망1/2개, 데리야키소스 1큰술, 간장 1큰술 청주 1큰술, 설탕 1작은술, 참기름 1/2큰술, 식용유 4큰술, 전분가루 3큰술, 계란흰자 약간, 소금 약간 <br/>만드는 법 ① 장어는 1㎝ 두께로 썰어서 소금, 청주, 후춧가루에 밑간을 한 뒤 전분가루, 계란 흰자를 묻혀 기름에 튀겨 익힌다 ② 당면은 찬물에 불려둔다. ③ 양파, 홍피망, 홍피망은 가늘게 채썬다 ④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 홍피망, 청피망을 소금 간을 하여 각각 볶아낸다 ⑤ 냄비에 물을 끓여서 불린 당면을 삶아낸 후 찬물에 헹궈 가위로 적당히 잘라준 뒤 간장, 설탕, 참기름으로 밑간을 한다 ⑥ 팬에 밑간 한 당면을 살짝 볶아준다 ⑦ 튀겨낸 장어는 기름을 빼내고 데리야키소스로 버무려준다 ⑧ 큰 볼에 볶은 모든 재료를 담아 참기름, 깨소금을 적당히 넣어 버무려준다. <br/>노화방지, 생리활성, 모세혈관 강화, 피부미용 등에 좋은 비타민 E, 남성 정력 증강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 B, 칼슘, 마그네슘, 인, 철, 칼륨, 나트륨 등 무기질이 풍부해 허약체질 개선, 병후·산후 회복에 효과가 크다. 비타민 E는 쇠고기의 약 10배, 칼슘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약 70배나 포함돼 있다. 장어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인 DHA와 EPA는 뇌세포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영양소이다. DHA는 암 억제, 콜레스테롤 저하, 항알레르기 등에도 효과가 있다. 장어는 고단백질 식품임에도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토코페롤이라고도 하는 비타민 E를 다량 함유해 불포화지방산의 산화를 억제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 여성의 난소 작용을 활발하게 해 주름방지, 피부 탄력에 효과가 있으며 노화 방지에도 좋다. <br/> <br/>(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언론사: 세계일보-2-288.txt

제목: [이슈플러스] 말기환자 호스피스?… 갈 병원이 없다  
날짜: 20170621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21183125001  
ID: 01100701.2017062118312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오는 8월부터 완화의료 서비스 대상이 ‘말기 암환자’에서 ‘만성 간경화 등의 말기환자와 임종을 앞둔 환자’로 대폭 확대되지만 대형병원 등의 호스피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는 죽음이 가까운 환자가 육체적 고통을 덜 느끼고, 심리적·사회적·종교적 도움을 통해 위안을 얻도록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br/> <br/>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암관리법에 따라 말기 암환자만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성 간경화·후천성면역결핍증(AIDS)·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말기환자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br/> <br/>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말한다. <br/> <br/>우리 국민의 호스피스에 대한 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암 사망자 중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환자는 2008년 5046명에서 2015년 1만150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호스피스 이용률은 같은 기간 7.3%에서 15%로 늘었다. 그러나 관련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가 몹시 부족해 많은 말기환자가 당장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말기환자가 많이 찾는 대형병원들의 준비 상황은 ‘F학점’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16곳만이 호스피스 병동과 병상을 운영했다. 병상 수로 따지면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4만176개 중에서 호스피스 병상은 217개(0.5%)이고, 대학병원의 병상 1만8146개 중 호스피스 병상은 141개(0.8%)에 그쳤다. <br/> <br/>대표적인 상급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조차 최근에야 본관 12층에 병상 10개 안팎의 규모로 호스피스 병동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와 세종, 충남 등의 지역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어디에도 호스피스 병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 <br/> <br/>한 상급종합병원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대기환자가 넘쳐나고 다른 환자에 비해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수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병원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항암제도 듣지 않고 더 이상 의료적 지원이 힘든 말기환자가 굳이 상급병원에 있어야 하나’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자문형 호스피스나 가정용 호스피스 등 다양한 형태의 호스피스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89.txt

제목: [기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영웅, 헌혈자  
날짜: 20170620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20231059001  
ID: 01100701.20170620231059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우리나라에서 무상헌혈이 시작된 것은 1960년 4·19 혁명 때였다. 부상 학생의 치료를 위한 시민과 학생들의 자발적 헌혈운동이 계기였다. 1960년부터 3년간 무상 헌혈자수는 239명에 이른다. 한 해 평균 80명이 무상헌혈을 한 셈이다. 55년여가 지난 2016년, 우리나라의 헌혈자 수는 총 286만6000명이다. 같은 해 기준 국민 헌혈율은 5.6%로 일본(4.0%), 프랑스(4.6%, 이상 2015년 기준), 호주(5.4%, 2014년 기준)보다 높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피를 이웃들과 나누는 헌혈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다. <br/> <br/>지난 14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헌혈자의 날이었다. ‘생명을 살리는 힘, 지금 당신의 헌혈입니다’를 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헌혈자 250여명을 모시고 기념식이 진행됐다. 이날을 기념해 헌혈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을 준비하면서, 헌혈자 한 분의 사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br/> <br/> <br/>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43세 여성인 김현진씨가 헌혈을 한 횟수가 무려 231회라고 했다. 중환자실에서 수혈을 받았던 아버지를 기억하며 헌혈을 시작한 31세부터 13년간 평균 한 달에 1.5회 정도로 자신의 피를 나누어 준 셈이다. 한 번의 헌혈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고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그는 231명의 생명을 살린 셈이다. 더구나 김씨는 헌혈하는 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혈소판 헌혈(1회 90분)을 202회나 했다. 혈소판이 백혈병 환아들에게 특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백혈병 환우들을 위한 조혈모세포기증희망 등록도 했다. <br/> <br/>그의 사연을 보고 얼마 전 백혈병 환우회 소식지를 통해 본 희선씨의 사연이 떠올랐다. 항암치료와 골수이식을 이겨내고 현재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희선씨. 그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매일 1팩(혈소판 250mL)에서 32팩까지 수혈을 받았다. 그가 이 어려운 치료를 이겨낼 수 있었던 저력은 ‘구세군 냄비를 보아도 내 피 같은 돈을 선뜻 꺼내기 어려운데, 얼굴도 모르는 나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짜 뜨거운 피를 나눠 주었구나’하는 감사의 마음이었다고 한다. <br/> <br/>하지만 이렇게나 고마운 헌혈자들과 높은 헌혈률을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왜 심심찮게 ‘혈액부족’이라는 기사가 나오는 걸까. 그 이유는 특정 연령대에만 헌혈을 의존하는 구조에 있다. 헌혈자의 대다수(73%)가 10~20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겨울방학이나 명절 연휴, 시험기간 등에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암, 심장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수혈을 받아야 할 환자 수는 늘고 있다. 혈액의 총 사용량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대로 중장년층의 헌혈(27%)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10~20대 헌혈이 10%만 감소해도 5년 내 혈액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 <br/> <br/>이런 상황에서 헌혈자들에 대한 감사함과 긍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제2, 제3의 희선씨를 다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혈액 분야 전문가, 환우회,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년)’을 준비하고 있다. 헌혈자들이 더욱 대우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헌혈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있다. 국민들이 헌혈해 준 혈액을 꼭 필요한 곳에, 적정량을 쓰고 있는지 감시도 열심히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헌혈에는 소극적이면서 수혈량의 73%를 사용하는 30대 이상 어른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br/> <br/>헌혈자들이 주삿바늘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헌혈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아파보지도 않은 헌혈자들이 어찌 생사의 기로에서 가슴 찢는 이웃의 아픔을 이토록 헤아릴 수 있는 걸까. 헌혈이 주는 생명 나눔과 나눔 후의 기쁨. 이것이야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삶과 죽음을 오가는 절박한 이웃에게 삶이라는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기부가 아닐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숨은 히어로, 헌혈자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돼 보는 것은 어떨까. <br/> <br/>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언론사: 세계일보-2-290.txt

제목: 기능 잃은 암환자 면역세포 살리는 단백질 찾았다  
날짜: 20170620  
기자: 정필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20231047001  
ID: 01100701.20170620231047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 환자 몸에서 기능을 잃은 면역세포가 특정 단백질에 의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br/> <br/>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서울대 약대 강창율(사진) 교수팀은 암 환자의 조직에 인터루킨-21을 넣었을 때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이 회복되는 점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br/> <br/>자연살해세포는 종양 세포나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자발적으로 죽이는 세포다. 일반적으로 암세포는 자연살해세포에 의해 제거된다. 하지만 전이암이나 말기암 환자의 경우 이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인터루킨-21은 몸 안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과 체내 면역계가 맞서 싸우도록 자극하는 단백질이다. <br/> <br/>이번 연구는 미래부 기초연구지원사업, 차세대신약기반기술개발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6일 자에 게재됐다. <br/> <br/>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91.txt

제목: [재테크 레슨] 가장 종신보험… 엄마 CI보험… 대학생 자녀엔 실손보험 필수  
날짜: 20170619  
기자: 김라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19030745001  
ID: 01100701.2017061903074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행복한 가정은 무릇 가족 모두의 ‘건강’이 지켜질 때 유지될 수 있다. 생활 속 유해물질, 각종 사건사고, 바쁜 일상 속 스트레스 등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에서 비롯된 각종 위험에 대비해 우리 가족을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br/> <br/>먼저 아빠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행여 자신이 가족들을 두고 먼저 떠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경우 남겨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던 아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이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신보험과 같은 생활보장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종신보험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닌, 가족 전체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큰일 없이 지나간다면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생활비로 쓸 수도 있다. <br/> <br/> <br/> 윤필경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집 안팎으로 1인 다역을 해내는 만능 엄마도 40대 중반을 지나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마련이다.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엄마가 아프면 집안이 제대로 굴러가기 힘들다. ‘억’ 소리 나는 치료 비용에다 집안 살림을 못할 때 생기는 각종 문제까지, 엄마가 아프면 가족 전체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목돈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대비해 치료비와 생활비가 모두 보장되는 중대질병(CI)보험 하나쯤은 들어두는 것이 좋다. 또 병세가 오래가면 간병이 꼭 필요한 만큼 장기간병(LTC)보험까지 준비해두면 안전하다. CI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우선 암보험이라도 가입해야 한다. <br/> <br/>그렇다면 자녀들에게는 어떤 보험이 필요할까.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돈 쓸 곳이 많다. 하지만 처음부터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두지 않으면 100세 시대 노후대비는 힘겨워진다. 점점 길어지는 노후를 준비하는 데 사실상 연금보험만한 것이 없다. 연금보험에 일찍 가입하면 할수록 노후에 돌려받게 되는 금액 역시 커진다. 특히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연금저축보험 가입이 필수다. <br/> <br/>마지막으로 아직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실손의료비보험 하나 정도는 준비해두자. 젊다고 해도 건강만큼은 완전히 자신할 수 없다. 사소한 질병이라도 제때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 가입해둬야 할 보험이 바로 실손의료비보험이다. 실손보험은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 한 시라도 젊었을 때 가입해야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왕 가입할 거면 서두르자. <br/> <br/>윤필경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

언론사: 세계일보-2-292.txt

제목: [연구] 아침 거르면 학생은 성적 떨어지고, 성인은 뇌출혈 위험 4배 높아진다  
날짜: 20170618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18130210001  
ID: 01100701.20170618130210001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아침을 거르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성인은 뇌출혈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 결과 드러났다. <br/> <br/>이 같은 결과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최근 발표한 ‘결식과 학력과의 관계조사 보고서’와 국립 암 연구센터 연구팀의 ‘결식과 뇌졸중의 관계 연구’에서 도출됐다. <br/> <br/>먼저 일본 문부과학성이 전국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과 ‘가끔 먹는 학생’, ‘굶는 학생’을 그룹으로 나눠 일본어와 수학 문제를 내고 학업 성취도를 평가했다. <br/> <br/>그 결과 아침을 거르는 학생은 매일 아침을 먹는 학생보다 성적이 30% 낮았으며, 가끔 먹는 학생은 매일 아침 먹는 학생과 비교해 20% 낮게 나타났다. <br/> <br/>특히 꾸준히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은 수학 문제 정답률이 79.2%로 준수한 편이었으나, 아침을 거르는 학생은 19.1% 포인트 낮은 60.1%에 그쳤다. <br/> <br/>연구팀은 “아침 식사와 학업성적의 연관성 재차 확인된 것”이라며 “규칙적인 식사가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 된다는 해외 연구 부합한 결과”라고 말했다. <br/> <br/>한편 일본 국립 암 연구센터 연구팀이 전국 남녀 8만 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 빈도로 그룹을 나눠 13년간 추적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3772명에게서 뇌졸중이 발병했다. <br/> <br/>그중 일주일에 ‘0~2회’ 아침 식사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 먹는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이 18%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뇌출혈 발병률은 36%나 높았다. <br/> <br/>연구팀은 “공복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하여 매일 아침 식사를 사람보다 뇌출혈 위험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혈압은 뇌출혈 발병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93.txt

제목: 단순 입 안 염증?… 구강암 의심해야  
날짜: 20170616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16031704003  
ID: 01100701.20170616031704003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16일 오후 9시50분 EBS1 ‘명의’(사진)에서는 입 속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 구강암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본다. <br/> <br/>구강암은 다른 암과 달리 눈으로 보이는 암이지만 발견이 늦다. 환자 대부분 단순히 입에 염증이 났다고 생각했다가 구강암 진단을 받는다. 입 안에 하얗거나 붉은 병변이 보이고,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느껴지고, 입 안에 혹이 만져지고, 이가 갑자기 흔들리는 경우 구강암을 의심해야 한다. <br/> <br/>구강암 환자의 약 72%는 흡연자다.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구강에 직접 닿기 때문에 흡연은 구강암의 가장 유력한 주범이다. 비흡연자들도 구강암에 걸리는 특별한 경우도 있다.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구강 자극, 염증이 오래돼서 일어나는 세포 변형, 불법 틀니나 보철물 사용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94.txt

제목: 서울대 학술연구상에 임홍배 교수 등 10명 선정  
날짜: 20170615  
기자: 박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15212559001  
ID: 01100701.20170615212559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서울대는 15일 임홍배(57·독어독문학과) 교수 등 10명(인문·사회계열 3명, 이공·의약학계열 7명)에게 ‘2017학년도 1학기 학술연구상’을 수여했다. <br/> 임홍배, 홍성철, 이명선(왼쪽부터) <br/>임 교수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연구한 저서를 처음 출간하고 2010년부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단 부단장을 맡으며 통일 평화 연구를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성철(47·물리·천문학부) 교수는 단일 분자를 측정하고 제어하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다. 이명선(64·간호학과) 교수는 대한종양간호학회 회장과 아시아종양간호학회 초대 회장을 지내면서 암 환자를 위한 간호 연구에 매진했다. 또 △김장주(62·재료공학부) 교수 △설승기(59·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윤여탁(61·국어교육과) 교수 △이정원(54·약학과) 교수 △방영주(62·의학과) 교수 △김홍희(53·여·치의과학과) 교수 △임도빈(56·행정학과)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대가 2008년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든 이 상은 이번에 10회를 맞았다. 지난해까지는 1년에 한 차례 시상했으나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더 격려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학기별로 시상한다. <br/> <br/>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95.txt

제목: 일본 공영주택 2만2000호 석면 사용…"23만명 노출 가능성"  
날짜: 20170614  
기자: 우상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14163923001  
ID: 01100701.20170614163923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일본의 공영주택 2만2000호에 살았던 23만명이 암을 유발하는 석면에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br/> <br/>14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발암성 석면으로 건강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중피종 석면질환 환자와 가족의 모임’은 전날 석면이 사용된 공영주택과 임대주택이 전국에 최소 2만2000호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br/> <br/>일본 정부는 1988년 전국 지자체에 공영주택에서의 석면 제거 등의 대책공사를 하도록 요구했으며, 이후 대부분 석면은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책공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석면이 사용된 공영주택에 살았던 사람은 약 23만명에 이른다고 무라야마 다케히코( 村山武彦) 도쿄공업대 교수는 추산했다. 건축 후 대책이 실시될 때까지의 기간과 가족 구성, 평균 주거 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한 수치다. 무라야마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한 주택도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국가와 지자체는 전국적인 조사와 사용 상황 등의 데이터베이스와 거주자에 대한 상담 체제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 <br/>지금까지 석면 피해는 석면공장 등의 노동자와 공장 주변 주민이 주요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공영주택 거주자도 주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라야마 교수는 “<span class='quot0'>반드시 건강피해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대책공사가 이뤄지기 전 해당 주택에 살았던 사람은 어느 정도 접촉했는지 등 당시의 생활 상황을 확인하기 바란다</span>”고 당부했다. <br/> <br/>이 모임은 천장에 석면이 사용된 요코하마시의 가나가와현영주택에 약 20년 동안 살았던 여성에게 중피종이 발병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그 외에도 비슷한 피해가 없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br/> <br/>일본에서는 2006년 석면건강피해 구제법이 시행됐다. 근로재해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중피종과 석면에 의한 폐암 등 특정 질병에 걸리면 환자와 유족을 구제하는 제도다. 이는 2005년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의 구보타 공장 주변에서 다수의 석면 관련 건강피해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구보타사는 석면을 원료로 건축자재를 만들었다. <br/> <br/>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96.txt

제목: 각종 암 부르는 당뇨병 원인과 대책은?  
날짜: 20170614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14023404002  
ID: 01100701.2017061402340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KBS1 ‘생로병사의 비밀’(사진)은 14일 오후 10시 ‘암을 부르는 당뇨병’을 통해 당뇨병이 암을 발생시키는 이유를 알아본다. <br/> <br/>한번 걸리면 완치가 어렵다고 알려진 당뇨병. 위험군까지 포함하면 한국인의 3분의 1이 앓고 있는 병이다. 국내외 의학 논문에 따르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장암, 췌장암, 자궁내막암, 유방암,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당뇨가 암을 일으키게 하는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암 환자 중 당뇨가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도 26%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br/> <br/>당뇨 환자에게서 암이 생기기 쉬운 이유는 무엇이며 두 병이 공유하는 위험인자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또 당뇨병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가적으로 당뇨병 예방·개선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본다. <br/> <br/>김희원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2-297.txt

제목: 아내 떠나보낸 임재범, "비참할 정도로 어렵게 살았다"  
날짜: 20170613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13112015001  
ID: 01100701.20170613112015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아내 송남영이 12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남편인 가수 임재범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과거 생활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br/> <br/>임재범은 TV방송에 출연해 힘들었던 생활고를 간간이 쏟아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br/> <br/>그는 “결혼 후 생활비가 없어 한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못할 정도라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나가 노래를 불렀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딸아이에게 TV는 한 시간만 보도록 부탁했고 밤 9시가 되면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코드까지 뽑았었다"고 결혼초 이야기를 꺼냈다.  <br/> <br/>“물 값을 아끼려고 딸만 씻기고 나와 아내는 씻지도 않았다. 담배가 피고 싶을 땐 담배꽁초를 주워 피웠다”고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렸다.  <br/> <br/>경제적으로 힘들게 살던 그는 2011년 MBC ‘나는 가수다’ 출연하면서 팬카페에 “아내가 암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 또다른 가정의 불운을 알려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br/> <br/>그는 방송에서 “내가 아내의 병을 키웠을 수도 있다”며 “무기력한 남편으로 6~7년간을 살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딸 아이와 대공원을 갈 때에도 버스를 타고 다녔다”며 스스로를 못난 아버지이자 남편이라고 자책했다. <br/> <br/>임재범은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에 나왔다. 병이 낫게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린다”며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br/> <br/>그는 “제 아내 송남영, 저와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을 즈음해 병원서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갑상선 암 제거를 했다. 간암, 위로 전이됐다는 추가 진단을 받았다”고 당시 전했다. 이어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 방송에 나왔다”는 말도 덧붙였다.  <br/> <br/>임재범은 우연히 뮤지컬을 보러갔다가 배우로 출연한 송남영과 인연이 돼 2001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그의 부친은 임택근 MBC 전 아나운서이며 배우 손지창과는 이복형제 사이다.  <br/> <br/>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98.txt

제목: 가수 임재범 부인상…뮤지컬 배우 송남영 씨 별세  
날짜: 20170612  
기자: 권구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12203018002  
ID: 01100701.20170612203018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가수 임재범(55)의 부인인 뮤지컬 배우 송남영 씨가 암 투병 끝에 12일 별세했다. 향년 45세. <br/> <br/>가요계에 따르면 갑상선암이 간과 위로 전이돼 투병 중이던 송씨는 이날 오후 세상을 떠났다. <br/> <br/>임재범은 2011년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화제가 될 당시 팬카페에 글을 올려 “제 아내 송남영, 암 투병 중에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라며 아내의 투병 사실을 공개했다. <br/> <br/>그는 “제 아내 송남영, 저와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을 즈음해 병원서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갑상선 암 제거를 했고, 간, 위로 전이됐다는 추가 진단을 받았다”며 “육체의 병보다는 아내가 무척 외롭고 힘들어할 때, 한 여인의 남자로 남편으로 많이아프고 힘이 든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br/> <br/>송씨는 서울예대 연극과를 졸업했으며, 뮤지컬 ‘명성황후’ ‘페임’ ‘겨울 나그네’ ‘하드록 카페’ 등에 출연했다. <br/> <br/>임재범은 최근 방송 활동을 하지 않고 부인 간병에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두 사람은 2001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이 있다. <br/> <br/>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299.txt

제목: 임재범 부인 송남영씨 별세…나가수 때 임재범 "암투병 아내 기도 부탁"  
날짜: 20170612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12202156001  
ID: 01100701.20170612202156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은둔생활을 하다시피 하던 가수 임재범(55)을 무대에 서게 만들었던 부인인 뮤지컬 배우 송남영 씨가 암 투병 끝에 향년 45세의 나이로 12일 오후 별세했다. <br/> <br/>가요계 관계자에 따르면 고인은 갑상선암이 간과 위로 전이돼 투병끝에 유명을 달리했다. <br/> <br/>임재범은 지난 2011년 MBC TV '우리들의 일밤-서바이벌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엄청난 가창력으로 화제를 모은 뒤 팬카페에 글을 올려 '제 아내 송남영, 암 투병 중에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라며 그를 대중앞에 노래부르게 만든 이가 아내임을 고백했다. <br/> <br/>아내 치료비 마련을 위해 '나는 가수다'에 섰다는 임재범은 "<span class='quot0'>제 아내 송남영, 저와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을 즈음해 병원서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갑상선 암 제거를 했고, 간, 위로 전이됐다는 추가 진단을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육체의 병보다는 아내가 무척 외롭고 힘들어할 때, 한 여인의 남자로 남편으로 많이 아프고 힘이 든다</span>"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br/> <br/>고인은 서울예대 연극과를 졸업했으며, 뮤지컬 '명성황후' '페임' '겨울 나그네' '하드록 카페' 등에 출연했다. <br/> <br/>지난 2001년 송씨와 결혼한 임재범은 최근 방송 활동을 하지 않고 간병에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00.txt

제목: 盧정부 때 국방개혁 참여… “이기는 軍 만들기 고민”  
날짜: 20170611  
기자: 박수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11215029001  
ID: 01100701.20170611215029001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새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은 1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span class='quot0'>군을 새롭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군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하겠다</span>”며 국방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방부 최대 현안인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안은 있지만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br/> <br/>송 후보자는 ‘비(非)육군, 비육사 예비역’을 찾던 청와대의 인선기준에 부합하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거쳐 국방장관을 역임한 윤광웅(2004~2006) 전 해군참모차장 이후 13년 만에 해군 출신 장관이자 비육군 출신 장관이 탄생한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비육군 출신 국방장관은 김성은(해병대), 이양호(공군), 윤광웅 전 장관 3명에 불과하다. <br/> <br/>송 후보자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해군 2함대 제2전투전단장으로서 남북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충돌했던 제1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끌어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노무현정부 시절이던 2005~2006년 합참에서 근무하며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국방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했다. 이후 대장으로 진급해 2008년 3월까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br/> <br/>전역 후 2012년 문 대통령 지지단체인 ‘담쟁이포럼’ 창립멤버로 참여했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캠프의 국방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방·안보분야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br/> <br/>송 후보자는 청와대가 밝힌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span class='quot1'>1989년 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겨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1'>아버지가 1985년 췌장암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고 그해 여름에는 둘째 아이가 암에 걸려 고향에 아파트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분양을 받았다</span>”고 해명했다. <br/> <br/>해군총장 재직 당시 불거졌던 계룡대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사건을 적절히 처리했는지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2009년 10월 김영수 당시 해군 소령이 폭로하기 수년 전부터 군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후보자는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왔다.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첫 국방장관 1순위로 꼽혔으나 문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내정된 것도 이 사건을 놓고 청와대가 그만큼 고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관 후보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청와대의 정면돌파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것인지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br/> <br/>△충남 논산(68) △대전고·해군사관학교 27기 △합동참모본부 인사군수본부장·전략기획본부장 △제26대 해군참모총장 △건양대 군사학과 석좌교수 <br/> <br/>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01.txt

제목: 성진우 아내 "다시는 안 아플께…고맙고 미안해"  
날짜: 20170611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11121205001  
ID: 01100701.20170611121205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가수 성진우(오른쪽)가 아내와 함께 부모 묘소를 찾아 최근 결혼을 공개한 사연을 털어놓고 있다. MBC '사람이 좋다' 캡처.‘포기하지마’로 인기를 끌었던 가수 성진우 부부의 가슴 아픈 사연이 공개돼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br/> <br/>11일 오전 방송된 MBC ‘사람이 좋다’에는 성진우와 아내가 함게 출연해 그간 힘들게 살아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br/> <br/>성진우는 이날 방송에서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슬픈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br/>  <br/>그는 “4년전 결혼식을 준비하다 아내가 유산하고 암수술까지 받았다. 당시 아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게 됐다”고 말했다. <br/> <br/>그는 “식도 올리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항상 미안하고 너무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br/> <br/>성진우의 아내 역시 “아이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시험관 아기 시술이나 인공수정도 했다. 한 번은 실패했고 한 번은 임신이 돼 오빠가 눈물까지 흘리며 축하해 주었는데 11주쯤 지나 아이가 잘못돼 유산됐다”고 고백했다. <br/>  <br/>아내는 “나를 간호해줬을 때를 잊을 수 없다. 주변에서도 저런 남자 없다고 하더라. 그런 힘든 시기에 오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다시는 아프지 않고 오빠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며 눈물을 흘렸다. <br/> <br/>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br/>사진= 방송 캡처

언론사: 세계일보-2-302.txt

제목: [카시트의 명과 암] ③ 유아용 카시트, 올바른 사용법  
날짜: 20170611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11080254001  
ID: 01100701.20170611080254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아용 카시트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br/> <br/>우선 아이의 성장단계에 따라 체격에 맞는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헤드레스트(headrest)는 아이의 어깨선에 맞춘다. 안전벨트는 어른 손가락이 들어 갈 정도의 여유만 두고 조여준다. 마지막으로 장착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br/> <br/>몸무게 중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 가량 되는 신생아의 경우 전방이 아닌 후방(뒤보기) 장착을 해야한다. 사고 발생 시 신생아의 목과 척추 등에 무리가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뒤보기 장착 시 아이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몸 전체로 분산시켜주기 때문이다. <br/> <br/>미국의 경우 2세 이하 아이인 경우 반드시 카시트를 차량 반대 방향으로 설치해 앉게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br/> <br/> 카시트 각도는 140~150도의 기울기로 맞춰주는 것이 좋다. 각도가 너무 곧으면 위급 상황 시 아이의 머리가 앞으로 꺾일 수 있고, 너무 누운 각도일 경우 사고 발생 시 아이가 카시트 위쪽으로 빠져 나올 수 있다. <br/> <br/>특히 신생아를 안고 차에 타는 행위는 금물이다. 체구가 작고 카시트에 혼자 앉히는 게 걱정된다는 이유로 직접 안고 타는 엄마들이 있는데, 이는 아이를 ‘에어백(차량 충돌 때 충격으로부터 자동차 승객을 보호하는 장치)’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고 시 아이가 충격을 모두 흡수하기 때문이다. 카시트에 태운 아이가 울더라도 바로 안아서 달래지 말고, 잠깐 정차 후 다시 출발하는 것이 좋다. <br/> <br/>업계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유아용 카시트는 아이의 성장에 따라 알맞은 제품으로 교체해줘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카시트가 아이 체격에 비해 너무 크거나 작으면 사고 시 아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그러면서 “훌쩍 자라는 아이 체격에 맞춰 카시트를 재구입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며 “이러한 경우 0~7세, 3~10세 등 사용 연령이 길고 체격에 맞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참고해 볼만하다”고 덧붙였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03.txt

제목: [카시트의 명과 암] ② "육아비용 만만찮은데"…단속이 불편한 부모들  
날짜: 20170611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11080253001  
ID: 01100701.20170611080253001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최근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카시트 등 관련 상품 매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11일 온라인쇼핑몰 롯데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카시트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다. <br/> <br/>특히 3살부터 12살까지 아이의 키에 맞춰 좌석을 조절할 수 있는 '주니어 카시트'가 많이 판매됐다. 같은 기간 주니어 카시트 매출 증가율은 38%에 이르렀다. <br/> <br/> 경찰은 3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지난 3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과태료 상향 정책에 대한 부모들의 입장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br/> <br/>주부 김모(34)씨는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에 이르는 카시트를 무턱대고 구매하라는 것은 안그래도 주머니가 얇아진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br/> <br/>워킹맘 이모(38)씨는 "<span class='quot0'>과태료를 올리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 카시트 구매 시 정부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0'>영유아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일부 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란 생각도 든다</span>"고 하소연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04.txt

제목: [카시트의 명과 암] ① 의무화 10년…여전히 외면받는 '생명줄' 카시트  
날짜: 20170611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11080252002  
ID: 01100701.20170611080252002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교통사고를 당한 영유아 10명 중 7명이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착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11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카시트 장착률은 33.6%로 △독일 96% △영국·스웨덴 95% △미국 94% △뉴질랜드 92% 등 다른 선진국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br/> <br/>아이가 카시트에 앉는 것을 싫어한다거나, 차에 장착하는 게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조수석에서 부모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거나 품에 앉고 탑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br/> <br/>미국과 캐나다 등 카시트 착용이 뿌리 내린 나라에서는 아이의 연령·체중·신장을 고려해 카시트 착용 의무화를 세분화하고, 착용 방법을 법규에 명시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br/> <br/>실제 미국의 경우 위반 시 최대 500달러(한화 약 5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영국도 어린이가 차량 내 안전보호장구 없이 탑승했을 경우 최대 500파운드(한화 약 72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br/> <br/> 우리나라도 만 6세까지 카시트를 의무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두 배 올린 뒤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br/> <br/>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단속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br/> <br/>카시트 장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연령을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br/> <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도로교통법상 영유아는 만 6세 미만</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영유아인 경우 유아 보호장비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05.txt

제목: "그들은 나를 실험했다"…앙심 품고 의사들 살해 시도한 암환자  
날짜: 20170609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09103302001  
ID: 01100701.20170609103302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여러 해에 걸친 치료에도 차도가 없었던 미국의 한 남성 암환자가 앙심을 품고 의사들을 살해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br/> <br/>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앞선 5월31일 오후 7시48분쯤 캘리포니아 주(州)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국계 미국인 남성 첸씨가 자신을 뒤쫓아 오던 경찰에 붙잡혔다. <br/> <br/>캘리포니아 비세일리아에 사는 첸씨는 4기 암환자며, 수년에 걸친 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자기를 맡았던 의사들을 살해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중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br/> <br/>경찰은 첸씨의 차에서 권총 2자루를 압수했다. <br/> <br/>  지난 5월31일(현지시간) 오후 7시48분쯤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국계 미국인 남성 첸씨가 자신을 뒤쫓아 오던 경찰에 붙잡혔다. 캘리포니아 비세일리아에 사는 첸씨는 4기 암환자며, 수년에 걸친 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자기를 맡았던 의사들을 살해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중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미국 CBS 뉴스 캡처. <br/> <br/>첸씨는 자기를 담당했던 의사 3명이 치료는커녕 오히려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첸씨는 “<span class='quot0'>의사들은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쳤다</span>”며 “<span class='quot0'>서로의 잘못을 덮어주기에만 급급할 뿐이었다</span>”고 울분을 토했다. 첸씨가 처음 치료를 받기 시작한 건 2008년 무렵으로 알려졌다. <br/> <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첸씨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태였다</span>”며 “<span class='quot1'>나빠진 건강 상태가 모두 의사의 탓이라고 판단, 살해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span>”고 말했다. <br/> <br/>첸씨의 정확한 병명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그를 병원에 데려가 나빠진 상태를 체크한 뒤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06.txt

제목: 메트라이프생명 신상품 출시  
날짜: 20170608  
기자: 김라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08031021003  
ID: 01100701.20170608031021003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메트라이프생명이 고객의 은퇴 이후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생활자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오늘의 종신보험’(사진)을 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생활자금 지급기간은 15·20·25년 중 선택 가능하며 생활자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도 가입금액의 10%는 사망보장으로 유지된다. 만약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생활자금과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건강 및 의료보장 역시 대폭 강화했다.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할 시 다양한 의료특약을 통해 진단 및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특약의 경우 해직환급금을 없애 보험료를 낮춘 무해지환급형과 가입시점에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내는 갱신형을 도입하여 고객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br/> <br/>김라윤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2-307.txt

제목: [난류한류] "서울중앙지검 000검사입니다" 아직도 이런 보이스피싱이  
날짜: 20170607  
기자: 한현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07143854001  
ID: 01100701.2017060714385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서울중앙지검 000검사입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연루됐으니···.” <br/> <br/>광주에 사는 김모(26·여)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10시30분쯤 이같은 휴대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br/> <br/>김씨의 당황한 모습을 눈치챈 A씨는 “모든 계좌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다그쳤다. A씨는 또 “안전하게 보관한 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br/> <br/>A씨는 이후 김씨에게 미리 가짜로 개설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했다. A씨는 김씨가 이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믿게 했다. <br/> <br/>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김씨는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커피숍에서 A씨를 만났다.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면서 금융감독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씨는 민원서를 작성하고 7500만원을 건네받았다. 김씨가 건넨 7500만원은 최근 어머니의 암진단 및 치료보험금으로 받은 돈이다. 김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어머니의 암치료 보험금을 고스란히 빼앗긴 것이다. <br/> <br/>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이 때부터 5월25일까지 광주와 경기, 부산, 울산지역에서 9명에게 9회에 걸쳐 3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3억6000만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1800만원(5%)을 받았다. <br/> <br/>중국인인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고 국내의 여관 등지에서 생활해다가 중국 일당의 지시를 받아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br/> <br/>A씨는 서류나 휴대전화에 흔적을 남기지않기위해 특수물질을 손가락에 발라 지문을 남기지 않아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br/> <br/>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이날 A씨 등 9명을 구속했다. <br/> <br/>광주지방경찰청 이재현 지능범죄수사대장은 “<span class='quot0'>범행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범행 대상자도 사회적 경험이 적은 20대 여성만을 고르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다</span>”고 말했다. <br/> <br/>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08.txt

제목: 젊어도 안심은 금물… 대장암의 모든 것  
날짜: 20170606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06211632001  
ID: 01100701.20170606211632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7일 오후 10시 KBS1 ‘생로병사의 비밀’(사진)에서는 한국인을 위협하는 대장암의 다양한 원인과 극복 방법을 알아본다. <br/> <br/>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은 지난 20년간 2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했다. 전 세계 184개국 중 대장암 발병률 1위를 기록 중이다. 대장암은 흔히 50대 이상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이 공식이 깨졌다. <br/> <br/>대한대장항문학회에 따르면 30대의 20%, 40대의 30%에서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이 발견됐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도 대장암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대장암의 원인으로는 육류 위주의 식습관 변화가 꼽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라면, 팝콘, 치킨, 피자 등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 역시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복진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2-309.txt

제목: [이슈플러스] 한국, 금연 과태료 10만원… 호주선 최대 183만원  
날짜: 20170606  
기자: 문준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06193540002  
ID: 01100701.20170606193540002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서울에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물지만 호주에서는 최대 183만원을 내야 한다. <br/> <br/>6일 보건복지부와 금연운동협의회 등에 따르면 주거지나 길거리 흡연에 대한 규제는 나라별로 큰 차이가 있다. <br/> <br/>주거지 흡연 규제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부터 주민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br/> <br/>이 같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호주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br/> <br/>호주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을 시행해 아파트에서의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웃의 항의에도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회 1100달러(92만원), 2회부터는 최대 2200달러(183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br/> <br/>실외 흡연에 대한 처분도 차이를 보인다. <br/> <br/>우리나라는 지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정한 길거리나 광장, 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금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br/> <br/>하지만 홍콩에서는 5000홍콩달러(약 72만원)를 물린다. 홍콩은 2007년 세계 최초로 도시 전체를 ‘완전금연도시’로 선포하면서 사업장, 공원, 해변 등 50만곳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싱가포르에서는 1000싱가포르달러(약 81만원)를 물린다. <br/> <br/>길거리 흡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길거리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본은 지역에 따라 2000엔(2만원)∼2만엔(20만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br/> <br/>해외에서는 차량 흡연도 규제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18세 이하 아동과 동승한 차량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0파운드(14만원)를 물린다. <br/> <br/>우리나라의 흡연 규제는 일찌감치 규제를 단행한 나라들에 비해 다소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연운동단체 등은 암 유병률 증가 등 흡연이 야기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고려할 때 담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br/> <br/>서홍관 금연운동협의회 회장(국립암센터 교수)은 “<span class='quot0'>우리나라는 공간, 업소, 건물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할 때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는데 입법 낭비가 심하고 어길 시 처벌도 약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모든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흡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10.txt

제목: [디지털+] 전지전능 AI 전성시대  
날짜: 20170604  
기자: 엄형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04205136001  
ID: 01100701.2017060420513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구글의 인공지능(AI) 바둑기사인 알파고가 인간계 최고수인 커제 9단에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 번 위력을 입증했다. 알파고는 지난해 이세돌 9단 때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크게 진화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걸려야 할 성취를 AI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시간에 달성해 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로봇과 함께 AI가 핵심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AI는 사회 전반에 빠르게 뿌리를 내리며 ‘인간계’를 뒤흔들고 있다. <br/> <br/> 구글의 인공지능 바둑기사 `알파고`에 완패당한 커제 9단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영화에서 현실 된 AI <br/> <br/>2000년대 초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 ‘AI’를 만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AI는 영화 속 기술로만 여겨졌다. 물론 지금도 영화 속 11살 안드로이드(인간형 로봇)인 ‘데이비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다. 하지만 더 이상 AI는 이론적 기술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br/> <br/>구글 딥마인드는 지난달 27일 이세돌 9단과 커제 9단을 차례로 꺾은 알파고의 바둑계 은퇴를 선언했다. 바둑판이 아닌 다른 분야로 AI의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게 딥마인드의 계획이다. <br/> <br/>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IBM의 ‘왓슨’은 암을 진단하거나 디자인을 하고, 마케팅 기법을 제안하는 등 인간 사회에서 재능을 발휘 중이다. 알파고나 왓슨보다 성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애플의 ‘시리’, 삼성전자의 ‘빅스비’,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 아마존의 ‘알렉사’ 등 각 기업들이 개발한 인공지능은 인간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br/> <br/>이제 AI에게 번역과 주식거래 정도는 손쉬운 단계고, 범죄를 예측하거나 변호를 맡기도 한다. 이미 우리나라 경찰도 폐쇄회로(CC) TV에 AI를 적용해 범죄 파악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r/> <br/> 삼성전자 갤럭시S8 시리즈에 탑재된 AI 서비스 `빅스비`를 사용하는 모습.◆한국에 불어온 AI 열풍 <br/> <br/>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경기 후 AI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br/> <br/>네이버는 지난 3월2월 세계 최대 통신 박람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AI 플랫폼인 ‘클로바’를 공개했고, 최근엔 베타(테스트) 버전을 출시했다. 네이버는 번역, 음악·지식 검색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클로바를 탑재한 음성인식 스피커도 내놓을 계획이다. <br/> <br/>카카오도 AI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2월 카카오는 AI 전문 자회사를 카카오브레인을 설립하고, 3월에는 카카오 내에 AI 사업 전담 부문을 신설했다. 카카오 역시 연내 독자적인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서비스와 스마트 기기를 차례로 선보일 계획이다.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인 멜론, 내비게이션, 택시, 뉴스 검색 등에 AI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br/> <br/>포털 업체만이 아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음성인식 AI 스피커인 ‘누구’를 출시했고, 올해엔 AI 전담 사업단을 신설했다. SK텔레콤은 모바일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인 ‘T맵’에 AI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AI를 활용한 신사업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br/> <br/>KT도 질세라 올해 1월 AI테크센터를 신설하고 음성인식 AI 스피커인 ‘기가지니’를 내놨다. 최근엔 기가지니사업단을 신설하며, 타업체와의 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KT는 올해 서울모터쇼에서 현대자동차와 함께 기가지니를 활용한 차량용 서비스를 선보였다. <br/> <br/>삼성전자는 AI 서비스인 ‘빅스비’를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8 시리즈에 탑재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갤럭시S3에 탑재됐던 음성인식 기능인 ‘S보이스’는 정해진 물음에 정해진 대로 답하는 수준이었지만, ‘빅스비’는 머신러닝(기계학습)을 통해 점점 더 똑똑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span>”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영어, 중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br/> <br/>이밖에도 SK C&C가 IBM의 왓슨을 기반으로 개발한 국내형 AI인 에이브릴이 병원에서 질병진단을 위해 쓰이고 있고, 벤처기업들도 AI 기반의 ‘챗봇’(채팅로봇)을 속속 내놓고 있다. <br/> <br/>지금까지 열거한 변화가 모두 1년 새에, 그것도 대부분은 올해 일어난 일이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전까지만 해도 낯설게만 느껴졌던 AI가 얼마나 인간 생활에 빨리 파고들고 있는지 보여준다. <br/> <br/>그러나 AI 돌풍에도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아직 미국과 일본에 크게 뒤떨어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I 특허는 미국의 47분의 1,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AI 기술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중국에도 밀린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특히 AI 인력난은 심각하다. 업계에서는 “사람이 필요해도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내 대학들이 하드웨어 중심의 인재를 육성한 결과다. 최근 카카오가 AI 인재 상시 모집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처장은 “<span class='quot1'>대학 때부터 AI 인재를 육성하려면 10여년이 걸린다</span>”며 “<span class='quot1'>당장은 인공지능 대학원을 만들어 석·박사를 양성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인간의 경쟁자인가 조력자인가 <br/> <br/>AI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인 대비책도 마련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일본의 미쓰비시 종합연구소는 AI 보급으로 2030년 일본에서 500만명의 고용이 새로 창출되고, 이보다 240만명이 많은 74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br/> <br/>AI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우려는 더 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4월 20∼50대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89.9%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내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라는 질문에는 76.5% 동의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1년 전 조사결과보다 24%나 증가한 수치다. <br/> <br/>전문가들은 대체로 AI가 인간 사회에 ‘득’이 될 것이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br/> <br/>이장우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AI에 대한 득실을 묻는 질문에 “<span class='quot2'>(인간이) 하기에 달려있지 않겠느냐</span>”며 “<span class='quot2'>기술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일자리 없어지는 것만 걱정해서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다</span>”고 말했다. <br/> <br/>기술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힘들지만, AI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게 될 미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 연구처장은 “<span class='quot3'>인공지능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게 제 주장</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3'>그 세금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든 인간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할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 <br/> <br/>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11.txt

제목: [월드 위크엔드] 난치병 앓는 中 부자들 너도나도 ‘해외로’  
날짜: 20170603  
기자: 이우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03173319001  
ID: 01100701.20170603173319001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위암을 앓던 64세의 부동산 사업가인 궈수스(郭舒石)씨는 두 번 수술을 받았지만 병원으로부터 ‘중국에선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결국 지난해 외국으로 가서 치료받기로 결심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 암치료 전문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그는 중국에서는 아직 치료제로 사용되지 않는 최신 면역약물 치료를 받기로 하고, 치료비용 22만달러(약 2억5000만원)를 전액 부담했다. 4개월의 치료 끝에 그의 종양은 축소됐고, 체중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br/> <br/>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還球時報)는 2일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해 암이나 난치병과 같은 중병을 앓고 있는 중국의 부자들이 해외로 가서 치료를 받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이트인 셰청(携程)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약 50만명의 중국인이 해외로 의료여행을 떠났는데, 이는 2년 전보다 5배나 증가한 수치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대부분이 성형수술과 일상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여행객들이라고는 하지만 중증환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궈씨도 중국 내 또 다른 여행사가 지난해 미국과 일본으로 보낸 1000여명의 중증환자 중 한 명이다. 이 여행사를 통해 해외 치료에 나선 중증 환자는 전년대비 두배로 증가했다. <br/> <br/> <br/> 중국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 <br/>바이두 캡처신문은 “중국이 세계 강국이 됐지만 14억 인구가 의존하는 의료시스템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다는 얘기다. 중국 공립의료원은 병상과 의사 수가 부족하다. 서방 선진국에서 당연한 치료방법 상당수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br/> <br/>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환자들이 해외치료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치료 효과와 생존율을 꼽았다. 암환자의 경우 5년내 생존율이 중국에선 30%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거의 70%에 달한다. 서비스 차이도 크다. 미국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의사와의 소통을 통해 자기 병의 원인과 치료방법을 잘 이해하게 된 것에 만족했다. 중국 의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의사 수가 부족하고 의사들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환자들을 매일매일 봐야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같은 환경과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 환자들은 더욱 많아질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br/> <br/>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12.txt

제목: 300년 전통 큰줄다리기 ‘마두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날짜: 20170602  
기자: 이보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02031136001  
ID: 01100701.20170602031136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울산 전통 줄다리기인 마두희를 재현하는 축제가 열린다. <br/> <br/>울산 중구는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울산시 중구 문화의거리와 성남동 태화강변 일원에서 ‘2017 울산마두희축제’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지난해 축제를 태풍 ‘차바’로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br/> <br/>올해 축제에서는 ‘300년 역사의 전통축제 마두희!’라는 슬로건과 ‘잇다!’라는 테마 아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인다. <br/> <br/>예년 축제와 다른 점은 단오에 열렸던 옛 전통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축제를 6월로 앞당겼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9~10월에 열렸다. 또 주민들이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시민 참여형으로 바꿨다. <br/> 2015년에 열린 마두희축제 모습. 참가자들이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어 큰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울산 중구 제공 <br/>한 달 전부터 시작된 마두희에 사용할 큰 줄 꼬기 작업부터 시민들이 참여했다.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는 6000원의 참가비를 내도록 했다. 참가자들에게는 5000원 어치의 축제 때 사용할 수 있는 화폐 ‘마두전’과 팔찌 등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사전신청을 통해 2800여 명이 참가하기로 했다. <br/> <br/>올해 처음 마련된 기원행사는 볼만하다. 마두희의 기원을 살린 내용으로 꾸며졌다. 조선 영조 때 울산읍지인 학성지에는 울산의 정기는 동대산과 무룡산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뻗어오다 방어진 앞바다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지형이라 줄을 걸어 정기를 당겨오자는 취지로 마두희가 열렸다’고 기록돼 있다. <br/> <br/>기원행사는 동대산의 산룡과 태화강의 수룡을 잇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동헌에서 산룡기원제를 지낸 뒤 지난 축제에 사용됐던 암·수줄을 잇는 비녀목을 태화강변으로 옮긴다. 비녀목을 심는 곳나무 심기 행사 후에는 수룡기원제를 지낸다.  <br/> 중구 시게탑사거리에서 열린 마두희 축제에 신랑 신부를 앞세워 큰 줄이 서로 만나고 있다.이상억기자 <br/>마두희는 축제 둘쨋날인 3일 오후 4시부터 시계탑사거리에서 열린다. 굵기 80㎝, 길이 80m의 줄을 각 진지에서 출발한 동군과 서군이 만나 함성을 지르고 북을 치며 줄다리기를 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동·서군 구분을 위해 각자 팀에 맞는 옷을 입는다. <br/> <br/>거리 곳곳에서는 흥겨운 공연이 펼쳐진다. 공중줄타기와 이크택견, 마임, 마술, 줄인형극이 진행된다. DJ난장과 인디밴드 페스티벌, 프린지공연, 한복패션쇼, 전국소리경연대회 등도 열린다. 매일 한 차례 과거 울산읍성의 도호부사 행차를 재현한 도호부사 행차 퍼레이드도 볼 만하다. 1950~60년대 약장수를 떠올리게 하는 복고풍 시민 퍼레이드도 매일 한 차례씩 진행된다. <br/> <br/>새로운 즐길거리도 추가됐다. 태화강변에서는 카누와 카약, 오리배, 용선(20인용) 등 해상 체험과 열기구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br/> <br/>박성민 중구청장은 “<span class='quot0'>320년 역사의 마두희축제를 잘 계승 발전시켜 울산은 물론, 전국에 손꼽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13.txt

제목: 일상적 위험 된 폐암, 어떻게 예방할까  
날짜: 20170601  
기자: 권구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01210038001  
ID: 01100701.20170601210038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2일 오후 9시50분 EBS1 ‘명의’(사진)는 폐암의 원인과 예방 방법을 살펴본다. <br/> <br/>공사현장의 석면, 대기오염, 중국발 미세먼지, 조리 중의 가스 흡입…. 우리의 일상은 폐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br/> <br/>특히 미세먼지는 폐암은 물론 심장병, 뇌졸중 등을 일으키며,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끊임없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살아야 하는 우리는 폐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br/> <br/>폐암은 한국인의 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이다. 비단 흡연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폐암=흡연자’라는 인식은 옛말이다. <br/> <br/>현재 폐암 환자의 30%는 비흡연자로, 3.3명 중 1명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폐암에 걸리고 있다. 이 중에서도 ‘단 한 번도 담배를 태운 적 없다’는 사람들의 폐암 발병률도 급증하는 추세다. <br/> <br/>권구성 기자 ks@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14.txt

제목: 보험가입 15일 이내 철회하면 불이익 없어  
날짜: 20170601  
기자: 류순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601205114001  
ID: 01100701.20170601205114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전업주부 A씨는 대학 동창 모임에 갔다가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의 권유로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에 가입했다. 다음날 A씨는 아들을 위해 작년에 가입한 보험에서도 암 보장이 된다는 점을 알고 암보험에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A씨는 동일한 암 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꼬박꼬박 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하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권리’다. 보험사는 철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3일이 넘어가면 이자까지 줘야 한다. <br/> <br/>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꿀팁’의 하나로 청약철회권리 등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를 소개했다. <br/> <br/>‘청약철회후 보장받을 권리’도 있다. 청약을 철회했어도 그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보험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보험계약자(A씨)와 피보험자(A씨 아들)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장치다. <br/> <br/>또 보험설계사나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권리’다. <br/> <br/>보험설계사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로 가입했다면 기존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신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br/> <br/>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15.txt

제목: 바이러스도 관찰 초고해상 광학현미경 개발  
날짜: 20170531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31031115003  
ID: 01100701.20170531031115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포스텍(포항공대)·성균관대 공동연구팀이 바이러스도 볼 수 있는 광학현미경을 개발했다. <br/> <br/>30일 포스텍에 따르면 포스텍 김철홍 교수·성균관대 김윤석 교수 공동연구팀이 원자간력 현미경(AFM)에 레이저 시스템을 결합, 8나노미터(㎚)의 해상도로 시료의 고유 빛 흡수 특성을 관찰할 수 있는 초고해상도 가시영역 광활성 원자간력 현미경(pAFM)을 개발했다. <br/> <br/> 김철홍 교수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하는 소재분야나 암을 이겨낼 신약분야에는 머리카락 10만분의 1에 불과한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광학현미경은 회절한계 때문에 활용되지 못했다. 바이러스의 존재를 밝혀낸 것도 광학현미경이 아닌 전자현미경이다. 수 나노미터의 해상도를 가진 전자현미경은 진공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료의 특수처리도 번거롭고 비용이 비싸 실험에 활용하기 쉽지 않다. 초고해상도 형광현미경도 해상도를 수십 나노미터까지 끌어올렸지만 특정한 형광물질에 국한되거나 생체시료에 적절치 않은 형광 조영제를 사용해야 했다. <br/> <br/> 김윤석 교수연구팀은 기존 현미경들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물질의 표면 높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원자간력 현미경에 레이저시스템을 결합, 빛의 특성을 이용해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미 상용화한 원자간력 현미경을 그대로 활용해 비용은 저렴하면서도 시스템을 설계하기 간단한 데다 특수처리나 조영제가 따로 필요치 않다. 이 연구성과는 광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빛:과학과 응용’을 통해 발표됐다. <br/> <br/>김철홍 교수는 “<span class='quot0'>이 현미경을 이용하면 금 나노 입자와 나노선, 흑색종 세포, 애기장대 세포 등의 이미지를 나노미터 크기의 해상도로 얻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향후 소형 반도체, 신약 개발 등 신소재, 생물학, 화학 분야 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16.txt

제목: 보험금 타내려 허위 장기 입원…알고도 눈감은 병원장  
날짜: 20170530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30113948001  
ID: 01100701.20170530113948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대구 서부경찰서는 30일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씨(56)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r/> <br/>또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혐의(사기방조 등)로 병원장 B씨(50)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r/> <br/>A씨 등 8명은 2014년 4월∼2015년 7월 암 치료 등을 위해 대구 시내 한 병원에 장기 입원해 보험금 1억4350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짧게는 10여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씩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병원장 B씨 등은 입원한 A씨 등 8명 외출·외박이 잦은 사실을 알고도 강제퇴원 등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br/> <br/>또 환자들을 상대로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2600만원 어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br/> <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A씨 등이 불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피해 보험사에 알렸다</span>”고 밝혔다. <br/> <br/>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17.txt

제목: 일본 15~39세 사망원인 1위는 '자살'  
날짜: 20170530  
기자: 우상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30110005001  
ID: 01100701.20170530110005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일본 사회를 이끌어 가는 15∼39세 젊은 세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30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2017년판 ‘자살대책백서’를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결정해 공표했다. <br/> <br/>일본의 연간 자살자 수는 2003년 3만442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다. 2015년에는 2만4025명이었고, 지난해에는 2만1897명으로 22년 만에 2만2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br/> <br/>이처럼 자살자 수는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젊은 층의 자살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2015년 기준 사망원인 순위를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초반(10∼14세)은 암이 가장 많고 자살과 사고가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15∼19세와 20∼24세는 똑같이 자살, 사고, 암 순이었다. 또 25∼29세와 30∼34세는 나란히 자살, 암, 사고 순서였다.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모두 자살이다. 이에 비해 40대에서 60대 초반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다. <br/> <br/>일본 정부는 백서를 통해 “<span class='quot0'>사회를 견인해야 할 젊은 세대의 자살은 심각한 상황</span>”이라고 지적했다. <br/> <br/>일본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18.5명으로 G7(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전문가검토회의는 국가의 자살종합대책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안에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를 13.0명으로 끌어내린다는 수치를 목표로 정할 방침이라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br/> <br/>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18.txt

제목: [WT논평] To address the beliefs that inspire extremism  
날짜: 20170529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29212621001  
ID: 01100701.20170529212621001  
카테고리: 국제>중동\_아프리카  
본문: Middle Eastern governments have known for years that their populations are being radicalized. These governments have tried to monitor mosques, control sermons, and restrict speech ? all in the hope that they could deter young people from joining terrorist organizations. <br/> <br/>Instead of protecting their countries from terrorism and the chaos that it brings, they have exacerbated the problem because they have not changed the way people think about others. <br/> <br/>Less freedom isn’t the solution to oppression; only broader individual human rights and religious freedom will cure the cancer of terrorism in the name of religion. <br/> <br/>We must help governments in the Middle East address the beliefs that inspire extremism and other endemic problems that contribute to the ongoing radicalization of their populations. <br/> <br/>We must convince leaders in the region to change the lens in which they view the world, through education and policies that defend the equal rights of people of all faiths in order to create communities that are resilient to extremism and violence. To this end, laws and policies that discriminate and marginalize demand amending. Education must support critical thinking and eliminate intolerant views that promote violence against minority communities and dissenters. <br/> <br/>Today’s Iraq is a case in point. If America had prioritized these solutions in Iraq under the past two administrations, the situation there today would look very different. <br/> <br/>Instead, the U.S. government spent trillions propping up a regime that foments intolerance and sectarian divisions. By ignoring religious freedom, Iraq will continue to perpetuate the same intolerance ISIS stands for and descend into further chaos, with or without ISIS. <br/> <br/> 중동 테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br/> <br/>티나 라미레즈(하드와이어드 글로벌 총재) <br/> <br/>중동의 여러 나라 정부는 자국 국민들이 과격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해 전부터 알고 있다. 이런 정부들은 이슬람사원을 감시하고 설교를 통제하며 발언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정부가 청년들의 테러단체 가입을 저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모든 조치를 취했다. <br/> <br/>그것이 초래하는 테러와 혼란으로부터 그들의 나라를 보호하는 대신에, 타인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정부가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악화시켰다. <br/> <br/>자유의 축소는 압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오직 개인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 확대만이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테러란 암을 치유할 것이다. <br/> <br/>중동 사람들의 계속되는 과격화에 기여하는, 과격사상 및 여타 전염성 문제들을 고취하는 신념에 대처하도록 우리는 중동의 여러 정부를 도와야 한다. <br/> <br/>과격사상 및 폭력에 탄력적인 사회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신앙인들의 동등한 권리를 옹호하는 교육과 정책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렌즈를 변화시키도록 지역 지도자들을 우리는 설득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차별과 소외를 조장하는 법률과 정책의 수정이 요구된다. 교육은 비판적인 사고를 돕고 소수파 사회 및 반대자들에 대한 폭력을 고취하는 너그럽지 못한 견해를 제거해야 한다. <br/> <br/>오늘의 이라크가 좋은 사례다. 만약 미국이 지난 두 행정부 재임기간 동안 이라크에서 이런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면 그곳의 지금 상황은 매우 달라 보일 것이다. <br/> <br/>대신 미국 정부는 불관용과 분파적 분열을 조장하는 정권을 받쳐 주기 위해 수조 달러를 지출했다. 이라크는 종교의 자유를 무시함으로써 이슬람국가가 옹호하는 것과 동일한 불관용을 계속 영속시키고 이슬람 국가가 있든 없든 더욱 깊은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br/> <br/>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br/> <br/>△in the hope that:희망을 가지고 △resilient:탄력 있는 △marginalize:하찮은 존재로 만들다 <br/> <br/>△demand:요구되다 △promote:촉진하다, 고취하다 △case in point:좋은 예

언론사: 세계일보-2-319.txt

제목: [열린마당] 희귀암 ‘연조직육종’ 40년 만에 신약… 보험급여 적용을  
날짜: 20170528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28221222002  
ID: 01100701.20170528221222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 23일은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었다. 정부가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자 제정했다고 한다. 필자도 진료실에서 종종 희귀암 환자들을 만난다. 보통 암은 다양한 치료법과 신약이 개발되면서 점점 완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암 환자 중에서도 치료 대안이 없어 소외된 희귀암 환자들이 여전히 많다. <br/> <br/>희귀암 중 대표적으로 국내 전체 암 발생의 0.4%에 불과한 ‘연조직육종’이 있다. 이름도 생소한 이 질환은 우리나라에 2014년 신규로 발생한 환자가 1043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연조직육종은 우리 몸에서 장기를 연결하는 기관 중 뼈와 피부를 제외한 근육, 인대, 지방 등 기관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몸이 이상한 모습으로 붓고 극심한 통증을 체감할 때까지, 즉 육종이 한참 진행된 이후에서야 병원을 찾다 보니 치료가 더욱 쉽지 않다. 결국 타 장기까지 암이 퍼진 진행성 연조직육종 4기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10%대에 머물러 왔다. <br/> <br/>다행히 연조직육종 환자들에게 40년 만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최근 진행성 연조직육종에서 기존 치료와 비교할 때 1년에 가까운 생존기간 연장을 보인 신약이 등장한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약제들을 사용해도 전체 생존기간이 1년 내외였던 것을 감안할 때 전체 생존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한 치료제는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대안이다. <br/> <br/>이 신약이 얼마 전 국내에도 허가를 받아 진행성 연조직육종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물꼬를 텄으니,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치료대안을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빠르게 쓸 수 있도록 보험급여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나 정책, 치료제 연구개발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희귀암 환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br/> <br/>윤탁·국립암센터 희귀암클리닉 교수

언론사: 세계일보-2-320.txt

제목: [건강] 담배 줄여 나가는 것보다 단박에 끊어라  
날짜: 20170528  
기자: 정진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28212640001  
ID: 01100701.2017052821264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건강관리를 위한 제 1원칙은 ‘몸에 좋은 것을 챙겨라’가 아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을 피해라’다. 대표적인 것이 담배다. 커피, 와인처럼 건강과 관련한 긍정적인 연구와 부정적인 연구가 번갈아 나오는 음식과 달리 담배는 부정적인 결과로 일관한다. 흡연 남성이 암으로 사망할 위험은 비흡연 남성에 비해 폐암 4.6배, 후두암 6.5배, 식도암 3.6배로 높다. 30년 이상 흡연한 중년 남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골밀도가 감소할 위험이 1.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담배의 유해성은 익히 알려졌지만 흡연자들에게 ‘금연’은 말처럼 쉽지 않다. 오랜 기간 담배를 피워온 흡연자 중 금연에 실패하고 감연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감연은 유해성분 흡수와 중독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흡연과 차이가 없다. 의지만으로 금연이 안 된다면 전문 상담을 통해 약물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br/>세계일보 자료사진 <br/>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2015년)에 따르면 국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9.3%.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이지만 선진국의 흡연율이 2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2배 수준이다. <br/> <br/>매년 1월 1일마다 금연 결심과 실패를 반복하며 ‘요요현상’에 시달리는 흡연자라면 오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무너진 결심을 다시 세워보자. <br/> <br/>◆담배 줄이면 괜찮겠지?… NO <br/> <br/>담배를 끊는 방법에는 서서히 담배를 줄이다가 끊는 감연법과 시기를 정해 한 번에 끊는 단연법이 있다. 통계적으로 단연법의 성공률이 높다.  <br/>  <br/>서서히 줄이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루 흡연량을 줄이거나 저(低)타르, 저니코틴 제품, 몸에 좋다는 허브가 포함된 제품, 전자담배 등으로 바꾸며 시작한다. 유해성분의 체내 축적 총량이 적어 ‘덜’ 나쁠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된 것이다. <br/> <br/>그러나 순한 담배를 피운다며 자기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 니코틴에서 해방되기는 더 어려워진다. 오히려 순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니코틴 보충을 위해 더 깊이, 더 많이 담배 연기를 빨아들이는 만큼 ‘감연 효과’는 거의 없다. 감연은 금연날짜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끊기 위한 과정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br/> <br/>유해성분이 적다고 알려진 전자담배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전자담배 기화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주요 유해성분의 함량이 각각 19배, 11배나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br/> <br/>그렇다면 담배를 끊었다면서 술자리에서 가끔만 피는 ‘간헐적 흡연자’는 어떨까. 지난 1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연구 결과 절대적 흡연량이 많지 않은 이런 간헐적 흡연자들의 고혈압 발병 위험,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위험 등이 일반 흡연자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는 “<span class='quot0'>장기적인 금연계획을 위해서는 흡연량을 서서히 줄이기보다는 한번에 끊고 껌이나 은단 복용, 산책 등 흡연을 대체할 만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의지만으로 금연을 하기 어렵다면 보건소, 병원 등에서 금연 전문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약물치료 등을 병행해야 한다</span>”고 권했다. <br/> <br/>◆스트레스 풀기 위한 담배는 그만 <br/> <br/>흡연자들은 ‘담배가 간절하게 생각나는 순간’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를 꼽는다. 빡빡한 일과와 상사의 잔소리에 지쳤을 때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배의 스트레스 해소 효과는 허상이다. <br/> <br/>니코틴은 흡연 시 7초 이내에 뇌에 도달해 쾌감이 드는 도파민 분비를 활성화시켜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느낌을 들게 한다. 문제는 이러한 효과는 20~40분 후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후에는 니코틴 중단 시 금단 증상과 함께 흡연 충동이 동시에 오면서 금단증상으로 불안과 스트레스가 오히려 높아진다. <br/> <br/>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하는 국내 성인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비교 연구한 결과, 흡연자들은 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1.9배 이상 높고, 2주 이상의 지속된 우울 상태와 자살 생각도 각각 1.7배, 2.0배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흡연자들은 금연의 금단 증상으로 예민함, 짜증, 불안, 두통, 집중력 장애 외에 불면, 소화장애, 졸림, 어지러움 등을 호소한다. 이때 담배 대신 이를 완화해 줄 대체재가 없으면 흡연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br/> <br/>10년간 국립암센터에서 금연 상담을 한 윤이화 암예방사업과장은 “<span class='quot1'>장기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도 대부분 3∼5회씩의 금연 실패 사례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대부분 스트레스 등으로 흡연 욕구가 생길 때 3∼5분을 참지 못해서 ‘한대만’이라고 생각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span>”고 지적했다. <br/> <br/>윤 과장은 “<span class='quot2'>흡연 욕구가 생길 때면 음료·간식을 섭취하거나 양치질을 하면서 해소할 수도 있고, 운동이나 여행 등으로 바쁘게 움직이며 욕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이전의 금연 실패 경험을 되짚어 본인에게 담배 통제가 잘될 때와 잘되지 않은 때를 구분해 ‘나만의 금연방법’을 찾아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br/> <br/>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21.txt

제목: [배연국칼럼] 누가 한국병을 치유할 것인가  
날짜: 20170525  
기자: 배연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25215328001  
ID: 01100701.20170525215328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국가도 병에 걸린다. 미리 손을 써서 예방하기도 하고, 말기 암 환자처럼 회복 불능에 빠지기도 한다. 가장 무서운 국가 질환은 포퓰리즘이란 병증이다. 한번 입맛을 들이면 담배처럼 좀처럼 끊기 어려운 까닭이다. <br/> <br/>새 정부가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일은 정부가 대중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혜의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취임 후 인천공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선언했다. 국가지도자가 경제적 약자인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은 선한 행동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선한 생각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br/> <br/> <br/> 배연국 논설실장국가는 신이 아니다. 당연히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자면 누군가는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돈을 내는 일반적 경제원칙과 똑같다. 비정규직 폐지라는 착한 목적의 경우에도 누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br/> <br/>길은 세 갈래로 요약된다. 기존 정규직이 부담하느냐, 공공기관이 부담하느냐, 양쪽이 공평하게 부담을 나눠 갖느냐. 그러나 정규직 기득권층은 비정규직에게 자신의 몫을 조금도 떼어줄 생각이 없다. 공공기관이 모두 부담하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선 형편이 여의치 않다. 공공기관 셋 중 둘은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만성 적자로 단단히 골병이 든 상태다. <br/> <br/>비용 부담의 문제는 비정규직 사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노인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상향,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착한 공약’들을 쏟아냈다. 누군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정책들이다. 당장은 정부와 기업이 부담하겠지만 청구서의 최종 수령자는 결국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br/> <br/>삼척동자도 다 아는 빤한 이치인데도 국민 대다수가 이 사실을 외면한다.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자는 자신의 인기관리를 위해 청구서 발급을 재임 이후로 계속 미룰 것이다. 국민은 눈앞의 ‘공짜 복지’에 정신이 팔려 환호성을 지른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속담 그대로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재정이 파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순이다. 그런 병증이 바로 영국 병이고, 그리스 병이고, 남미 병이다. 영국은 마거릿 대처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만나 조기에 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 그렇지 못한 그리스와 남미 국가들은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장기입원 중이다. <br/> <br/>다행히 대한민국의 포퓰리즘 병증은 아직 초기단계다. 그렇다고 안심할 계제는 못 된다. 자신은 돈을 낼 생각이 없으면서 ‘달콤한 곶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한 후보는 동문회의 장학금 기부 요청을 매정하게 뿌리쳤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복지공약에 수십조원의 나랏돈을 투입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자기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위인이 엄청난 국가 재원을 선심 쓰듯 뿌리겠다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국민과 정치지도자가 다를 것이 없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이런 악성바이러스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br/> <br/>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오랫동안 누리는 것은 국민의 정신이 바로 선 덕분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한때 포퓰리즘에 솔깃한 적이 있다. 그런 국민을 향해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span class='quot0'>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생각해 달라</span>”고 외쳤다. 국민은 대통령의 용기 있는 연설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망국적 포퓰리즘을 차단하는 미국식 면역체계가 작동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br/> <br/>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미국 정신이다. 국민이 박수를 칠 곳은 ‘국가가 해주는 무엇’이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하는 무엇’이라야 한다.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포퓰리즘 바이러스에 모두가 결연히 맞서야 한다. 구국의 심정으로 나서는 지도자와 그런 일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의 자세가 절박한 시점이다. <br/> <br/>배연국 논설실장

언론사: 세계일보-2-322.txt

제목: 신민아 측 "'암 진단' 김우빈 치료 돕고 있다"  
날짜: 20170525  
기자: 정은나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25134041001  
ID: 01100701.20170525134041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배우 신민아가 연인 김우빈의 치료를 돕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br/> <br/>24일 신민아 소속사 측은 "김우빈이 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변함없는 애정을 전했다.  <br/> <br/>앞서 이날 김우빈이 비인두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우빈 소속사 싸이더스HQ 측은 "김우빈이 최근 여러 스케줄을 소화하던 중 얼마 전 몸에 이상 증후를 느껴 병원에 방문했고, 비인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다행히 치료가 늦지 않은 상태로, 현재 약물치료와 방사선치료를 시작했다. 치료에 전념해 다시 건강해진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br/>  <br/>김우빈과 신민아는 지난 2015년 한 패션 브랜드 모델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신민아는 김우빈의 암 진단 소식에 충격을 받았을 법하지만, 조용히 연인의 쾌유를 빌며 치료를 돕고 있다는 전언이다. <br/> <br/>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23.txt

제목: [사이언스프리즘] 새롭게 주목받는 탯줄혈액  
날짜: 20170525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25001731001  
ID: 01100701.20170525001731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인간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의 발전 덕택에 수명이 길어졌어도 100세까지 산다면 장수에 속한다. 수명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역시 걱정은 삶의 질이다. 특히 심각한 질병을 겪지 않고 주어진 수명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모든 이들의 공통된 바람이다. 노년에 겪을 수많은 질병이 걱정스럽지만, 그중에서도 치매와 암은 가장 두려운 대상이다. <br/> <br/>최근 이런 걱정을 덜어 줄 획기적인 연구 성과들이 보고되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탯줄혈액(제대혈)에 뇌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이미 노화가 진행된 뇌의 기능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성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탯줄혈액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기능도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암치료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br/> <br/> 설대우 중앙대 교수·분자세포병리학탯줄(제대)은 신생아와 엄마를 연결하는 생명선이다. 탯줄은 생물학적으로 엄마 것이 아니라 신생아가 탄생하면서 생긴 아이의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조직이다. 즉 어른 세포가 아닌 새 생명의 세포라고 할 수 있다. 탯줄혈액은 바로 이 탯줄 안에 있는 혈액을 말한다. 이 탯줄혈액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와 단백질이 존재한다. 백혈병 등의 세포이식에 폭넓게 사용되는 조혈모세포, 또 성체줄기세포의 한 종류로서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고 있는 중간엽줄기세포도 풍부하다. 면역세포도 많이 존재하고, 혈장(혈액에서 혈구를 제외한 액체 성분)에는 뇌의 기능마저 젊게 되돌릴 수 있는 성분이 있다니 그야말로 현대판 불로초라 할 것이다. <br/> <br/>오래전 어린 생쥐와 늙은 쥐의 혈관을 교차로 연결한 연구에서 어린 생쥐의 혈액이 늙은 쥐의 노화를 억제하고 젊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비슷한 실험을 통해 늙은 쥐의 혈액은 어린 생쥐의 노화를 촉진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어린 생쥐의 혈액이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기전은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실험적인 문제점까지 거론되면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올 4월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사람 신생아의 탯줄혈액에서 분리한 혈장을 늙은 쥐에 투여할 경우, 뇌기능이 젊은 쥐처럼 변한다는 것과, 특히 혈장에 존재하는 단백분해효소저해제(TIMP2) 물질이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장 탯줄혈액을 사용하는 대신 오직 TIMP2 성분만으로도 사람에게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만일 생쥐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도 TIMP2만으로 뇌의 기능을 젊은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면 난치병 치매에 일대 전환을 가져올 만한 획기적인 발견이 될 것이다. <br/> <br/>작년 암을 가진 생쥐에게 사람 탯줄혈액에서 분리한 면역세포와 늙은 쥐로부터 추출한 면역세포를 투여해 비교한 연구에서는, 탯줄혈액의 면역세포(어린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찾아내고 죽이는 기능이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밝혀내 파란이 일었다. 어린 면역세포는 늙은 면역세포에 비해 암세포를 찾아 결집하는 기능도 더 뛰어났다. 훨씬 많은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결집하다 보니 당연히 암치료 효과도 더 좋았던 것이다. <br/> <br/>탯줄혈액에만 이런 특징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로부터 유래하든 소위 ‘젊은 혈액’이면 이런 기능이 존재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탯줄혈액에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사실이다. <br/> <br/>지난 10여년 동안 탯줄혈액을 이용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활발했다. 특히 탯줄혈액에 존재하는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선두권이다. 이런 상황에 더해, 새로운 연구 결과는 탯줄혈액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당연히 새 연구 방향에서도 우리나라의 분발이 요구된다. 과학이 세상을 바꾼다. 탯줄혈액이 질병 없는 건강한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출 것인가. 10년, 20년 후의 세상이 궁금해진다. <br/> <br/>설대우 중앙대 교수·분자세포병리학

언론사: 세계일보-2-324.txt

제목: 英 스파이 '007' 제임스 본드, 스위스서 영원히 잠들다  
날짜: 20170524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24102541002  
ID: 01100701.20170524102541002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1970∼90년대 최고 인기 절정을 누린 외국영화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 역으로 유명한 영국 배우 로저 무어(사진)가 23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br/> <br/>무어의 가족은 그가 짧은 암 투병 끝에 스위스에서 숨졌다고 타개 소식을 전했다.  <br/> <br/>런던 외곽에서 경찰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50년대 왕립드라마아카데미에서 수학한 뒤 1960년대 TV 드라마 시리즈를 통해 연기를 시작했다. . <br/> <br/>그는 1973년 상영된 영화 ‘007 시리즈’의 ’죽느냐 사느냐’ 주인공을 맡은 후 1985년 ‘뷰 투 어 킬’까지 7편의 본드 시리즈에 출연하면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다.      <br/> <br/>숀 코네리, 조지 라젠비의 뒤를 이어 45세의 나이에 3대 제임스 본드가 된 그는 57세까지 12년에 걸쳐 본드 역할을 소화하며 역대 최다 제임스 본드로 이름을 올렸다. <br/> <br/>그는 생전 “내 연기의 범주는 왼쪽 눈썹을 치켜올리는 것과 오른쪽 눈썹을 치켜올리는 것, 양쪽 눈썹을 움직이지 않는 것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 것에서 드러나듯 눈썹을 치켜올리는 특유의 표정을 전매 특허 삼아 바람둥이 스파이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며 인기를 누렸다. <br/> <br/>그는 2007년에는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가입할 때 “슬프게도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 은퇴할 수밖에 없었다”며 “본드 걸들은 계속 어려졌고 나는 너무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007 시리즈’에 더 많이 출연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br/> <br/>그는 1999년에는 영국 여왕으로부터 대영제국 커맨더 훈장(CBE)을 받았고 1991년부터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기금 모금 활동을 한 것을 인정받아 기사 작위를 받았다.  <br/> <br/>그는 말년에는 거위 간의 식용에 반대하는 등 동물 보호에도 앞장섰다. 평생 4차례 결혼한 그는 3번째 부인인 이탈리아 배우 루이사 마티올리 사이에  아들 둘, 딸 하나 등 3자녀를 뒀다. <br/> <br/>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25.txt

제목: 역대 최다 '제임스 본드' 로저 무어 별세  
날짜: 20170524  
기자: 나기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24102537002  
ID: 01100701.20170524102537002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영화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 역으로 활약했던 영국의 유명 배우 로저 무어가 23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그는 짧은 암 투병 끝에 스위스에서 영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런던 외곽에서 경찰관의 아들로 태어난 로저 무어는 1950년대 왕립드라마아카데미에서 수학한 뒤 1960년대 TV 드라마 시리즈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br/> <br/>이후 그는 1973년 '007 시리즈'의 '죽느냐 사느냐(Live And Let Die)'의 주인공을 맡은 후 1985년 '뷰 투 어 킬(A View to a kill)까지 7편의 본드 시리즈에 출연했다. <br/> <br/>45세의 나이에 3대 제임스 본드가 된 그는 57세까지 12년에 걸쳐 본드 역할을 맡으며 역대 최다 제임스 본드로 기록됐다. <br/> <br/>로저 무어는 1999년에는 영국 여왕으로부터 대영제국 커맨더 훈장(CBE)을 받았고, 1991년부터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친선대사로 활동했다. 이 때 기금 모금 활동을 한 것을 인정받아 영국 왕실에서 기사 작위도 받았다. <br/> <br/>나기천 기자 na@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26.txt

제목: 유방암 수술 의료기관의 77% '1등급'  
날짜: 20170523  
기자: 이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23102530002  
ID: 01100701.20170523102530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1년에 유방암 수술을 10건 이상 진행하고 당국에서 권고하는 보조요법을 시행한 의료기관 5곳 중 4곳이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병원은 전국에 고루 분포했으나 병·의원 중에는 최고 등급을 받은 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유방암 수술을 한 109개 의료기관에 대한 4차 적정성 평가를 한 결과 84개 기관(77.1%)이 1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기관의 평균 종합점수는 97.02점이었다. <br/> <br/>1등급 의료기관은 서울 26곳, 경기 22곳, 경상 18곳, 충청 7곳, 전라 5곳, 강원 4곳, 제주 2곳이다. 2등급은 12곳(11%)이고 3등급 8곳(7.3%), 4등급 3곳(2.8%), 5등급 2곳(1.8%)이다. 심평원은 유방암 진료 관련 20개 지표를 평가한 뒤 종합점수를 산출해 95점 이상에 1등급을 부여한다. 2등급은 90∼95점으로 5점 단위로 등급이 내려간다. <br/> <br/> <br/>유방암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 2013년 이후 대부분 지표의 평균 점수가 올랐다. 기준에 맞게 항암제를 투여했는지를 평가하는 ‘권고된 항암화학요법 시행률’은 평가 첫해 91.5%에서 2015년 99.0%로 개선됐다. <br/> <br/>암 종양 직경이 5㎝를 초과하는 환자에게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유방 전 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은 같은 기간 84.5%에서 94.4%로 올랐다. 다만 ‘전문인력 구성 여부’는 72.0%에서 68.3%로 떨어졌다. <br/> <br/>심평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기준에 따르거나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노력만 하면 가능하지만 인력 구성은 비용이 드는 부분이라 개선이 쉽지 않다</span>”고 설명했다. 유방암은 갑상선에 이어 여성 암 발생률 2위로 중년 여성의 발병 비율이 높다. 여성 유방암 환자는 2010년 인구 10만명당 58.6명에서 2014년 72.1명으로 늘었다. <br/> <br/>연령대별로는 40대가 34.2%, 50대 31.1%로 5명 중 3명이 중년층이었고 60대(16.4%), 30대(8.3%), 70대(7.9%), 80세 이상(1.5%), 30대 미만(0.6%) 순이었다.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1기(45.2%) 발견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2기(40.3%)와 종양 크기가 5㎝ 이상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4개 이상인 3기(14.5%)도 상당했다. <br/> <br/>심평원은 “<span class='quot1'>유방암은 투병 생활의 고통에 이어 유방 상실 및 모양 변형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는 병</span>”이라며 “<span class='quot1'>40대 이상의 여성은 주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27.txt

제목: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 암투병 끝에 지난달 사망  
날짜: 20170519  
기자: 남정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19194102001  
ID: 01100701.20170519194102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1980∼90년대 '슬롯머신 업계 대부'로 불렸던 정덕진(76·사진)씨가 지난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br/> <br/>경찰 관계자는 19일 "<span class='quot0'>정씨가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지난달 사망해 같은 달 22일 발인한 것으로 안다</span>"고 전했다. 정씨는 사망 전까지 암으로 투병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고아 출신인 정씨는 1970년대 초 서울 청량리에서 전자오락실을 운영하며 재산을 모으기 시작해 이후 정·관계는 물론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2013년 사망) 등 조직폭력배 세력까지 등에 업고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80∼90년대 슬롯머신 업소 9곳을 운영하며 업계 대부로 군림했다. 1993년 슬롯머신 사건 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정·관·법조계에 금품을 뿌린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6공 황태자'로 군림한 박철언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엄삼탁 병무청장, 천기호 치안감 등이 정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됐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당시 정씨 사건 수사검사였다. <br/> <br/>정씨는 이후에도 원정도박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와도 우연히 얽혔다. 박 특검은 정씨가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정씨를 변호했는데, 해당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자 고소인 이모(65)씨가 앙심을 품고 박 특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씨는 항소심까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작년에도 부동산 매매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람들을 공기총으로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br/> <br/>남정훈 기자 ch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28.txt

제목: [미즈리포트] 아이 운동습관 들여 ‘세 살 버릇 여든까지’  
날짜: 20170518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18204953001  
ID: 01100701.20170518204953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병은 암(癌)이다. 암을 1위로,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가 그 뒤를 이어 사망원인 순위를 달린다. 전문가들이 이런 질환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말하는 걸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당뇨, 비만, 고혈압 등과 같은 병으로 고생하시는 80세 된 어르신의 생활습관을 바꾸기는 냉장고에 코끼리 넣기보다 어려울 것 같다. 흔히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을 제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0년 전에 비해 고영양과 고칼로리의 음식을 쉽게 섭취하고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각자 이유로 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밸런스가 깨지고 몸은 비만해진다. 그럼 과식하지 않고 운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운동을 하지 않는 첫 번째 원인이 ‘시간이 없어서’였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30대인 우리도 몇십 년간 해온 식습관이나 생활패턴을 바꾸기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다르다. 엄마가 되면 ‘반의사’가 되어야 한다고들 말한다. 건강하게 아이가 자라는 게 모든 부모의 첫 번째 소망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대게 엄마들은 좋은 것을 먹이고 나쁜 습관을 수정해주는 데 그친다. 그 정도면 아이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아이는 하루에 10분 이상 뛰어 놀고 있나요? 일주일에 얼마나 신체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나요? 세 살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데 신체활동을 위해 아이와 밖에 나가거나 공놀이를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식습관과 함께 신체활동의 중요성도 잘 알려줘야 한다. 그때 부모는 음식으로부터 온 에너지도 소모시켜 줘야 한다. 뛰어노는 아이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처럼 우리 몸도 필요에 맞게 발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몸은 전기콘센트에 꽂아 에너지를 충전할 수 없는 아날로그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가정교육에 ‘신체활동’이란 요소가 각 가정에 뿌리내리기를 소망한다. <br/> <br/>김은서 리포터 yoyiiii@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29.txt

제목: [양향자의 더 건강한 음식] 물오른 영양에 '취'해볼까  
날짜: 20170517  
기자: 송은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17211358001  
ID: 01100701.20170517211358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산나물의 채취는 4~6월이 적기다. 전국 농촌에서 재배농가가 늘면서 이젠 여름에도 구할 수 있는 산나물의 종류가 늘었다. 취나물은 ‘산나물의 왕’이라 칭송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향소’라고 불릴 만큼 미각을 돋우는 뛰어난 쌉쌀한 맛과 약간 아릿한 향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A, 베타카로틴, 아미노산 함량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다. <br/> <br/>산나물은 발암물질에 대한 억제력이 탁월하고 이미 발생한 암의 증식을 막는 기능도 있다. 산야초가 뛰어난 약성을 가지게 된 것은 거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편에서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각종 곤충 및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항균·항암·항염·면역·노화방지 효과를 내는 생화학물질을 만들도록 진화했다는 것이다. <br/> <br/>취나물의 종류는 다양하다. 개미취, 각시취, 수리취, 미역취처럼 취나물에 수식어처럼 재미있는 단어들이 붙는다. 대부분 국화과에 속하는 취나물은 100여종이나 되며, 우리나라 자생종은 60여종에 식용이 가능한 것만 24종이 이른다. 그중에서 참취가 가장 향기가 독특하고 수확량이 많아 농가에서 널리 재배하고 있다.  <br/>특히 수리취는 떡을 해먹을 수 있어 지방에 따라 ‘떡취’로 불리기도 한다. 수리취는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있는 취나물이다. 곰취는 봄에는 나물로 먹고 약용으로 뿌리를 많이 쓴다. 가을에 뿌리줄기를 캐서 말린 것을 호로칠이라 하여 해수, 백일해, 천식, 요통, 관절통, 타박상 등에 처방한다. 곰취도 최근에 항암작용이 있음이 밝혀졌다. 줄기가 가늘고 자줏빛을 띠는 미역취는 봄에 새싹을 뜯어 삶아서 바로 무쳐 먹는데, 약용으로는 이뇨·해열·감기·두통·황달 등에 쓰인다. <br/> <br/>묵나물은 시래기, 박나물, 버섯처럼 말려두었다가 이듬해 두고두고 먹는 나물을 말한다. 취나물 또한 봄에 많이 채취해서 나물로 먹고, 남으면 말려 두었다가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묵나물이다. 나물은 삶으면 비타민 등이 손실되기도 하지만 섬유소가 연해지고 전분이 호화되어 소화율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다. <br/> <br/>취나물은 독특한 독한 맛이 있어서 좀 먹기가 힘든데, 이 맛을 없애려면 소금물에 삭히거나 쌀뜨물에 데쳐 아린맛과 떫은맛을 없애고 부드럽게 한 후 조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쓴맛을 우려낼 때 취나물을 너무 오랜 시간 물에 담가두면 영양소의 손실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취나물은 물에 데친 다음 기름에 볶다가 양념장을 넣고 소금 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조리법이다. <br/>취나물은 시들기 전에 데쳐야만 향과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데친 취나물은 된장에 무치거나 된장찌개를 끓이면 짙은 향과 특유의 쌉쌀한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다. 마늘을 넣고 들기름에 볶으면 향은 죽지만, 구수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칠맛이 또 다르게 입맛을 돋워준다. <br/> <br/>취나물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두부와 참깨는 술안주로 그만이다. 취나물의 비타민 C와 두부의 콜린, 참깨의 메티오닌(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작용해서 간의 알코올 분해 작용을 도와주므로 취나물을 고추장에 무쳐 두부에 깨를 솔솔 뿌려 술안주로 먹으면 최고의 음식이라 할 수 있다. <br/> <br/>취나물은 쓴맛이 강해서 물에 데쳐 쓴맛을 우려 조리하는데, 물에 데치면 비타민C가 많이 파괴되므로 쪄서 익히는 것이 더 좋다. 또 생으로 조리할 때는 쌀뜨물에 담가 쓴맛을 우려내면 비타민의 파괴가 적어 훨씬 효과적이다. 취나물로 맛을 내려면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빨리 데친다. 영양소 파괴도 줄고 빛깔도 고와진다. 또 미리 무치면 수분이 나와 싱겁고 볼품 없어지므로 먹기 직전에 무친다. <br/> <br/>(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언론사: 세계일보-2-330.txt

제목: [밀착취재] 원전과 맞닿은 감포 바다에…점점 잦아드는 해녀 숨비소리  
날짜: 20170517  
기자: 하상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17191904001  
ID: 01100701.20170517191904001  
카테고리: 지역>경북  
본문: 경주 대종천은 토함산에서 발원해 감은사지를 지나 감포 바다에 스민다. <br/>하천이 끝나는 지점에 신라 문무왕의 수중릉이 나타난다. <br/>왼쪽으로 오래된 해녀마을인 대본리가, 오른쪽으로는 월성원자력발전소가 닿아 있다. <br/>감포 바다는 7세기 신라왕의 능이자 해녀 어장이며 원전 온배수처리장이다. <br/>“호이 호이” 해녀 숨비소리(숨을 내뱉는 소리)가 갈바람에 실리는 4월, 돌미역 채취가 한창인 대본리 앞바다 몽돌을 밟았다. 경주 나아리 해변에서 해녀들이 모여앉아 채취한 미역을 다듬고 있다. 멀리 월성원자력발전소가 보인다.“여기 사람들은 그거 감기처럼 여긴다.” 언제부턴가 마을에 병이 돌기 시작했다. 한 집 건너 한 집 해녀들이 수술받았다. 병명은 갑상선암. 가볍게 본 증상 앞에서 일상은 쉽게 기울었다. 김추자(73·여)씨는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리다 2013년 12월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 60년 넘게 감포 바다를 누빈 토박이 해녀의 목에 기다란 칼자국이 주름처럼 남았다. “의사가 하루라도 약 거르면 죽는다 카더라. 한줌 삼켜야 하루 버틸 수 있다.” 조영남(74·여) 해녀가 알약을 내보이며 말했다. 수술받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조씨의 고통은 여전하다. 대본리에서만 7명의 해녀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고, 4명은 수술을 면했지만 주기적으로 검사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다. 마을 해녀 절반 이상이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다.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경주 대본리 해녀들. 왼쪽부터 김추자, 최선이, 조영남 해녀.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경주 대본리 해녀들이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을 내보이고 있다. 최선이 해녀는 갑상선암 수술 한 달 전 죽음을 예감하고 가족 몰래 영정사진을 남겼다. 최씨가 본인의 영정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갑상선암은 노출된 방사능에 비례해 그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즉부터 (원전의 영향임을) 짐작하고 있었다. 파도가 높게 치면 자연스럽게 까물(바닷물)이 목으로 넘어온다. 목에서 피가 올라오는 건 예삿일이었다.” 해녀 최선이(75·여)씨가 쉰 소리를 내며 말했다. 최씨는 2010년 8월 갑상선암이 성대로 전이되면서 목소리를 잃을 뻔했다. “지금도 눈 감으면 바닷속이 선하게 보이는데 이젠 아파서 못 들어간다. 운 좋게 살았지만 사는 게 고통이다.” 최선이 해녀가 움푹 파인 흉터 위로 스카프를 칭칭 감았다.   경주 대본리 앞바다에서 해녀들이 이른 아침 물질을 위해 바다로 나가고 있다. 경주 대본리 앞바다에서 해녀들이 이른 아침 물질을 하고 있다. <br/>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경주 나아리 해변에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내렸다.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해변에서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해녀가 경주 문무대왕릉 인근 해변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경주 대본리 해녀들이 미역 채취를 마치고 가곡방파제로 돌아오고 있다. 경주 대본리 가곡방파제에서 마을 주민들이 해녀가 채취해온 미역을 다듬고 있다.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해녀들은 보통 물질 대신 육지에서 체력 부담이 적은 일을 맡는다.2011년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갑상선암 발생률은 감소했으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원자력발전소에서 5㎞ 이내) 여성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원거리 대조지역(원자력발전소에서 30㎞ 이상 떨어진 지역) 여성 주민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본리 마을은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약 5㎞ 떨어져 있다. <br/> <br/>현재 해녀들을 포함한 원전 인근 갑상선암 환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2014년 박모(51·여)씨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pan class='quot0'>박씨가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span>”며 주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br/> <br/>지금껏 국가 에너지 정책 앞에 지역민의 평화적 생존권은 쉽사리 소외돼 왔다. 암에 걸린 해녀들이 바다를 떠날수록, 큰 지진이 찾아와 주민들이 불안함에 밤을 지새울수록 ‘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선전만 견고해졌다. 새 정부는 신규 원전의 건설 중단, 노후 원전 폐쇄 등 탈원전 공약을 내놓았다. 일상화된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으로 눈 돌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차례다. <br/> <br/>경주=글·사진 하상윤 기자 jonyyun@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31.txt

제목: 50세 넘으면 대장암 주의… “내시경 꼭 해야”  
날짜: 20170517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17191557002  
ID: 01100701.20170517191557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나라의 대장암 환자 5명 중 4명은 50∼7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특히 대장 주변의 림프절로 종양이 전이된 3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생활습관이 주요 발병 요인으로 지적되는 대장암은 남녀 모두에게서 세 번째로 흔한 암이다. <br/> <br/>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장암 5차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70대 환자가 29.4%, 60대 27.6%, 50대 22.4%로 50∼70대가 79.4%를 차지했다. 80세 이상은 10.3%였고 40대는 8.0%였다. 이번 분석은 2015년 252개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1만7355건의 대장암 수술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자는 남성(59.2%)이 여성(40.8%)보다 훨씬 많았다. 심평원은 대장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2012년부터 의료기관의 대장암 치료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대장암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16.4명으로 폐암(34.1명), 간암(22.2명), 위암(16.7명)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br/> <br/>환자 수는 2002년 10만명당 20.3명으로 38.9명인 미국보다 훨씬 적었지만 2008년에 35.2명으로 미국(29.2)을 앞지른 뒤 2012년에는 45명에 이르며 미국(25명)의 두 배에 근접했다. 전체 환자 수는 2012년 13만명에서 지난해 15만명으로 늘었다. 대장암 발병은 육륙 섭취가 늘어나는 등 식습관의 서구화와 운동부족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br/> <br/>대장암이 발견되는 시기는 1기 20.6%, 2기 28.6%, 3기 36.4%, 4기 14.4%로 3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기까지는 종양의 전이 범위가 대장에 국한되지만 3기에는 주변 림프절로 퍼지고 4기에는 간이나 뼈 등 다른 장기까지 확대된다. <br/> <br/>심평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내시경 검진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대장암 수술 환자가 발생한 252개 기관 중 수술 건수가 10건 이상인 134곳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88.9%인 119곳이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서울(37곳)과 강원(5곳), 제주(3곳)의 병원은 모두 1등급에 속했다. 적정성 평가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r/> <br/>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32.txt

제목: 1세대 여군 헬기 조종사…첫 여성·영관급 처장 기록  
날짜: 20170517  
기자: 김청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17182604001  
ID: 01100701.2017051718260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br/> <br/> “<span class='quot0'>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정책을 펴겠습니다.</span>” <br/> <br/>문재인정부의 첫 국가보훈처장(차관급)으로 임명된 피우진(61) 예비역 육군 중령은 17일 일성(一聲)으로 따뜻한 보훈행정을 강조했다. <br/> <br/>육군 여성 헬기조종사로서 군대 내 부조리에 맞서며 유리천장을 뚫어온 피 신임 처장은 이제 첫 여성 출신, 첫 영관급 출신 보훈처장이라는 새로운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1979년 육군 소위(여군사관 27기)로 임관한 피 처장은 1981년 육군 1세대 여군 헬기조종사의 일원이 돼 여성 헬기 조종사로 이름을 날렸다. 25년간 조종사로 활약하며 세운 비행기록은 1300여시간에 달한다. <br/> <br/>2002년 유방암에 걸렸으나 양쪽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병마를 이겨냈다가 2006년 2급 장애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암 병력을 이유로 퇴역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span>”며 국방부와 법정다툼을 벌인 끝에 2심에서 승소한 직후인 2008년 5월 복직했다. 이후 육군항공학교 교리발전처장을 끝으로 2009년 군문(軍門)을 나섰다. 그는 2006년 펴낸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자서전에서 대위 시절 여군 부사관을 군사령관 술자리에 보내지 않아 노여움을 산 일 등 경험담과 암 투병, 강제 퇴역 조치에 맞서 싸운 내용을 소개했다. <br/> <br/>2015년 예비역 여군들이 참여해 결성된 젊은여군포럼 대표로서 군대 내 성폭력이나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펼쳤다. 지난달에는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2008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했으며, 2008년 4월 제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br/> <br/>파격 인사라는 평을 받는 피 처장은 박승춘 전 처장 시절 국민 안보교육에 치중하면서 독립유공자와 제대군인 복지 증진 등 본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보훈처 개혁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피 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span class='quot1'>보훈가족들이 다소 소외감도 느끼고 자기네들이 잊히지 않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span>”며 “<span class='quot1'>앞으로 보훈가족을 중심으로 보훈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박수찬 기자 <br/> <br/> ◆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 약력 <br/> <br/>△충북 충주(61) △청주대 △여군사관 27기 △육군 중령 예편 △진보신당 제18대 국회의원 후보(비례대표) △젊은여군포럼 대표

언론사: 세계일보-2-333.txt

제목: 말기 암에도 '홀로 웨딩촬영'…인생의 마지막 꿈 이룬 여성  
날짜: 20170515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15104102001  
ID: 01100701.20170515104102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말기 암에도 불구하고 홀로 웨딩사진 촬영으로 긍정적인 인생관을 보여준 대만의 한 20대 여성 사연이 네티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는 자기의 마지막 꿈을 이뤘다며 무척 기뻐했다. <br/> <br/>지난 1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대만 타이페이 외곽지역에 사는 첸(28)씨는 2013년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았다. <br/> <br/>약 2년에 걸친 치료 끝에 의료진은 암이 완치됐다고 첸씨에게 말했다. <br/> <br/>하지만 잘못된 진단이었다. 몸 상태가 나빠져 다시 병원에 온 첸씨에게 의료진은 암이 재발했다고 같은해 밝혔다. 게다가 말기에 가까운 4기였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다. <br/> <br/>4살때 아버지가 집을 떠나 그동안 어머니 밑에서 자라온 첸씨는 늘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게 꿈이었다. <br/> <br/>말기 암이지만 첸씨는 자기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비극적 운명을 탓하며 우는 건 하루면 족했다. <br/> <br/>첸씨는 최근 홀로 웨딩촬영을 마쳤다. 사진 속 새하얀 드레스가 첸씨의 옅은 미소와 더불어 밝게 빛난다. 피아노와 창문 근처 등에서 찍은 사진 등을 보노라면 첸씨가 말기 암 환자라는 것을 어느새 잊게 된다. <br/> <br/>  대만에 사는 첸(28)씨는 말기 유방암에도 불구하고 최근 홀로 웨딩촬영을 마치는 등 긍정적인 인생관을 보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 캡처. 대만에 사는 첸(28)씨는 말기 유방암에도 불구하고 최근 홀로 웨딩촬영을 마치는 등 긍정적인 인생관을 보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 캡처. 대만에 사는 첸(28)씨는 말기 유방암에도 불구하고 최근 홀로 웨딩촬영을 마치는 등 긍정적인 인생관을 보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 캡처. <br/> <br/>첸씨는 조만간 어머니를 모시고 인도네시아 발리 섬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br/> <br/>첸씨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드레스 입은 사진을 본 순간 울고 말았다</span>”며 “<span class='quot0'>드디어 인생의 마지막 꿈을 이룰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 <br/> <br/>화학치료를 받는 중인 첸씨는 일주일 중 3일은 빠지지 않고 병원에 가야 한다. 그는 자기 사연이 유방암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비슷한 처지의 다른 환자들에게도 희망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 <br/> <br/>스트레이트 타임스는 “<span class='quot1'>대만 유방암 재단에 따르면 매년 1만명 정도의 대만 여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는다</span>”고 전했다. <br/> <br/>첸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용감하다”며 “아름다운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입을 모았다. <br/> <br/>첸씨는 “말기 암 환자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두려워한다”며 “살아있는 순간을 즐기고 행복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34.txt

제목: 배가 땅까지 늘어진 '태국 뚱보 원숭이'…다이어트 돌입  
날짜: 20170513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13105631001  
ID: 01100701.20170513105631001  
카테고리: 국제>아시아  
본문: 태국의 ‘뚱보 원숭이’가 당국 감시 아래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br/> <br/>아랫배가 땅에 질질 끌려 한때 암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았지만 다행히 암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br/> <br/>1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태국 야생생물보호청(DNP)이 방콕 쿤 깔라 수상시장 근처 공원에서 긴꼬리원숭이 1마리를 지난달 붙잡아 정밀 검사를 펼쳤다. <br/> 검진을 받고 있는 뚱보 원숭이. 더 네이션 홈페이지 캡처 <br/>검사 도중 원숭이 복부에서 종양이 발견돼 암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암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고도비만과 함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과도하게 높고 폐에 염증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br/> <br/>이 원숭이 무게는 약 15kg. 보통 원숭이보다 50%나 더 무겁다. 관광객들이 던져준 옥수수나 과일 등을 먹으며 살이 찐 것으로 알려졌다. 뱃살이 땅에 끌릴 정도로 늘어져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br/> <br/>DNP는 고도비만인 원숭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식단 조절을 시작했다. 원숭이는 하루 2차례 식사를 하지만 먹이의 양은 400ｇ 이내로 제한된다. DNP는 폐 염증 치료를 위해 매일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약물요법도 병행하고 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35.txt

제목: ‘美 페미니즘 상징’ 원더우먼의 숨겨진 진실  
날짜: 20170513  
기자: 권구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13030716001  
ID: 01100701.20170513030716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바야흐로 슈퍼히어로의 시대다. 슈퍼맨부터 배트맨, 아이언맨, 헐크, 토르 등에 이르기까지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그중에서도 원더우먼은 시대를 통틀어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슈퍼히어로로 통한다. 원더우먼은 다른 슈퍼히어로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지만, 다른 슈퍼히어로와 달리 진짜 ‘역사’도 숨기고 있다. <br/> <br/>신간 ‘원더우먼 허스토리’는 원더우먼을 탄생시킨 원작자 윌리엄 몰턴 마스턴(1893∼1947)의 삶을 전기 형식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미국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인 저자 질 르포어는 마스턴이 남긴 메모와 편지, 앨범 등을 통해 원더우먼이 가진 모순과 숨겨진 역사를 조명한다. <br/> <br/>원더우먼은 전쟁이 한창이던 1941년 미국에서 탄생했다. 다른 슈퍼히어로들과 달리 원더우먼은 자기모순적인 캐릭터로 통한다. 20세기 중반 미국 페미니즘의 표상이면서, 번번이 사슬에 감기고 재갈이 물린 채 등장해 남성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자극하기도 했다. <br/> <br/> <br/> 슈퍼히어로 만화 ‘원더우먼’에는 원작자 윌리엄 몰턴 마스턴(오른쪽)의 여성우월주의가 반영돼 있다. 사진은 1942년 ‘원더우먼’ 1호.저자인 마스턴도 원더우먼만큼이나 복잡한 인물이었다. 마스턴은 거짓말탐지기를 처음으로 고안해 낸 심리학자다. 양성애자인 그는 하버드대 재학시절 여성인권 서클을 주도한 페미니스트였고, 시나리오를 쓰면서 영화판에 발을 들였다. 체중 100㎏가 넘는 거구였던 그는 스스로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라고 떠벌리고 다녔다. <br/> <br/>슈퍼히어로 만화가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미국 사회는 슈퍼히어로 만화가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비판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에 만화출판사인 DC코믹스는 심리학자이면서 영화 시나리오를 쓴 경험이 있는 마스턴에게 자문을 구했다. 마스턴은 여론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슈퍼히어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성은 약점으로 인해 강점을 멸시당했다”면서 “이를 해결할 명백한 방법은 슈퍼맨의 힘과 훌륭하고 아름다운 여성의 매력을 전부 갖춘 여성 캐릭터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외적 아름다움과 초능력, 지혜, 공감능력을 겸비한 원더우먼 캐릭터에는 마스턴의 ‘여성우월주의’가 반영됐다. 마스턴은 사회통념 속에 존재하는 여성상에 강인함과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더우먼이 새로운 여성상으로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그는 미국이 수백년 내에 모계사회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br/> <br/>원더우먼은 1970년대 미국 페미니즘 운동가들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미국 페미니즘의 대모격인 글로리아 스타이넘 등 페미니스트들이 창간한 잡지 ‘미즈’는 1972년 창간호에 원더우먼을 표지모델로 실었다. 표지에는 ‘원더우먼을 대통령으로’라는 문구가 함께 실렸다. <br/> <br/>그러나 원더우먼은 페미니즘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 진영에서는 원더우먼이 여성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다른 슈퍼히어로가 폭력성 논란에 휘말렸다면, 원더우먼은 과도한 노출이 문제시됐다. 원더우먼을 옭아맨 수갑과 족쇄, 재갈, 사슬 등은 여성 억압을 상징하는 은유로 여겨질 소지가 있었다. 1942년 전미문학심의기구는 ‘센세이션 코믹스’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원더우먼의 노출이 심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원더우먼의 이 같은 특성은 마스턴의 은밀한 사생활이 반영된 결과였다. <br/> <br/>마스턴은 1947년 암으로 숨졌다. 그러나 원더우먼은 대중문화 속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논쟁적 아이콘으로 부활을 거듭하고 있다. 저자는 “<span class='quot0'>슈퍼맨이 SF에 빚졌고 배트맨이 하드보일드 탐정소설에 빚졌다면, 원더우먼은 가상의 페미니스트 유토피아와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빚졌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원더우먼의 기원은 윌리엄 몰턴 마스턴의 과거와 그가 사랑했던 여성들의 삶에 있다</span>”고 말한다. <br/> <br/>권구성 기자 ks@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36.txt

제목: [생활팁] '향초 사용은 독?' 집안 미세먼지 농도 낮추는 방법  
날짜: 20170512  
기자: 박윤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12164725001  
ID: 01100701.20170512164725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br/> <br/> <br/>창문을 활짝 열고 이른 아침 햇살을 만끽하는 것도 옛말이 됐다. 맑은 날보다 허공을 가득 메운 황사와 스모그로 희뿌연 하늘을 보는 날이 더 많아지면서 호흡기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의 먼지로 머리카락 지름(약 70㎛)보다 작아 코와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에 그대로 축적된다.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등 화학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되면 천식이나 기관지염,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과 안구, 피부질환 등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집 안에만 머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창문을 꼭꼭 닫고 공기청정기를 종일 가동해도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렵고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종류도 많다. 집안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예방할 방법을 알아봤다. <br/> <br/>1. 집에 오기 전 옷 털어주기 <br/> <br/> <br/>외출하는 동안 우리 옷에 붙은 미세먼지는 그대로 집안으로 옮겨진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귀가 후 곧바로 세탁하는 것이지만, 매번 그럴 수 없다면 집에 들어가기 전 옷을 탁탁 털어 먼지를 털어내고 들어간다. 또는 입구에 클리너를 비치해두고 집안에 들어가기 전 옷에 붙은 먼지를 흡착시켜 옷에 묻은 미세먼지를 털어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br/> <br/>2. 청소기 대신 물걸레 사용 <br/> <br/> <br/>미세먼지가 심한 날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것은 좋지 않다. 대부분의 청소기 필터에서 미세먼지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바닥에 쌓여있던 먼지들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면서 폐나 호흡기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청소기 대신 물걸레나 물에 적신 부직포로 미세먼지를 흡착시키면서 닦아내는 것이 좋다. <br/> <br/>3. 방에서 향초 켜지 않기 <br/> <br/> <br/>집안에 밴 냄새를 없애거나 심신의 안정을 위해 향초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다. 향초가 실내공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향초를 켜면 집안의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다. 이는 양초가 연소하면서 공기 중 미세먼지와 합쳐져 유기화학물질을 배출시키기 때문인데, 초를 고를 땐 파라핀 원료로 된 제품 대신 천연향료를 사용한 소이 캔들을 선택하고, 실내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br/> <br/>4. 요리할 땐 창문 열거나 환풍기 작동 <br/> <br/> <br/>요리 역시 집안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표적 사례다. 이는 유기물질로 된 음식은 조리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생성하고 해로운 불질이 새로 생성되기 때문인데, 벤젠이나 포름알데하이드, PAH(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등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배출되어 폐암의 주범으로도 지적된다. 주방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전하기 위해서는 뚜껑을 덮고 조리하되 짧게 조리하고 조리 중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작동시켜야 한다. 창문을 닫고 조리 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6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또 요리가 끝난 후에는 최소 15분 이상 자연환기를 하고 요리에 사용한 기구들은 가급적 빨리 청소해 오염물질이 계속 방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br/> <br/>5. 젖은 수건으로 천장 닦아내기 <br/> <br/> <br/>집안으로 유입된 미세먼지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곳곳에 붙어 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 경보가 흔할 때에는 바닥뿐 아니라 천장도 닦아주는 것이 좋은데 밀대에 젖은 종이행주나 헝겊을 감싸면 손쉽게 천장의 먼지를 닦아낼 수 있다. 이후 소독용 에탄올을 분무기에 담아 종이행주에 골고루 뿌린 다음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닦아내면 집안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다. <br/> <br/>박윤희 기자 pyh@segye.com <br/>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언론사: 세계일보-2-337.txt

제목: 유상무, 2년간 소아암 환자위해 6000만원 기부  
날짜: 20170512  
기자: bok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12150443001  
ID: 01100701.20170512150443001  
카테고리: 지역>대전  
본문: 대장암 투병 중인 개그맨 유상무(37)가 지난 2년간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6000만원을 기부한 소식이 알려졌다. <br/> <br/>유상무는 2015년 국립암센터에 3000만원을 기부했고, 지난해에는 국립암센터 소아암 병동을 찾아 환아 6명에게 500만원씩 전달했다. <br/> <br/>유상무의 소속사 코엔스타즈 관계자는 12일 “<span class='quot0'>유상무가 대장암 판정을 받기 전부터 소아암 환아들에게 관심을 두고 기부를 해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에 본인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게 많아 조만간 또 기부금을 전달하겠다고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유상무는 지난달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후 자신이 기부해왔던 국립암센터에서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br/> <br/>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통원 치료 중인 그는 SNS를 통해 팬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꾸준히 전하며 완치 의지를 다지고 있다. <br/> <br/>소속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유상무가 완치 후에는 암 환자들을 위한 개그 무대를 마련해보고 싶어한다</span>”고 전했다. <br/> <br/>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38.txt

제목: [영화] 아내가 웃을 수 있다면… 곱씹어보는 사랑의 의미  
날짜: 20170511  
기자: 김신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11204858001  
ID: 01100701.20170511204858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span class='quot0'>나보다 더 나은 남편 … 어디 없을까요?</span>” ‘내 아내와 결혼해 주세요’는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주인공을 통해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돌아보게 한다.쓰레기를 버려주고, 냉장고 안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으며, 함께 자주 저녁을 먹어주는 사람, 잘생긴 얼굴보다는 너그러운 성격, 돈 낭비를 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웃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활기차고 건강한 사람…. <br/> <br/>어떤 상황이라도 ‘즐거운 일로 바꾸자’는 신념의 경력 22년차 인기 예능 프로그램 방송작가 미무라 슈지(오다 유지)가 정해놓은, ‘내 아내와 결혼할 사람’이 갖춰야 할 조건들이다. <br/> <br/>어느 날 슈지는 췌장암 말기 판정에 따른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질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걱정에 상심한 그는 우연히 웨딩업체 광고를 보다가 한 가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바로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남편을 아내에게 선물하는 일. 이 같은 발상은 결혼상담소를 운영하는 그의 옛 직장동료 치타(다카시마 레이코)까지 ‘공범’으로 가세하면서 실행에 옮겨지게 되고, 마침내 슈지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맞선후보남 이토(하라다 다이조)를 찾아간다. <br/> <br/> <br/>미야케 요시시게 감독의 신작 ‘내 아내와 결혼해 주세요’는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을 히트시킨 방송작가이자 소설가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히구치 다쿠지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이다. 2012년 출간된 소설은 참신한 설정과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폭발적 인기를 누리다 2015년 일본 NHK 드라마로도 방영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br/> <br/>순수하면서도 애절한 사랑 이야기로 진한 여운을 남긴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와 존엄사 문제를 화두로 제기하며 묵직한 감동을 전한 ‘미 비포 유’의 뒤를 이어, ‘내 아내와 결혼해 주세요’ 또한 생애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건네며 원작의 감동을 고스란히 스크린 가득 풀어 놓는다. <br/> <br/>흔히 시한부 소재를 다룬 영화들이 슬프고 무겁게 전개되는 것과 달리 스타 예능 작가의 기발한 아이디어답게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한 채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곱씹게 한다. <br/> <br/> <br/>슈지가 이토에게 중국요리집에 빗대어 결혼생활을 설명하는 장면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긴 웃음을 남긴다. “혼자 오면 라멘에 군만두 정도 먹겠지만 둘이 오면 두 배로 주문할 수 있죠. 맥주에 전채요리, 후식은 젤리. … 나중에 식구가 늘어나면 춘권, 청경채볶음, 고추잡채까지도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br/> <br/>결혼은 (살면서) “보람있는 일이 하나 더 느는 것”이라고 말하는 슈지는 “아내와 바람 피우고 싶을 만큼 아내를 사랑한다”고 털어놓는다. <br/> <br/>“<span class='quot0'>정말로 (죽는) 그날이 온다 해도 아내가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span>”는 그는 정을 떼기 위해 일부러 마음에 없는 말을 뱉어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br/> <br/>칫솔 3개, 컵 3개, 밥공기 3개. 카메라는 이를 연이어 잡아내며 세 식구에 대한 슈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다.   <br/> <br/> <br/>‘언제부터 난 망가진 걸까’, 행복한 표정으로 찍었던 가족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이때부터 암세포가 있었던 걸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했던 걸까’,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됐을까’라고 자책하는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에 멍을 남긴다. <br/> <br/>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배우자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  <br/> <br/>아들 요이치로에게 남긴 편지에는 삶의 지혜와 성찰을 담았다. <br/> <br/>영화는 다소 엉뚱하게 웃기다가 우리네 일상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결코 혼자서는 담아가지 못할 만큼의 감동을 한아름 안겨준다. <br/> <br/> “결혼은 생계가 걸린 공동생활이에요. 화려한 카탈로그나 잡지 따위에 현혹되면 안 되죠.”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는 전 세계 어떤 요리보다도 맛있어요.” “중요한 것을 서로 말하지 못하는 부부는 부부가 아니야.” 등 결혼과 가족에 대한 대사들은 밑줄을 쳐둘 만하다. <br/> <br/>‘도쿄 러브스토리’, ‘춤추는 대수사선’ 시리즈, ‘IQ246 화려한 사건부’ 등으로 익숙한 오다 유지가 시한부를 선고받은 예능 작가 ‘미무라 슈지’로 나와 열연했다. 슈지의 아내이자 전업주부로 똑 부러지면서도 유머러스하고 사려 깊은 ‘아야코’ 역은 ‘얄미운 여자’ ‘마음이 외치고 싶어해’ ‘불량소녀, 너를 응원해’ 등으로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인 요시다 요가 연기했다. <br/> <br/>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39.txt

제목: 자각증상 없어 더 위험한 위암 예방법  
날짜: 20170511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11191313001  
ID: 01100701.20170511191313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12일 오후 9시50분 EBS1 ‘명의’(사진)에서는 위암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한다. <br/> <br/>한국인의 위암 발병률은 전 세계 1위로,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암 질환 중 하나이다. 말기 위암의 경우 생존율이 10% 미만까지 급격히 떨어진다. 하지만 조기 위암의 생존율은 95%다. 그렇기 때문에 위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내시경을 통한 위암 조기 발견이다. 위암은 어떤 병이며 위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살펴본다. <br/> <br/>위암이 무서운 것은 대부분 자각증상이 없다는 것이다. 복통이나 속쓰림, 소화불량,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서는 조그만 증상이 있어도 위암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br/> <br/>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40.txt

제목: 그린닥터 숲의 손길을 만나다  
날짜: 20170511  
기자: 한현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11030837001  
ID: 01100701.20170511030837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초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 8일 화순전남대병원 뒤편의 산림에 자리 잡은 ‘치유의 숲’에는 환자 10여명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링거를 꽂은 상태로 휠체어를 탄 환자들은 보호자와 함께 숲 내음을 만끽했다. 일부 환자는 등산로의 꽃에서 나는 향기를 맡으면서 병실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렸다. 최근 위암 수술을 받고 이곳을 찾은 김성욱(50)씨는 “<span class='quot0'>답답한 병실에서 나와 숲을 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span>”고 했다. <br/> <br/>‘치유의 숲’에는 환자만 있는 게 아니다. ‘치유의 숲’에서 조금 더 들어가니 책을 보거나 명상을 즐기는 일반인의 모습이 눈에 띈다. 환자와 일반인은 각자 자신의 목적대로 치유의 숲을 이용한다. ‘치유의 숲’에 조금만 있어도 이곳이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br/> <br/>화순전남대병원이 자리한 전남 화순군은 전체 면적의 77%가 산림지역이다. 연평균 기온은 13.8도로 서늘하면서도 일조량이 풍부하다. 온천과 맑은 물이 풍부한 상수원이 있다.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다. 아픈 사람이 치료 받기에도 최적의 자연환경이다. <br/> <br/>화순전남대병원은 2004년 4월 화순읍 만연산 자락에 문을 열었다. 병원 뒤쪽으로는 4만㎡의 울창한 산림이 우거져 있다. 암치료 환자가 많은 화순전남대병원은 2007년 병원과 연결된 뒷산을 환자를 위한 공간으로 내놓았다. 바로 ‘치유의 숲’ 조성이다.  <br/> <br/> <br/> 봄에 화순전남대병원 ‘치유의 숲’에 가면 산책로 양편에 철쭉 등 화사하게 핀 봄꽃을 볼 수 있다. <br/>화순전남대병원 제공병원과 화순군은 총사업비 7억원을 들여 총길이 1200m가량의 둘레길을 조성했다. 둘레길로 이어지는 숲은 자연스럽게 치유의 숲이 됐다. 전체 병원 용지 17만7000㎡ 가운데 치유의 숲이 25%를 차지했다. <br/> <br/>병원 뒷문을 나서면 치유의 숲과 바로 연결돼 접근성도 좋다. 치유의 숲은 치유의 길과 명상의 길, 휴식의 길 등 크게 세 길로 구성돼 있다. 이들 길에는 산책로와 운동기구를 배치하고 주변에는 교목과 관목 등 1만5000그루를 심었다. <br/> <br/>5년 뒤인 2012년에는 사업비 4억원을 들여 시설을 대폭 개선했다.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산책할 수 있도록 산책로에 탄성포장을 깔고 경사면을 낮췄다. 길 중간에는 걷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조성했다. 풍광을 즐길 수 있는 데크 전망대 2곳도 만들었다.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편백나무와 교목을 추가로 심었다.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황톳길을 만들고 산책로 일부를 신설했다. 치유의 숲이 인근 만연산의 둘레길인 ‘화순 오감길’과도 연결했다. <br/> <br/>치유의 숲 아이디어는 2005년 충북대 신원섭 교수가 첫 제안했다. 현재 산림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 교수는 최근 치유의 숲을 찾아 치유의 숲 이용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건강 프로그램의 도입을 적극 권했다. <br/> <br/>국내 병원에서 치유의 숲이 있는 곳은 화순전남대병원이 유일하다. 병원 측은 의료의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지하주차공간을 대폭 늘려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제2산책로를 조성하는 녹지화를 추진 중이다. 화순군도 병원 옆에 공원과 휴양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공원이 완공되면 치유의 숲과 연결되는 거대한 힐링벨트가 조성된다. <br/> <br/>치유의 숲은 환자와 보호자, 일반인들이 심신을 단련하는 힐링코스로 자리를 잡았다. 환자들의 또 다른 치료 공간으로 부상했다. 수술과 치료로 심신이 지친 환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있는 치유의 숲은 첨단 의료장비 못지않게 ‘그린닥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br/> <br/>치유의 숲은 환자의 면역력을 기르는 충전소 역할도 한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3000∼1만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다. 그렇다고 누구나 암에 걸리지는 않는다. NK(natural killer·자연살해)세포 같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감시하고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 면역세포의 힘을 면역력이라고 한다. 치유의 숲에서 환자들은 바로 면역력을 기른다. <br/> <br/>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음이온, 자연의 소리, 색감이 NK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돕는다. 숲속의 맑은 공기에는 산소 함유량이 높아 면역세포의 힘을 키워준다. 숲에 있기만 해도 치유효과를 보는 이유다. 숲이 치료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의 경우 숲을 마치 의사의 처방전처럼 인식하는 숲디자이너와 숲치료 전문가의 활동이 넓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숲체험이 건강과 정신영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상 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암, 고혈압, 정신질환 등 다양한 건강 이상을 숲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잇따라 나온다. <br/> <br/>이런 점에서 화순전남대병원은 자연 그대로의 거대한 숲을 보유해 뛰어난 암치유 경쟁력을 갖고 있다. 산림환경을 치유환경으로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모범사례로 꼽힌다. <br/> <br/>화순=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41.txt

제목: “친환경 의료 인프라 구축 암치료 특화병원 자리매김”  
날짜: 20170511  
기자: 한현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11030837002  
ID: 01100701.20170511030837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span class='quot0'>치유의 숲이라는 친환경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지방 병원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span>” <br/> <br/>화순전남대병원 김형준(사진) 원장은 10일 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숲을 치료에 접목해 수도권이나 대도시 병원들과 차별화한 심신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br/> <br/>김 원장은 숲과 나무가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숲속의 맑은 공기가 면역세포의 힘을 키워주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때문에 환자들이 숲에 있기만 해도 일정 부분 치유의 효과를 경험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화순전남대병원은 개원 이후 다른 병원에는 없는 치유의 숲을 조성해 차별화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했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1'>병원이 숲과 가까운 곳에 있어 치유의 숲을 만들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숲 치료가 비용이 적게 들면서 부작용이 없다는 실험들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span>”고 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의 암치유 전문병원으로 특화한 비결과 관련, 김 원장은 “<span class='quot1'>2004년 개원 당시부터 자연환경에 맞춰 암치료 분야를 특화한 게 주효한 것 같다</span>”고 분석했다. <br/> <br/>김 원장은 자연환경이 환자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최근 정부에서 평가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유지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자연친화적인 치유환경과 우수한 의료역량, 뛰어난 의료질, 국립대 병원으로서의 저렴한 의료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환자들의 만족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span>”고 말했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1'>자연과 숲이라는 찬환경 인프라를 내세워 병원이 지방에 있다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여기에 최첨단 의료장비와 세계적 수준의 의료질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도약에 나서고 있다</span>”고 자신감을 보였다. <br/> <br/>화순전남대병원은 ‘병상당 암수술’ 전국 1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매년 분야별 암치료 평가에서 1등급을 차지하면서 암치료 특화병원의 자리를 굳혀 가고 있다. 지역 의료 발전의 견인차 역할도 하고 있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1'>국내에서 유일한 화순 백신특구와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화순=한현묵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2-342.txt

제목: 중이온가속기 시험동 준공  
날짜: 20170511  
기자: 임정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11030625001  
ID: 01100701.2017051103062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중이온가속기에 앞서 건설된 중이온가속기 실험동이 10일 고려대 세종캠퍼스에 준공돼 가동에 들어갔다. <br/> <br/>고려대가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건립한 중이온가속기 실험동은 중이온가속기 핵심 장치·설비 연구개발과 활용 연구에 특화된 대형 연구기반시설이다. <br/> <br/>고려대는 실험동을 통해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의 ‘라온(RAON, Rare isotope Accelerator complex for On-line experiments)’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본격 참여, 전 세계적으로 절대 부족한 가속기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br/> <br/>고려대와 IBS는 지난 2013년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IBS 중이온사업단의 주요 가속기 장치 및 실험 연구시설 일부를 실험동으로 이전, 양측 연구인력들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br/> <br/>고려대는 지난 2014년 세계 최초로 가속기과학과를 일반대학원 정규학과로 개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2016년 7월 일본 동경공업대로부터 기증받아 운용해 온 소형 가속기 시설도 실험동으로 이전 설치, 다양한 활용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첨단 융복합의료센터 구축사업(KU-MAGIC 프로젝트)과 연계해 암치료용 가속기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br/> <br/>약 1년여의 공정을 거쳐 세종캠퍼스 약학대학 남측에 건립된 실험동은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8000여㎡의 첨단 철골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졌으며, 중이온가속기 운용을 위한 장비를 조립, 테스트하는 공간과 강의실, 실험실, 교수연구실 등이 들어섰다. <br/> <br/>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span class='quot0'>오늘 준공한 실험동은 과학벨트의 핵심인 라온 중이온가속기 구축과 국가 가속기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를 계기로 가속기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제적인 산학연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43.txt

제목: “생전 효도 못해… 그리움·후회만 남았네요”  
날짜: 20170508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08210002001  
ID: 01100701.20170508210002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막 눈물이 나와요. 우리 엄마는 엄격하고 무서웠지만 다정하고 낭만적이셨죠. 베푸는 것을 좋아하셨고요. 그런 엄마한테 살아생전 한 번도 용돈을 넉넉하게 준 적이 없어요. 집 장만하고 사는 데 바빠서…. 지금 와서 가슴을 치죠. 나중에 후회해요.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엄마가 안 계셔요.” <br/> <br/>10년 가까이 무대에서 ‘친정엄마’ 역할을 해온 배우 강부자(77)가 실제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강부자는 배우 전미선(48)과 함께 2009년부터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에서 실제 모녀와 같은 절절한 연기를 펼치고 있다. <br/> <br/> <br/> 배우 강부자(77)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친정엄마와 2박3일’ 연극을 한다. <br/>피알엠 제공이 작품은 평소 전화 한 통 없던 깍쟁이 딸 미영(전미선)이 죽음을 앞두고 엄마(강부자)를 찾아가 함께 보내는 2박3일을 가슴 뭉클하게 그렸다. 처음에는 아무 일 없이 친정에 들른 것처럼 행동하던 미영이 마지막 밤에 자신의 병을 엄마에게 알리고 부녀는 오열한다. 관객도 함께 눈물 흘린다. <br/> <br/>“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요. 특히 우리 것, 엄마와 딸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죠.” <br/> <br/> <br/>‘친정엄마와 2박3일’은 2009년 1월 공연을 시작하자마자 전국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300석 규모의 소극장인 서울 동국대 이해랑 극장에서 시작한 후 곧바로 전국 투어에 돌입해 같은 해 13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700회 이상 공연하며 누적 관객 수 62만명을 돌파했다. 전국 1000석 규모의 대극장을 모두 거치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br/> <br/>강부자는 연극을 하는 동안 다양한 관객을 만났다. 일부 관객은 오열하다 실신해 구급차까지 불러야 했다. <br/> <br/>“이해랑 극장에서 공연하던 중에 한 여성 분이 꽃다발을 들고 무대에 올라왔어요. 모자를 쓰고 계셨는데, 몸이 깡마르고 초췌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말기암 환자셨어요. 마치 미영이 같이요. 연극을 보기 위해 제주도에서 왔다고 했어요. 편지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연극을 보고 몸이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죠. 그분의 모습이 너무 가슴에 맺혀서 기억에 남아요.” <br/> <br/> <br/>강부자와 전미선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무대에서 다시 엄마와 딸이 된다. 서울 공연은 3년 만이다. <br/> <br/>“예술의전당 토월극장은 누구나 서보고 싶은 무대예요. 10년 가까이 연극을 해왔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겨요. 긴장감이랄까. 무대장치나 연출기법이 초연 때와 달라졌지만 연극 전반에 모성애는 변함이 없어요.” <br/> <br/>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44.txt

제목: [기업톡톡]편의점 GS25 암 투병 환자에게 희망을  
날짜: 20170508  
기자: 뉴스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08203603001  
ID: 01100701.20170508203603001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GS25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련된 가정의 달 기념 기부 이벤트 홍보 페이지. 출처=GS25 홈페이지 <br/>GS25가 고객과 함께 암 투병 환자에게 희망을 선물한다. <br/> <br/>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달간 가발 전문업체 ‘하이모’와 함께 어려운 환경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이들을 위해 맞춤 가발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br/> <br/>이 맞춤 가발은 1개당 약 200만원에 달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항암치료 환자들은 선뜻 사기 힘들다. 이에 GS25는 하이모에 항암 치료환자들의 사정을 알렸고, 하이모는 흔쾌히 맞춤 가발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번 행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br/> <br/>GS25는 고객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객과 함께 참여하는 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br/> <br/>5월 한달 동안 GS25에서 도시락을 구매한 뒤 ‘GS&POINT’를 적립하는 고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나만의 냉장고’에 도시락 1개당 1000원의 기부 스탬프가 생성되며, 이 스탬프를 누르면 기부가 진행된다. <br/> <br/>고객들이 이렇게 생성된 기부 스탬프를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GS25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고객들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부금이 쌓이는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br/> <br/>GS25는 고객의 참여로 확보된 기부액만큼 하이모로부터 맞춤 가발을 사들인 뒤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30명에게 선물한다. <br/> <br/>맞춤 가발을 선물 받을 대상자는 전국의 병원에서 추천받을 예정이다. <br/> <br/>한동석 GS리테일 편의점 마케팅팀 과장은 “<span class='quot0'>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졌지만 가발을 구매할 여유가 없어 외출하기를 꺼리는 이들에 대해 알게 됐다</span>”며 “고객과 함께 선물하게 될 맞춤 가발이 역경을 이겨  수 있는 희망과 응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 <br/>디지털뉴스부 비즈취재팀

언론사: 세계일보-2-345.txt

제목: [류순열의경제수첩] 폰지게임 즐기는 정부  
날짜: 20170508  
기자: 류순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08004919001  
ID: 01100701.20170508004919001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span class='quot0'>90일 안에 투자금의 두 배를 주겠다.</span>” 다단계 금융사기의 원조, 폰지게임(Ponzi game)은 이렇게 시작됐다. 1920년대의 일이다. 이탈리아계 미국인 찰스 폰지는 파격적 조건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시작은 성공적이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사기 행각은 1년도 안 돼 들통나 막을 내렸다. <br/> <br/>그걸로 끝이 아니다. 폰지게임의 생명력은 질기게 이어졌다. 100년 세월을 타고 지구촌 곳곳에 파고들었다. 미국에선 버나드 매도프가, 한국에선 조희팔이 그 생명력을 입증했다. 희대의 사기꾼인 그들은 모두 폰지의 후예들이다. 증권거래소 이사장까지 지낸 매도프는 수십년간 폰지사기를 벌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야 뒷덜미를 잡혔다. 사기 규모가 650억달러, 우리 돈으로 70조원이 넘는다. 그보단 작지만 조희팔 일당의 사기 피해 규모도 5조원에 달한다. <br/> <br/>폰지사기의 구조는 간단하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익 창출은 없는 ‘돌려막기’일 뿐이다. 운이 따르면 매도프처럼 꽤 오랜 시간 세상을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마냥 지속할 수는 없다. 언젠가 들통난다. 폭발이 예정된, 시한폭탄과 같다.  <br/> <br/>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폰지게임을 민간의 사기꾼들만 즐기는 것은 아니다. 공적 권력인 정부도 미필적 고의로 벌일 수 있다. 그 뻔한 부동산 부양책에 폰지게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5년짜리 정권은 성장률 좀 끌어올려보자고 서민들에게 ‘폭탄 돌리기’를 감행했다. “빚 내서 집 사라”던 박근혜정부는 절정이자 최악이었다. 금리를 사상 최저로 끌어내리고 집을 담보로 빚을 낼 수 있는 한도를 과감하게 늘렸다. 정책자금으로 투기 세력도 도와줬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풀고, 동일인에게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을 여러 건씩 해줬다. 정부가 실수요가 아닌 투기를 단속하기는커녕 혈세를 동원해 부채질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br/> <br/>폰지게임을 닮은 정부 정책도 결국 끝을 볼 것이다. “<span class='quot0'>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서 집과 관련해 벌어지는 폰지게임은 언젠가 그 끝자락에 이르게 되고 집값이 높을수록 거품 붕괴의 충격은 더 커진다.</span>” 경제석학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논문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거품 붕괴는 아직 잠복한 위험이지만 거품의 폐해는 진작 현실화했다. 무엇보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커졌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아득해졌고 치솟은 주거비와 급증한 부채로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 <br/> <br/>집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치솟은 집값 부담은 자녀 세대에게 전가된다. “<span class='quot0'>후손들의 소득을 빼앗아오는 짓이며 국가 불행을 키우는 일</span>”(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집값은 절대 다수에게 위험한 부메랑일 뿐이다. <br/> <br/>친박 실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화끈하게 단기 부양책을 밀어붙일 때 원로들의 걱정과 비판이 없지 않았다. 조순 전 한은 총재는 “<span class='quot1'>장래 안정과 성장에 역행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정책</span>”이라고,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span class='quot1'>부동산으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과거 연장선의 정책은 안 된다</span>”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경제팀은 코웃음만 쳤다. <br/> <br/>내일 정권이 바뀐다. 새 정권은 부디 ‘숫자’를 꿰맞추려 집값을 띄우는, 저급하고 위험한 정책의 유혹부터 단호히 뿌리치기 바란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바통을 이어받은 노태우정부에선 토지공개념까지 도입하며 대개혁을 추진한 역사도 있다. “<span class='quot0'>부동산값 상승이 불평등 심화, 국민생활 빈곤화의 근본원인이라고 봤기 때문</span>”(당시 박승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br/> <br/>30년이 지난 지금 이 같은 문제의식은 더욱 절실하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span class='quot2'>땅값, 집값 높은 것이 이 나라 경제 운용에 암적 존재인데 왜 대선 후보 공약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서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없는지, 참 이상하다</span>”고 개탄했다. <br/> <br/>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언론사: 세계일보-2-346.txt

제목: [열린마당] 노년층 상대 ‘무면허 의료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을  
날짜: 20170508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08004402002  
ID: 01100701.20170508004402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근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 등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치료를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치과 틀니 비용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치료해준다며 환자들을 유혹해 치과의사 면허 없이 불법 시술을 해온 혐의다. <br/> <br/>불법 시술에 현혹된 환자들은 대부분 고액의 치과 치료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노년층이나 중국 출신 외국인노동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또 얼마 전 암을 완치시켜주겠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뒤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치과를 포함해 의사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환자를 모집해 시술하는 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금도 이런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br/> <br/>의료 당국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고, 범법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각종 부작용 발생 등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처벌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이 검증 불가능한 문구로 각종 매스컴에 버젓이 불법광고를 내고 환자를 유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환자를 현혹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차제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환자도 무면허자를 통해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비용보다 훨씬 큰 손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한다. 이번 사건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아 발치 또는 틀니치료 등을 받으면 그 어떤 부작용이 생겨도 보상받지 못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의료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br/> <br/>김동석·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언론사: 세계일보-2-347.txt

제목: 8일은 난소암의 날… 40대 이상 폐경 여성 정기검진 필요  
날짜: 20170507  
기자: 정진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07141605001  
ID: 01100701.2017050714160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오는 8일은 어버이날이자 ‘세계 난소암의 날’이다. 이날은 전 세계 난소암 환자들을 격려하고, 여성들에게 난소암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난소암은 자궁경부암에 이어 부인암 중 두번째로 흔한 암이지만, 조기발견이 쉽지 않아 생존율이 낮은 질병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난소암 환자는 1만6172명에 이른다. 난소암 5년 생존율은 61.9%로 자궁경부암 5년 생존율 80.3%에 비해 현저히 낮다. <br/> <br/>난소암의 5년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난소는 골반 안쪽에 위치해 있어, 위내시경이나 자궁경부암 검사처럼 장기를 들여다보고 바로 조직을 채취할 수 있는 검진 방법이 아직 없다. 또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대부분 암세포가 난소를 넘어 다른 곳으로 퍼지는 3~4기에 발견된다. 이 시기에 발견될 경우 5년 생존율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 <br/> <br/>김윤환 이대여성암병원 재발성부인암센터장은 “<span class='quot0'>난소암은 특별한 증상 없이 찾아오고 증상이 있더라도 다른 소화기계 이상으로 오인해 조기 발견이 쉽지 않아 다른 여성암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이 난소에만 있는 1·2기에는 70~90%에 가까운 완치율을 보이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력이나 유방암 발병 경험이 있는 고위험군, 40대 이상의 폐경 후 여성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span>”고 전했다. <br/> <br/>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48.txt

제목: [이슈플러스] 무너지는 노년의 삶… 막다른 길 내몰려  
날짜: 20170506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06210854001  
ID: 01100701.2017050621085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015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6.5명이었다. 이를 노인층에 한정해 살펴보면 60대 36.9명, 70대 62.5명, 80대 이상 83.7명으로 증가 폭이 급격히 커진다. <br/> <br/>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과 같은 중증 만성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인의 자살사망률은 60대의 심장질환 사망률이 68.1명, 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53.3명인 것과 견주어 볼 만하다. 스트레스와 같은 낮은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는 청장년 세대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우울감 경험이나 자살 생각과 같은 중증의 지표에서는 노인 세대가 가장 심각한 것이다. <br/> <br/>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년기 정신적 습관의 실태와 생활습관과의 관련성’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기의 부정적인 정신적 습관이 사회 환경 및 생활 습관 등과 맞물리며 자살률을 키우는 것과 같이 삶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해 보사연이 실시한 ‘한국 국민의 건강행태와 정신적 습관 실태조사’의 65세 이상 노인의 응답결과 1463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br/> <br/>먼저 노인들이 갖는 정신적 습관은 △인지적 오류 △반추 △무망(희망 없음) △걱정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 △자기 도피의 6가지로 구분됐다. <br/> <br/>노인의 정신적 습관은 인지적 오류가 41.6%로 가장 두드러졌고 반추는 39.4%, 무망은 28.5%가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유형은 많은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적 습관으로 비교적 과거나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시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br/> <br/>걱정은 대상 노인의 41.1%,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는 30.5%, 자기도 피는 27.2%가 해당했다. 이 후자 쪽은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들은 비교적 적은 수의 노인들에게서 발견되지만 우울이나 불안장애와의 관련성이 커 정신건강에 더욱 위험하다. <br/> <br/>노년기의 정신적 습관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도 컸다. 부정적인 정신적 습관을 보유할 확률은 여성이 20.4%로 남성(17.8%)보다 컸다. <br/> <br/>독거노인인 경우는 25.4%로 동거자가 있는 경우(16.6%)보다 컸다. 이는 노인의 4분의 1가량이 독거노인인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1인 가구는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 비만율의 위험이 증가할 뿐 아니라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다. 또한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정신건강상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br/> <br/>소득 수준이 월 100만원 미만인 경우(27.7%)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15.%)보다 부정적인 정신적 습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21.9%)와 고졸 이상인 경우(11.4%)를 비교해도 마찬가지였다. <br/> <br/>노년기의 사회적·개인적 불안 요소 속에서 질병, 죽음, 빈곤, 차별, 배제, 약화 등의 부정적 단어들을 쉽게 떠올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년기에는 오랜 삶에서 체화된 부정적 사고가 더해지기 마련이다. 부정적인 정신적 습관은 반복적인 특징으로 인해 악화하는 경향이 큰 만큼 노인의 정신적 노화에 대해 생물학적 노화만큼이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br/> <br/>보고서는 “부정적인 정신적 습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노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 나아가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정신적 습관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r/> <br/>정신적 습관은 음주, 신체활동, 수면 등 생활습관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과식, 수면 부족 등 불건강 행태를 보이게 된다. <br/> <br/>무망,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 자기 도피 습관이 강한 노인들은 생활습관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알코올중독 등 위험 수준의 음주 습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노인들 중 위의 정신적 습관을 가진 경우는 24.5%로 정상군 15.6%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최근 3개월 동안 잠을 잘 이루지 못한 날이 주 1~2회 이상으로 빈번할 노인들을 살펴보면 28.9%가 무망 등의 정신적 습관을 보유한 반면, 월 1~2회로 드물게 있거나 없는 경우의 습관 보유율은 16.9% 수준으로 낮았다. <br/> <br/>정신적 영향은 식습관과도 연계된다. 아침 식사를 꼭 하지 않는 경우(38.9%), 폭식을 자주 하는 경우(26.8%), 육류, 생선, 채소를 골고루 먹지 않는 경우(30.2%), 혼자서 술을 자주 마시는 경우(27.0%) 부정적인 습관 보유율이 높았다. <br/> <br/>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부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정신적 습관은 스스로 인식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span>”며 “<span class='quot0'>생활 습관과 정신적 습관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하는 정책적 관점이 필요하다</span>”고 밝혔다. <br/> <br/>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49.txt

제목: 투병하던 엄마 떠올리며 ‘유방암 진단 브라’ 만든 소년 발명가  
날짜: 20170505  
기자: 뉴스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05105637001  
ID: 01100701.20170505105637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훌리안 리오스 칸투(오른쪽에서 세번째)와 그의 팀. 사진=하지아 테크놀로지 한 소년이 유방암과 싸운 엄마를 위해 ‘유방암 진단 브래지어’를 발명해 화제가 됐다. <br/> <br/>지난 3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는 암투병을 하던 엄마를 떠올리며 유방암 진단 브래지어를 발명해 ‘국제 학생 기업가상’을 수상한 멕시코 소년의 사연을 소개했다. <br/> <br/>훌리안 리오스 칸투(18)는 친구 3명과 함께 창업한 하지아 테크놀로지에서 유방암 투병생활을 하던 엄마를 위해 자동으로 유방암 진단이 가능한 EVA라는 브라를 개발한 것.  <br/> <br/> 하지아 테크놀로지가 발명한 EVA브라. 사진=하지아 테크놀로지 <br/>EVA 브라에는 200개의 센서가 달려있어 유방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다. 이 센서에는 유방 표면을 모니터링해 유방의 모양, 온도 등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하지아 테크놀로지 측은 “유방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혈관이 생성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감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혈관이 생기면 혈류가 증가하고 이것이 체온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를 감지해 암이 생겼다는 신호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br/> <br/>메트로는 “<span class='quot0'>멕시코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당국에서는 30분마다 한 명이 유방암 진단을 받는다고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EVA 브라는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span>”이라고 전했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50.txt

제목: 공군 8전투비행단, 헌혈증 5000장 기부  
날짜: 20170504  
기자: 박수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04193909001  
ID: 01100701.20170504193909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지난 5년간 모은 헌혈증 5000장을 강원도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전달한 공군 제8전투비행단 장병이 4일 손에 헌혈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br/>공군 제공공군은 강원 원주 소재 제8전투비행단 장병이 헌혈증 5000장을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헌혈증은 제8전투비행단 장병이 5년 동안 모은 것으로, 중환자 250여명을 살릴 수 있는 혈액 약 200만㏄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장병이 기부한 헌혈증은 원주 지역 저소득 계층의 암, 백혈병 등 고위험 질병 수술과 치료에 쓰일 예정이다. 장병들을 대표해 헌혈증을 전달한 제8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장 김미정 소령은 “<span class='quot0'>5000장의 헌혈증은 장병의 작은 실천이 모여 만들어낸 값진 결과</span>”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생명 나눔 활동을 적극 실천하겠다</span>”고 말했다. 제8전투비행단은 최근 4년 동안 1만6132명의 장병이 헌혈에 참여했다. <br/> <br/>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51.txt

제목: [미세먼지 후폭풍] 대한민국은 폐렴 공화국?  
날짜: 20170504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04092720001  
ID: 01100701.20170504092720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br/> <br/>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대기오염이 심각한 국가 대열에 합류한 가운데, 호흡기 건강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br/> <br/>최근 전세계의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해 보여주는 에어비주얼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서울의 대기오염지수가 최고 2위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br/> <br/>이처럼 갈수록 뿌옇게 변하는 하늘에 대표적인 호흡기질환인 폐렴의 위협이 한층 심각해지면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위험군(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br/> <br/>◆韓 공기 세계 하위권 불명예…호흡기 질환 사망 위협 '高高' <br/> <br/>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위험 정도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br/> <br/>4일 미국 예일 대학교의 ‘2016년 환경평가지수(EPI)’에 따르면 한국의 공기청정도는 100점 만점 중 45.51점으로,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차지하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더욱이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174위(100점 만점 중 33.46점)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br/> <br/> 대기오염은 호흡기 건강 악화는 물론 사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br/> <br/>실제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가 기관지 등에 쌓여 가래, 기침 등을 유발하고 기관지 점막을 건조시켜 세균성 질환을 일으키며, 암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br/> <br/>◆호흡기질환 폐렴, 고령자·만성질환자 '빨간불' <br/> <br/>실제 공기 질 저하로 인한 호흡기 계통 질환의 심각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br/> <br/>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60년 한국에서 100만명당 1109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br/> <br/>이는 2010년(359명)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br/> <br/>특히 대표적인 호흡기질환인 폐렴의 경우 2015년 사망원인 4위애 올라 2005년(10위)과 비교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사망원인으로 꼽혔다. <br/> <br/>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5년 출생자가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7.6%, 여자 7.1%로 2005년 출생자(남녀 모두 0.9%)와 비교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최천웅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요즘처럼 대기 환경의 오염이 심각한 시기엔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러면서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증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후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br/> <br/>이같은 폐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진 폐렴구균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성인에서 접종 가능한 폐렴구균 백신은 '23가 다당질백신'과 '13가 단백접합백신'이 있으며, 개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에 따라 백신의 종류와 접종 스케줄을 고려해야 한다. <br/> <br/>◆폐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br/> <br/>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경우 폐렴에 더욱 취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br/> <br/> 앞서 대한감염학회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13가 단백접합백신 혹은 23가 다당질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br/> <br/>최 교수는 “<span class='quot1'>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연령 및 만성질환의 유무에 따라 접종 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접종 전 전문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백신의 종류와 접종 스케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52.txt

제목: [사이언스프리즘] 어린이에 더 치명적인 환경호르몬  
날짜: 20170503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03213401001  
ID: 01100701.20170503213401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1999년 5월 유럽연합(EU)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벨기에 정부는 축산업계가 공급한 닭 사료가 다이옥신에 오염된 것을 알았음에도 4개월이 지나서야 인정한 후 리콜 조치해 달걀, 닭고기, 가축사료를 수입했던 나라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된 것이다. 이후 벨기에는 40년 이상 장기 집권하던 정부가 바뀌었다. 이 일을 벨기에 다이옥신 파동이라고 부른다. <br/> <br/>다이옥신은 맹독성 환경호르몬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특별히 관리하도록 돼 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단어인 환경호르몬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이다. 호르몬은 생체 내에서 합성돼 생체 내분비계의 세포 간 신호전달을 담당하는 물질로 성장과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슐린이다. 환경호르몬은 일본 언론에서 만든 단어로 생활환경 속에서 만들어져 소량으로도 내분비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화합물을 지칭하며, 내분비계 교란물질로도 불린다. 이 환경호르몬은 과학기술 발전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화합물로 생체 내에 들어오면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주게 되는 해로운 물질이다. <br/> <br/> <br/> 전승준 고려대 교수·물리화학특히 환경호르몬을 배출시키는 플라스틱류는 지난 200년간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비닐봉지, 집 구조재료, 옷, 가구, 어린이 장난감 등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상당수의 물질이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은 소각 과정에서 부산물로 다이옥신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다이옥신은 플라스틱 등 고분자화합물이 소각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목초지나 토양을 오염시키는데 그 토양에서 자란 곡물을 먹은 가축이 오염되는 것이다. 다이옥신은 한 종류의 화합물이 아니라 다이옥신이라 불리는 산소를 가진 육각 고리구조를 골격으로 한 다이옥신유도체 화합물을 통칭하며 여러 과정에서도 분해되지 않고 결국 인체에 유입돼 생체 내 축적되면서 내분비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 <br/> <br/>내분비계는 생물의 성장과 성적 특징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플라스틱을 만들 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계열의 화합물은 생식계와 뇌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킨다. 프탈레이트 계열의 화합물은 어린이 장난감을 만드는 플라스틱 재료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발육과 두뇌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성조숙증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플라스틱에 뜨거운 음식물을 담는다거나 비닐 랩을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환경호르몬이 녹아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환경호르몬이 아기 장난감의 플라스틱에 포함돼 있으면 아기가 그 장난감을 입으로 빨 때 소량 녹아나와 아기 몸에 축적돼 성장과정에서 지능을 떨어뜨린다는 임상결과가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바도 있다. <br/> <br/>한마디로 높은 농도로 생명체에 단시간 내 해를 입히는 독극물과 달리 환경호르몬은 상당히 낮은 농도로 장시간에 걸쳐 해로운 효과가 나타나는 물질이다. 이로 인해 아직 환경호르몬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물질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 2012년 WHO와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800여종의 화합물이 내분비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환경호르몬일 가능성이 있으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시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환경호르몬은 일반 사람에게도 해롭지만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에게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큰 문제이다. 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면 동물의 암수가 바뀌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어린 여학생이 성조숙증을 보이는 것도 그 원인이 환경호르몬일 가능성이 크다. <br/> <br/>환경호르몬은 생식기능 저하와 면역계 장애를 일으키고 유전적 돌연변이와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와 환경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세계기구와 긴밀한 협조를 해 문제 발견 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br/> <br/>전승준 고려대 교수·물리화학

언론사: 세계일보-2-353.txt

제목: [마이머니 단신] 질병보장·노후 건강관리자금 동시 해결 외  
날짜: 20170503  
기자: 김라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503031253001  
ID: 01100701.20170503031253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질병보장·노후 건강관리자금 동시 해결 <br/> <br/>NH농협생명이 주요 질병보장과 노후 건강관리 자금에 대한 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환급받는NH건강보험(보장성·무배당)(사진)’을 출시해 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상품은 30~50대 소득기에는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소득이 없는 노후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설정한 기간 동안 매월 돌려받으면서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들은 암보장형 또는 암은 물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질환과 말기신부전증까지 골고루 보장하는 종합보장형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br/> <br/>100세까지 보험료 변동 없는 암보험 출시 <br/> <br/>한화생명이 100세까지 보험료 변동 없는 암보험 상품 ‘한화생명 100세까지 명품암보험II’(사진)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 상품이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진단 기준으로 유방암·전립선암 진단 시엔 400만원, 위암·간암 등 일반암은 2000만원, 뇌암 및 백혈병 등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정암(유방암 전립선암 직·결장암 소액암 제외) 진단 시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며 다양한 특약을 통해 각종 질병, 수술 및 입원도 보장받을 수 있다.가입 가능 연령은 15~60세다. <br/> <br/>고연령·유병자 전용 건강보험 선보여 <br/> <br/>삼성생명이 고연령·유병자 전용 건강보험인 ‘간편가입 보장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재해로 인한 사망과 다양한 특약을 통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주요 질병의 수술, 입원 등을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여기에 계약 전에 고객이 알려야 되는 각종 건강 관련 고지 항목을 기존 9개에서 3개로 줄였고, 이 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강이나 고연령 등으로 인한 추가 진단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했다. <br/> <br/>김라윤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2-354.txt

제목: [이슈플러스] "암도 낫는 기적"…말기암 환자 울리는 '지푸라기 사기'  
날짜: 20170430  
기자: 이창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30134056001  
ID: 01100701.2017043013405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복어환 복용 뒤) 3명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을 먹어서인지 앓고 있던 암 때문인지는 알 수 없죠. 뭐 체질적으로 안 맞는 분도 있어요.” <br/> <br/>2012년부터 온라인에 ‘복어독의 신비’란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26일 검찰에 송치된 권모(62)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한 말이다. 권씨는 복어독으로 만든 ‘복어환’을 말기암이나 난치성 환자를 대상으로 100㎏(2130만원 상당)가량 팔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br/> <br/>권씨는 앞서 2010년에도 2억원 상당의 복어환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기적을 바라는 환자와 가족들의 심리를 노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br/> <br/>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환자들은 ‘혹시나’하는 마음에 복어환을 구매했다. 하지만 권씨가 이용한 테트로도톡신은 독성이 청산가리의 1000배에 달하는 맹독성 신경물질. 0.5㎎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다. 그만큼 치명적이라 임상실험이 제대로 이뤄진 적도, 의약품이 만들어진 적도 없다. <br/> <br/>권씨가 만든 복어환 역시 14알을 한 번에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했지만, 그의 지도에 따라 어떤 환자는 하루에 25알을 복용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어환을 먹은 환자들은 마비 현상과 호흡 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암환자 중엔 단기간에 종양이 더 커진 경우도 있었다. <br/> <br/>이처럼 말기암 환자나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을 노리는 이른바 ‘지푸라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식이나 고통을 강요하는 등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방식인 데다, 설령 환자가 숨지게 돼도 환자가 앓던 병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이같은 사기는 환자들에게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br/> <br/>지난 11일 대구에서는 “단식이나 관장으로 45일 만에 말기암을 고친다”며 무면허 의료시설을 운영한 A(65)씨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 30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던 A씨 부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면역치유원’으로 간판만 바꿔 달고 환자들을 받았다. <br/> <br/>A씨는 온라인에 가짜 치료수기를 올리는 등 수법으로 “45일이면 말기암 치료가 가능하다”며 홍보했고, 찾아온 환자를 상대로 본인이 독학으로 만든 치료법을 처방했다. 그는 이를 ‘특공훈련’으로 불렀다. <br/> <br/>그러나 환자들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몸에 침투한 독소를 뺀다”며 복대에 된장을 넣고 2시간을 누워있거나 냉탕과 온탕에 쉴 틈 없이 몸을 담가야 했다. 소금물이나 커피를 탄 액체만 먹고 관장도 했다. A씨는 환자들에게 벌거벗은 채로 ‘담요 둘러싸고 걷기’를 수십차례 시켰고, 식사로는 녹두 등으로 만든 효소만 먹였다. <br/> <br/>이같은 방식으로 45일 동안 진행되는 치료비용은 1065만원. ‘15일 코스’는 550만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말기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범행</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span>”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지난 2월 이 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진 5살 소아암 환자를 포함해 여러 명의 환자가 사망한 사실도 드러났다. <br/> <br/>앞서 2015년에도 ‘하루 청양고추 10개 먹기’, ‘죽염 10숟갈 먹기’, ‘토끼 5마리 먹기’ 등 황당 요법으로 암환자와 자폐증 환자 24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가로챈 가짜 한의사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처럼 비슷한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손 쓸 방도가 없는 말기암 등 난치병 환자와 그 가족들이 ‘혹시나’,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민간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푸라기 사기’는 그래서 더 죄질이 나쁘다. <br/> <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난치병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노리는 사기가 많지만 실제로 효과를 보는 경우는 드물다</span>”며 “<span class='quot0'>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의약품 등은 환자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한다</span>”고 당부했다. <br/> <br/>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55.txt

제목: [일상톡톡 플러스] "안 털어도 미세먼지 수북한 대한민국?"  
날짜: 20170429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29130241001  
ID: 01100701.20170429130241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국내 미세먼지 기준 현실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단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원인 자체를 원천봉쇄해야 한다."(20대 대학생 A씨) <br/> <br/>"대기오염이 이렇게 심해질 때까지 도대체 정부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 중국에서 미세먼지 유입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요샌 창문 열어 환기시키는 것도 겁난다."(30대 주부 B씨) <br/> <br/>"사시사철 너무나도 당연했던 맑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게 이젠 어려워졌다. 숨 막히고 답답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서글프다."(40대 자영업자 C씨) 공식적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는 발령되지 않았지만 하늘이 뿌연 경우가 더러 있다. <br/> <br/>일반인들이 느끼기에 공기의 질이 나쁜데, 미세먼지 주의보는 발령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br/> <br/>29일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전국의 올해 1∼3월 미세먼지 농도는 32㎍/㎥로, 2015∼2016년 같은 기간(30㎍/㎥)에 비해 2㎍/㎥ 높아졌다. <br/> <br/>미세먼지 농도 '나쁨'(81∼150㎍/㎥) 발생 일수는 8일로 2015년 동기와 같았지만, 지난해(4일) 보다 2배로 늘어났다. <br/> <br/>올해 1∼3월 국내 39개 권역을 합산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횟수는 86회로, 2015년(55회)과 지난해(48회)에 비해 31∼38회 급증했다. <br/> <br/>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기 질은 더욱 좋지 않다. <br/> <br/>환경부 분석 결과와는 무관하게 야외활동에 제약이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빴던 날이 더 많았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br/> <br/>미세먼지 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수시로 확인하는 국민이 많아진 것도 이런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다. <br/> <br/>◆"정부 못 믿겠다"…사설 미세먼지 정보 앱 설치, 수시로 체크하는 이들 늘어나 <br/> <br/>이는 정부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준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세먼지(PM10)가 시간 평균 농도 150㎍/㎥를 넘겨 2시간 이상 지속하면 주의보가 발령된다. 300㎍/㎥를 넘겨 2시간 이상 지속할 때는 경보를 발령한다. <br/> <br/>현재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라고 해도 최고치인 150㎍/㎥를 2시간 이상 넘기지 않으면 주의보가 없다는 얘기다. <br/> <br/>이 때문에 국민이 대기 질 상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체계를 포함한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br/> <br/> 국내 미세먼지 관리 기준 자체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은 물론 주요국가 기준보다 더 허술하기 때문. <br/> <br/>전문가들은 한국이 채택한 미세먼지(PM10) 관리 기준 '48㎍/㎥'을 WHO 권고 기준인 '30㎍/㎥'으로 상향하고, 전국적으로 관리 대책을 강화하면,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 2∼11%나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br/> <br/>◆실내공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호흡기질환 걸릴 가능성 '高高' <br/> <br/>이런 가운데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 환기조차 꺼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br/> <br/>하지만 실내 공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포름알데히드·곰팡이 등으로 인해 호흡기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되레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br/> <br/>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등 실내에서 흔히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는 독성이 매우 강하며, 공기 중 농도가 높을 경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br/> <br/> 지난 2일 오후 서울 광화문과장에서 열린 '초미세먼지 위험성 알리기 캠페인'에서 아이와 함께 참석한 미세먼지대책촉구 네이버카페 모임 회원이 아이의 코를 풀어주고 있다.포름알데히드는 건물을 지을 때 쓰이는 접착제나 가구 도색제 등에서 방출되는 경우가 많다. 농도 0.1ppm 이하의 포름알데히드에 장시간 노출되면 눈·코·목에 자극이 오며, 농도가 0.25∼0.5ppm 수준이면 호흡기장애 환자나 천식 환자는 심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50ppm에 이르면 건강한 사람에게도 폐의 염증과 함께 현기증·구토·설사·경련 등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br/> <br/>곰팡이도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집이 오래됐거나 습기가 잘 차면 집안 어디든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실내 습도가 60% 이상인 주택은 그보다 습도가 낮은 주택보다 곰팡이가 2.7배 많다는 연구도 있다. 공기 중 곰팡이 포자는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민감한 사람에게 코 막힘, 눈 가려움증, 호흡 곤란, 피부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다. <br/> <br/>◆실내공기 오염에 따른 연간 사망자수 430만명 육박 <br/> <br/>WHO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실내공기 오염에 따른 연간 사망자 수는 약 430만명으로, 실외공기 오염으로 사망한 인원(약 370만명)보다 오히려 더 많다. <br/> <br/>전문가들은 호흡기 면역 체계가 약한 영유아·노약자·임산부나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암 환자가 집에 있으면 실내공기 질 관리와 환기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br/> <br/> 황사 등으로 인해 하늘이 뿌옇게 흐린 날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을 돌며 체육수업을 하고 있다.다시 말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땐 외출을 삼가고 창문만 닫고 지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밀폐된 공간에 포름알데히드·곰팡이와 같은 오염물질이 쌓이면 오히려 실외보다 실내에서 호흡기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br/> <br/>날씨가 좋고 미세먼지 수치가 낮은 날에는 대기 순환이 잘되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사이에 맞바람이 들어오도록 5∼20㎝ 폭으로 창문을 열고 반드시 환기를 해야하고, 에어컨·가습기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실내 습도를 40∼60% 이하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56.txt

제목: “노화세포 제거해 퇴행성 질환 치료”  
날짜: 20170427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27032336001  
ID: 01100701.2017042703233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인간의 무병장수를 실현할 수 있는 신기술과 약물이 개발됐다. <br/> <br/>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는 자연과학부 화학과 김채규(65·사진) 연구교수가 국제 연구진과 공동으로 노화세포를 제거해 퇴행성 관절염을 완화하는 기술과 후보 약물을 개발해 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 24일자 온라인판에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인체 속에 축적된 노화세포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면 몇 가지 퇴행성 질병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 생쥐를 이용해 노화세포를 제거하면 생체 재생 능력이 회복된다는 것을 밝혀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연구진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나온 노화세포를 배양하고 다양한 약물을 투여해 성능을 평가했다. 그 결과 노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후보물질(UBX0101)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br/> <br/>이 물질의 효과는 유전자변형 생쥐로 확인했다. 김 교수는 연구진이 수술로 생쥐에 퇴행성 관절염을 발생시킨 다음 후보 물질을 투여하자 노화세포가 없어졌고, 생쥐의 퇴행성 관절염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향후 임상시험에서 약물 안전성과 효율성을 지켜봐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연구 결과는 암과 치매, 당뇨병과 같은 다양한 노인성 질환에 적용할 수 있어 인류의 꿈인 무병장수에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 가능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이번 연구에는 김 교수와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전옥희 박사가 주저자로 참여했다. 책임저자인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제니퍼 엘리세프 교수 외에도 미국 메이요 클리닉의 얀 벤더슨, 미국 벅 연구소의 주디 캠피지 교수가 연구에 참여했다. <br/> <br/>울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57.txt

제목: "복어 독으로 말기 암 치료"…무허가 제조업자 적발  
날짜: 20170426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26193900001  
ID: 01100701.20170426193900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복어 독에 든 신비한 효능으로 암도 나을 수 있습니다. 뭐 체질적으로 안 맞아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br/> <br/>암 환자에게 맹독성 복어환을 제조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간절하게 기적을 바라며 물불을 가리지 않는 환자와 가족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br/> <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복어 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든 복어환을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권모(62)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r/> <br/>조사 결과 권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에 ‘복어독의 신비’라는 카페를 개설한 뒤 암환자 등 난치성 환자를 대상으로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30명에게 100㎏(213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주로 들어 있는 맹독성 신경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KCN·사이안화칼륨)의 1000배에 달해 성인은 0.5㎎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다. 권씨가 제조한 복어환에서는 1개(0.8ｇ)당 테트로도톡신 0.0351㎎이 검출됐다. 14개를 한 번에 복용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셈이다. <br/> <br/>권씨는 조사 과정에서 “<span class='quot0'>(복어환을)복용 뒤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암 때문인지 복어환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span>”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복어환 구매자가 한 알을 복용한 지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하며 복용량을 늘려가도록 지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자에 따라 하루에 스물다섯 알까지 복용한 경우도 있었다. <br/> <br/>권씨는 2010년에도 2억원 상당의 복어환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형을 마치자마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br/> <br/>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복어 독은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임상실험이 제대로 이뤄진 적도, 의약품이 만들어진 적도 없다</span>”고 주의를 당부했다. <br/> <br/>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58.txt

제목: 항암제 품은 정자 이용 여성 자궁암 치료길  
날짜: 201704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26193552002  
ID: 01100701.20170426193552002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여성 자궁에 암이 생기면 항암제를 옮기는 정자를 이용해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br/> <br/>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독일 드레스덴 통합나노과학연구소(IIN)는 정자를 ‘유도 미사일’로 활용한 새로운 자궁암·난소암 치료법 시험에 성공했다. 정자가 인체에서 면역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체내 깊숙한 곳의 난자를 정확히 찾아가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정자는 긴 꼬리 편모를 이용, 강력한 추진력으로 나팔관에 들어간 뒤 난자 막을 뚫고 들어가는 성질도 있다. <br/> <br/>IIN 연구팀은 항암제 액에 정자를 담가 약물을 흡수토록 했다. 이 약물은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효소를 차단해 암세포를 말려 죽인다. 정자 머리 부분은 철분 용액으로 코팅된 ‘금속 투구’로 덮었다. 이를 질 속에 주입하면 약을 품은 정자가 자궁경관 방향으로 나아간다. 초음파 영상으로 이를 관찰하면서 자기장을 이용해 정자의 방향과 움직임을 조종, 암세포가 있는 부위로 유도한다. 암세포에 도달한 정자는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 약물을 분사하게 된다. IIN 연구팀은 5년 안에 정자를 이용한 난소암·자궁암 치료법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r/> <br/>이상혁 선임기자 nex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59.txt

제목: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놓치지 마세요  
날짜: 20170425  
기자: 이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25193939001  
ID: 01100701.20170425193939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대상인 2004년생 여성청소년 10명 중 5명가량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 <br/> <br/>질병관리본부는 2004년에 태어난 여성청소년 22만8000명의 46.6%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1차 접종 기준)을 맞았다고 25일 밝혔다. <br/> <br/>지역별로 전남 곡성군의 접종률이 86.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남 신안군(79.7%), 강원 양양군(79.2%), 충북 단양군(75.9%), 경북 군위군(71.4%) 등의 순이었다. 곡성군에서 보건당국과 교육청이 협업체계를 갖추고 학생들에게 접종을 독려한 결과다. 제주 서귀포(동부) 28.9%를 비롯해 경북 영덕군(29.9%), 경남 거창군(30.2%), 전북 정읍시(31.4%) 등의 접종률이 낮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다. 자궁경부암은 자궁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백신으로 예방 가능하다. 국내에서 매년 900여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br/> <br/>지난해에는 2003∼2004년 출생 여성청소년이 1차 접종 대상이었고 올해는 2004∼2005년생이 대상이다. 1차 접종을 맞은 청소년은 6개월 뒤 2차 접종을 하면 된다. 만 13세까지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는 2회 예방접종만으로 효과가 충분하지만 만 14세 이후에 접종하면 3회 이상 맞아야 한다. 1회당 비용이 15만∼18만원으로 비싼 편이어서 예방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좋다. <br/> <br/>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암 예방 효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데다 지난해 부작용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면서 접종률이 50% 정도에 그쳤다</span>”며 “<span class='quot0'>올해는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접종률을 70% 이상으로 높이겠다</span>”고 밝혔다. <br/> <br/>이현미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2-360.txt

제목: 선심성 공약 → 돈 없어 축소… ‘연금파동’ 불러  
날짜: 20170424  
기자: 이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24192828001  
ID: 01100701.20170424192828001  
카테고리: 정치>정치일반  
본문: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인데 기초연금은 월 30만원.’ 주요 대선후보들이 내건 아동, 노인에 대한 현금성 복지공약이다.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 수준에서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점에서 증액되는 금액은 같다. <br/> <br/>또 둘 다 사회보험이 아닌 100% 세금을 기반으로 고안된 제도다. 그러나 실제 집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차이는 투표권 행사 여부와 밀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때마다 각 당과 후보들이 노인 유권자를 노린 선심성 공약을 앞다퉈 내놓은 배경이다. <br/> <br/>역대 대선에서도 그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 공약을 비롯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65세 이상 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노인 일자리 연간 5만개씩 창출 등을 내걸었다. <br/> <br/>하지만 마땅한 재원 없이 풀어 놓은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었다. 기초연금은 대상을 모든 노인에서 소득하위 70%로 좁혔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일부에게 적은 돈을 주는 감액제도를 도입했다. 또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준 뒤 이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생계비를 연금 액수만큼 깎으며 ‘줬다 뺏는 돈’이라는 원성을 샀다. <br/> <br/>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대폭 후퇴했다. 선거 때는 건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을 모두 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집권 후 상당 수 비급여 항목이 제외됐다. 상급병실료 부담은 완화됐으나 일부 항암제는 여전히 건보 적용이 안 되고 있다. 간호인력 확충 또한 부진해 간병비 부담도 여전히 높은 상태다. 70세 이상이 대상이었던 틀니·임플란트 건보 적용은 지난해부터 65세 이하로 연령이 낮춰졌다. <br/> <br/>현재 대선후보들도 대동소이한 노인 공약을 내걸고 있다. 틀니·임플란트 적용 대상은 본인부담률을 줄여주기로 했고, 월 3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 지급도 공통으로 내걸었다. 세대별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노인층의 지지표를 어떻게든 끌어모으겠다는 계산에서다. <br/> <br/>지난 대선 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 박 전 대통령을 크게 앞서고도 선거에서 패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유권자 수가 더 많은 50, 60대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br/> <br/>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령대별 유권자 규모는 20대 675만명, 30대 753만명, 40대 879만명, 50대 842만명, 60대 이상 1112만명이다. 60대 이상은 유권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투표율도 높다. 2012년 대선의 연령별 투표율은 60대 이상이 81%로 20대(69%)보다 12%포인트나 높았다. 30대는 70%, 40대 75%, 50대 82%였다. <br/> <br/>이현미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2-361.txt

제목: 화관과 드레스로 '아름다운 죽음'…소원 이룬 여성  
날짜: 20170424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24101622001  
ID: 01100701.20170424101622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암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필리핀의 한 여성이 ‘아름답게 죽고 싶다’던 소원을 이룬 사연이 공개돼 보는 이의 가슴을 짠하게 하고 있다. <br/> <br/>지난 2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필리핀 민다나오 섬 다바오(Davao city)에 사는 라씨네 프레군타(20)는 골육종(osteosarcoma)과 싸우다 최근 세상을 떠났다. <br/> <br/>골육종은 과거 어떤 질환으로 인해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암이 잘 발생하는 특정 질환 증후군이 있는 경우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팔, 다리, 골반 등 발병 부위가 다양하지만, 주로 무릎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암이 있는 부위가 아프거나 붓는 것이 흔한 증상이다. <br/> <br/>라씨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 아름답게 죽고 싶다는 것이다. <br/> 골육종(osteosarcoma)과 싸우다 최근 세상을 떠난 라씨네 프레군타(20)는 아름답게 죽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다. 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br/>유명하지는 않지만 몇 차례 모델 활동을 했던 라씨네는 생의 마지막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에 자기가 관에 들어가면 머리에는 화관을 씌워주고, 새하얀 드레스를 입게 달라는 말을 가족에게 했다고 라씨네의 여동생 롤린은 밝혔다. <br/> <br/>롤린이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사진 속 라씨네는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다. 죽음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느낌이다. <br/> 골육종(osteosarcoma)과 싸우다 최근 세상을 떠난 라씨네 프레군타(20)는 아름답게 죽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다. 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br/>라씨네는 지난해 필리핀에서 개봉한 영화 ‘다이 뷰티풀(Die beautiful)’에서 아름다운 죽음에 관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화는 미인대회 우승 순간 사망한 어느 성전환자 여성의 이야기를 다뤘다. <br/> <br/>롤린은 “<span class='quot0'>언니의 소원이 드디어 이뤄졌다</span>”며 “<span class='quot0'>하늘로 날아가는 그의 마지막 뒷모습을 가족들이 지켜봤다</span>”고 페이스북에서 말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62.txt

제목: [마이머니 단신] 참좋은 우리아이보험, 산모 보장도 강화 외  
날짜: 20170424  
기자: 조남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24030518001  
ID: 01100701.20170424030518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참좋은 우리아이보험, 산모 보장도 강화 <br/> <br/>동부화재가 아토피(중증)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영유아기 자녀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뿐만 아니라 산모가 겪을 수 있는 임신중독증, 여성산과 관련 자궁적출 수술까지 보장하는 동부화재 ‘참좋은 우리아이보험’(사진)을 6일 출시해 판매 중이다. 아토피진단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고객은 아토피 진단을 받을 경우 최대 30만원을 지급받고, ADHD진단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고객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ADHD를 진단받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산모 보장도 강화해 임신중독증(자간포함) 진단비,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여성산과 관련 자궁적출 수술비 담보를 새롭게 도입해 임신·출산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보험은 ‘미래보장가입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성인이 된 자녀가 기존에 가입했던 주요 담보를 30세부터 신규 가입 없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br/> <br/>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헬스케어로 차별화 <br/> <br/>현대해상이 어린이전용 보험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을 출시해 21일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한 후 판매 중이다.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은 자녀의 발열 관리와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우리아이 아파요)를 제공해 타사와 차별화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영·유아의 발열 상태와 증상 등에 따라 맞춤형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발열 관리 프로그램과 이를 통해 집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전국 시·구·동 단위로 발열 현황 정보를 열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예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자녀의 키와 몸무게 등 성장 정보를 모니터링해주는 ‘무럭무럭 자라요’ 서비스와 건강·육아 상담, 병원 및 검진 안내·예약 대행 등을 제공하는 ‘어린이메디케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자녀의 종합적인 헬스케어가 가능하도록 했다. <br/> <br/>온라인우리아이플러스, 보장폭 넓어 호응 <br/> <br/>흥국생명 ‘온라인우리아이플러스보장보험’이 기존 대면채널 어린이보험의 장점을 이어받아 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상품은 각종 질병, 재해, 암 진단, 수술, 입원 등 폭넓을 보장을 하는 동시에 오프라인 보험 대비 평균 20~30% 저렴하게 설계돼 있다. 또 100세 만기로 가입할 수 있고 중대질병 중심으로 보장하는 기본형과 종합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언론사: 세계일보-2-363.txt

제목: 천연색소 물질 이용해 암세포만 골라 죽인다  
날짜: 20170423  
기자: 박찬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23201805001  
ID: 01100701.20170423201805001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고신대복음병원 이비인후과 김성원(사진) 교수는 천연색소 물질인 ‘아스타잔틴’을 이용하는 안전한 암 광열치료법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br/> <br/>기존 광열치료는 광열 소재에 레이저를 쪼여 발생한 열로 암세포를 태워 죽이는 치료법이다. 수술이나 항암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 차세대 치료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암 부위에 열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장기에 독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임상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br/> <br/>그러나 해양 미세 조류나 갑각류 등에서 나오는 천연 색소 물질인 아스타잔틴은 선택적으로 빛을 흡수해 열을 발생시키고, 이 열이 정상 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부경대 의공학과 강현욱 교수와 공동으로 아스타잔틴을 이용한 동물연구에 성공했다. <br/> <br/>실험동물의 종양 조직에 아스타잔틴을 투입한 뒤 빛을 쪼인 결과 암 조직이 괴사했고 주변 장기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2-364.txt

제목: 朴, 최순실 언니 통해 崔 입국 종용· 윤전추 통해 최순득 전화받아  
날짜: 20170421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21160021001  
ID: 01100701.20170421160021001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커졌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언니인 순득씨를 통해 유럽에 있던 최씨의 입국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득씨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br/> <br/>이 조서는 최씨가 지난해 10월 30일 급거 귀국한 배경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br/> <br/>최순득씨 진술에 따르면 최순실씨 귀국 나흘 전인 10월 26일 딸 장시호씨가 전화를 걸어 "이모(최순실) 유언장을 찾았다. 이모가 자살한다고 한다"면서 "이모가 이사장님(박 전 대통령)과 연락이 안 된다면서 나한테 '윤 대통령 비서'(윤전추 행정관 추정)에게 전화해 보라는데 내가 전화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r/> <br/>장시호씨는 "<span class='quot0'>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이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을 수 있으니 윤 비서를 통해 이사장님과 통화해줬으면 좋겠다</span>"며 전화번호 몇 개를 불러줬다고 한다. <br/> <br/>이에 순득씨는 "나는 이 양반(대통령)과 몇년 간 통화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고 했지만 장씨가 "이모가 자살할 것 같다"며 다급히 말해 장씨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br/> <br/>순득씨가 처음 윤 비서에게 "(최순실) 언니입니다. 혹시 (대통령과) 통화가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윤 비서는 "제가 지금 외부에 있고, 대통령님과 함께 있지 않다. 한 20분 후에 통화가 될 것 같다. 그때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다. <br/> <br/>20여분 뒤 순득씨가 다시 전화하자 윤 비서가 "잠시만 기다리시라"며 박 전 대통령을 바꿔줬다고 한다. <br/> <br/>순득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일로 전화를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우선 사과했다고 한다. <br/> <br/>이에 박 전 대통령은 "글쎄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네요"라며 순득씨의 안부를 물었다는 것. <br/> <br/>순득씨가 자신의 암 수술 얘기 등 근황을 전하자 박 전 대통령은 "그러셨느냐. 수술하시고 힘드셨겠네요"라고 말했다. <br/> <br/>이어 순득씨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실이 제 딸에게 대통령께 전화드려 보라고 시켰는데, 제 딸이 직접 전화드릴 수 없어 제가 전화드렸다"고 했다. <br/> <br/>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순실씨와 직접 통화하셨나요"라고 물었고, "직접 통화한 게 아니다"라고 하자 "<span class='quot1'>본인(최순실)이 일단 한국에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span>"라고 말했다고 했다. <br/> <br/>순득씨가 "언니 입장에서 동생을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자 박 전 대통령은 거듭 "본인이 한국에 일단 들어와야 해결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br/> <br/>이후 박 전 대통령은 "아는 변호사가 있느냐"고 물었고, 순득씨는 "동생이 이혼할 때 담당했던 변호사가 도와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어디인가 있다고 합니다"라고 답했다. <br/> <br/>순득씨는 "대통령께서 제게 두 번이나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하셔서 그 말씀듣고 동생이 꼭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구나 생각했다"면서 "그 후에는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65.txt

제목: 노인 암환자 "가족과 의사소통, 짐될까 걱정"  
날짜: 20170420  
기자: 정진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20113505001  
ID: 01100701.20170420113505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노인 암환자의 3명 중 1명은 가족에 짐이 될까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국립암센터 박기호 암정책지원과장과 삼성서울병원 신동욱 교수, 국립정신건강센터 구애진 전문의 연구팀이 전국 10개 병원에서 2014년에 치료받은 60세 이상의 위암, 대장암, 폐암 환자 4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중복응답 가능)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 결과 노인 환자의 45%가 가족과 병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0%는 인생의 목적, 30%는 가족에 짐이 될 것을 고민했다. 주변 사람에 대한 걱정(25%), 미래에 대한 걱정(25%), 거동장애(20%), 관절 경직 문제(15%) 등을 호소하는 환자도 많았다. 특히, 병기가 높을수록 주변 사람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며, 거동 장애가 있을수록 질병에 대한 부담감이 높고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박기호 암정책지원과장은 “<span class='quot0'>노인 암환자가 겪는 삶의 질 문제는 분명 젊은 성인과 다른데,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삶의 질 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가 통합적 지지의료 측면에서 노인 암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규명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연구팀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암환자 대상의 한국어판 삶의 질 척도’를 개발했다. <br/> <br/>이번 연구성과는 노인종양학회지(Journal of Geriatric Onc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 <br/> <br/>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66.txt

제목: [사이언스프리즘] 악성 암 극복의 희망, 면역세포치료  
날짜: 20170420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20022110002  
ID: 01100701.20170420022110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얼마 전 탤런트 김영애씨가 유명을 달리했다. 치료가 어렵다는 췌장암이 사인이었다.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파로티, 영화 ‘사랑과 영혼’의 주인공 패트릭 스웨이지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검진과 치료기술 발전 덕택에 다양한 암 종에서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좋아지고 있지만, 유일하게도 췌장암만큼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5년 생존율이 10% 내외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일단 췌장암으로 진단되면 90% 이상의 환자가 1년 이내에 사망한다. 진단이 곧 사망선고인 셈이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췌장암 진료는 2012년 1만2829명에서 2016년 1만6249명으로 4년 동안 27%나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질병 치료에 쓰인 비용도 췌장암은 증가율 측면에서 25.9%로 암 중에서 3위다. 췌장암은 40대에서도 발병할 수는 있으나 통상 60~70대의 고령층에서 일반적이다. <br/> <br/> 설대우 중앙대 교수· 분자세포병리학이렇게 악성인 췌장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다양한 치료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심각한 자각증상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험군이라고 분류할 만한 그룹도 딱히 없다. 그러니 일단 발견되면 중기를 지난 3~4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췌장 주위에는 중요한 장기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 대동맥 등 혈관도 많은 데다가 췌장을 감싸고 있는 막도 없어서 암세포가 쉽게 복강으로 침투해 이웃 장기로 전이하기 쉽다. 전이되면 수술이 어렵고 화학항암요법 등을 사용해도 효과가 제한적이다. <br/> <br/>이런 상황에서 최근 새로운 치료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면역세포치료가 췌장암에도 적용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실시 중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면역세포치료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기술이다. 과거 초기 면역세포치료는 환자 몸에서 면역세포를 분리해 단순히 증식시키거나 활성화시킨 후 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것이었다. 반면 그보다 훨씬 발전된 지금의 면역세포치료는 분리한 T세포나 NK(자연살해)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유전공학적 기술로 완전히 새롭게 가공해 치료효과를 극대화한 다음 증식시켜 체내로 투여한다. 이렇게 가공된 면역세포치료는 혈액암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법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자 면역세포치료를 췌장암과 같은 고형 암에도 적용해 그 결과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br/> <br/>아직은 이 기술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초기단계라 효과와 부작용 등을 일차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앞서 있다. 앞으로 암세포들이 가진 다양한 암 치료제 저항성 기능을 무력화시킬 추가적 가공을 가하거나 다른 항암제와 복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더욱 뛰어난 암 치료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상황은 그렇지 못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런 방식이 암 치료에서 새로운 대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매우 광범위한 연구와 임상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도 기술적 우위 확보와 시장 선점을 위해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br/> <br/>우리나라에서 암은 지난 30년 이상 동안 사망원인 1위를 지키고 있다. 문제는 암 발생이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암 발생을 억제할 면역력의 저하와 암 발생을 촉발시키는 변이 축적 모두가 고령화되면서 증대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므로 암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암 종에서 더 좋은 치료 혜택도 누리게 될 것이다. 수명 연장으로 인해 고령층도 예전에 비해 암 치료에 훨씬 적극적이라고 한다. 암 치료에서 새 지평을 열고 있는 면역세포치료가 췌장암,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암 종들에 대해 새로운 희망이 되길 기대해 본다. <br/> <br/>설대우 중앙대 교수· 분자세포병리학

언론사: 세계일보-2-367.txt

제목: [양향자의 더 건강한 음식]딸기라 쓰고 비타민C로 읽는다  
날짜: 20170419  
기자: 송은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19180929001  
ID: 01100701.20170419180929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봄이 오면 생각나는 과일채소는 어떤 게 있을까? 대부분 상큼하고 새빨간 딸기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요즘엔 하우스 재배가 많아 어느 계절이든 딸기를 맛볼 수 있지만 누가 뭐래도 제철에 먹는 딸기가 가장 영양가가 많고 맛도 있다. <br/> <br/>딸기가 우리나라에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쯤이므로 역사가 아주 오래된 과일채소는 아니다. 딸기에는 붉은 과일에 주로 들어 있는 ‘라이코펜’이 많다. ‘라이코펜’은 과일의 붉은 부분에 들어 있는 색소의 일종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동맥경화와 심장병을 막으며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아침저녁으로 딸기주스를 마시면 암이나 동맥경화를 비롯한 성인병을 예방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딸기는 특히 과일 중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다. 딸기 100g당 80㎎이나 들어있다. 귤보다 1.5배, 사과보다는 10배가 많아 딸기를 6~7알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모두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C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조정하는 부신피질 기능을 활발하게 해 체력 증진에 아주 효과가 있다. <br/> <br/>또 하나 유용한 성분은 ‘펙틴’이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 있는 식물성 섬유질의 일종인 펙틴은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잘 익은 붉은 딸기에 특히 많다. 펙틴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없애 혈관과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고혈압을 비롯한 혈관계 질환과 노화를 막아준다.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 등 장 질환과 순환계 질환을 예방한다.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의 합성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br/> 딸기와 돌나물을 곁들인 샐러드 <br/>재료 딸기 240g, 돌나물 100g <br/>양념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6큰술, 레몬즙 2큰술, 설탕 2큰술, 발사믹식초 1큰술, 소금·후춧가루 약간 <br/>만드는 법 <br/>① 딸기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후 꼭지 부분을 자르고, 0.3㎝ 두께로 잘라 접시에 얇게 편다. <br/>② 분량의 재료를 넣고 섞어서 드레싱을 만든다.③ 잘게 뜯은 돌나물을 작은 크기로 썬 딸기와 섞은 후 드레싱과 버무린다. <br/>④ 슬라이스 한 딸기 위에 드레싱을 살짝 뿌린다. <br/>철분도 풍부해 빈혈에 시달리는 성장기 아이들이나 임산부에게 좋다. 하지만 딸기 씨는 자칫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아이에게 주는 시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r/> <br/>영양이 풍부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딸기는 과일 중에서도 당도가 높아 많이 먹으면 몸속 중성지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꾸준히 먹을 경우 하루 5~10개가 적당하다.  <br/> 딸기토르티아 <br/>재료 딸기 20개, 토르티아 4장, 청파프리카 1개, 홍파프리카 1개, 마요네즈 1큰술 <br/>만드는 법 <br/>① 깨끗이 손질한 딸기는 꼭지를 떼어 썰고, 파프리카는 채썬다. <br/>② 프라이팬에 살짝 구운 토르티아에 마요네즈를 바른다. <br/>③ ②에 ①을 올려 돌돌 말아 랩으로 감싸 완성한다. <br/>딸기를 씻을 때는 소금물로 재빠르게 헹군다. 소금 대신 식초를 탄 물에 헹궈도 좋다. 식초와 소금 모두 소독 효과가 있다. 먹기 전까지는 꼭지를 떼지 않도록 한다. 꼭지를 미리 떼면 수분이 증발한다. 딸기는 습도에 약해 밀봉해 두면 무르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므로 종이상자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금방 먹을 딸기는 꼭지를 떼지 말고 비닐 랩을 씌워 냉장고에 넣어둔다. 오래 보관하기 힘들므로 일주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br/> <br/>좋은 딸기는 과육이 단단하고 맛과 향이 진하다. 딸기를 고를 때는 먼저 꼭지를 살펴본다. 꼭지가 마르지 않고 진한 푸른색을 띠는 것이 좋다. 꼭지 부분까지 붉은색이 돌고 윤기가 흐르는 것이 잘 익은 딸기다.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씨가 심하게 튀어나온 것은 좋지 않다. 크기도 적당해야 한다. 너무 큰 딸기는 속이 비어 있고 당도가 떨어질 수 있다.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의 딸기가 가장 맛있다. <br/> <br/>(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언론사: 세계일보-2-368.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죽음 앞둔 개들의 최후 안식처…호스피스 운영하는 부부  
날짜: 20170419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19140402001  
ID: 01100701.20170419140402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갈색 눈을 가진 비글 한 마리가 힘없이 침대에 엎드렸다. 이따금 자기를 보살피러 자원봉사자들이 오갈 때마다 눈이 약간 빛나지만, 힘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이 개의 별명은 ‘사랑받는 밥(Bob)’이다. <br/> <br/>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사는 미셸 앨런과 제프 앨런 부부는 ‘몽키 하우스’라는 이름의 개를 위한 호스피스를 운영 중이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키우던 ‘몽키’라는 이름의 개를 하늘로 떠나보낸 뒤, 슬픔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놓인 개들을 보살피기로 했다. <br/> <br/>2015년 세워진 몽키 하우스에는 동물 보호소에서 옮겨진 개 20여 마리가 지내고 있다. 암과 심장병, 당뇨병 등을 앓고 있으며 보호소에서 안락사밖에 남지 않은 개들을 부부가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미셸 앨런과 제프 앨런 부부는 ‘몽키 하우스’라는 이름의 개를 위한 호스피스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심장병, 암 그리고 당뇨병 등을 앓아 보호소조차 포기한 개 20여마리가 살고 있다. 미국 CNN 영상 캡처. <br/> <br/>모든 것은 개에게 맞춰졌다. 아기용 침대가 몽키 하우스에 들어오니 개들을 위한 쉼터로 바뀌었다. 온열 장비 근처에 쭉 놓인 침대는 개들이 쉬기에 안성맞춤이다. 환한 미소로 개들을 보살피는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몽키 하우스는 늘 행복으로 넘쳐난다. <br/> <br/>미국 동물보호단체 ‘The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ASPCA)’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만 안락사당하는 개들이 67만마리 규모다. <br/> <br/>앨런 부부가 무작정 개들을 데려오는 건 아니다. 이들은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보호소에서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개들만 몽키 하우스로 들여온다. 살아가는 동안 사랑받아야 할 개들이 힘없이 죽어 나가는 게 안타깝다고 이들 부부는 말한다. <br/> <br/>전직 간호사인 미셸은 개들을 보살피기 위해 간호사 일을 했던 것 아니겠냐며 농담도 건넸다. <br/> <br/>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미셸 앨런과 제프 앨런 부부는 ‘몽키 하우스’라는 이름의 개를 위한 호스피스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심장병, 암 그리고 당뇨병 등을 앓아 보호소조차 포기한 개 20여마리가 살고 있다. 미국 CNN 영상 캡처.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미셸 앨런과 제프 앨런 부부는 ‘몽키 하우스’라는 이름의 개를 위한 호스피스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심장병, 암 그리고 당뇨병 등을 앓아 보호소조차 포기한 개 20여마리가 살고 있다. 미국 CNN 영상 캡처. <br/> <br/>심장병 앓는 개 한 마리를 보살피는 데만 매달 수천달러 드는 상황을 이들 부부는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헤쳐 나가고 있다. 어느 사료 업체는 매주 약 30kg 분량의 사료를 보내오고 있다. 두 사람을 돕는 자원봉사자만 50명이나 된다. <br/> <br/>서두에서 소개했던 ‘밥’은 CNN 취재진이 다녀간 다음날 결국 죽고 말았다. <br/> <br/>밥이 죽었다는 소식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공개되자 수많은 네티즌들이 슬픔을 함께 나눴다고 앨런 부부는 밝혔다. 적어도 밥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르게 평화로운 순간을 맞이했을 거라고 부부는 장담한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69.txt

제목: 단국대병원, 폐암 적정성평가 3회 연속 1등급  
날짜: 20170419  
기자: 김정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19031142002  
ID: 01100701.20170419031142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단국대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의 폐암환자 수술모습. 단국대천안병원 제공.단국대병원(병원장 박우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3차 폐암 적정성평가’ 결과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br/> <br/>단국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치료대응력과 전문인력 구성의 구조부문을 비롯해 진단적 평가 및 기록충실도, 수술, 전신요법, 방사선치료 부문에서 모두 100점을 획득해 폐암 진료의 질적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폐암 적정성평가가 시작된 이후 3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올렸다. <br/> <br/>이번 평가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폐암으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등을 진료한 전국 12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그 중 적정성평가 대상이 되는 폐암 진료기록이 10건 이상인 89개 기관에 대해 종합점수와 등급을 산출해 평가했다. <br/> <br/>김윤섭 단국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폐암은 암이 진행되기까지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려운 암이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좋으며, 40세 이상의 흡연자에서 만성적인 기침, 가래 배출 및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꼭 진찰을 받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70.txt

제목: [WT논평] China undermines all the environmental steps the U.S. has taken  
날짜: 20170418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18221140001  
ID: 01100701.20170418221140001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Donald Trump will not overlook Chinese industry’s subsidized, mammoth coal-fired pollution (5 billion tons of coal per year, set to double again by 2030). This cheap, toxic energy poisons the air from China to the Rockies and kills millions of people, while enabling Chinese manufacturers to kill U.S. industry and jobs. <br/> <br/>The particulate emissions from 5 billion annual tons of coal kills millions. “Particulates” are solid particles and liquid droplets of carcinogenic toxins, some less than one-thirtieth the size of a human hair, suspended in the air. These particles invade our lungs and bloodstream, resulting in birth defects, cancer, cardiovascular dysfunction and death. <br/> <br/>The Chinese people suffer the most from coal combustion and malevolent industrial dumping practices. Particulate matter in China causes 17 percent of all Chinese deaths and two birth defects a minute. Up to 70 percent of China’s farmland is contaminated and 90 percent of China’s groundwater is polluted. <br/> <br/>As particulates, heavy metals and other poisons emitted by China’s coal combustion move downwind across the East China Sea, 40 percent of Tokyo’s air pollution emanates from Chinese factories. China’s pollution travels all the way to the U.S. Rockies in as little as four days. A NASA study showed that 25-30 percent of California’s air pollution originates in China. Another study shows nearly half the air quality improvements in the western U.S. are significantly offset by invading Chinese pollution, a “cost” borne by both the U.S. public and automakers. <br/> <br/>Fair countervailing duties and border adjustments that comply with World Trade Organization rules would price the worst polluters out of the global markets they dominate today at the cost of millions of lives and American jobs. <br/> <br/> 일본과 미국까지 오염시키는 중국의 공해산업 <br/> <br/>C 보이든 그레이(EU 주재 미국 대사 역임) <br/> <br/>도널드 트럼프는 보조금을 받는 중국 산업의 석탄 연소로 인한 거대한 오염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연간 50억t의 석탄 사용이 2030년에는 다시 2배로 증가할 예정이다. 값이 싸고 유독한 이 에너지가 중국에서부터 로키산맥까지 대기를 독성물질로 오염시키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한편 중국의 각종 제조업이 미국 산업 및 일자리를 죽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br/> <br/>연간 50억t의 석탄 사용에서 방출되는 미립자 물질이 수백만 명을 죽인다. “미립자 물질”은 발암성 독성을 지니고 공기 속에 떠 있는 고형 입자와 액상 방울이며 일부는 사람 머리칼 크기의 3분의 1 미만이다. 이런 입자는 우리의 폐와 혈류에 침입하여 기형아 출산, 암, 심혈관 기능장애 및 사망을 초래한다. <br/> <br/>석탄 연소와 악성 산업 폐기물 투기 관행의 최대 피해자는 중국 국민이다. 중국 전체 사망 원인의 17%가 미립자 물질이며 1분에 2명의 기형아가 태어난다. 중국 농지는 최고 70%, 지하수는 90%가 오염되었다. <br/> <br/>중국의 석탄 연소에서 나오는 미립자 물질과 중금속 및 여타 독성물질이 바람을 타고 동중국해를 지나며 도쿄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의 40%는 중국의 공장에서 방출된다. 중국의 오염물질은 최소 4일 만에 미국의 로키산맥까지 계속 이동한다. 캘리포니아 대기오염의 25∼ 30%가 중국에서 유래하는 사실을 나사의 한 연구가 보여 준다. 또 다른 연구는, 미국 서부의 공기 질 개선 가운데 근 절반이 중국의 오염물질 침입으로 현저히 상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 “비용”을 미국 국민과 자동차 제조업체들 양자가 부담하고 있다. <br/> <br/>세계무역기구에 따르는 공정한 대응 의무와 국경의 조절이 최악의 공해국가들의 제품 가격을 높여, 수백만 미국인들의 생활과 일자리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현재 지배 중인 세계 시장에서 그들을 축출할 것이다. <br/> <br/>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br/> <br/>△particulates:미립자 물질 △particle:입자 △droplet:작은 (물)방울 <br/> <br/>△carcinogenic:발암성의 △dysfunction:기능장애 △malevolent:악의 있는 <br/> <br/>△countervail:상쇄하다, 대항하다, 무효로 만들다 △alternatively:그렇지 않으면

언론사: 세계일보-2-371.txt

제목: 암투병 어머니와 애인에게까지 빚독촉한 채권자 짜른 40대男, 징역 5년  
날짜: 2017041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18075049001  
ID: 01100701.20170418075049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암투병중인 자신의 어머니와 애인의 직장까지 찾아와 빚 독촉을 한 채권자를 흉기로 찌른 40대에게 징역 5년이 떨어졌다. <br/> <br/>18일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r/> <br/>재판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애인이나 어머니 가게까지 찾아가 독촉 한 점,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br/> <br/>A씨는 알고 지내던 B(36)씨에게 하루 6만5천원씩 갚기로 하고 지난해 500만원을 빌렸다. <br/> <br/>A씨가 약속대로 돈을 갚지 못하자, B씨는 반복해서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br/> <br/>B씨는 암 투병 중인 A씨 어머니의 가게와 애인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빚 이야기를 꺼냈다. <br/> <br/>이에 화가 난 A씨는 "돈을 주겠다"며 B씨를 울산의 한 건물 주차장으로 불러내 채무 변제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흉기로 찔렀다. <br/> <br/>B씨가 도주하자 30m가량을 뒤쫓다가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자 추격을 포기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72.txt

제목: 삶과 죽음 사이… 호스피스 병동 사람들  
날짜: 20170417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17210803001  
ID: 01100701.20170417210803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18일 오후 11시35분 EBS1 ‘메디컬 다큐 - 7요일’에서는 스물여섯살 된 딸을 두고 떠나야 하는 어머니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호스피스 병동에서 들어본다. <br/> <br/>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상이 또 다른 이들에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하루가 된다. 서울의 한 호스피스 병동, 김유애(63·여)씨가 삶과 죽음의 마지막 교차로를 건너기 위해 찾아왔다. 지난해 11월 허리와 엉덩이가 아파 찾은 병원에서 암이 뼛속까지 전이된 사실을 들었다. 10년 전 간암 수술을 받았지만 재발한 것이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딸과 흐드러지게 핀 봄꽃을 보러 가는 것이다. 혼자 남을 딸을 위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엄마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 <br/> <br/> 18일 EBS1 ‘메디컬 다큐 - 7요일’에서는 삶과 죽음의 마지막 교차로에 선 호스피스 병동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br/>EBS 제공지난달 11일 서울 용문동 다가구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대원 2명이 온몸으로 불길을 막고 주민들을 구조해냈다. 800도가 넘는 뜨거운 불길은 방화복도 녹여버릴 정도다. 불길을 막은 소방대원들은 양손에 화상을 입고 척추까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한 달 뒤 불길을 뚫고 소중한 생명을 구조한 영웅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예정된 결혼식마저 취소해야 했던 예비 새신랑 최길수씨와 화상으로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김성수씨의 최근 소식을 알아본다. <br/> <br/>전칠용(85)씨는 후두암 4기다. 하지만 수술을 거부하며 시골로 도망치듯 내려가 버렸다. 살 만큼 살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아버지의 고집에 딸은 가슴 졸이며 밤잠을 설친다. 아버지와 매일 실랑이하기를 꼬박 1년, 딸의 설득에 결국 아버지는 고집을 꺾고 수술대 위에 올랐다. <br/> <br/>전남 신안 앞바다의 작은 섬 소악도. 일곱 가구가 전부인 이 섬에는 병원, 약국, 보건소도 없는 의료 사각지대다. 주민들은 1년에 서너 번 병원선이 찾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건강 점검도 하고 필요한 상비약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외딴섬 마을에 찾아 온 병원선과 의료진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한다. <br/> <br/>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73.txt

제목: 아베정권 각료 잇따른 막말 논란… 지방창생상 “가장 큰 암은 학예사”  
날짜: 20170417  
기자: 우상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17195814001  
ID: 01100701.20170417195814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각료들의 막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br/> <br/>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야마모토 고조(山本幸三·사진) 지방창생담당상은 전날 시가현 오쓰시에서 열린 지방 활성화 관련 세미나에서 “가장 큰 암(癌)은 학예사”라며 “<span class='quot0'>이 패거리들을 쓸어버리지 않으면 소용없다</span>”고 말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문화재를 소개하는 학예사 활동이 부진하다고 지적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학예사는 박물관에서 자료의 수집과 보관, 전시,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는 전문직이다. <br/> <br/>이 발언이 알려지자 학예사와 암환자 모두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사퇴 요구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야마모토 지방창생담당상은 하루 만인 이날 “적절하지 않았다”며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사죄하고 싶다”고 머리를 숙였다. <br/> <br/>앞서 지난 4일에는 이마무라 마사히로(今村雅弘) 부흥상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스스로 고향을 떠난 피난민의 귀향 여부에 대해 “본인 책임”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또 국가 책임은 없는지 따져 묻는 기자에게 “당신 나가라” “다시 오지 마라” “시끄럽다” 등 반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야당이 사퇴를 촉구하자 이마무라 부흥상은 하루 뒤 해당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며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사죄하고 싶다”고 자세를 낮췄다. <br/> <br/>지난달 8일에는 차관급인 무타이 ?스케(務台俊介) 정무관이 자신 덕분에 “장화 업계가 상당한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태풍 피해지역을 시찰할 때 장화를 준비하지 않아 수행원의 등에 업혀 물웅덩이를 건넜다가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자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반년 만에 해당 논란을 계기로 관공서 등에서 장화를 새롭게 구입해 장화업계가 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농담을 했다가 ‘사과의 진정성’ 논란이 커지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br/> <br/>아베 총리 측근들의 잇따른 막말 논란은 ‘아베 1강’에 취해 긴장감이 느슨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9일 NHK 조사에서 아베내각 지지율은 53%였다. 정당별 지지율은 집권 자민당이 38.1%로 최대 야당인 민진당(6.7%)을 크게 웃돌았다. <br/> <br/>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74.txt

제목: 종합병원 10곳 중 9곳, 폐암 진료 수준 '1등급'  
날짜: 20170417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17194236001  
ID: 01100701.2017041719423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종합병원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 10곳 중 9곳의 폐암 진료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7일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한 2016년 3차 폐암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인 89개 기관의 평균은 97.47점이었고 이 중 80개 기관(89.9%)이 1등급을 받았다. <br/> <br/>상급종합병원은 42곳 모두가 1등급이었고 종합병원은 47곳 중 38곳이 1등급을 받았다. 1등급 기관의 지역별 분포는 대체로 고른 편이었지만 강원권은 평가 대상 4곳 중 2곳만 1등급을 받아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다. <br/> <br/>폐암 환자는 남성이 69.7%로 여성(30.3%)의 2배가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의 비중이 34.8%로 가장 컸고 이어 70대 33%, 50대 20.2% 순이었다. <br/> <br/>폐암은 암 사망률 1위이지만 진행되기 전까지 증세가 거의 없어 ‘조용한 암’으로도 불린다. 5년 상대 생존율은 25.1%로 매우 낮은 편인 만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br/> <br/>폐암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43.7%가 발견 당시 4기(뇌와 뼈, 간 등 다른 장기로 전이 진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3기(흉벽, 횡격막 등 주위 장기까지 전이)에 발견되는 경우도 18.2%에 달했다. <br/> <br/>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75.txt

제목: [마이머니 단신] 씨티카드, 서울 맛집 20여곳 외식 할인 외  
날짜: 20170417  
기자: 이진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17030704001  
ID: 01100701.20170417030704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씨티카드, 서울 맛집 20여곳 외식 할인 <br/> <br/>한국씨티은행은 봄나들이와 함께 외식이 증가하는 봄을 맞아 씨티카드 고객이 외식을 할 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최고 10% 할인 행사 및 무료 메뉴 제공 행사(사진)를 6월 말까지 실시한다. 서울 마포, 신촌 일대 맛집 20여곳을 뽑아 ‘프리미엄 다이닝 블루존’으로 선정하고, 씨티카드 고객이 해당 업장에 사전 예약 후 방문, 씨티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10% 할인 또는 무료 메뉴를 제공한다.  <br/> <br/> <br/>삼성화재, 3대 질환 보장 건강보험 선봬 <br/> <br/>삼성화재는 실손의료비와 암·뇌·심장 3대 질환을 통합 보장하는 ‘다이렉트 건강보험’(사진)를 출시했다. 만 19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 암은 특정소액암, 일반암 등 암 종류에 따라 단계별로 보장한다. 뇌·심장질환의 경우 급성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지급한다. <br/> <br/> <br/>하나은행, 해외투자기업 자금관리서비스 <br/> <br/>KEB하나은행은 해외투자기업을 위한 글로벌 자금관리서비스 ‘1Q Bank CMS Global’(사진)을 출시했다. 해외 진출 국내 모기업 및 해외 지사·관계사를 위한 자금관리서비스로 △15개국 75개 은행 실시간 계좌 조회 △해외법인의 이체 및 송금 신청 처리 △결재를 통한 내부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br/> <br/>이진경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2-376.txt

제목: 계명대 동산의료원 유방암 환자에 AI '왓슨' 활용 첫 진료  
날짜: 20170417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17030702002  
ID: 01100701.20170417030702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유방암 환자를 상대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료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br/> <br/>동산의료원은 미국 IBM이 개발한 최첨단 AI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이하 왓슨)를 지난달 도입해 진료 준비를 마쳤다. <br/> <br/> 동산의료원-IBM 협약식. 동산의료원 제공이에 따라 17일 오전 11시 AI 암센터에서 유방암을 앓는 70대 여성을 상대로 진료를 개시한다. <br/> <br/>의사가 왓슨 프로그램에 접속해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왓슨이 학습한 의료서적, 논문, 진료기록 등을 분석해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내게 된다. <br/> <br/>혈액종양내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암 전문의가 함께하는 다학제팀이 이를 검토해 환자 치료에 활용한다. <br/> <br/>이어 오전 11시 30분에는 60대 폐암 환자에게도 왓슨 진료를 할 계획이다. <br/> <br/>유방암 환자 주치의인 박건욱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왓슨을 활용한 다학제 진료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맞춤형 암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선택된 동화상 삽입. <br/> <br/>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77.txt

제목: 가만히 있어도 '어질 어질'… 급증하는 빈혈 환자 왜?  
날짜: 20170416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16193628003  
ID: 01100701.20170416193628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빈혈 환자 4명 중 1명이 4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빈혈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0년 47만5566명에서 2015년 50만8524명으로 5년 새 6.9%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39만617명으로 남성(11만7907명)의 3배가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4.8%(12만6055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14.0%(7만1302명), 50대 12.5%(63675명), 9세 이하 11.7%(5만9388명) 순이었다. <br/> <br/>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환자 수가 증가한 반면 여성은 40대에 정점을 찍었다. 전체 빈혈 환자 중 40대 여성은 11만6557명(22.9%)으로 4분의 1에 육박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장명희 교수(종양혈액내과)는 “<span class='quot0'>암 환자가 늘어나면서 위암·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빈혈도 함께 증가하고 여성이 40대가 되면 생리량이 늘어나면서 자궁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9세 이하 환자도 전체의 11.7%(5만9388명)를 차지해 소아 빈혈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 만 1세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5944명에 달해 40대 여성보다도 많았다. <br/> <br/>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윤봉식 교수(소아청소년과)는 “<span class='quot1'>생후 6개월이 지나면 출생 체중의 3배가 되면서 태아 시절 저장했던 철분을 대부분 소진하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1'>미숙아의 경우 저장한 철이 더 부족하고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찍부터 철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빈혈이 더 심해질 수 있다</span>”고 말했다. 빈혈은 혈액의 적혈구 수가 감소해 혈색소(헤모글로빈) 농도가 정상 이하로 감소하는 상태를 말한다. 쉽게 피로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계단을 오르거나 등산할 때 숨이 차며 현기증과 두통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br/> <br/>장 교수는 “<span class='quot0'>빈혈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심장에 부담이 커져 심부전 등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span>”며 “<span class='quot0'>평소 철분이 많이 함유된 시금치, 아몬드 같은 식품을 챙겨 먹고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br/> <br/>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78.txt

제목: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몸과 함께 굳어버린 '마음'… 병원선 우울증 약만  
날짜: 20170416  
기자: 김유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16191233001  
ID: 01100701.20170416191233001  
카테고리: 사회>장애인  
본문: 평범한 삶이었다. 이재훈(가명·33)씨의 인생은 ‘그날’ 이전에는 남들과 다르지 않았다. 수도권의 한 대학을 나왔고,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입사 2년쯤 지나자 인생의 궤도가 어느 정도 그려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 상사나 부모님을 보면 막연하게나마 앞으로의 삶을 가늠할 수 있었다. 크게 성공한 삶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다 싶었다. <br/> <br/>사고는 순식간이었다. 야근 후 택시를 탔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의사가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재훈씨를 붙잡고 울었지만 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졌다.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가 상상했던 미래에는 없던 일이었다. <br/> <br/>말수가 줄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 초기라고 했다. 병원에서 한 번, 집에서 한 번 목숨을 끊으려 했다. 어머니는 그가 또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매일 밤 손을 붙들고 같이 잤다. 퇴원 후 2년 가까이 병원 갈 때를 빼고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br/> <br/>변화가 생긴 건 지난해 우연히 척수장애인 인터넷 커뮤니티를 알게 되고 나서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고, 조심스레 자신의 이야기를 남겼다. “나도 그 마음 안다”는 댓글을 보고 울음이 터져나왔다. 재훈씨는 “<span class='quot0'>아무도 날 이해 못한다는 생각에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내 장애를 제대로 마주보게 됐다</span>”고 회상했다. <br/> <br/>조금씩 용기가 생겼다. 사고 후 처음으로 산책하러 나갔다. 몇 년 만에 외식도 했다. 아직 두려운 점도 많지만, 재훈씨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조금씩 자신의 장애를 알아가고 있다. 그는 “용기를 내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 병원에서 마음은 치료해주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짧게 겪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r/> <br/>몇 년간 집에만 있었던 재훈씨의 삶은 척수장애인 사이에서는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다. 어떤 이는 외출을 하기까지 10년 넘게 걸렸고, 상황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 <br/> <br/>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등록장애인은 272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6%다. 이 중 88.9%는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된 중도(中道)장애인이다. 특히 하반신 또는 상·하반신이 마비되는 척수장애인은 대부분이 중도장애인이다. <br/> <br/>하루 아침에 장애를 갖게 된 중도 척수장애인은 신체적 고통은 물론 장애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한다. 또 장애가 학업·경력 단절로 이어져 사회적 고립과 경제난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시 사회에 나오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다. 국내 재활시스템은 ‘신체 치료’에만 초점이 맞춰져 마음의 상처에는 방관하고 있다. <br/> <br/>“바로 전날, 아니 그날 점심때까지도 ‘올해 휴가는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던 일은 그만둬야 하고, 주말이면 자전거로 몇 시간씩 달리던 사람이 당장 집앞 슈퍼 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삶이 송두리째 바뀐 거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빨리 받아들이라’고 하면, 흔쾌히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척수장애인 이진영씨) <br/> <br/>“<span class='quot1'>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span>” 취재과정에서 만난 척수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다. 척수장애는 중도장애(후천적 장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장애다. <br/> <br/>16일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척수장애인 600명을 조사한 ‘척수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 장애 원인이 선천적 기형인 사람은 0.3%에 불과했다. 국립재활원이 1994∼2014년 입원 척수장애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 발생 연령은 20대가 24.4%로 가장 많았고 30대(20.7%)가 뒤를 이었다. 한창 사회활동이 활발한 시기, 하루아침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은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적응하는 것을 힘겨워한다. 신체뿐만이 아닌 마음에도 장애가 생긴다. <br/> <br/>◆높은 우울감… 10명 중 7명 자살 충동 <br/> <br/>“다리가 안 움직였지만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했어요. 영영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몸의 반이 죽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br/> <br/>최성혁(36)씨는 2011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당시 그의 나이는 30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아프지 않게 자살하는 법’을 검색하곤 했다”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가족들에게도 계속 화만 냈다”고 털어놨다. <br/> <br/>9년 전 교통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서모(43·여)씨도 “사고 후 삶에 의욕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장애인이 됐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 주변과의 연락도 다 끊었다. 그는 “6개월이 지나 장애인 복지카드가 나왔는데 카드를 보면서도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며 “장애를 인정하고 밖에 나가기까지 2년 정도가 걸렸다”고 말했다. <br/> <br/>이처럼 많은 척수장애인들이 장애를 갖게 된 뒤 우울감이 높아지고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장애를 인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3년이 31.2%, 3년 이상이 26%였다.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14.3%나 됐다. <br/> <br/>김종인 나사렛대 교수(재활복지대학원장)는 중도장애인이 ‘충격-부정-우울-독립(퇴원)에 대한 저항-적응’의 5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한다. 초기에 ‘심리재활’이 잘되면 빨리 적응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많은 이들이 ‘충격·부정·우울’ 상태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2'>장애 초기에 장애교육과 심리상담 등 꾸준한 심리재활이 있어야 장애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장애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 ‘2015 척수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8%가 척수 손상 뒤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는 국내 성인 평균 자살충동 경험률(6.4%·통계청 ‘2016년 사회조사결과’)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이다. 자살을 시도했다는 비율도 32%에 달했다. 자살충동을 느낀 가장 큰 원인(복수 응답)은 ‘삶의 의욕상실’(50.4%)로, ‘신체적 장애’(40.4%)보다도 10%포인트 높았다. <br/> <br/>◆장애는 ‘혼자 이겨내야 할 일’이다? <br/> <br/>그러나 국내 재활시스템에서 심리재활은 등한시되고 있다. 병원의 재활프로그램은 신체재활 위주로, 중도장애인을 위한 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다른 곳보다 프로그램이 체계적이라고 평가받는 국립재활원도 마찬가지다.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하지만 담당직원이 부족해 지속적인 심리상담은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척수장애인들이 장애를 수용하면서 느끼는 혼란스러움을 홀로 견뎌야 한다. 장애를 인정하는 것은 오로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치부되며,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br/> <br/>최성혁씨가 회상하는 병원생활은 온전히 그 자신으로 살지 못했던 무기력한 시간이었다. 병원에서는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과 약을 처방했다. 최씨는 “그 약을 먹으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다. 계속 웃기만 했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느냐고 묻자 주치의는 “환자가 젊은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쩌냐”며 반대했다. 최씨는 “<span class='quot3'>6개월간 상담 한 번 없이 약만 먹었다</span>”며 “<span class='quot3'>‘나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병원의 대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닌 우울증약을 주는 것뿐이었다</span>”고 말했다. <br/> <br/>척수장애인 손모(40)씨도 “병원에서는 몸 상태만 신경을 썼다. 가장 아픈 곳은 마음이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찬우 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span class='quot4'>심리재활은 재활의 첫단추인데 병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4'>국내 재활시스템은 첫단추부터 잘못 끼우다 보니 나머지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시스템</span>”이라고 지적했다. <br/> <br/>김모(40·여)씨의 동생 혁권(가명)씨는 몇년 전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옥상에서 추락해 겨드랑이 아래쪽을 움직일 수 없게 된 동생은 사고 후 눈에 띄게 말이 없어졌지만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김씨는 “<span class='quot5'>수술 후 몸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곪아가고 있던 것</span>”이라고 말했다. 동생의 죽음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은 “마음이 여려서 장애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에게 동생의 죽음은 개인적 죽음이 아닌 사회적 죽음이다. <br/> <br/>김씨는 마음의 병을 악성 종양에 비유했다. 그는 “몸 안에 악성 종양이 생기면 겉으로 티가 안 나고 본인도 잘 모르지만 의사들이 진단하고 치료해 주지 않느냐”며 “마음의 병도 겉으로 잘 안 보이고 자신도 심각성을 모르니 병원에서 진단해야 한다. 장애를 왜 받아들이지 못했느냐고 하는 것은 ‘왜 암을 혼자 못 이겨냈느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생도, 저도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무지했어요. 그때 누군가 알려줬다면 어땠을까요. 혼자 이겨내라고 하지 말고 치료를 해줬다면….” 현재의 재활시스템에서는 제2, 제3의 혁권씨가 계속 생길지도 모른다. <br/> <br/>김유나·이창훈 기자 yoo@segye.com <br/> <br/> 척수장애인이란 <br/> <br/>척수장애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척수(척추 내에 위치하는 중추신경의 일부분)가 손상돼 신체와 두뇌 사이의 신경전달통로가 끊어진 장애를 뜻한다. 통상 손상부위 아래의 감각과 운동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대소변장애, 성기능장애 등 다수의 중복 장애와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분류에는 ‘지체장애인’ 속에 포함돼 정확한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국내 척수장애인을 전체 인구의 0.1%가량인 8만여명으로 추정한다. 매년 2000명이 척수장애인이 된다. 협회의 ‘2015년 척수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원인의 89.4%는 외상이었다. 외상은 교통사고가 53.6%로 가장 많았고 추락이나 낙상 22.3%, 산업재해 14%, 다이빙 3.3%, 스포츠·레포츠 2.4% 등의 순이었다.

언론사: 세계일보-2-379.txt

제목: ‘소리없는 살인자’ 대장암 올가이드  
날짜: 20170413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13210047001  
ID: 01100701.2017041321004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14일 오후 9시50분 EBS1 ‘명의’에서는 소리 없는 살인자, ‘대장암’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br/> <br/>한국인 대장암 발병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는 2006년 1만7709명에서 지난해 15만855명으로 8.5배 늘었다. 한국인의 대장 건강에 적색 신호가 켜졌다. 대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다. 암이 진행되면서 병원을 찾게 되는 증상은 복통, 변비, 혈변, 식욕 감퇴, 체중 감소, 빈혈이다. 대부분 무심하게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 증상들이다. 하지만 나중에 대장 기능이 이상해 검사를 받는다면 이미 암은 진행 중이다. 방송에서는 대장암 환자들이 호소한 증상에 대해 살펴본다. <br/> <br/> <br/> 14일 EBS1 ‘명의’에서는 소리 없는 살인자, ‘대장암’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br/>EBS 제공평소 배변 습관이 이상하다면, 혹은 대장을 살펴본 적이 없다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 치질 증상으로 고생했던 53세 남자 환자 양모씨. 혈변 증상이 있었지만 치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무심코 넘겼다. 결국 건강검진에서 용종이 확인됐고 조직검사 결과 직장 근처에서 암이 발견됐다. 대장항문학회에서 2009~2011년 7개 대학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14만9363명을 조사한 결과 40대의 29.2%가 용종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용종 가운데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소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꽤 많은 수가 대장암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br/> <br/>50대 남자 환자 정모씨는 2년 만에 암이 재발했다. 대장에서 시작된 암이 복막까지 전이됐다.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나섰지만 선뜻 정씨를 치료하겠다는 병원이 많지 않았다. 대장은 다른 장기와 가까이 있어 전이가 잘 일어난다. 대장암은 간(52.1%), 폐(15.7%), 복막(12.3%) 순으로 많이 전이된다. 과거에는 복막으로 전이된 환자는 치료가 어려웠다. 그러나 그런 정씨의 경우는 HIPEC(복강 내 온열 항암화학요법)라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br/> <br/>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80.txt

제목: 백두대간 호랑이숲에 백두산 호랑이 추가 방사  
날짜: 20170412  
기자: 임정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12114333001  
ID: 01100701.20170412114333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백두산 호랑이가 이르면 오는 6∼7월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호랑이 숲’에 추가로 옮겨 방사된다. <br/> <br/>12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과 대전 오월드의 백두산 호랑이 수컷 2마리에 이어 서울대공원의 백두산 호랑이 2∼3마리를 추가로 백두대간 수목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현재 정밀 건강검진을 벌이고 있다. <br/> <br/>먼저 옮겨진 호랑이 가운데 대전 오월드에서 이송된 ‘금강이’는 이송 9일 만에 만성신부전에 의한 요독증으로 폐사했다. <br/> <br/>이에 따라 산림청은 혈액검사와 육안 진단, 전문가 소견 등 철저한 건강검진을 거쳐 건강한 호랑이를 골라내 옮긴다는 방침이다. <br/> <br/>추가로 옮겨질 호랑이는 암컷이 포함될 예정이며, 암·수 개체 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br/> <br/>산림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호랑이 1마리가 만성 질병을 보유한 상태로 이송됐다가 폐사한 만큼 이번에는 건강검진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span>”며 “당초 4월에 추가로 호랑이를 옮길 계획이었지만 건강검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이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r/> <br/>백두대간 수목원에 홀로 남아 있는 호랑이 ‘두만이’는 현재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상태다. <br/> <br/>산림청은 백두산 호랑이를 추가로 이송한 뒤 2∼3개월의 방사 훈련을 거쳐 백두대간 수목원이 정식 개장하는 9∼10월 전에 방사를 마칠 계획이다. <br/> <br/>백두대간 수목원 호랑이 숲은 4.8㏊ 면적에 우리 대신 자연 서식지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으로 만들어졌다.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호랑이가 탈출할 수 없도록 안전펜스만 설치했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81.txt

제목: [이슈탐색] "해로운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날짜: 20170411  
기자: 이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11192048002  
ID: 01100701.20170411192048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내에서 판매되는 궐련(연초) 담배 연기에서 12개의 암 유발 물질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9개 발암물질은 담뱃갑에도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연기에서도 1급 발암물질이 나왔다. 정부 차원의 첫 조사에서 그동안 경고하지 않은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되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r/> <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함유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담배 독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인천,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시판 중인 궐련 5종과 전자담배 35종을 수거해 분석했다. <br/> <br/>분석 결과에 따르면 궐련 연기에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1군 발암성분이 7개, 2B군 발암성분이 5개 나왔다. IARC는 발암물질을 암을 유발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1군과 동물 실험 결과를 충분히 확보한 2A군, 가능성은 있지만 동물 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2B군으로 나눈다. 2군은 암 유발 가능성이 완벽히 규명되지 않았을 뿐 1군보다 덜 유해한 것은 아니다. <br/> <br/>또 검출된 발암 성분 가운데 표시 의무 규정이 없어 고지되지 않았던 물질은 9종에 달했다. 현행법은 타르, 벤젠 등 7개 성분만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궐련 한 개비당 8.2~14.3㎍, 1·3 부타디엔 15.0∼26.1㎍, 아세트알데히드는 224.7~327.2㎍ 등이 검출됐다. ㎍(마이크로그램)은 100만분의 1g을 의미한다. 이 같은 성분에 장기간 노출되면 암 또는 각종 장애의 위험이 높아진다. 포름알데히드는 단열재나 접착제에 쓰이는 물질로 담배를 피울 경우 미량이지만 새집증후군의 주범을 직접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 이 성분은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고 인두염, 기관지염, 현기증, 질식을 유발한다. <br/> <br/>플라스틱 원료 등으로 쓰이는 벤젠은 노출 시 두통과 현기증이 생긴다. 고농도로 접촉하면 신장, 간, 소화기계, 피부에 독성이 퍼지면서 발작, 혼수상태에 빠지고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재생불량성 빈혈과 백혈병을 앓을 수 있다. <br/> <br/>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전자담배 연기에서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2종의 발암 성분이 나왔다. 전자담배를 10회 흡입(약 0.04∼0.05g 액상소모)했을 때 일반 담배 1개비를 피운 것으로 환산하면 전자담배 연기에서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은 최대 4.2㎍, 아세트알데히드는 최대 2.4㎍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의 니코틴 액상은 가열과 산화를 거쳐 함량이 최대 19배나 증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담배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표시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발암물질이 9종이나 검출된 만큼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br/> <br/>1999년 폐암환자와 유가족들은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또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담배와 직접 연관성이 입증된 폐암과 후두암 환자 3400여명의 진료내역을 토대로 KT&G 등 3개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35개 질환의 추가진료비 지출이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궐련담배 연기에 들어 있는 45개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연말쯤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82.txt

제목: [JOB&톡톡] 일본 복안(復顔) 납관사…"화장으로 생전 모습처럼"  
날짜: 20170411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11173441001  
ID: 01100701.20170411173441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JOB&톡톡'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직업과 기업에 관한 내용을 담습니다. 이색적인 직업과 기업을 소개하고,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외신에 전해진 뉴스도 전합니다./편집자주 <br/> <br/>한국에서는 '행복한 장의사'로 개봉된 일본 영화 '굿바이'로 우리나라에서도 납관사라는 직업이 알려졌다. 납관사는 보통 죽은 사람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의사를 가리키지만, 일본에서는 장례 준비 외에도 시신을 치장하고 유언 이행 여부를 감시해 고인의 앙금을 해소해주는 등 다양한 일을 한다. <br/> <br/>그 중 아직 생소해서 정식 명칭조차 없는 '복안 납관사'(이하 납관사)라는 직업은 오오타 마토카(55)씨가 만든 말이다. <br/> <br/>복안은 손상이 심한 시체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하여 머리뼈에다 점토로 살을 붙여 생전의 얼굴로 복원하는 일이다. 오오타씨는 특수 약품과 화장을 이용해 생전 고인의 생기 있는 모습을 재현한다. 또 유언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이를 지켰다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증서를 고인 곁에 놓는다거나 평소 좋아하던 유품을 챙겨 정성스럽게 손질하는 일도 그의 몫이다. <br/> <br/> 고인의 마지막 표정을 재현하는 복안 납관사 오오타 마토카씨가 마네킹을 상대로 화장법을 연습하고 있다.오오타씨가 납관사로 일하게 된 것은 38세 평범한 주부였을 당시 난소암을 앓았던 경험이 그 계기가 됐다. <br/> <br/>오오타씨는 항암 치료로 눈썹과 머리카락이 빠지고 생기 없이 변한 얼굴을 보며 "이런 얼굴로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화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br/> <br/>그 후 암이 완치돼 퇴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는다. 이에 "생전 봐왔던 얼굴을 되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부모 얼굴에 한 화장이 주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 길로 납관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br/> <br/>오오타씨는 납관사가 되기 위해 메이크업, 기초 의학지식 관련 강의와 실습을 이수했다. 또 수십 종류의 약품과 화장품을 섞어 자신 만의 사용법을 개발했고, 이런 노하우를 쌓아 지난 2012년 일본 시가현 오츠시에서 '엔딩 메이크업'이라는 가게 간판을 내걸었다. <br/> 복안 납관사 오오타 마토카씨의 화장 도구. 일반적인 미용 도구와는 차이가 있다. 일반 화장품에 비해 접착성도 뛰어나고 색조도 밝은 편이라고 한다. 주름을 없애는 일반 화장품과 달리 주름을 표현하는 도구도 갖추고 있다.납관사는 화장만 하는 게 아니다. <br/> <br/>먼저 시신에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코와 입을 살균·소독하고, 오랜 투병생활이나 노화로 뺨이 움푹 들어간 시신은 특별한 약품을 써 볼륨 있게 복원한다. 또 눈을 감지 못 하거나 입이 벌어진 시신의 안정을 돕는다. 눈을 감고 입을 닫은 채 편안하게 잠든 모습처럼 연출하는 게 그의 일이다.  <br/> <br/>이때 보통 테이프로 머리와 턱을 묶어 고정하지만, 오오타씨는 얼굴 근육과 골격 등을 살핀 뒤 특수 접착제를 사용해서 가능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한다. <br/> <br/>이러한 기본복원 작업이 끝나면 머리를 감고 잘라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고, 유가족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진과 유가족의 말에 따라 주름 등을 새겨 생전 모습과 최대한 가깝게 재현한다. <br/> <br/>오오타씨는 "오랜 투병생활이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표정이 좋지 못한 고인이라도 온화한 미소를 띤 채 편히 눈감은 모습으로 연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유가족으로부터 생전 모습을 보는 듯하다는 말을 들어야 비로소 일이 끝난다"고 말한다. <br/> <br/>지금까지 시신 약 1500구에 생기를 불어넣은 오오타씨는 "고인의 생전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늘 고민해야 한다"며 "이별의 순간을 남겨진 가족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기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r/> <br/>한편 오오타씨는 기억에 남는 고인이 있다고 뒤돌아봤다. <br/> <br/>안타깝게도 농기계에 휘말려 목숨을 잃어 얼굴에 큰 흉터가 남은 고인이라고 한다. 큰 상처에 유가족, 특히 아이들이 무서워 고인에게 다가가기 힘들었지만, 화장한 뒤 온 가족이 모여 작별인사를 하게 돼 뿌듯했다고 전했다. <br/> <br/>오오토씨는 보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나라 장의사가 연봉 4000만~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보다는 나을 성싶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산케이신문 캡처

언론사: 세계일보-2-383.txt

제목: 당진 火電 인근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 검출  
날짜: 20170411  
기자: 김정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11030959002  
ID: 01100701.20170411030959002  
카테고리: 지역>충남  
본문: 충남 당진의 석문국가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 제철소가 밀집한 주거지역 대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br/> <br/>10일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석문면 통정리 일원 2곳(석문면사무소·주택단지)에서 3일간 대기질 모니터링과 건강영향평가 용역을 한 결과 6가크롬(Cr+6)과 비소(As)가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크롬의 경우 석문면사무소에서 생애주기 10만명당 2.16명이, 주택단지에서는 10만명당 2.4명이 암에 걸릴 수 있는 유해농도로 각각 측정됐다. 위해도 기준은 생애주기 당해 농도 노출 시 발암 위해성이 100만명당 1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위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비소는 면사무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주택단지에서 100만명당 1명인 기준치를 초과한 1.29명이 걸릴 수 있는 유해농도로 검출됐다. <br/> <br/>이번에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6가크롬과 비소는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6가크롬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3가크롬과는 달리 주로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암, 원발성 기관지암, 비강암, 부비동암 등을 유발하며 접촉성피부염과 만성기관지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br/> <br/>당진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측정 결과는 주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수치</span>”라며 “<span class='quot0'>대기환경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span>”고 밝혔다. 최근 충남도와 당진시는 산업부의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가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승인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br/> <br/>당진=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84.txt

제목: [마이머니 단신] 메리츠화재 ‘계속받는 암 보험’ 출시 외  
날짜: 20170410  
기자: 김라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10031119001  
ID: 01100701.20170410031119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메리츠화재 ‘계속받는 암 보험’ 출시 <br/> <br/>메리츠화재가 국내 최초로 암 발생 시 암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매월 100만원 또는 200만원의 암 치료비를 계속 지급하는 ‘(무)메리츠 매월 계속 받는 암치료보험1704’(사진)를 지난 3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암 발생 시 1년간 매월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후에도 암세포가 남아 있으면 매 1년 단위로 보험금 지급이 연장된다. 또한 새로운 암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되더라도 암 치료가 끝날 때까지 1년 단위로 최장 100세까지 매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br/> <br/> <br/>가장 유고 때도 든든 ‘부모사랑e정기보험’ <br/> <br/>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가장의 갑작스러운 유고 시에도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하는 ‘(무)부모사랑e정기보험’(사진)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기존 정기보험과 달리 매월 생활비 형태로 만기까지 분할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월 지급 사망보험금은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설계할 수 있고 최소 지급기간은 5년(60회)을 보증한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9~70세, 보장금액 기준 최대 5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양육자금 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매년 양육자금을 분할 지급한다. <br/> <br/>알리안츠생명, 온라인 전용 저축보험 선봬 <br/> <br/>알리안츠생명이 자사 온라인 보험 브랜드 ‘올라잇(Allright)’ 전용 저축성 보험 상품인 ‘(무)올라잇보너스주는저축보험’을 지난3일 출시해 판매 중이다. ‘(무)올라잇보너스주는저축보험’은 공시이율(4월 현재 2.6%)로 적립돼 안정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저금리 시대에 대비해 업계 상위 수준의 최저보증이율(2%)을 제공한다.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는 시점에 적립형과 거치형에 따라 총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15%와 3%를 납입완료보너스로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보너스 제공으로 고객들은 더 많은 목적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이 상품은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중도인출을,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에는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해 경제상황에 맞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언론사: 세계일보-2-385.txt

제목: [건보상식Q&A]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날짜: 20170410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10030827002  
ID: 01100701.20170410030827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Q. 암 판정 후 치료비가 많이 나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다. <br/> <br/>A.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및 중증화상 환자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비급여 의료비용 등 본인부담금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입원한 때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에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언론사: 세계일보-2-386.txt

제목: [고인을 기리며] 암투병에도 연기 혼 불사른 ‘천생 배우’김영애  
날짜: 20170409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09211826001  
ID: 01100701.20170409211826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암 투병 중에도 연기 투혼을 불태웠던 배우 김영애가 9일 오전 10시58분 별세했다. <br/> <br/>향년 66세. 2012년 췌장암을 선고받은 김영애는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세상과 작별했다. 췌장에서 시작된 암이 간과 림프 등으로 많이 전이됐으며, 한 달 전부터는 의식은 있지만 말은 못하는 상태였다. <br/> <br/>1951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영애는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1년 MBC 공채 탤런트 3기로 연기생활을 시작했다. ‘당신의 초상’과 ‘형제의 강’ ‘파도’ ‘장희빈’ ‘달려라 울엄마’ ‘황진이’ ‘로열 패밀리’ 등의 드라마를 통해 꾸준히 안방극장에서 정상의 인기를 누렸다. <br/> <br/>김영애는 백상예술대상 신인상, SBS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 대종상 여우조연상,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 코리아드라마어워즈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br/> <br/>최근에는 지난 2월까지 방송된 KBS2 주말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 출연해 마지막 연기 투혼을 불태우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입원한 상태에서 촬영을 진행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지만 모든 에너지를 촬영현장에서 쏟아냈다. 드라마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버틴 것이다. 김영애는 주인공 가족의 엄마 최곡지 역을 맡았다.  <br/> <br/>2001년 참토원을 설립하고 황토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 그는 누적 매출 15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사업가로도 성공했다. 2012년 MBC ‘해를 품은 달’ 촬영 도중 황달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췌장암을 선고받았지만, 암에 굴복하지 않고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닥터스’ ‘내가 살인범이다’ 등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종횡무진 활동했다. <br/> <br/>유족으로 아들 이민우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1일. 장지는 경기 분당 메모리얼파크다. <br/> <br/>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87.txt

제목: 질병 피할 수 없다면… 늦기 전 ‘맞춤 보험’ 드세요  
날짜: 20170409  
기자: 김라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09203956001  
ID: 01100701.20170409203956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행복한 노후준비의 완성은 과연 연금 3층 석탑(개인·퇴직·국민연금) 쌓기만으로 완벽한 걸까. 운 좋게 암을 비롯한 큰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2016)에 따르면 한국인이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은 35%를 훌쩍 넘어섰다. 우리나라 사망률 집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질병 역시 암이다. 게다가 최근 스트레스나 환경오염 등으로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갑상선암을 비롯한 암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칫하면 살뜰히 모아두었던 노후자금이 병원비로 소진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가족력을 감안한 암보험 가입이 노후준비를 위해 중요하다는 얘기다. <br/> <br/>최근에는 유병자와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늘고 있는 데다 생활비에 간병비까지 지급하는 상품들 역시 인기를 얻고 있다. 또 암을 예방키 위한 목적의 보험까지 출시돼 젊은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은 단순히 보험료만 따질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력과 건강상의 취약점을 분석해 보장혜택이 크고, 원하는 옵션을 부여하는 상품에 대한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br/> <br/> <br/>◆유병자·고령자를 위한 각종 질환 치료 혜택 듬뿍 <br/> <br/>흔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유병자, 80세 이후의 고령자들은 보험이 필요하지만 가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병자들과 시니어를 위한 전용상품 역시 속속 등장하고 있어 늦기 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 상품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br/> <br/>대표적으로 라이나생명은 업계 최초로 61세 이상 고령자 전용 암보험(뉴실버암보험)을 시장에 출시해 61세부터 8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실버형과 61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형 두 가지로 나누어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뉴실버암보험은 고연령의 특성상 쉽게 걸릴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통해 가입 문턱을 크게 낮췄고 10년 만기 상품으로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도 보장이 가능하다. 또 미래에셋생명의 ‘꽃보다 건강보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유병자에게도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등 3대 질병 보장은 물론 중증치매에 대한 보장까지 하고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br/> <br/>혹시 노년에 치매에 걸려 자신보다도 간병하는 자식들에게 끼칠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염려된다면 치매 진단 시 간병자금, 소득보장자금은 물론 사망 시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스마트LTC종신보험’ 가입 역시 고려해볼 만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환자가 장기간병상태에 빠졌을 경우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형태로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해 주계약 보험료만으로 더 큰 보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치매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65세 이후 발병 시에는 주계약 보험금의 100%를 모두 지급해 치매위험시기의 보장을 강화했다. <br/> <br/>사실 암보험에 오래전 가입한 많은 중장년 고객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80세 전후로 기존 보험의 만기가 끝난다는 점이다. 하지만 보험 전문가들은 이 경우 납기일이 이미 지났다면 보장기간이 100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암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문제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물론 보험료는 고객의 건강상태나 치료 내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상승할 여지는 크다. 또한 예전에 암 투병을 했다고 하더라도 완치되었다면 암보험에 재가입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물론 이때 특정 특약을 추가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질 수는 있다. <br/> <br/>◆생활비 보장, 건강관리까지 도와주는 친절한 암·건강보험들 <br/> <br/>암에 걸리면 치료비도 문제지만 당장 일을 할 수 없으니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치료비 보장은 물론 암 진단 시 생활비를 보장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암 예방 활동에 힘쓴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풍성하게 제공하는 보험까지 등장해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br/> <br/>대표적으로 KB생명, 신한생명, 삼성화재 등이 암 진단 시 생활비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대표적으로 신한생명의 ‘신한받고 또받는 생활비암보험’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특정암’ 진단을 받으면 매월 100만원씩 5년간 총 60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또한 암으로 사망 시 유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암사망생활비특약’을 신설해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비침습방광암으로 사망하면 5년간 매월 1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가족생활비가 지급된다. 이 상품은 1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br/> <br/>또 KB생명의 ‘무배당 KB국민라이프케어 생활비지급암보험’은 암 진단 시 최대 1억원의 진단급여금과 치료기간 동안 매월 100만원의 생활자금을 최대 48개월간 지급한다. 또한 생활자금 특약에 추가로 가입하면 생활자금을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장점은 경제활동기인 30~40대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갱신 시 보장액 조정을 해 나가며 전체적인 보험료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이 보험 역시 10년 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한다. <br/> <br/>마지막으로 미래에셋생명의 ‘예방하자 암보험’은 암 예방 활동에 힘쓴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 국내 최초로 오직 암에 걸릴 확률만을 따져 보험료를 깎아 주고 있다. 보험을 통해 고객의 암 예방을 적극적으로 돕는 신개념 상품인 것이다. <br/> <br/>김라윤 기자 ry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88.txt

제목: 명품배우 김영애 별세, 향년 66세… 췌장암 입원속 '월계수 양복점' 찍어  
날짜: 20170409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09124828001  
ID: 01100701.20170409124828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명품배우 김영애씨가 9일 오전 10시58분 췌장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66세. <br/> <br/>이날 고인의 유족은 "암이 췌장에서 시작해 간과 림프 등으로 전이돼 그동안 불굴의 의지로 버티셨다"면서 "한달 전부턴 의식은 있었지만 말씀을 못하시는 상태였으며 오늘 오전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고 알렸다. <br/> <br/>유족으로는 아들 이민우 씨가 있으며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발인은 11일 <br/> <br/>고인은 지난 2012년 MBC TV '해를 품은 달' 촬영 도중 황달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췌장암을 선고받았다. <br/> <br/>고인은 이 사실을 숨긴 채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을 왕래하며 연기를 이어갔다. <br/> <br/>'해를 품은 달' 이후에도 그는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종횡무진 활동했다. <br/> <br/>드라마 '내 사랑 나비부인' '메디컬 탑팀' '미녀의 탄생' '킬미 힐미' '마녀 보검' '닥터스'와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변호인' '우리는 형제입니다' '현기증' '카트' '허삼관'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인천상륙작전' 모두 투병 중 출연한 작품이다. <br/> <br/>고인의 마지막 작품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방송된 KBS 2TV 50부작 주말극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다. <br/> <br/>고인은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주인공 가족의 엄마 최곡지 역을 맡았다. 살이 많이 빠진 모습으로 나와 팬들을 안타깝게 했지만 특유의 강단있는 모습으로 깐깐하고 고집이 센 양복점의 안주인을 살갑게 연기했다. <br/> <br/>특히 고인은 마지막 4개월을 입원한 상태에서 촬영에 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br/> <br/>지난해 10월 말 급작스럽게 병세가 악화해 병원에 입원한 김영애씨는 넉달간 병원에서 외출증을 끊어가며 매주 목요일 이 드라마의 촬영 현장을 오갔다. <br/> <br/>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로 버텼다. <br/> <br/>'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 인기에 힘입어 4회 연장했지만 결국 참여하지 못했다. <br/> <br/>제작진은 고인을 배려해 최곡지가 남편과 함께 시골로 요양을 간 것으로 그렸다. <br/> <br/>드라마의 마지막회에 그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그의 건강이 악화한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이 일었다. <br/> <br/>당시 KBS와 소속사는 고인의 뜻에 따라 "50부까지만 출연 계약을 한 것이었다"라는 말로 건강상태에 대해 함구했다. <br/> <br/>1951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1년 MBC 공채 탤런트 3기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다. <br/> <br/>'당신의 초상' '엄마의 방' '빙점' '가을여자' '아버지' '형제의 강' '파도' '장희빈' '달려라 울엄마' '황진이' '로열 패밀리' '모래시계' 등 수많은 작품에 나왔다. <br/> <br/>또 '섬개구리 만세' '왕십리' '비녀' '설국' '절정' '로맨스 그레이' '미워도 다시한번' '겨울로 가는 마차' '아내' '하와의 행방' 'W의 비극' '비내리는 영동교' '겨울 나그네' '연산일기' 등의 영화로 1970~80년대 스크린을 풍미했다. <br/> <br/>한동안 TV 드라마에만 전념하던 그는 2009년 '애자'로 영화계에 복귀하고, 투병을 하는 도중에 다시 충무로의 주요 배우로 떠올랐다. <br/> <br/>백상예술대상 신인상, SBS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 대종상 여우조연상,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 코리아드라마어워즈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br/> <br/>고인은 성공한 황토 화장품 사업가로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br/> <br/>2001년 참토원을 설립하고 황토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 그는 사업이 번창하면서 2004년 '달려라 울엄마'를 끝으로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br/> <br/>누적 매출 15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승승장구하던 그의 사업은 그러나 2007년 한 소비자고발프로그램에서 황토팩의 중금속 논란을 제기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br/> <br/>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식 발표를 통해 참토원 제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 일로 마음 고생을 크게 한 그는 결국 사업에서 손을 뗐다. <br/> <br/>이 사건으로 한동안 우울증을 겪었지만 다시 연기에 매달리며 고통을 잊으려 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89.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흡연과의 전쟁'…끝나지 않은 갈등  
날짜: 20170409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09050352001  
ID: 01100701.20170409050352001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담뱃값에 부착된 흡연 경고그림의 여파라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br/>담뱃갑 경고그림들은 폐암이나 후두암, 구강암, 뇌졸중 등 흡연의 폐해를 사진과 이미지 등으로 보여줍니다.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이들 그림에는 폐암으로 가슴이 절개된 모습과 구강암으로 입술이 썩은 모습 등 보기만 해도 담배맛이 달아날 만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br/>경고그림이 삽입된 담배는 시중에 지난 1월 중순부터 본격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 등 소매점에서도 경고그림이 없는 담배를 찾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br/>일각에서는 경고그림이 일시적인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경고그림을 가리는 담배 케이스의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이런 가운데 편의점 직원들은 경고그림으로 적지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혐오스러운 그림을 문득문득 봐야 하는 것도 곤욕스럽지만, 경고그림에 대한 소비자의 이런저런 항의까지 받는 실정이라 이만저만 괴로운 게 아니라고 하소연합니다. <br/>앞으로도 정부의 '담배 혐오' 정책이 흡연자들의 저항을 이기고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섬뜩한 흡연 경고그림이 애연가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br/> <br/>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도입을 강해 경고그림의 효과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br/> <br/>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흡연율은 2015년 19세 이상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39.3%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그리스와 터키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br/> <br/>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비가격 금연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br/> <br/>이 그림은 크게 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병 부위(병변)의 사진 5종과 간접흡연, 조기 사망, 피부노화,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등을 주제로 한 이미지 5종으로 구분된다. <br/> <br/>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각각 면적의 30%를 넘는 크기로 상단에 부착되고, 그 아래 경고 문구까지 포함하면 절반 넘게 차지한다. <br/> <br/>◆"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br/> <br/>담뱃갑 뒷면의 모든 그림에는 동일하게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들어간다. <br/> <br/>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흡연율 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에 처음 손을 대려는 청소년들이 아예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예방 효과도 나타났다. <br/> <br/>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가 18곳의 흡연율은 경고그림 도입 안팎으로 평균 4.2%포인트 감소했다. 가장 감소 폭이 큰 나라는 브라질(14.8%포인트)로, 경고그림 도입(2002년) 전인 2000년 15세 이상 흡연율은 35.4%에 달했지만 2008년에는 21.6%로 줄었다. 브라질 이외에도 캐나다(7.8%포인트)와 벨기에(6.4%포인트), 노르웨이(6%포인트)의 감소폭도 컸다. <br/> <br/>정부는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이 7.8%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는데, 경고그림이 청소년 끽연 비율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더욱 기대한다. <br/> <br/>경고그림이 담뱃값 인상에 이어 흡연율 하락을 이끄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충격요법'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br/> <br/>전문가들은 경고그림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작을 수 있으나, 흡연에 대한 청소년의 호기심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뤄보면 장기적인 영향력은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br/> <br/>◆흡연경고그림 도입, 흡연율 감소효과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br/> <br/>이에 반해 담배업계에서는 경고그림 도입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칠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br/> <br/>업계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실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상 단기적인 금연효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span>"며 "초기 도입 단계임에도 시행만 한 채 엄격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경고그림을 담은 제품이 뒤늦게 판매되기 시작한 것도 문제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br/> <br/>이어 "지난 1월 말에는 경고그림 제품으로 모두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일부를 빼고는 2월 중순에도 기존 입고된 재고 담배가 판매됐다"며 "시행만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누가 정부 정책에 따르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br/> <br/>◆편의점 알바생 "흡연경고그림 스트레스 '高高'…우리가 무슨 죄?" <br/> <br/>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거부감을 일으키는 흡연 경고그림을 담배 판매로 남모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br/> <br/>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편의점 점장은 “일하다 경고그림을 보고 흠칫 놀라 담배를 돌려놓거나 가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담배회사 영업사원들이 수시로 진열상태를 점검해 이런 꼼수도 통하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br/> <br/>애꿎은 편의점 직원을 상대로 화풀이를 하는 소비자도 더러 있다고 한다.  <br/> <br/>서울 구로구 신도림의 한 편의점 점장은 “2~3일에 한번씩 장년층 고객이 경고그림을 보곤 내게 버럭 화를 내고 간다”며 “내가 그림을 넣은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br/> <br/>이어 “한번은 고객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경고그림이 왜 그러냐’고 항의하다가 말다툼까지 이어져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며 “경고그림 탓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직원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br/> <br/>그 역시 판매대에서 뒤를 돌아 담배 진열장으로 시선이 갈 때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경험을 한다고 털어놨다. <br/> <br/>서울 신촌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담배에도 '혐오등급'이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경고그림 중에서도 손님들이 선호하는 게 있다”며 “내장이 드러나거나 얼굴이 변한 성인의 모습을 담아 혐오감이 큰 사진보다 눈아 빨간 아이 사진을 담은 담배를 더 찾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열할 때도 아이 사진을 앞에 두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br/> <br/> 지난 4일 서울 신촌의 한 편의점 계산대 뒤편의 담배 진열대가 가지런히 정리돼있다. 직원들은 담배에 부착된 혐오스러운 흡연 경고그림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사진=안승진 기자 <br/> <br/>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담배 진열대는 계산대 뒤편에 위치한다. 담배 이외 물품을 계산하는 소비자와 판매직원 모두 경고그림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불평하는 이들이 적잖다고 한다. <br/> <br/>이에 대해 편의점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 동남 아시아의 대부분 나라에서 담배는 편의점 계산대 쪽에 위치한다”며 “담배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상품이라 계산대 근처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직접 대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r/> <br/>◆흡연 경고그림 가리기 꼼수 써도 처벌은 안돼  <br/> <br/>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자는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가려지도록 담배를 진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편의점을 비롯한 소매점에서 경고그림이 안 보이게끔 거꾸로 진열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br/> <br/>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다. <br/> <br/>이에 몇몇 소매점에서는 담배 진열대 위 조명의 위치를 바꾸거나 꺼놓는 한편 담뱃갑을 비닐로 포장하거나 가격 표시 스티커를 붙여 가리는 등 법망을 피하려는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br/> <br/>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건복지부는 이런 불법행위를 처벌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월 이 같은 속임수를 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br/> <br/>◆흡연자 "경고그림 덜한 것으로 사서 핀다" vs 비흡연자 "경고그림 더 강화해야" <br/> <br/>경고그림의 효용성을 두고서는 흡연 여부에 따라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br/>  <br/>최근 온라인 조사업체 피앰아이는 설문 플랫폼 '틸리언'을 통해 전국의 14~69세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담뱃갑 경고그림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흡연자 2900명 중 17.5%가 ‘담배를 끊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br/> <br/>흡연자의 46%는 ‘담배를 끊지는 못해도 흡연량이 줄어들 것 같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의 금연 의지가 가장 센 것으로 집계됐다. <br/> <br/>지난해 12월23일부터 출고되는 담배에 흡연 경고그림이 표기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81.3%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흡연자의 인지율이 88.7%로 나타나 비흡연자(78.3%)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고그림의 크기에 대해서는 흡연자의 39.3%는 ‘조금 줄여야 한다’고 답해 비흡연자(9.5%)와 4배 넘는 인식 차가 드러났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각각 35.4%와 63.6%로 집계됐다. <br/> <br/>흡연 여부에 따라 경고그림에 따른 금연효과 기대도 차이를 보였다. 비흡연자의 39.3%가 ‘기존 흡연자들과 처음 담배를 피우는 이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한 데 비해 흡연자의 39.5%는 ‘기존 흡연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처음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br/> <br/> 흡연 경고그림에도 담배를 끊기는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흡연자는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구매를 망설이게 된다"면서도 "늘 피던 담배라 안 피울 순 없어 경고그림이 약한 것 위주로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br/> <br/>이에 맞서 한 비흡연자는 "길거리를 지나다가 앞사람이 피는 담배의 연기에 따른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더 강력한 경고그림을 넣는 등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r/> <br/>◆흡연자들 설 자리 갈수록 좁아져 <br/> <br/>비흡연자의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정부의 금연정책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훨씬 더 좁아지는 일은 불가피하다. <br/> <br/>복지부는 TV를 통해 흡연에 따른 설암(혀에 생기는 암) 피해자의 '증언형 광고'(K-Tips)를 송출한 바 있다.  <br/> <br/>연말부터 실내 금연구역을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 점포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실내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은 그간 흡연이 허용되던 이들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br/> <br/> 담뱃갑 상단에 부착된 흡연 경고사진. 간접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이 사진은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어 흡연자들이 이를 부착한 담배를 즐겨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구장의 금연시설 지정은 앞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논의된 적 있었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br/> <br/>그러나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는 당구장협회와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등 관련 단체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br/> <br/>정부는 아울러 학교 주변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원천 금지하고, 집 안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br/> <br/>◆정부, 담뱃갑 디자인까지 간섭? <br/> <br/>정부는 학교 주변 50ｍ를 '학교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소매점의 포스터나 계산대 근처의 소형 광고판 등에서 담배를 홍보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br/> <br/>복지부는 소매점 광고 등이 청소년들이 새로 흡연자가 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한다. '톡'하고 터뜨리면 담배에 향을 더하는 캡슐 등이 마치 사탕처럼 청량감을 주는 것으로 묘사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담배 광고를 적게 접할수록 청소년이 흡연자가 될 위험이 작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br/> <br/>이밖에도 정부는 전자담배 등 담배와 유사한 제품을 규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br/> <br/>담뱃갑의 디자인을 정부가 지정해주는 '무광고 포장'(플레인 패키지·민무늬 포장) 등 금연정책 선진국 사례의 도입을 두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김현주·안승진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90.txt

제목: [이슈탐색] '5.9대선' 흙수저 계층이동 사다리는 튼튼해질까  
날짜: 20170408  
기자: 이천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08110437001  
ID: 01100701.20170408110437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5.9 대선을 계기로 소득 양극화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표심에 기대야하는 대선 후보는 물론 정부도 양극화 문제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흙수저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br/> <br/>대선 후보들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br/> <br/>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약속하고 있다.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해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br/> <br/>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span class='quot2'>온갖 격차를 줄이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span>”고 출사표를 던졌다. 빈부 격차와 남녀 격차, 세대간의 격차, 지역간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등 온갖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br/> <br/>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누리 과정과 양육수당 등 0~5세 무상 보육 지원을 가정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20% 이하 가정은 현재 누리 과정 지원액의 2배를 주고, 하위 20~40% 계층은 1.5배를 주겠다는 것이다. <br/> <br/>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span class='quot0'>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직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동개혁을 하겠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해 그만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도록 하겠다</span>”고 밝혔다. <br/> <br/>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span class='quot1'>서민등골 뺀 담뱃세를 국민건강으로 되돌려 드리겠다</span>”고 밝혔다. 담배세 인상으로 증가된 세수로 각종 암 치료비용 100% 국가책임제, 어린이병원비 100%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br/> <br/>국회도 소득 불평등 개선책 마련에 관심이 많다. 국회 기재위가 발주해 지난해 말 발표된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사회복지 지출이 취약한 만큼 세제개편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br/> <br/>정부도 양극화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br/> <br/>기획재정부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양극화와 사회 이동성 악화를 줄이려 법률과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장학금제도를 저소득층 집중 지원으로 전환하고, 고용·채용 우대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튼튼하게 보강한다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 이동성을 수치화하는 종합지표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공표해 정책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아동수당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br/> <br/>앞서 기재부 예산실도 내년 예산 재원 배분의 4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양극화 완화를 빼들었다.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양극화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5.9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양극화 완화 문제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차기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br/> <br/>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91.txt

제목: 냉혹한 리더? 스티브 잡스 “인간미 넘쳤다”  
날짜: 20170407  
기자: 권구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07211912001  
ID: 01100701.20170407211912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2011년 세상을 떠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에게는 두 가지 평가가 따라다닌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을 개발하며 세계 IT(정보기술)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지만, 그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인식의 배경에는 잡스가 세상을 떠난 뒤 월터 아이작슨이 쓴 자서전 ‘스티브 잡스’가 있다. 자서전에 묘사된 잡스는 괴팍하고 신경질적이며, 성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다. 2015년에는 이 자서전을 바탕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졌다. <br/> <br/>이에 대해 잡스의 새로운 자서전을 표방하는 ‘비커밍 스티브 잡스’는 잡스가 팀워크를 중시하는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의 저자이자 전기작가인 브렌트 슐렌더는 잡스와 25년간 함께해왔다. 그는 잡스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자신이 경험한 잡스와는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br/> <br/> <br/> ‘비커밍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냉혹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세간의 평판에 대해 반박한다. 잡스와 25년간 함께한 저자는 잡스가 팀워크를 중시한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br/>세계일보 자료사진잡스와 슐렌더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1986년의 일이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였던 슐렌더는 주목받는 신예 사업가 잡스를 인터뷰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중미 분쟁지역 등 험지에서 취재한 경험이 있었던 슐렌더지만, 잡스 인터뷰는 인상적인 만남의 시작이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31살의 잡스는 소문대로 악명 높은 카리스마의 소유자였다. 슐렌더는 잡스가 가진 강렬한 자신감 때문에 그의 모든 말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터뷰에서 더 많은 질문을 던진 쪽은 잡스였다. 잡스는 슐렌더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했다. 훗날 슐렌더는 그것이 잡스가 자신이나 자신의 일에 관한 모든 글이 스스로 세워놓은 높은 기준에 부합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br/> <br/> <br/>책에는 잡스의 면면을 엿볼 수 있는 여러 일화가 등장한다. 그 중 ‘가든 오브 알라’ 일화는 잡스의 내면을 엿보게 한다. 1979년 12월의 어느 오후, 잡스는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콘퍼런스센터인 가든 오브 알라를 찾았다. 잡스가 찾은 곳은 종교적인 성향의 회합이었다. 잡스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참석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대화 주제는 재단의 향후 계획에 관한 것들이었다. 잡스는 때때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지만, 사람들은 나이 어린 잡스를 성가신 존재 정도로 생각했다. 참다 못한 잡스는 벌떡 일어서서 “<span class='quot0'>지금 이곳의 여러분은 마케팅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span>”라고 말했다. 이윽고 잡스는 쫓겨나는 처지가 됐다. 잡스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장에서 흐느껴 우는 채로 발견됐다. 다른 참석자들은 그런 잡스에게 다시 들어가자고 권유했지만, 잡스는 “내가 막무가내로 군 것 같아요. 들어가서 사과하고, 그런 다음에 갈게요”라고 말했다. 이렇듯 가든 오브 알라의 회합을 망친 잡스는 모순덩어리였다. 고집스럽고 비타협적이지만 배우는 것에 열성을 다했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면서도 돌아와 사과했다. 그의 경솔하면서도 추한 행동이 훗날 잡스 신화의 견고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br/> <br/>생전의 잡스는 ‘비밀주의’를 고수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법이 없었다. 이는 사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잡스의 가족과 동료들은 잡스의 진면목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그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비커밍 스티브 잡스’ 집필 작업에 참여하면서다. 책은 아이작슨의 책을 비판한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암과 투병하는 잡스에게 자신이 간 기증을 제안하자 잡스가 화를 내며 거절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아이작슨의 책은 스티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것 같다. 그의 인품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책”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2015년 출간된 이 책은 쿡을 비롯해 동료들로부터 ‘잡스를 가장 잘 묘사한 자서전’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번역은 2011년 아이작슨의 자서전을 번역한 안진환씨가 다시 맡았다. <br/> <br/>권구성 기자 ks@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92.txt

제목: [이슈탐색] 주민 25% 암… “익산 장점마을 역학조사해야”  
날짜: 20170406  
기자: 김동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06190819001  
ID: 01100701.20170406190819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집단 암 발병으로 공포에 휩싸인 전북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 마을은 지난 10여년 간 주민 4분의 1가량이 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br/> <br/>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와 익산시는 6일 마을에 자리한 유기질 비료공장과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br/> <br/>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가운데)이 지난 4일 익산시청에서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 암발병에 대한 원인규명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br/>주민 제공환경보건법에 따르면 환경유해 인자로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환경부 장관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환경부 장관은 이를 검토하고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권 조사를 벌인다. <br/> <br/>대책위는 암 발병 주민들의 진단 확인서 등 증빙자료 확보와 주민 서명 절차에 돌입했다. 환경부가 이번 청원을 수용하면 환경기초 조사와 정밀역학 조사 등이 이뤄져 암 발병과 비료공장 가동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 <br/> <br/>주민들이 암 발생의 진원지로 꼽는 비료공장은 마을에서 500m가량 떨어져 있다. 2001년 처음 가동했으며 연초박(담배찌꺼기)과 사료찌꺼기, 주정박(술 제조후 남은 곡물찌꺼기), 피마자박 등 원료를 혼합해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연초박은 니켈과 벤젠, 비소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피마자박에는 맹독성 성분인 리신이 함유돼 있다. <br/> <br/>주민들에 따르면 장점마을 암 환자는 2004년부터 발생해 2007년 첫 사망자가 나왔다. 당시만 해도 우연으로 여겼으나 1∼2년 사이 2명꼴로 암이 발병해 2015년 1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2명까지 불어났다. 2012년에는 7명이 한꺼번에 발생했다. 이 중 모두 12명이 숨졌고, 현재 10명이 암과 사투 중이다. 그 종류도 폐암과 간암, 위암, 췌장암, 담낭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으로 다양하고 30대와 40대 등 나이를 가리지 않고 있다. <br/> <br/>100여명이던 주민은 80여명으로 줄었고, 두려움에 호적만 두고 외지에서 생활하는 주민도 부쩍 늘었다. 현재 이 마을 주민등록상 인구는 108명이다. <br/> <br/>앞서 익산시와 전북도는 지난 2월부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두 차례 환경기초조사를 벌였으나, 암과 관련된 뚜렷한 환경유해 인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마을 가구 수질 중 무기물질(질산성질소)과 공장 대기배출 일부항목(니켈) 이 외에 대부분 기준치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br/> <br/>다만 익산시는 5차례에 걸친 긴급점검으로 해당 공장의 대기배출 혼합시설 미신고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을 확인하고 고발과 조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렸다. <br/> <br/>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span class='quot0'>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민들의 암 발병 원인을 찾아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정부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 추가적인 암 발생을 막아 달라</span>”고 말했다. <br/> <br/>익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93.txt

제목: 올해 금연문화 정착 공로자 누구? 금연대상 후보자 추천 5월15일까지  
날짜: 20170406  
기자: 정진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06113853001  
ID: 01100701.20170406113853001  
카테고리: 지역>경기  
본문: 국립암센터는 5월15까지 ‘제7회 국립암센터 금연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6일 밝혔다. <br/> <br/>금연대상은 △기업부문 △학교부문 △시민사회단체부문 △개인부문 등 총 4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정한다. 수상자는 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6월 ‘국립암센터 개원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국립 암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흡연 예방 및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노력하는 공로자를 찾아 포상해왔다. <br/> <br/>흡연 예방과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에서 금연대상 추천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접수기간에 우편(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번지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지원팀)이나 이메일(nosmokeaward@ncc.re.kr)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br/> <br/>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94.txt

제목: 울산대병원 부속병원 전환…교육 기능·인재 양성 강화  
날짜: 20170406  
기자: 이보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06031001004  
ID: 01100701.2017040603100100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울산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이 울산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전환됐다. 울산대병원은 전국에서 12번째로 대학 부속병원이 됐다. <br/> <br/>울산대병원은 최근 교육부의 부속병원 전환 인가를 받아 전환 기념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br/> <br/>기념식에 앞서 울산대병원은 ‘부속병원 전환 의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울산대병원이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했다. <br/> <br/>부속병원으로 전환되면서 교육기관 기능이 강화한다. 의과대학의 전공(수련)의 실습 등 교육 기능을 하게 됐다. 겸임교수 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수 의료인력을 더 많이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 관리·감독처도 교육부로 바뀌었다. 회계는 대학에 포함되며 의사를 포함한 직원들은 사학연금 지원 대상으로 전환된다.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기대된다. 이전까지 울산대병원은 울산대나 의대와는 무관한 별도 의료법인으로 협력병원에 불과했다. 순수 진료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가 했다. <br/> <br/>현재 울산대병원은 32개 진료과, 961병상을 갖추고 있다. 의료인력은 의사 351명을 포함해 모두 2000여명이다. 내과 등 일반 진료과목 외에 응급, 암, 외상, 소아 등 4개 특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병상 가동률은 92.4%에 달한다. <br/> <br/>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95.txt

제목: 대구 대학병원 2곳 인공지능 활용해 암 치료한다  
날짜: 20170405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05030158001  
ID: 01100701.2017040503015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구권 대학병원이 미국 IBM이 개발한 최첨단 인공지능(AI)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이하 왓슨)를 잇따라 도입한다. <br/> <br/>계명대 동산병원은 최근 IBM과 계약을 체결해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암 환자 진료에 왓슨을 활용한다고 2일 밝혔다. <br/> <br/>의사가 왓슨 프로그램에 접속해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왓슨이 학습한 방대한 의료서적, 논문, 진료기록 등을 분석·추론해 암 환자별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 제안한다. <br/> <br/>그 뒤 다양한 분야 암 전문의가 모인 다학제팀에서 이를 검토해 암 환자 치료와 관련한 결정에 참고한다. <br/> <br/>병원 측은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9개 암을 비롯해 다학제팀 진료가 가능한 분야에 왓슨을 활용할 예정이다. <br/> <br/>동산병원 암연구소장인 박건욱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왓슨은 매일 쏟아지는 최신 의학 자료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명확한 근거로만 판단을 내리므로 왓슨 도움으로 최적의 치료방법을 찾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환자가 더 나은 치료법을 찾아 병원을 전전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span>”고 말했다. <br/> <br/>대구가톨릭대병원도 IBM과 계약해 이달 중으로 왓슨을 도입한다. <br/> <br/>이 병원은 우선 6개 암 치료 분야에 왓슨을 활용하고 점차 이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br/> <br/>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96.txt

제목: 美의학연구팀, "아스피린 장기복용하면 암 사망 위험 낮아져"  
날짜: 20170404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04140234002  
ID: 01100701.2017040414023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아스피린을 오랫동안 꾸준히 복용하면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낮아진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임상-중개역학 연구실의 차오인 박사 연구팀이 간호사 건강연구에 참가한 여성 8만 6206명과 의료전문요원 건강 후속연구에 참여한 남성 4만 3977명 등 남녀 13만여 명을 대상으로 32년 동안 진행된 조사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CNN 뉴스와 헬스데이 뉴스가 3일 보도했다. <br/> <br/>조사 기간에 여성은 8271명, 남성은 4591명이 각종 암으로 사망했다. 전체적으로 아스피린을 꾸준히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남성은 11%, 여성은 7%,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남성이 15%, 여성은 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차오 박사는 밝혔다. <br/> <br/>암 종류별로는 대장암 사망률이 아스피린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여성은 31%, 남성은 30% 낮아 아스피린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아스피린 그룹은 또 대조군에 비해 유방암 사망률이 11%, 전립선암 사망률은 23%, 폐암 사망률은 14%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br/> <br/>차오 박사는 그러나 이 결과만 보고 마음대로 아스피린 복용을 시작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아스피린은 위 출혈, 출혈성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만큼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현재 미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STF)는 향후 10년 안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50~69세 연령층에 대해 심혈관 질환과 대장암 예방을 위해 저용량(81mg) 아스피린 복용을 권고하고 있다. <br/> <br/>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97.txt

제목: “평생 행복위해 3대 자산 잘 지키세요”  
날짜: 20170404  
기자: 김라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04030632001  
ID: 01100701.20170404030632001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평생 행복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자산은 무엇일까. 바로 건강·노후·가족 자산이다. 삼성생명은 이달부터 3대 자산의 고른 준비에 대한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3대 자산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br/> <br/>구체적으로 ‘건강자산’은 암 등 중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 ‘노후자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 ‘가족자산’은 가장의 부재에 대비한 자산이다. <br/> <br/>3대 자산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도 이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삼성생명은 3대 자산 컨설팅 시스템을 제공해 연령이나 결혼, 자녀 유무 등 여러 상황에 맞게 3대 자산을 갖출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br/> <br/>삼성생명은 현재 고객의 자산을 세 가지로 분류해 현재의 준비현황을 점수화해 고객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각 자산별로 고객이 원하는 수준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지를 분석한 후 보완할 수 있는 상품을 ‘고객 맞춤형 컨설팅 방식’으로 제안하고 있다. <br/> <br/>삼성생명은 ‘3대 자산 바로알기 캠페인’ 확산을 위해 경품 이벤트, TV광고, 웹툰 홍보 등도 진행한다. 삼성생명 컨설턴트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컨설팅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여행상품권, 테마파크이용권 등을 제공한다. <br/> <br/>김라윤 기자 ry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98.txt

제목: 남양주시, 홀몸노인 실시간 관리나서  
날짜: 20170404  
기자: 송동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04030526002  
ID: 01100701.20170404030526002  
카테고리: 사회>장애인  
본문: 경기도 남양주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접목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br/> <br/>이를 위해 시는 홀몸노인 실시간 관리 사업을 비롯해 올해 우선 추진할 10대 과제를 선정,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br/> <br/>A씨의 어머니와 같은 홀몸노인이 남양주 시내에만 1만6000명에 달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홀몸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부득이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게 안심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시내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구역에도 센서가 설치된다. 장애인 차량 번호를 인식, 대상 차량이 아니면 경고 방송을 하고 단속 공무원에게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비장애인의 얌체 주차로 장애인들이 멀리 주차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br/> <br/>또 승객 수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이 조정되고 사고·재난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택시 500대의 블랙박스 영상과 연계, 즉각 도로 전광판 등에 상황이 전파된다. <br/> <br/>보건·복지 분야에도 ICT 기술이 적용된다. <br/> <br/>시는 암·치매·결핵 등 주요 질환의 발생 현황을 연령·지역별로 분석해 건강 지도를 작성, 시민에게 필요한 건강 지표를 개발하고 중증 질환을 관리한다. <br/> <br/>남양주 보건복지 원스톱 시스템인 '희망케어센터'의 10년간 실적을 빅데이터로 분석,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된다. <br/> <br/>이밖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전기료 등 공동주택관리 비리 예방, 농업 생산성 증대, 상·하수도관 관리, 스마트 행정 등에도 ICT 기술이 도입된다. <br/> <br/>남양주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남양주 4.0' 비전 선포식을 연다. <br/> <br/>이석우 남양주시장은 "<span class='quot0'>남양주 4.0은 세계 최고의 행복도시를 지향하는 남양주시만의 차별화된 행정 플랫폼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 사상과 실사구시 정신을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시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남양주=송동근 기자 sd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2-399.txt

제목: 영국의 전설적 뮤지션들, 롤스로이스 9대로 다시 태어나  
날짜: 20170403  
기자: 조현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03142022001  
ID: 01100701.20170403142022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롤스로이스모터카가 전설적인 영국 뮤지션들을 기리기 위한 ‘레이스 인스파이어드 바이 브리티시 뮤직’(Inspired by British Music?사진) 에디션 시리즈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스포크 에디션 시리즈는 총 9대가 생산될 예정이며 롤스로이스는 이 중 4대를 런던 샌더슨 호텔(Sanderson Hotel)에서 공개했다.  <br/> <br/> .레이스 브리티시 뮤직 에디션은 영국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그들의 음악적 업적을 표현한 모델이다. 먼저 공개된 4대는 하드 록의 선구자로 칭송 받는 밴드 ‘더 후(The Who)’의 리드보컬 로저 달트리, 비틀즈와 함께 영국 팝 인기를 견인했던 그룹 ‘킹크스(Kinks)’ 소속 레이 데이비스 경과 작곡가 자일스 마틴이 디자인했다.  <br/> <br/>특히 로저 달트리는 총 2대의 레이스 제작에 함께 했고, 이 중 특별한 한 대는 더 후의 1969년 명반 ‘Tommy’의 앨범 커버를 그대로 보닛 위에 재현했다. 레이 데이비스 경은 명곡 ‘샹그릴라(Shangri-la)’를 비롯해 ‘Drivin’, ‘Sunny Afternoon’의 자필 가사를 도어 플레이트와 우산에, 뒷좌석에는 킹크스를 상징하는 로고를 각각 새겼다. <br/> <br/>또한 자일스 마틴은 비틀즈의 다섯 번째 멤버로 불린 그의 아버지, 프로듀서 고 조지 마틴 경(Sir George Martin)을 기리기 위한 모델을 제작했다. 이 모델은 뒷좌석 중앙부에 그가 프로듀싱한 수 많은 곡 중 차트 1위를 차지했던 30곡의 제목을 새겨 놓았다.  <br/> <br/>레이스 브리티시 뮤직 에디션은 올해 말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으로, 각 차량의 판매 수익 중 일부는 10대 암 환자를 위한 자선단체인 ‘틴에이지 캔서 트러스트’(Teenage Cancer Trust) 등 각 뮤지션들이 선택한 자선 단체에 기부된다.  <br/> <br/>한편 지난달 29일 진행된 차량 공개 행사에는 더 후의 로저 달트리(Roger Daltrey), 킹크스 레이 데이비스 경(Sir Ray Davies)과 자일스 마틴(Giles Martin), 스테이터스 쿠오(Status Qu)의 프란시스 로시(Francis Rossi,), 핑크 플로이드(Pink Floy)의 닉 메이슨(Nick Mason)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r/> <br/>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